

거부 당하지 않은 그대



안토니 파란킬마릴 신부(VC:빈센티안 수도회)

인사말씀

먼저 이 책을 쓰도록 기회를 주시고 은총을 베풀어주신 아빠 아버지, 스승이신 예수님, 거룩하신 성령, 곧 한분이신 하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 책을 읽게 될 모든 이들을 위해 성심을 다해 기도합니다. 이 책이 만들어지기까지 도움을 주신 많은 분들에게 크나큰 빛을 졌습니다. 저의 이야기를 수집하고 기록해준 줄리엣 물린드와와 정성을 다해 검독해준 마가렛 카루가, 성경과 신학을 편집해준 동정녀 음바우니, 편집을 도와주고 아름다운 감사의 글을 써준 파멜라 만델라 이데냐 박사님, 다섯 번이나 넘게 오타를 지적해준 잭클린 박사님, 서약과 기도문의 디자인을 위해 많은 시간을 쏟아준 마리안, 무료로 표지를 디자인해준 에디티드 익스프레션의 마틴 세렘, 제가 가장 사랑하는 영적 아들이자 마지막 검사와 편집까지 함께 해준 예수회 찰스 칠루피아 수사님, 이 책의 인쇄출판허가를 내어주고 승인을 추천해준 칼리스트 신부님, 그리고 승인을 내려주신 데이비드 카마우 주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 책의 추천의 글을 써준 동아프리카 빈센티안 공동체 거룩한 성심 지부 지역 장상, 비주 발리파람빌 신부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 책의 출판을 허락해주신 빈센티안 수도회 총장 바르기스 파람푸람 신부님과 우리 지역 장상 폴 푸투바 신부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사목을 협력하면서 모든 것에 있어 친절을 베풀어주신 빈센티안 기도의 집 책임자 라파엘 카탈라투카란 신부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제 동료 조니 수사님을 기억합니다. 조니 신부님은 이 책을 집필하는데 있어 아이디어와 내용, 그리고 경험에서 가장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이 작은 노력이 꽃피우기까지 도움주신 모든 분들을 기도 안에서 기억합니다.

이 책을

이 세상을 살았던 누구보다도 신심 깊으셨던

지극히 복되신 동정녀 성모님께

제가 지극히 사랑하는 수사님과 신부님들

특히 저의 어린 시절부터 오늘날까지 저를 사랑하고 돌보아주며 영감을 불어 넣어주신

조니 수사님

기도와 회개, 그리고 거룩함의 모범이 되어주신

조지 파란키마릴 신부님

호의와 보살핌으로 저의 친형제가 되어주셨으며, 제가 이제껏 만났던 이들 중 가장 실천적인 사람이었던 피터 파란키마릴 신부님
저를 그리스도의 사제로 만들어주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
빈센티안 수도공동체와 회원들

이 모든 분들을 위해 봉헌합니다.

추천의 글

하느님께서 저를 버리셨어요! 아마도 지구상의 누구나 예외 없이 하느님 또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음의 감정을 느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버림받음은 고통스러운 경험이며, 더욱이 신심 깊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하느님께 버림받았다는 감정은 치명적이고도 무섭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누구라도 버리실 수 있으신 분이실까요? 우리는 이에 대한 답을 이사야서 49장 15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여인이 제 젖먹이를 잊을 수 있느냐? 제 몸에서 난 아기를 가없이 여기지 않을 수 있느냐? 설령 여인들은 잊는다 하더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 하느님께서 우리가 선행자가 아니라 우리가 당신의 자녀들이기에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느님께서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시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하느님의 사랑이 무조건적이라는 사실과 그 사랑으로 우리를 새로 태어나게 하시며 우리의 잘못과 버림받음의 감정을 씻어내 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인다면 거룩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다는 감정을 일으키는 어떤 이유라도 사라질 것입니다. 버림받음의 감정이 사라지고 그 자리를 가득 채운 것은 우리 각자를 향한 하느님의 이해할 수 없는 사랑에 대한 경험입니다. 하느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결코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겠다.”(히브 13,5) 따라서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는 분이시니 나는 두려워하지 않으리라. 사람이 나에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히브 13,6)

한 사람의 사제로서 신자들의 말을 경청하다보면, 참 많은 사람들이 버림받음이라는 고통스러운 상처를 간직한 채 살아가고 있음을 느낍니다. 이들은 사랑하는 이들로부터 그리고 심지어 하느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고 느낍니다. “너무 실망스러워요.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겠습니다. 누구도 있는 그대로의 저를 이해해주지도 사랑해주지도 않아요.” 버림받음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고

통스러운 경험들 중 하나이며, 이는 많은 다른 부정적인 감정들의 뿌리입니다. 우리는 버림받음과 삶에서 겪게 되는 다른 여러 부정적인 경험들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까요? 안토니 파란키말릴 신부님이 쓴, 『그대는 버림받지 않았습시다』라는 이 책은 치유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절대로 버리실 수 없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증명합니다. 주님께서서는 조건 없이 용서하시는 사랑으로 우리의 공허한 마음을 가득 채우시고 우리 안에 있는 버림받음의 감정을 녹여버릴 수 있으십니다.

안토니 신부님 노력은 아주 시기적절 합니다. 이 책은 하느님의 사랑에 대한 체험을 가로막는 수많은 우여곡절로 인해 삶이 뒤흔들리는 이들에게 커다란 희망을 안겨줍니다. 『버림받지 않은 그대』는 하나의 부르심입니다. 죄를 멀리하고 그리스도를 더욱 가까이에서 따르라는, 하느님께서 주신 십계명이라는 산을 주의 깊게 오르며 천국에 도달하라는, 사랑의 황금률을 따르고 원수를 용서하라는, 그리고 교회 안에서 성사적 삶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기도의 힘을 직접 체험하라는 도전을 받아들이라는 부르심 말입니다.

안토니 신부님은 기도하는 사람이고 소박하며 자신의 직무에 투신하는 사람입니다. 이 책은 안토니 신부님이 하느님과 가져온 개인적이고 신앙적인 만남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책은 안토니 신부님이 한 사람의 사제로서 자신이 섬기는 신자들로 하여금 하느님과 이웃, 그리고 자기 자신과 화해하도록 도와주는 사목에 영향을 주는 하느님과의 만남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에 대해 조명합니다. 큰 도시 나이로비에 위치한 기도 센터, 빈센티안 기도의 집 책임자로서 안토니 신부님은 자신이 섬기는 신자들의 고통에 아주 가까이 다가가려 노력해왔습니다. 그렇기에 이 책은 인간 경험과의 직접적인 만남의 열매입니다. 안토니 신부님은 다양한 배경과 지위를 가진 사람들과 대화 나눌 기회를 가져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안토니 신부님이 치유와 사랑을 찾는 하느님의 사람들의 종으로서 자신의 생생한 경험을 담은 이 놀라운 노력을 이루어 낸 이유입니다.

『버림받지 않은 그대』는 우리의 영적 생활을 위한 커다란 자산입니다. 이 책에 담겨 있는 안토니 신부님의 개인적이고 사목적인 경험들과 신앙적인 사고들은 분명 우리 모두에게, 특히 버림받음을 느끼고 있는 이들에게 하느님의 그치지 않는 사랑을 전달해주는 크나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책을 읽으면서 하느님의 조건 없는 사랑과 상처받은 정신과 마음의 온전한 치유를 경험하며 하느님 안에서 위안을 발견하길 희망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느님께서 부르신 바로 그 자리에 있습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여러분을 이끄시는

데 결코 실수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가혹한 환경에서조차도 하느님께서서는 우리와 이웃들뿐만 아니라 당신의 왕국 전체를 위해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자 애쓰십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우리를 통계내시거나 측량하지 않으십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하느님께서서는 당신께 순명하고 당신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삶의 결과가 궁극적인 회복과 치유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보호하고 강하게 해주는 것은 하느님의 현존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이 책이 선사하는 여행에 승선하는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저의 진심어린 조언이 있습니다. 결코 이 책을 그 자리에서 냉수 들이기듯 읽지 마십시오. 시간을 가지고 읽되 이 책에 나오는 여러 고찰들의 빛에 여러분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십시오. 그러면 이 책을 통해, 여러분은 모든 순간 여러분을 보살피시는 하느님의 강력한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대는 혼자가 아닙니다,

하느님께서 그대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대는 무방비하지 않습니다,

하느님께서 그대의 보호자시기 때문입니다.

그대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하느님께서 그대를 충분히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대는 헛되지 않습니다,

하느님께서 그대 삶의 목적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대는 무가치하지 않습니다,

하느님께서 그대를 위해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대는 희망이 없지 않습니다,

하느님께서 그대를 위해 자리를 마련해두셨기 때문입니다.

그대는 사랑받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느님께서 영원한 사랑으로 그대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대는 버림받지 않았습니다,

하느님께서 그대를 당신의 것으로 부르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비주 발리파람빌,

동아프리카 빈센티안 공동체 거룩한 성심 지부 지역 장상

목차

머리말

감사의 글

들어가는 말

1장: 버림받은 돌

2장: 죄-가장 힘겨운 문제

3장: 용서-원수를 사랑하여라

4장: 고해성사-천국으로 향하는 문

5장: 고통스런 과거 기억의 치유

6장: 올바른 배우자를 만나 함께 살아가기

7장: 재정적 문제

8장: 순결은 자기희생의 덕입니다

9장: 기도의 힘

10장: 어머니 마리아

감사의 글

우리는 매일의 삶 안에서 고통, 고난, 시련과 마주합니다. 많은 시간 우리는 낙담하고 절망에 빠지지요. 이러한 시간, 우리는 자기 자신과 이웃,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부정적인 감정과 태도를 키우게 됩니다. 자신이 혼자라고 생각하고 누구도 관심을 기울여주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 누구도 자신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고 확신하고는 자신이 버림받았다고 결론짓습니다. 한번이라도 버림받은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도 여러분이 사랑했거나 존경했고 우러러보았던 누군가로부터 버림받았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힘든 시기를 견고 있고 누군가를 가장 필요로 했던 순간에 가족과 친구들로부터 버림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보통 자신이 힘든 시간을 견고 있는 순간에 가장 진실 된 친구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지요. 버림받고 소외당해서 직장을 찾지 못하고 승진에서 제외되며 이미 약속이 되어있던 보너스를 받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실수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았을 수도 있지요. 심지어 그 어떤 잘못을 하지 않았음에도 버림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부족이나 인종으로 인해서 버림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결함이나 장애로 인해 버림받았을 수도 있지요.

여러분은 버림받음을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버림받음에 어떠한 대응을 하고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버림받았을 때 어떠한 과정을 거치십니까? 우리는 소외당하거나 버림받았다는 감정을 느끼게 되면 비탄 게임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러한 비탄 게임은 우리 자신의 비참함을 증가시키고 삶이 더 나빠지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데에 봉사할 뿐입니다. 우리는 삶의 모든 곳-건강, 가정, 직장, 돈, 사회-에서 문제들을 마주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아무런 가치도 없는 삶의 악순환에 빠지게 되지요. 우리는 곧 해방을 요구하는 속박(혹은 구속)의 상태에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만일 삶을 다시 시작하게 된다면 이러한 삶의 잔인함과 가혹함을 반드시 피해야만 한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우리는 해결책을 찾지만 그러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인간적인 해결책들을 구해보지만 더 많은 문제들을 떠안게 됩니다. 우리는 도움을 요청하지만 그러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때에도 이는 그저 일시적인 해결책일 뿐, 문제들은 되돌아옵니다. 대부분의 경우 문제들은 요청하기 전보다 더욱 악화되어 있지요. 때로 우리는 어디에 도움을 요청해야 할지 몰라서 그저 자신 안에 내버려둡니다. 시간이 갈수록 문제들은 우리 안의 깊숙한 곳에 자리를 잡고는 분출할 기회를 기다리며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가끔 우리는 우리

자신이 문제(내면의 상처)를 가지고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신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다른 누군가-친구, 친지, 직장 동료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 우리는 이제 모든 것이 끝나버렸다고 결론짓습니다. 부정적인 감정을 그대로 둔 채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하며 삶을 이어나갑니다. 불행하게도, 적절한 때에 어떤 것 혹은 누군가가 이 숨겨진 내면의 감정을 건드리게 된다면, 슬프게도 비극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실제로 일어나게 되면 우리는 극심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다음과 같이 말하게 됩니다. “하느님조차 나를 버리셨어!”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로 하느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하느님을 버린 것이 아닐까요? 금전적인 문제가 생기게 되면 우리는 재빨리 은행이나 대출해줄 사람을 찾아갑니다. 건강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우리는 ‘전문적인 견해’를 얻기 위해 의사들을 찾아다니지요. 주술사나 무당도 이에 해당합니다. 자녀들에게 문제가 생기면 교육기관이나 아동전문가를 찾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문제가 있을 때는 결코 성전을 찾아오지 않습니다! 버림받음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버림받지 않은 그대』는 위와 같은 환경에 처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이해시키고자 합니다. 이 비상한 책 속에서 안토니 신부님은 사목적 의무를 수행하면서 마주했던 사람들의 실제 이야기를 예로 사용합니다. 이 책에서는 상담 중에 자주 거론되던 질문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주제들이 다루어집니다. 독자는 하느님과 멀어짐으로부터 오는 육체적, 감정적, 영적 문제가 드러나는 환경들을 엿보게 될 것입니다. 하느님과 멀어짐에서 이웃들과의 멀어짐, 나아가 고통의 기본 이유로 정의되는 자기 자신과의 멀어짐이 오게 됩니다. 이 책의 여러 장들을 읽어나가면서 여러분들은 그것이 삶 안에서 어떠한 형태로 드러나는지에 대해서는 상관없이 고통이라는 것이 결코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고통은 우리 모두가 최초의 인간(아담과 하와)으로부터 상속받은 원죄(-유전결함)의 결과입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마주하는 문제들의 시작이 죄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이러한 죄스런 상태의 지속이 우리 스스로가 빠져있는 환경을 만들어냈다는 사실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죄의 고백이 해방을 향한 여행으로 돌아오는데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올바른 고해를 할 수 있는지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용서의 필요성(이웃에 대한, 자기 자신, 그리고 하느님에 대한 용서)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용서(하느님으로부터, 이웃과 나 자신으로부터 오는 용서!)와 함께 찾아오는 안식에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새로운 시

작을 이루어주는 회개의 가치를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구원을 받아 들이고 하느님의 무한한 사랑과 역동하는 삶의 진실 된 해방을 향한 여행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버림받지 않은 당신』은 우리 모두가 하느님께로 돌아와 그분의 무한하신 사랑과 자비를 경험하라고 부르는, 진실로 영감을 주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 안토니 신부님은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원죄를 정복할 능력을 가지고 하느님께 영원히 재결합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줍니다. 안토니 신부님은 성경(성령의 칼)을 통해 문제들의 다양한 상황을 설명하고 그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성경 안에서 우리는 죄의 완전한 제거가 가능하다는 약속을 발견합니다. 이는 그저 과거 우리의 죄가 미약했던 때뿐만이 아니라 그 어느 때보다 하느님의 은총을 모욕하는 지금 이 순간에도 해당되는 약속입니다. [버림받지 않은 그대』에 따르면 이 거룩한 기적은 결코 우리의 성취나 실수와 타락의 반복에 영향 받는 업적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안토니 신부님은 삶에 안정을 가져다주는 중추로서의 기도의 역할에 대해, 그리고 우리가 그토록 노력하는 고요함을 성취하기 위한 윤곽을 보여줍니다. 또한 안토니 신부님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일상의 삶에서 하느님 나라를 이루어 낼 수 있을지에 대한 힌트를 제공해줍니다. 무엇보다도 신부님은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 또한 지상에서 하느님 나라를 건설하려 했고 그로인해 고통 받았음을, 그것이 실제로는 하느님의 사랑가득한 선하심의 드러남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하는 다양한 위인들은 하느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감정 안에서 영적인 위대함으로 내던져졌던 것입니다.

『 버림받지 않은 그대』는 비록 가톨릭 교의를 따르고 있지만, 모든 공동체와 모든 범주의 사람들을 위해 쓰여 졌습니다. 이 책은 하느님의 말씀 곧 성경에 깊이 의지하고 있으며 그리스도교의 가치와 윤리를 따릅니다. 하지만 결코 남성과 여성, 부자와 가난한 자, 교육받은 이와 그렇지 못한 이, 흑인과 백인, 종교인과 비종교인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이 책은 우리 모두를 향해 이야기 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느님의 자녀라는 가족이 되도록 초대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책에서 찾은 치료법을 실행하는 가운데 새로이 발견한 해방을 경험하시길, 그리고 그 해방을 여러분의 이웃과 함께 나누시길 진실되이 희망합니다. 주 예수님 찬미받으소서!

파멜라 만델라 이데냐 박사(M.D, MMed(ENT), MPH

들어가는 말

하늘나라는 선한 이들이 아니라 거룩한 이들을 위한 곳입니다. 성인들과 천사들처럼 말입니다. 거룩해지지 않으면 우리는 하늘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부정한 것은 그 무엇도, 역겨운 짓과 거짓을 일삼는 자는 그 누구도 도성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오직 어린양의 생명의 책에 기록된 이들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묵시 21,27)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인들에게 보낸 서간의 저자는 “모든 사람과 평화롭게 지내고 거룩하게 살도록 힘쓰십시오. 거룩해지지 않고는 아무도 주님을 뵈지 못할 것입니다”(히브 12,14)라고 말하며 우리를 격려합니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는 다음과 같이 가르칩니다.

여러분을 부르신 분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사람이 되십시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1베드 1,15-16

어느 날, 강론을 마치고 연단 위에서 내려왔는데 어떤 여인이 저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감사드려요, 신부님. 오늘 강론이 너무 너무 좋았습니다. 엄청 감동받았어요. 제가 바라는 단 한 가지가 바로 제 남편이 이 곳에서 신부님의 오늘 강론을 듣는 것 이에요.” 여인은 말을 이어갔습니다. “신부님께서도 아시듯이, 오늘 강론하신 모든 것이 제 남편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저는 남편이 이곳에 있지 않았다는 사실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다음번에는 남편을 꼭 데리고 오겠어요. 제가 남편을 데려 왔을 때 오늘 하신 강론을 그대로 한번만 더 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저는 여인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오늘 강론에서 자매님의 남편분에 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니다. 대신 자매님이 좋은 아내가 되는 것에 대해 이야기 하려고 했을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귀 있는 사람은 성령께서 여러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묵시 2,11)라고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강론을 듣는 이가 강론 말씀을 가슴 깊이 받아들이고 이를 삶에서 실천한다면 강론은 매우 효과적일 것입니다. 인도의 케랄라에서 우리는 관에 놓여 있는 죽은 이를 매장하기 전에 연도를 바치는 풍습이 있습니다. 연도를 통해 우리는 죽을 운명에 처한 인간의 삶과 모든 인간을 향한 회개의 초대를 노래합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장례예식에 참가한 이들은 우리가 바치는 시편이 오직 죽은 이의 회개만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우리가 매순간 마주하는 문제입니다. 자동적으로 우리는 ‘이 강론은 내 조카, 내 삼촌, 내 장모님,

기타 등등을 위한 말씀이야'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지요. 바오로 사도는 말합니다.

“말씀하시는 분을 거부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땅에서 지시하시는 분을 거부할 때에 저들이 별을 피할 수 없었는데, 하물며 하늘에서 지시하시는 분께 등을 돌릴 때에야 우리는 더더욱 그 별을 피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히브 12,25

바오로 사도는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말씀하시는 이를 무시해선 안 된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나오는 도로시 존스의 작은 일화는 언제나 저에게 매혹적으로 다가옵니다.

하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임무는 더 나은 세상을 건설하는 것이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이 세상은 너무나 크고 거대한 곳입니다. 지금은 아주 복잡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저는 너무나 작고 쓸모없는 사람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단 말입니다!”

하지만 하느님께서서는 당신의 지혜로 말씀하셨습니다.

“너 자신이 더 나은 사람이 되면 되지 않느냐!”

저는 제 강론을 들었던 이들로부터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은 말을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제가 연단에서 매일 하게 되는 강론을 다시 반복하는 것은 저에게 너무나도 어려운 일입니다. 제가 하는 말씀들은 모두 성령의 영감에 의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대부분의 경우 강론대를 내려오면 저는 제가 했던 말들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신자분들에게 말을 하기위해 일어설 때마다 저의 목표는 오직 하나, 예수님을 그들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 신자분들을 주님께 조금 더 가까이 다가오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피정 동안에 저는 피정에 모여든 이들을 위해 많은 말을 하게 됩니다. 더욱 많은 이들이 피정에 참여해서 말씀을 듣고자 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참석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참석을 하게 된 이들은 대부분 저에게 와서 자신들이 이러저러한 것들이 하느님의 눈에 잘못이라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면, 두 번째 아내가 되는 것은 죄이지만 저는 아프

리카 문화에서 두 번째, 세 번째, 심지어 열한 번째 아내가 되는 일이 드물지 않은 일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은 이것이 하느님의 눈에 잘못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네 삶은 우리가 행하는 문화 예식과 전통에 너무나도 강력하게 지배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죄악을 행하고 있었다는 사실도 인지하지 못한 채로 여전히 그러한 것들을 행하며 성장해나갑니다.

이러한 이유로,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저는 제가 지도했던 피정과 여러 강연에서 제공했던 가르침 중 일부를 이 책에 담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저는 예수님을 더욱 깊이 알고자하는 더 많은 이들에게 닿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방법이 사람들에게 주님의 가르침을 더 가까이 전달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책을 읽는 여러분들 각자에게 개인적이고도 인격적으로 말씀하시길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이 결코 알아내지 못했던 삶의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답을 주시길 간청합니다.

이 책은 많은 자료와 가르침과 후원을 통해 쓰여 졌습니다. 앞서 언급 드리지 못한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 책의 가장 큰 목적은 아프리카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저지르게 되는 죄와 장애들을 인식하고 더욱 충만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도록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이 책은 제가 사목 현장에서 마주해온 다양한 삶의 실제 경험들을 그 바탕으로 합니다. 또한 저는 많은 성경 구절들을 인용합니다. 성경을 통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적이고도 실제적으로 말씀을 건네 오시기 때문입니다.

1장 버림받은 돌

우리를 향한 하느님의 계획

“나는 너희를 위하여 몸소 마련한 계획을 분명히 알고 있다. 주님의 말씀이다. 그것은 평화를 위한 계획이지 재앙을 위한 계획이 아니므로, 나는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고자 한다. 그러니 너희가 나를 부르며 다가와 나에게 기도하면 너희 기도를 들어 주겠다. 너희가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내가 너희를 만나 주겠다.”(예레 29,11-13)

“하느님은 사람이 아니시어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인간이 아니시어 생각을 바꾸지 않으신다. 그러니 말씀만 하시고 실천하지 않으실 리 있으랴? 이야기만 하시고 실행하지 않으실 리 있으랴?”(민수 23,19)

나의 어린 시절

저희 가족은 10남매입니다. 남매들 중에서 3명의 형제와 저는 가톨릭 사제입니다. 다른 네 명의 형제들과 두 명의 자매들은 결혼해서 자녀를 낳아 기르고 있습니다. 저는 10남매 중에서 아홉 번째로 태어났어요. 제 부모님은 저희를 낳아 기르느라 고생을 아주 많이 하셨습니다. 가난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희 가족은 참 어렵게 살았습니다.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저는 어린 아이가 가난으로 인해 받아야 하는 모든 아픔과 슬픔과 시련들을 겪었습니다. 저희 집은 성당 근처에 있었습니다. 이 성당은 복되신 동정녀 마리아께 봉헌된 곳이었고 저는 어린 시절의 대부분을 성당에서 보내게 되었습니다. 가장 사랑받으셔야 할 예수님의 사제가 된 저는 이제야 하느님의 말씀을 통해 하느님의 탁월하신 방법을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하느님을 사랑하는 이들, 그분의 계획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이들에게는 모든 것이 함께 작용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로마 8,28

저는 제가 겪었던 그 모든 아픔과 슬픔이 다른 가난한 이들을 위한 당신의 도구가 되라는 주님의 계획이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이것이 주님께서 특별히 가난한 이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 빈센티안 공동체로 저를 부르신 이유일 것입니다. 저는 신학생 시절 위기가 있었고 신학교

를 떠나기로 결심했으나 다시 돌아왔습니다. 제가 돌아왔을 때, 제 학장신부님은 저에게 왜 가서 다른 공동체에 입회하지 않았는지에 대해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는 학장님께 주님께서 저를 빈센티안 공동체로 부르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저에게 일어난 이 모든 일들이 우연이 아님을 믿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제가 현재 섬기고 있는 나이로비의 빈센티안 기도의 집은 무료피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이들이 무상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다양한 고난과 역경을 맞이하지만 이 모든 것 안에서 하느님께서서는 우리를 위한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충분히 인내한다면 하느님께서서는 당신의 놀라운 계획을 우리에게 드러내어 주실 것입니다(예레 29,11 참조).

우리 삶 속에서 드러내실 하느님의 계획과 목적은 그 누구-부모, 종교 지도자, 교사 등-에 의해서도 결코 좌절될 수 없습니다. 욥은 말합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당신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음을, 당신께는 어떠한 계획도 불가능하지 않음을!”(욥기 42,1-2). 때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계획을 따르고 우리 마음이 시키는 대로 행동하면서 하느님과 하느님의 계획을 패배시키려 합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많은 계획이 들어 있어도 이루어지는 것은 주님의 뜻 뿐이다”(잠언 19,21). 다시 말해서 우리가 수천가지 것들을 계획하고 꾸미더라도 결국에는 하느님의 계획이 이 모든 것에 우선 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무엇이 우리 앞에 올지라도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며 주님의 방식에 우리 삶의 주도권을 내어드려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한 채로 주님 안에서 굳건하게 서있어야 합니다.

**“때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계획을 따르고
우리 마음이 시키는 대로 행동하면서
하느님과 하느님의 계획을 패배시키려 합니다.”**

하루는 한 젊은 여성이 저에게 와서 자신이 사랑했던 남자친구가 자신을 차 버리고 다른 여자에게 가버렸다고 울면서 말했습니다. 저는 이 여성에게 말했습니다. “자매님이 왜 울어야 합니까? 자매님,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세요. 주님께서 자매님에게 전 남자친구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드러내 보여 주셨잖아요. 자매님은 지금 자신이 다시는 다른 남자친구를 얻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생각으로 주님의 계획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 여성은 저에게 말했습니다. “사실 신부님 말씀이 옳아요. 저는 전 남자친구 같은 사람을 다시

는 만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었어요.”

곤경 속에서도 우리는 인내하며 주님의 자비를 기다려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저버리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을 바라는 이에게, 당신을 찾는 영혼에게 주님은 좋으신 분-[애가 3,25]

주님께서는 마냥 버려두지 않으시네. 고통을 주셨다가도 당신의 크신 자애로 가없이 여기시네. 그분께서는 마음으로 사람들을 억누르지도 슬프게 하지도 않으시네.]

-애가 3,31-33

주님께서는 저의 송사를 받으시어 제 생명을 구해 주셨습니다.

-애가 3,58

말더듬이에서 성직자로

저는 어린 시절, 집 근처에 있는 학교에 다녔습니다. 학교의 이름은 성 마리아 초등학교였고 수녀님들이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부터 4학년까지만 있었죠. 저희 학교가 개교기념일 행사를 준비하고 있던 때였습니다. 보통 이러한 행사가 열리면 손님들과 부모님들이 초대되고 학생들은 장기 자랑을 준비하기 마련입니다. 교장 수녀님은 학생 한 명을 선발해서 기념연설을 맡기고자 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수녀님은 모든 학생들에게 큰 소리로 어떤 것이든 외쳐보라고 했습니다. 가장 좋은 목소리를 가진 학생을 뽑기 위해서였죠. 교실은 네 개였는데 큰 방 하나를 얇은 나무판자를 사용해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4학년 교실에 있었습니다. 모두가 소리를 내어 말하기 시작했고, 저 또한 이 행렬에 참여해 목에 핏대를 세우고 외쳤습니다. “오늘 초대되신 사랑하는 손님, 선생님, 부모님들! 우리는 성 마리아 학교의 개교기념일을 축하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목소리고 연설을 이어갔습니다. 그 동안 교장수녀님은 목소리를 듣기 위해 이곳저곳으로 옮겨 다니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교장수녀님이 저희 반으로 쏙살같이 달려왔습니다. 우리 모두는 침묵한 채로 교장수녀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모두가 교장

수녀님을 무서워했기 때문입니다. 수녀님은 저희 반 아이들을 바라보며 말을 더듬으면서 소리친 아이가 누구인지를 물었습니다. 교장수녀님은 제가 말을 더듬는 문제가 있는 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이 때문에 다른 반이 아닌 우리 반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반 학우들 중 몇 명이 저를 가리켰습니다. 교장수녀님이 저에게 소리쳤습니다. “이 버릇없는 녀석! 넌 말더듬이라서 우리 학교를 대표해 연설할 수 없어!” 수녀님은 이어서 소리쳤습니다. “넌 연설을 시작하면 중간에 멈춰버려서 학교 이름에 먹칠을 하게 될 거야!” 학우들은 저를 비웃었고 저는 얼굴을 붉힌 채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사건이 있는 후에 주님께서 저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며 저를 위로하셨습니다. “안토니야, 너는 이 학교가 아니라 나를 대표하는 사람이 될 것이란다.”

지금 이 순간 저는 예수님의 사제로서 많은 사람들 앞에 서서 강론과 연설을 하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사람들 앞에 서서 예수님에 대해 말한다는 것은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아주 큰 특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강론을 하고 연설을 할 때마다, 저는 결코 말을 더듬지 않습니다. 일상적인 말을 하면서 조금 말을 더듬을 때에도, 저는 그것을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 이후 제가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목소리를 높이게 될 것이라고 그 누가 생각할 수 있었겠습니까? 주님께서 말더듬이를 당신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으로 쓰실 수 있으시다면, 주님이야말로 진정 전능하신 하느님이십니다. 보십시오! 주님께서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나약함, 죄, 단점 등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우리가 당신께 다가오기를 원하십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쓸모없다 여기더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도구로 쓰실 것입니다.

집 짓는 이들이 내버린 돌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네. 이는 주님께서 이루신 일 우리 눈에 놀랍기만 하네.

-시편 118,22-23

진실로, 여러분이 주님을 받아들인다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세상 사람들이 당신의 업적에 경탄하게 되는 방식으로 여러분을 쓰실 것입니다.

저의 부모님은 제가 신학교에 들어가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이곳의 문

화에서 가장 어린 아들은 집에 남아 부모를 돌보는 것이 보통의 일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저의 가족 중 세 명의 형제가 사제가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막내 아들인 저에게 이 의무가 자동적으로 지워지는 것은 당연했습니다. 저 또한 부모님을 너무나도 사랑했고 부모님이 자식들을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지 잘 알았기에, 집에 머물며 부모님을 돌보아드리고 싶었습니다. 저에게 있어 저의 부모님은 세상에서 가장 멋진 부모님이었습니다. 저는 특히 제 아버지를 참 많이 사랑했습니다. 제가 어떤 실수를 하더라도 아버지는 저를 때리지 않았습니다. 제 어머니의 경우, 어떤 작은 실수라도 저지르게 되면, 그에 따른 벌을 내렸습니다. 물론 사랑과 훈육을 위해서였지만 어머니는 지금도 그때와 마찬가지로 저의 장난기에는 자비가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나약함, 죄, 단점 등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우리가 당신께 다가오기를 원하십니다.”

깨진 유리와 상처 난 마음

소신학교에 처음 입학 했을 때, 저는 누구든지 도움을 요청하면 그 어떤 것이라도 하겠다는 열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가 모든 것을 하길 원치 않으십니다. 그보다는 당신께서 요청하신 것을 우리가 행하길 바라시죠.

우리는 하느님의 작품입니다. 우리는 선행을 하도록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창조되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선행을 하며 살아가도록 그 선행을 미리 준비하셨습니다.

-에페 2,10

소신학교에서 저는 가장 친한 친구가 한 명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많이 챙기고 도왔습니다. 우리는 학업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또한 학교의 모든 일들, 요리, 청소, 빨래를 우리 스스로 해내야 했었죠. 어느 하루는 제 가장 친한 친구가 청소를 하다가 창문을 깨뜨리게 되었습니다. 친구는 이전에도 잘못된 것이 몇 가지가 더 있었기에 무척 괴로워했습니다. 친구는 학장신부님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자신이 소신학교에서 쫓겨나 집으로 보내지거나 그에 상응하는 무거운 벌을 받게 될까봐 두려워했습니다. 친구는 저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안토니, 제발 나 좀 도와줘. 청소하다가 창문을 깨트렸는데,

학장신부님께 내가 그랬다고 도저히 말씀드리지 못하겠어. 학장신부님은 나를 집으로 보내버리실 것이 분명해. 넌 내 가장 친한 친구니깐 제발 이렇게 부탁 할게. 나대신 학장신부님께 가서 창문을 깨트린 사람이 너라고 말해줘.” 저는 제 친구를 많이 사랑했고 그가 심하게 절망하는 모습을 보고는 친구가 정말로 소신학교에서 쫓겨날 것만 같이 느껴졌습니다. 또한 제 안에서는 여전히 누구든지 도와주겠다는 강한 불꽃이 일고 있었습니다. 저는 친구에게 창문을 깨트린 책임에 대한 비난을 기꺼이 받겠노라고 말했습니다. “신부님, 용서해주세요. 제가 창문을 깨트려버렸습니다.” 학장신부님은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라서 저에게 소리치며 말했습니다. “네가 파괴적인 영혼을 지니고 있음을 내 진즉 알고 있었다! 널 믿지도 않고 네 성소도 의심스럽구나!” 제 귀에 들리는 이 모든 말들이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저는 정말 두려워서, ‘책임을 대신 지는 게 좋은 생각이 아니었어.’라고 생각했습니다. 학장신부님은 이어 소리쳤습니다. “오늘은 창문을 깨트렸으니 내일은 또 뭘 부서뜨릴게냐? 넌 집으로 가서 부모님한테 창문 값을 받아와야 할 것이다!” 이 말이 이미 저의 부서진 영혼을 더욱 깊은 곳으로 내동댕이치셨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세상에나, 집에 가서 부모님께 친구가 깨트린 창문 값을 갚아야 한다고 말씀드리면 부모님은 내 두 다리를 분질러 버릴지도 몰라.’ 학장신부님은 마지막으로 저에게 말했습니다. “어찌되었든, 이번이 마지막 기회야. 꼴도 보기 싫으니 썩 네 방으로 가거라!” 저는 학장신부님이 마음을 바꾸기 전에 얼른 일어나 쏘살같이 제 방으로 달려왔습니다.

저는 울먹거리며 친구에게로 가서 학장신부님이 어떤 반응을 보이셨는지 얘기해주었습니다. 저는 집으로 쫓겨나서 부모님께 이 문제를 말씀드려야 했을지도 모르는 상황에 처했었기에 친구에게 스스로 책임을 지는 게 더 좋았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친구는 저를 위로하듯 말했습니다. “제발 부탁이야 안토니, 이미 내가 책임을 지기에는 너무 늦어버렸어. 학장신부님과 다른 모든 사람이 너의 책임이라고 알고 있잖아. 이제 와서 말을 바꿀 수는 없어. 어쨌든 걱정 하지 마 안토니. 난 너의 가장 친한 친구잖아. 앞으로 너에게 어려움이 닥치게 되면 그때 오늘 네가 나에게 해준 것처럼 내가 다 갚아줄게. 그때가 되면 넌 내가 너의 가장 친한 친구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될 꺼야.”

앞서 제가 말했듯이, 신학생들은 보통 자기 자신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그날이 있는 뒤에, 우리는 허드렛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지요. 학장신부님의 우유병을 닦고 있던 중에 그만

손이 미끄러져서 우유병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바닥으로 떨어져 깨져버린 유리병 조각들이 사방으로 튀었고, 제 영혼도 그 유리병처럼 산산이 부서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유리병이 깨어지는 소리가 마치 신학교 전체가 흔들리는 것처럼 크게 들렸습니다. 제가 학장신부님의 우유병을 깨트렸다는 소식은 눈 깜짝할 사이에 신학교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때 저는 제가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저를 대신해 주겠다던 친구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저는 이 소식이 학장신부님의 귀에 들어가기 전에 얼른 친구에게 달려갔습니다. 마침내 저는 친구를 찾아냈고 그에게 말했습니다. “친구야, 내가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도와주겠다고 했던 말 기억하지? 지금이 바로 그때인거 같아. 내가 학장신부님의 우유병을 깨트려버렸거든. 어서 학장신부님께 가서 네가 그랬다고 말해주면 안되겠니?” 친구는 저에게 말했습니다. “안토니, 내가 깨트렸던 것은 고작 창문이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 네 경우는 달라. 넌 학장신부님의 우유병을 깨트렸고 그건 아주 아주 비싼 물건이란 말이야.” 저는 눈물을 흘리며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네가 분명히 말했었잖아! 내가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도와 줄거라고! 지금이 바로 그때라니깐!” 친구는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넌 네가 그렇게 했다고 말하게 될 거야. 난 무서워. 내가 한 짓이라고 말씀드리면 난 분명 신학교에서 쫓겨나게 될 거야. 게다가 이미 모두가 우유병을 깨트린 사람이 너라는 사실을 알고 있잖아?” 저는 너무나도 슬펐고 절망했으며 외톨이가 된 것 같은 기분에 사로잡혔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제가 정말 마음에 와 닿는 십자가의 길 기도책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떠올렸습니다. 저는 기도책을 집어 들고 성전으로 가서 십자가의 길 기도를 정말 진심을 다해 바쳤습니다. 이 때가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온 영혼을 다해 기도를 바쳤던 순간입니다. 저는 매 처마다 경건하게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들어 올린 채 눈물과 전율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미 학장신부님은 저의 파괴적인 영혼을 알고 있었고 마지막 경고를 주었으며 저의 성소를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십자가의 길 기도를 마치고 나서 저는 학장신부님에게로 갔습니다. 기도하던 때처럼 저는 다시 무릎을 꿇고는 학장신부님에게 말했습니다. “신부님, 제발 한 번만 더 용서해주세요. 제가 신부님의 우유병을 깨트려버렸습니다. 용서해주세요.” 학장신부님이 말했습니다. “걱정 말아 안토니오야. 그 우유병은 너무 오래된 것이어서 이미 우리는 새 유리병을 사려고 했었다. 아무 문제없으니 어서 너의 방으로 가서 쉬려무나.” 학장신부님의 말에 저는 크게 안도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십자가의 길 기도의 힘이 저를 곤경에서 구해주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안토니, 내가 깨트렸던 것은 고작 창문이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
네 경우는 달라.
넌 학장신부님의 우유병을 깨트렸고
그건 아주 비싼 물건이란 말이야.”

주님께서 나를 위하시니 나는 두렵지 않네. 사람이 나에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주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이시니 나를 미워하는 자들을 나는 내려다보리라. 주님께 피신함이 더 낫네, 사람을 믿기보다.

-시편 118,6-8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본성적으로 이기적인 존재입니다. 저마다 자신의 이익에만 관심을 두지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상처 입고 버림받음을 느끼게 되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실제로 우리를 돌보아 줄 마음이 없는 사람에게 믿음을 두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거절과 상심으로 고통을 받는 이유들 중 하나가 바로 사람에게 믿음을 두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사회적인 존재이기에 타인을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타인을 필요로 하는 만큼 인간이 본성적으로 이기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인지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안녕을 제일 먼저 챙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을 드려야 할 분은 하느님 한분이십니다. 그분께서는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시고 언제나 당신의 크신 마음에 우리를 제일 첫 번째로 생각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느님께는 우리의 안녕이 언제나 최우선 사항입니다. 우리들 중 많은 이들이 이 사실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반복적으로 다른 사람들로 부터 상처를 받게 되면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사랑해주시고 믿어주시는 분이 오직 하느님뿐이심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거절과 상심으로 고통을 받는 이유들 중 하나가
바로 사람에게 믿음을 두기 때문입니다.”

저는 자녀 하나를 두고 있는 홀어머니를 알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딸을 교육시키고 잘 키우기 위해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딸을 유학 보낼 정도로 여인은 열심히 일했습니다. 여인은 자신을 너무 혹사시켜서 몸이 아프게 되었지만, 유학을 가 있는 딸은 홀어머니가 잘 지내고 있느냐는 전화 한통도 없

었습니다. 딸은 자신의 어머니가 자신을 가장 필요로 하던 순간에 어머니를 완전히 무시했던 것입니다. 부서지는 마음으로 고통 받고 있는 이 여인에게 주님께서 말씀을 내려주셨습니다. “자주 내리는 비를 빨아들여, 농사짓는 이들에게 유익한 농작물을 내주는 땅은 하느님에게서 복을 받습니다.”(히브 6,7) 농사짓는 이는 땅에 씨앗을 심습니다. 그리고 나면 씨앗은 흙으로 떨어지는 비의 양만큼 성장하게 되지요. 하느님께서 바로 땅을 흠뻑 적시는 비를 내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비가 농사짓는 이들이 심은 씨앗으로부터 수확물을 얻게 해줍니다. 그 모든 열매를 농사짓는 이가 가져가버리지만 농사짓는 이는 이에 대해서 감사해하지도 보상을 드리지도 않습니다. 수확의 축복은 농사짓는 이가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받는 모든 축복은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주님께로부터 옵니다. 우리 자녀들 또한 주님께로부터 온 축복인 것입니다.

보라, 아들들은 주님의 선물이요 몸의 소생은 그분의 상급이다.

-시편 127,3

하느님 체험을 찾아서

10년 동안의 신학교 생활 중에서 사제서품을 약 2년 정도 남겨둔 시점에서 저는 이제껏 한 번도 하느님 체험을 가진 적이 없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하고 사랑도 느껴본 적이 없는 이를 위해 제 한 평생을 어떻게 봉헌하겠습니까? 이 문제는 저를 정말 많이 괴롭혔습니다. 저는 예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 저는 당신께서 사랑가득하신 분이라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당신을 본 적이 한 번도 없고 당신의 사랑을 체험하지도 못했으며 당신의 목소리를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당신을 체험한 적이 있다고 말하는데도 말입니다. 저는 당신께서 살아계신 스승이시라는 그 어떤 증거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본 적도 없는 분을 위해 삶을 봉사하며 제 삶을 낭비하길 원치 않습니다. 정녕 제가 당신의 도구가 되길 원하신다면, 저에게 당신을 보여주십시오.” 제가 확신했던 오직 한 가지는 사제가 되고자 한다면 예수님을 보거나 체험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딜레마로 인해 저는 주님께 어떤 말씀이나 당신을 보여주시길 청하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 모든 기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서는 완전히 침묵하셨습니다. 저는 신학교를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떠나기 전에 하느님께서 저를 사제로 부르지 않으셨다는 확신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피정에 참여했고 그 목적은

단 하나, 주님께서 저를 부르지 않으셨다는 말을 듣는 것이었습니다. 참여했던 모든 피정에서 저는 상담을 받았습니다. 저는 17명의 상담가를 만나게 되었으며 그들 중 어떤 이들은 제가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했으며 다른 이들은 그 반대로 말했습니다. 저는 이로 인해 더욱 큰 혼란에 빠지게 되었지요. 저를 상담 해주었던 한 여성 상담사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결혼을 하게 되면 절대 아내를 때리거나 학대해선 안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세요. 아내 위에서 군림하려 하지 말고 친절과 겸손으로 대하세요.”이 후에 저는 이 특별한 상담사가 신학교를 그만둔 신학생과 결혼을 했으며 남편으로부터 학대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시기에 수많은 상담으로 인해서 가짜 상담사들도 참 많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예수님께로부터 응답은 없었습니다. 한 피정에 참여하던 중, 저는 히브리서의 말씀에 감명을 받게 되었지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든 오늘도 또 영원히 같은 분이십니다”(히브 13:8). 저는 저의 귀에 들려오는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안토니오야, 나는 한결같단다. 너는 자신의 성소를 의심하고 있지만 난 결코 변한 적이 없단다. 내가 어제 너를 불렀다면, 나는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영원히 너를 부를 것이란다.”

“안토니오야, 나는 한결같단다.
너는 자신의 성소를 의심하고 있지만
난 결코 변한 적이 없단다.
내가 어제 너를 불렀다면,
나는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영원히 너를 부를 것이란다.”

제가 당신을 직접 보지 못한다면...

비록 예수님의 목소리를 들었지만 저는 여전히 신학교를 그만두려고 결심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직접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신학교를 떠나려는 세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1. 저는 제 아버지를 너무 많이 사랑했고 집으로 돌아가 아버지를 돌보아드리고 싶었습니다.
2. 저는 환시 같은 하느님과의 특별한 만남을 가져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주님을 한번이라도 그저 전해들은 말이 아니라 정말 제 눈으로 보고 싶었습니다.
3. 저는 충실한 삶을 살지 않고 신자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많은 사제를

보아왔습니다. 다른 사제들이 올바른 삶을 벗어나서 살아간다면 저 역시 그들의 행렬에 동참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서 저는 신학교를 떠나기로 결심했던 것입니다. 저는 예전에 신학교를 떠난 사람은 결코 다시 돌아오지 않으며 세속의 삶에서도 성공하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신학생이나 수도회원이 신학교나 수도원을 떠나면 다시 돌아오기 힘들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만일 다시 돌아온다면 이는 주님의 전능하신 중재로 인한 기적이나 마찬가지로인 것이죠. 누군가가 신학교를 떠나게 되면, 사람들은 떠난 이가 자신의 성소를 의심하거나 부르심을 받지 않았다는 등 그 사람에 대해 여러 가지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을 인지함에도 저는 여전히 신학교를 떠나겠다는 제 결심을 뒤집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저는 바로 지역 장상께 보내는 편지를 썼습니다. “존경하는 신부님, 빈센티안 수도회 신학교에서 9년 반 동안 교육을 받았지만 저는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제가 빈센티안 수도회의 일원으로 가르침을 받고 오늘의 제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주셨음에 많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진실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선하고 신심 깊은 평신도로 살아가려는 저를 축복해주시길 청합니다. 부디 제가 수도회를 떠나는 것을 허락해주시시오.” 저는 편지 말미에 사인을 하고 이를 복사해서 수도회 총장님과 신학교 학장신부님께도 보냈습니다. 지역 장상이셨던 바르케스 파라푸람 신부님께서서는 제가 수도회를 떠나는 것을 허락하시고 축복을 내려주셨습니다. 저는 그 어떤 문제도 일으키지 않고 좋게 수도회를 떠났습니다. 두 번째 기회를 위한 문들이 모두 닫힌 후에 저는 저의 모든 흔적들과 서류를 들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주님의 목소리를 듣다

제가 편지를 보내자마자 예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안토니오야, 내가 너를 불렀거늘 너는 떠나려고 하느냐?” 저는 너무 화가 나서 예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너무 늦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말씀을 내려주십사고 그토록 청하면서 주님을 애타게 찾았던 그 모든 시간에 당신께서는 도대체 어디에 계셨습니까? 이제 너무 늦어버렸습니다. 저는 더 이상 당신의 목소리를 듣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두 손으로 귀를 덮었지만 목소리는 한층 더 커졌습니다. 주님의 목소리는 제 귀가 아니라 저의 마음에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이 때 이후로 저는 잠들지 못할 정도로 힘들었습니다. 주님의 목소리가 계속해서 제 머리를 울렸습니다. “너는 부르심을 받았단다, 너는 부르심을 받았단다, 너는 부

르심을 받았단다.” 저는 이로 인해 하느님께 절실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제가 신학교를 떠나기 전날에 저는 단 1초도 잠들지 못했습니다. 정말 기이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보통 침대에 눕기만 하면 잠이 들고 누가 옆어가도 모를 정도로 깊이 잠에 빠지기 때문이었습니다.

어찌되었든, 한 번 끝난 일은 그걸로 끝이었습니다. 저는 공동체의 전 회원들이 제가 결정을 내렸으며 그 결정을 뒤집지 않을 것을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이제 와서 어떡하란 말입니까? 결정을 뒤집고 동창생들에게 웃음거리가 되란 말입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저는 짐을 싸서 그대로 신학교를 떠났습니다. 저는 마음 속으로 아버지 옆에 머물며 사랑하는 아버지를 돌보아 드리겠다고 다시금 다짐했습니다.

무엇이 진짜 사랑인가?

집에 도착한 저는 아버지께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작은 호의를 베풀어달라고 청하며 가족과 친지들, 그리고 이웃들에게 제가 집으로 돌아온 이유를 저 대신 설명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신학교를 떠날 만큼 사랑했던 저의 아버지는 말했습니다. “안토니오야, 네가 너 스스로 집에 돌아왔으니, 돌아온 이유 또한 네가 직접 말하거라.” 아버지의 말씀에 저는 상처를 받았지만 티를 내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제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걸터앉았고 서럽게 울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저에게 질문하셨습니다. “안토니오야, 너는 이런 아버지를 위해 다시 돌아온 것이 맞느냐?” 그때 처음으로 저는 제 아버지도 이기적인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를 위해 10년 이라는 시간을 포기하는 희생을 치렀는데 저에게 돌아온 대답이 이렇다니요! 제 마음은 찢어졌고 저는 기도하며 하느님께 다시 돌아섰습니다.

거룩하신 분과의 감동적인 만남

아버지로부터 거절당했던 그날 밤, 저의 참된 아버지 예수님께서 환시를 통해 저에게 당신의 모습을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안토니오야, 걱정하지 말거라. 내가 너를 불렀으니 너를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저는 참으로 커다란 위안과 안정과 보호를 느꼈습니다. 저는 완전히 실망했고 주저앉았으며 막연함을 느끼고 있었지만, 환시를 보게 된 순간 평온함

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비록 저는 제가 다시 돌아가지는 못할 것이라 생각했지만, 주님께서 저와 함께 계셨기에 혼자라고 느끼지 않았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크신 사랑을 체험했습니다. 저는 전적으로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죽으리라 다짐했습니다. 이러한 확신으로 저는 다시 짐을 싸서 신학교로 돌아갔습니다.

**“아버지를 위해 10년 이라는 시간을 포기하는 희생을 치렀는데
저에게 돌아온 대답이 이렇다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학장신부님은 들으셨습니다

신학교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학장신부님께 가서 신학교를 떠났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돌아오라고 하셔서 그렇게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학장신부님은 저에게 운이 좋아서 다시 받아들여진다 하더라도 소신학교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학장신부님에게 그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누가 무슨 말을 하고 어떤 책임을 지든 상관없이 주님의 종이 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학장신부님은 저에게 다른 신부님들과 이 문제에 대해서 회의를 할 테니 사무실 밖에서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저는 성전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주님, 당신께서 저를 다시 부르셨기에 제가 돌아왔습니다. 저는 이제 준비가 되었습니다.” 제가 기도를 하고 있을 때, 학장신부님이 저에게 와서 신부님들이 저를 다시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고 말하며, 저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을 상세히 설명하는 편지를 쓰라고 명했습니다. 학장신부님은 또한 제가 어떤 사소한 실수라도 저지르게 되면 집으로 돌려보내질 거라고 말했습니다. 학장신부님의 주저와 마지못함에도 불구하고, 결국 저는 제가 떠났던 곳에 다시 돌아와 학업을 계속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삶을 받은 것일까?

한 사람이 자살을 시도하고 성공했다면 그는 생명을 얻지 못합니다. 저 또한 죽음의 길을 선택했지만 저는 이후에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는 저의 두 번째 삶으로서 예수님께 의해서, 그리고 전적으로 예수님을 위한 생명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게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을 드리고 삶을 봉헌 할 가치가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말입니다. 일찍이 우리 모두는 이에 대해서 잘 알고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날 저는 제가 세상 최고의 특전을

누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특전은 바로 사제, 곧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 임금은 시편에서 노래합니다. “주님께 아뢰입니다. ‘당신은 저의 주님. 저의 행복 당신밖에 없습니다.’(시편 16,2)”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문제는 우리들 중 많은 이들이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관해서 하는 말들로 인해 상처받고 실망하며 삶의 희망을 스스로 포기해버린다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는 분이시니 나는 두려워하지 않으리라. 사람이 나에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히브 13,6)” 남들이 우리에게 하는 말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건네시는 말씀이 중요합니다. 하루는 어린 소년이 울면서 달려와 누군가 자신을 하마라고 부르며 놀린다고 말했습니다. 소년은 자신을 하마라고 부르는데 대해서 큰 신경을 쓰지 않았지만 동물원에 가서 실제 하마를 보고는 너무 못 생겨서 큰 충격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그를 슬퍼하며 울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온갖 종류의 이름으로 부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사람들이 부르는 것이 결코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작품이고 하느님의 상으로 하느님과 비슷한 모습으로 창조되었습니다.

내 말을 들어라, 의로움을 아는 이들아 내 가르침을 마음속에 간직할 백성아. 사람들의 모욕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악담에 낙심하지 마라.

-이사 51,7

사제서품 이후, 저는 봄베이에 있는 피정센터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등록을 위해 찾아오면, 먼저 제공되는 숙식과 공책 및 필기구, 그리고 성가책에 대한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배운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부자와 가난한 이,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 등, 참 다양한 사람들이 피정에 참여합니다. 피정 첫 번째 날이었고 저는 첫 번째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프로그램이 끝나고 한 남성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이 남성은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았고 수개국어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남성은 저에게 여분의 공책을 제공해달라고 말했습니다. 프로그램 하나가 끝났을 뿐인데 공책 한권을 벌써 가득 채운 사람이 있다는 사실에 저는 기뻐했습니다. 보통 5일 간의 피정기간 동안 공책의 절반도 채우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이 남성

에게 여분의 공책이 필요한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신부님, 마음 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신부님은 영어를 너무 못하십니다. 발음은 최악이고 문법은 엉망이에요! 여기 좀 보세요.” 이 남성의 공책을 보니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동안 있었던 제 강의에서 영어가 틀린 부분들로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이 남성은 제 발음과 문법이 틀린 부분을 모두 적어놓았던 것입니다. 여분의 공책을 요청하는 것으로 봐서 제 실수가 그렇게나 많았었나 봅니다. 이 남성은 재확인 차 저에게 말했습니다. “신부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영어를 제대로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남성에게 자신의 수준 낮은 영어 실력을 잘 알고 있으며 예수님께 이 어려움에 대해, “주님, 제 영어 실력을 잘 알고 계시면서 어떻게 영어로 당신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저를 선택하실 수 있으십니까?”라고 항상 질문 드린다고 말해주었습니다. 하느님께서 저를 주님의 종이 되어 사람들에게 당신의 말씀을 선포하고 예수님을 전하라고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저더러 영어를 가르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만일 그랬다면 저는 사랑하는 예수님의 사제가 아니라 영어교수가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사실 성경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지혜롭다는 자들의 지혜를 부수어 버리고 슬기롭다는 자들의 슬기를 치워 버리리라.” 지혜로운 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율법 학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세상의 논객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느님께서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은 것으로 만들어 버리지 않으셨습니까?

-1코린 1,19-20

**“남들이 우리에게 하는 말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건네시는 말씀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나약함으로 하느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말을 더듬는 아이였음에도 저는 더 이상 이를 장애로 보지 않으며 오히려 이로 인해 하느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의 나약함 안에서 하느님의 힘이 충만해지기 때문입니다.

이 일과 관련하여, 나는 그것이 나에게서 떠나게 해 주십시오고 주님께 세 번이나 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너는 내 은총을 넉넉

히 받았다. 나의 힘은 약한 데에서 완전히 드러난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의 힘이 나에게 머무를 수 있도록 더없이 기쁘게 나의 약점을 자랑하렵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약함도 모욕도 재난도 박해도 역경도 달갑게 여깁니다. 내가 약할 때에 오히려 강하기 때문입니다.

-2코린 12,8-10

2장 죄: 가장 힘겨운 문제

그들이 저희 하느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는 한, 불의를 미워하시는 하느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그들은 번영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 명령하신 길에서 벗어나자, 그들은 많은 전투에서 무참히 패배하고 이국땅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들의 성전은 완전히 파괴되고 그들의 성읍들은 적군에게 빼앗겼습니다.

유딧 5,17-18

나의 자녀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여러분이 죄를 짓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가 죄를 짓더라도 하느님 앞에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 죄를 위한 속죄 제물이십니다. 우리 죄만이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한 속죄 제물이십니다.

1요한 2,1-2

죄가 아주 큰 문제임에도 많은 이들이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죄는 우리가 가지게 되는 하느님과 이웃과의 관계를 깨트려 버립니다. 죄의 결과들은 우리 삶에 실로 막대한 피해를 가져오며 행복을 앗아가 버리지요. 따라서 죄는 “너희는 나 없이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라는 말씀처럼 크고 힘겨운 문제인 것입니다. 하느님의 말씀은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네가 원하기만 하면 계명을 지킬 수 있으니 충실하게 사는 것은 네 뜻에 달려 있다”(집회 15,15). 이 사야 예언서에서 볼 수 있듯이 죄는 우리의 생명과 번영을 가로 막습니다: “보라, 주님의 손이 짧아 구해 내지 못하시는 것도 아니고 그분의 귀가 어두워 듣지 못하시는 것도 아니다.”(이사 59,1)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답을 해주시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죄는 죄를 짓는 이에게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 전체에 영향을 주지요. 죄는 하느님의 선하

심을 인지하지 못하는 것이며 하느님께 불경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하느님을 알면서도 그분을 하느님으로 찬양하거나 그분께 감사를 드리기는커녕, 오히려 생각이 허망하게 되고 우둔한 마음이 어두워졌기 때문입니다.

로마 1,21

우리가 삶 속에서 하느님께 공경을 드리지 않게 되면, 죄와 모든 형태의 악행이 우리 삶 안으로 슬며시 침입해 들어옵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하느님께 공경을 드리지 않게 되면,
죄와 모든 형태의 악행이
우리 삶 안으로 슬며시 침입해 들어옵니다.”**

난 그저 분필이 더 필요해서 내려왔단 말이오!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그 누구도 성인으로 태어나지 않았으며, 죄 없는 이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유대인으로서 나은 점이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미 앞에서 유대인들이나 그리스인들이나 다 같이 죄의 지배 아래 있다고 고발하였습니다.

로마 3,9

한 남자가 천국의 문들 앞에서 있는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이 남자의 손에는 분필이 한 자루 쥐어졌고, 그는 이 분필로 이제껏 자신이 지었던 모든 죄의 수만큼 선을 그어야 했으며 중죄의 경우 죄를 범하게 된 이유를 짧게 적어야 했습니다. 선을 그려나가던 이 남자는 선들의 모양이 사다리의 계단 형태를 취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채게 되었습니다. 이는 진실로 뉘우치는 죄인들이 이 계단을 통해서 천국으로 올라올 수 있도록 허락해주시는 주님의 은총 가득한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남자는 모든 벽들을 가득 채우고 있는 비슷한 모양의 수없이 많은 사다리를 보게 되었고 확신에 차게 되었습니다. 이 남자는 어떤 사람이 사다리 하나를 통해서 아래로 내려오는 모습을 보게 되었고, 더욱 큰

기쁨과 위안에 사로잡혔습니다. 남자는 사다리를 통해 아래로 내려오는 사람의 모습을 유심히 바라보았는데 먼저 자주색 양말이 보였고, 그 위로 자주색 주교 제의를 입고 있었으며 마지막으로 주교관을 쓰고 있었습니다. 이 남자는 기쁨에 넘쳐서 사다리를 타고 내려온 사람에게 자신을 위로 데려가기 위해 내려왔는지, 저 위는 어떠한지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주교가 되물었습니다. “도대체 위의 어디를 말하는 것이요?” 남자는 대답했습니다. “저 위에 있는 천국 말입니다.” 주교는 남자에게 대답했습니다. “난 천국에서 오지 않았소. 난 그저 선을 그럴 분필이 더 필요해서 내려왔단 말이요!”

우리 모두는 자신만의 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오로 사도는 이를 다음과 같이 적절하게 잘 표현합니다. “모두 자기의 것만 추구할 뿐 예수 그리스도의 것은 추구하지 않습니다.”(필리 2,21) 하지만 우리는 모두 하느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믿음을 두고 있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사탄의 자녀가 되어 사탄이 펼치는 계약의 먹잇감으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느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느님에게서 태어나신 분께서 그를 지켜 주시어 악마가 그에게 손을 대지 못합니다.

-1요한 5,18

이미 언급했듯이, 죄는 보편적인 문제이며 모든 범주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다윗 왕은 이에 대해 공개적으로 고백을 했습니다. “정녕 저는 죄 중에 태어났고 허물 중에 제 어머니가 저를 배었습니다.”(시편 51,7)

그러나 감사하게도,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어 새로운 생명을 얻도록 하시기 위해 당신의 크신 자비로 외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 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요한 3,16).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스스로 잘못된 습관을 없애버리고 죄스런 본성을 벗어버리게 하기 위해서 당신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가 성령 안에서 새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바오로 사도는 다음과 같이 우리를 가르칩니다.

“내 말은 이렇습니다. 성령의 인도에 따라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욕의 욕망을 채우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욕이 욕망하는 것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께서 바라시는 것은 욕을 거스릅니다. 이 둘은 서로 반대되기 때문에 여러분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율법 아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욕의 행실은 자명합니다. 그것은 곧 불륜, 더러움, 방탕, 우상 숭배, 마술, 적개심, 분쟁, 시기, 격분, 이기심, 분열, 분파, 질투, 만취, 흥청대는 술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들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이미 경고한 그대로 이제 다시 경고합니다. 이런 짓을 저지르는 자들은 하느님의 나라를 차지하지 못할 것입니다.”

갈라 5,16-21

욕신의 죄스런 본성을 우리 스스로 씻어내기 위해서는 영적인 새로 태어남이 요구됩니다(요한 3,3 참조).

십계명

십계명은 이 지상의 삶에서 개인적이며 동시에 공동체적인 행복을 누리기 위해 주님께서 우리가 따르길 원하시는 삶의 지침서입니다. 처음에 나오는 세 가지 계명은 수직적 차원으로서 하느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나머지 일곱 가지 계명은 수평적 차원으로서 이웃과의 관계를 다루고 있지요. 예수님께서서는 십계명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십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네 목숨을 다하고 네 정신을 다하여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 이것이 가장 크고 첫째가는 계명이다. 둘째도 이와 같다. ‘네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다.

-마태 22,37-39

첫 번째 계명: 나만을 섬겨라

“나는 너를 이집트 땅,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 낸 주 너의 하느님이다. 너에게는 나 말고 다른 신이 있어서는 안 된다.”

-신명 5,6-7

첫 번째 계명에서 우리는 한분이시고 참되시며 살아계신 하느님을 섬기라는 가르침을 받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주 우리 하느님은 한 분이신 주님이시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

-신명 6,4-5

이 말씀은 우리가 그 어떤 사물이나 인간 등의 피조물이 아니라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느님을 우리 삶의 중심에 모셔야함을 의미합니다. 하느님 사랑의 전제 조건은 하느님께 깊은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하느님을 향한 믿음과 상반되는 죄는 우리의 믿음을 하느님이 아닌 피조물에게로 두도록 만드는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믿음은 정녕 커다란 선물입니다. 하지만 믿음이란 잃어버릴 수 있는 선물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의무를 저버리고 해로운 서적을 읽으며 성당을 이리 저리 옮겨 다니거나 한분이시며 참된 하느님을 인정하지 않는 다른 종교에서 활동하고 기도하게 되면 우리는 우리가 받은 선물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 재앙으로 죽임을 당하지 않은 나머지 사람들도 저희 손으로 만든 작품들을 단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귀들을 숭배하고, 또 보지도 듣지도 걸어 다니지도 못하는, 금이나 은이나 구리나 돌이나 나무로 만든 우상들을 숭배하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묵시 9,20

거짓된 신이나 우상을 섬기고 하느님께 돌려드려야 할 공경을 한낱 피조물에게로 돌리는 것은 첫 번째 계명에 반하는 중대한 잘못입니다.

“하느님을 알면서도 그분을 하느님으로 찬양하거나 그분께 감사를 드리지는커녕, 오히려 생각이 허망하게 되고 우둔한 마음이 어두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지혜롭다고 자처하였지만 바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불멸하시는 하느님의 영광을 썩어 없어질 인간과 날짐승과 네발짐승과 길짐승 같은 형상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로마 1,21-23

돈, 섹스, 권력, 지위, 이름, 명성, 연구업적, 학력 등이 우리가 섬기는 작은 신들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분이시며 참되신 하느님의 충만한 계시이신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다그치셨던 이유입니다: “주 너의 하느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루카 4,8)

“돈, 섹스, 권력, 지위, 이름,
명성, 연구업적, 학력 등이
우리가 섬기는 작은 신들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왜 더 살아야 합니까? 아내가 저를 버렸단 말입니다!”

제가 인도에 있는 케랄라에서 선교 피정을 준비하고 있을 때의 일입니다. 피정기간 동안 사제들은 그룹모임에 참여하고 총지도 신부는 그 지역에 배정된 모든 가정을 방문해서 가족과 함께 기도하고 그 가정에 축복을 주어야 했습니다. 피정 마지막 날에는 총지도 신부가 그 지역의 모든 가정을 방문하고 다 함께 행렬하며 피정센터로 돌아와서 모두 다 함께 성찬례에 참여하게 됩니다. 피정 마지막 날에, 저는 저에게 배정된 모든 가정을 방문했고 모두와 함께 피정센터로 행렬을 했습니다. 행렬을 하는 도중, 누군가 저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뒤를 돌아보았고 한 남자를 보았습니다. 그는 저에게 말했습니다. “신부님께서 저의 집은 방문하지 않으셨습니다.” 알아보니 그 남성의 집은 저에게 배정된 지역 밖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저는 이 남자에게 말했습니다. “선생님의 집은 저에게 배정된 지역 밖이라 제가 방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계속해서 제가 자신의 집을 방문했어야 했다며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남성에게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함께 선생님의 집으로 가도록 하지요.” 저는 저의 그룹 일원들에게 행렬을 계속 하도록 지시하고 나중에 합류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늦게 되면 다른 신부님들이 성찬례로 인도하기로 했지요.

저는 그 남자와 동행해서 그의 집에 도착했고, 거기서 조용히 칼을 갈고 있는 또 다른 남자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즉시 저는 이 남자가 피정에 참석하지 않았음을 알아챘습니다. 저는 그에게 인사를 건넸고 그는 웅얼거리듯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 남자에게 가까이에 앉아도 되는지를 물었고 그 남자는 갈고 있던 칼로 제가 앉을 자리를 가리켰습니다. 저는 이 남자에게 제가 가톨릭 사제이고 이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선교 피정에서 강의를 하고 있기에 방문을 하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말을 하고 있는 와중에도 그는 저를 쳐다보지

않고 계속해서 칼을 날카롭게 다듬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이 남자는 칼 가는 것을 멈추고 저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모든 사람을 싫어합니다. 특히나 사제들어요. 누구도 보고 싶지 않아요. 저를 이해해주는 사람이 없단 말입니다!” 저는 이 남자에게 말했습니다. “누구도 형제님을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형제님을 이해하십니다.” 그는 저에게 물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니까?” 이 남자는 코코넛 농부였습니다. 그는 결혼해서 세 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이 남자의 아내는 남편의 술주정과 폭력으로 인해 세 자녀를 데리고 떠나버렸습니다. 홀로 버려짐으로 인해 이 남성은 크나큰 비참함과 분노에 사로잡히게 된 것이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이 남성의 본당 사제는 그가 술주정만 부리지 않았다면 가족이 그를 떠나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 말하며 그를 비난했습니다. 이 비난과 함께 본당신부는 이 남성의 집에 더 이상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 어떤 사제도 이 남성의 집을 방문하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슬픔을 나누는 그 어떤 사람도 곁에 있지 않았습니다. 이 남성이 말하길 다른 사제들조차 자신의 집을 찾아오지 않는 이유가 본당신부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외로움을 견디다 못한 이 남자는 밤을 새워서 칼을 날카롭게 갈았던 것입니다.

저는 이 남자를 위해 기도를 해도 되는지를 물었고 그는 말했습니다. “물론 신부님은 기도하실 수 있습니다. 그냥 저를 혼자 있게 내버려두기만 하면요.” 제가 기도를 하자 이 남자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집안의 장남이었고 초등학교 5학년 때 학업을 중단했기에 겨우 읽고 쓰는 것만 할 줄 알았습니다. 그는 저에게 한편의 공책을 보여주었고 거기에는 남자의 아내가 자신을 버린 날 짜가 적혀있었습니다. 남자는 여전히 아내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 아내를 많이 사랑한 것이 죄가 되는 것입니까? 네. 저는 아내를 때리고 힘들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다 아내를 사랑했기 때문이라고요!” 이 불쌍한 남자는 아내를 진심으로 사랑했고 아내도 자신을 사랑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에 누구도 아닌 아내가 자신을 떠나버렸을 때 너무나도 큰 충격을 받았던 것입니다. 저는 이 남자에게 말했습니다. “형제님이 아내를 아주 많이 사랑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형제님의 아내가 형제님을 똑같이 사랑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자 이 남자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신부님, 저는 이제야 제가 예수님보다 아내를 더 많이 사랑했던 것이 잘못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저를 자신의 방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사실 이 남성은 우리가 피정을 마무리하는 시간에 맞춰서 자살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는 피정에 참여해 자신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길 희망했지만 그 어떤 사제도

자신의 집을 방문하지 않았기에 피정을 포기한 채, 독극물을 마시고 삶을 끝낼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남성 앞에 무릎을 꿇고 그를 무시했던 모든 사제들을 대신해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는 급히 저를 일으켜 세우며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제발 일어나십시오. 무릎 꿇고 용서를 청해야 하는 사람은 본당 신부입니다.” 저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형제님을 위해 목숨을 내어줄 사제가 아무도 없다고 하더라도 예수님께서서는 형제님을 위해 목숨을 내어주십니다. 그분께서는 당신을 배반할 제자 앞에 무릎을 꿇으셨고 그의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유다야말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의 발을 씻어드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무릎을 꿇으신 것은 스승님이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스승님’, 또 ‘주님’ 하고 부르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 나는 사실 그러하다. 주님이며 스승인 내가 너희의 발을 씻으면,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어야 한다.

-요한 13,13-14

저는 이 남자가 섞어놓았던 독극물을 받아서 화장실 변기에다 부어버렸습니다. 그 양은 상당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제가 그것을 마셨다면, 저는 죽었겠지요.” 독극물을 붓고 난 후에 우리는 함께 피정센터로 가서 성찬례에 참여했습니다. 이 남성은 완전히 변화되었고 지금은 그 지역에서 많은 존경을 받는 강연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부님, 저는 이제야 제가 예수님보다 아내를 더 많이 사랑했던 것이 잘못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사결정과 첫 번째 계명

우리가 삶에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예를 들어서, 혼인의 삶과 성직, 수도의 삶 중에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순간에 과연 우리는 주님께 상의를 드립니까? 주님께서 우리 삶의 일 순위 자리를 차지하고 계시는지요?

한 여학생이 저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신부님, 저는 아무래도 수녀가 되어야 겠어요. 남자애들이 선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거든요. 남자애들은 수

시로 바람을 피우고 도무지 진실 되지가 않아요.” 저는 이 여학생에게 말해주었습니다. “얘야, 남자애들이 선하지 않다고 한다면 여자애들 역시도 선하지 않게 되는 거란다. 열 명의 남자애들이 바람을 피운다면 똑같이 열 명의 여학생도 바람을 피우는 법이거든.” 저는 덧붙여 말했습니다. “네가 해야 할 일은 누구와도 건강하지 않은 관계를 맺지 않도록 스스로를 지켜보는 것이야. 너 자신이 충실한 아내가 될 수 있다는 확신이 생기게 되면 수도성소 또한 고려해 보는데 어떻겠니?”

가정과 자신의 책임으로부터 도망치기 위해 수도회로 입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는 잘못 생각하는 것입니다. 도망쳐 오더라도 반드시 또 다른, 그리고 더 큰 문제에 직면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일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힘들게 되면, 이들은 문제들로부터 뒤돌아서서 수도회를 떠나버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 안에서, 주님께서 첫 번째 자리를 차지하셔야 하며,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주시길 인내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사업실패를 통해 주어진 기도 할 시간

한 수녀님이 저를 찾아와 함께 기도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수녀님의 가족은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수녀님의 아버지는 아주 큰 회사를 소유한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공한 사업가인 아버지는 성당에 갈 시간이 없었고 가족 기도에도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수녀님의 남동생은 장학금을 받고자 그토록 노력했지만 번번이 놓쳐버렸고, 수녀님의 오빠는 병에 걸렸습니다. 저는 수녀님에게 한 달 동안 읽으며 기도 할 수 있는 성경구절을 주었습니다. 한 달 후에 수녀님은 다시 저를 찾아와서 아버지의 사업이 완전히 망해버렸고 재정적 돌파구도 없어져버렸다고 말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수녀님은 아버지가 다시 성당을 나가기 시작했으며 가족 기도에도 참여한다고 덧붙여 말했습니다. 저는 수녀님에게 수녀님의 아버지가 일구던 사업을 주저않게 만드신 분이 예수님이며 모든 것이 수녀님의 아버지가 예수님을 맞이할 시간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해주었습니다. 여러분이 주님께 기도를 할 때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과 모든 세대를 위해 중재기도를 해주십니다. 저는 수녀님에게 아버지가 주일미사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아버지를 위해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 아버지는 영원한 상속재산을 얻게 될 것이라 조언해주었습니다. 하느님의 말씀께서는 죄스런 상황을 의

지로서 극복해낸 이들에게 번영을 약속하십니다.

황금의 유혹을 받고도 온전한 이는 누구인가? 이 일이 그에게 자랑거리가 되리라. 죄를 지을 수 있는데도 짓지 않고 나쁜 짓을 저지를 수 있는데도 저지르지 않는 그는 누구인가? 이 때문에 그의 재산은 확고해지고 회중이 그의 자선을 낱알이 이야기하리라.

-집회 31,10-11

그러므로 언제나 하느님께서 사업, 일, 배우자, 자녀, 어머니, 아버지, 친구, 형제, 자매, 장상 등 모든 것, 모든 인간에 앞서 우선되어야만 합니다.

부유한 사람이 되기 위한 비용

피정이 하나 끝나고 바로 그 다음날이었습니다. 한 젊은 남자가 자신의 아내와 함께 저를 찾아와서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이 남자는 크게 상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내와 결혼 한지 5년이 되었고 부부 모두 HIV(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있었습니다. 이들은 자녀가 없었고 체중이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었습니다. 이 젊은 남자는 저에게 많은 질문을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왜 저희 부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지 않는 거죠? 저희 가정을 위해 마련하신 주님의 계획이 도대체 뭐란 말입니까? 그분께서는 무엇 때문에 저희에게 자녀를 주지 않으십니까? 왜 우리를 이렇게 벌하시냐 말입니다.”

“형제님은 현재 재정적으로 힘든 상황에 처해 계십니까?” 이것이 기도 중에 주님께서 저로 하여금 이 부부에게 건네도록 하신 질문이었습니다. 남자는 대답했습니다. “돈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돈이 무슨 소용입니까? 저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건강입니다.” 주님께서는 다시금 저로 하여금 이들에게 결혼과 가족에 대해 질문하게 하셨습니다. 남자는 말했습니다. “저는 성당에서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신자가 아니라서 그냥 함께 살고 있어요. 사실 아내는 다른 남자와 한 번 결혼을 했었는데 헤어지고 나서 저랑 결혼했습니다. 저랑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거든요.” 이 젊은 남자는 신심 깊은 가톨릭 집안에서 태어났음에도 교회의 가르침을 무시하고 이 끔찍한 관계에 들어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남자는 한 부부의 관계를 깨트린 것뿐만 아니라, 결혼을 반대하는 부모님과 가정 또한 버리고 떠났습니다. 그는 신앙을 버리고 에이즈라는 병을 얻었으며 자녀 또한 가질 수 없는 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에게 하느님

께서 내려주신 말씀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자가 되기를 바라는 자들은 사람들을 파멸과 멸망에 빠뜨리는 유혹과 올가미와 어리석고 해로운 갖가지 욕망에 떨어집니다. 사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돈을 따라다니다가 믿음에서 멀어져 방황하고 많은 아픔을 겪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1티모 6,9-10

젊은 남자는 이 말씀에 동의하며 말했습니다. “돈에 대한 사랑이 제 삶을 망쳐버렸습니다.” 이 남자는 8남매 중 7번째로 태어났습니다. 그의 삼촌들과 친지들은 아주 부자였지만 그의 집은 너무나도 가난했는데 그 이유는 고약한 술주정뱅이였던 아버지 때문이었습니다. 이 남자가 학비가 없어서 허덕이는 와중에도 친지들과 사촌들은 좋은 차를 타고 비싼 학교로 견학을 떠났습니다. 이 남자의 어머니는 자주 그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 고생을 하는 이유는 돈이 없기 때문이란다. 그 어떤 비용을 치러서라도 우리는 부자가 되어야만 해.” 항상 어머니의 속삭임을 들어왔던 이 남자는 부자로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집을 떠나서 위조 학위를 가지고 직업을 얻었습니다. 남자는 직장에서 지금의 아내를 만났는데 그 당시 아내는 어마어마한 부자였고 이미 결혼을 한 상태였습니다. 아내는 명망 있는 가문의 외동딸이었습니다. 부자가 될 수단만을 찾고 있던 이 남자의 눈에 지금의 아내가 들어왔습니다. 이 남자는 아내를 전 남편과 이혼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지금의 아내와 법원에서 결혼식을 올리고는 재빨리 혼인신고를 해버렸습니다. 하지만 이 남자는 부자가 되기 위한 비용에 대해서는 꿈에서도 생각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 이 남자는 부모님과 신앙과 건강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대신 온갖 슬픔과 HIV와 무자녀라는 짐을 쌓아올리게 되었을 뿐입니다.

탐욕-돈에 대한 사랑

욕망 또한 사탄이 하는 일 중 하나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너무나도 탐욕스럽습니다. 한 젊은 여인이 기도의 집을 찾아와서 우리에게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이 여인은 10년 보다 더 오랫동안 직업이 없었으며 가난으로 인해 위기에 처해있었습니다. 여인은 저에게 아주 작은 일이라도 상관없으니 생활을 할 수 있을 만큼의 월급을 받을 수 있는 직장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 여인에게 한 달 동안 읽고 기도할 수 있는 성경구절을 주었습니다. 한 달이 지

나고 여인이 다시 저를 찾아왔으며, 저는 여인에게 상황이 나아졌는지 물어보았습니다. 여인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아주 조금 나아졌어요. 한 달에 50만원을 벌 수 있는 직장에 취직했거든요.” 저는 여인에게 물었습니다. “잘 되었군요. 그런데 어째서 아주 조금이라고 말하는 것인가요?”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이 일은 가사도우미와 비슷해요. 사실 저는 최소한 한 달에 200만원은 벌 수 있는 직장을 기대했거든요.”

어떤 남자가 급히 기도의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이 남자는 무직상태였으며 직업을 가지길 바라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하느님께서 이 남자를 축복하셨고 마침내 그는 한 달에 100만원을 벌 수 있는 직업을 얻게 되었습니다. 얼마 후에 남자는 다시금 기도의 집을 찾아왔고 다시 직장을 잃어버리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자초지종을 물었고 그는 월급이 150만원이라는 월세를 감당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남자는 직장을 잡자마자 자신의 작은 월급으로는 감당 할 수 없는 큰 집으로 이사를 갔던 것입니다. 그는 사장에게 월급을 올려달라고 계속해서 졸랐고 결국 사장은 그를 해고해버렸습니다.

한 중년의 여성이 오직 하나의 청원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의 집에 찾아와 기도를 했습니다. 이 여성이 바라는 오직 한 가지는 승진과 그에 따른 수입의 증가였습니다. 이 여성은 한 달에 1500만 원 이상을 벌고 있었습니다. 여성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신부님, 전 꼭 승진해야 해요. 제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저축해야 하거든요. 현재의 월급으로는 저축을 할 수가 없어요. 저는 한 달에 3000만원을 벌어야 합니다.” 저는 여인에게 지금 여인이 기도해야 하는 가장 큰 승진은 바로 “거룩함으로의 승진”이라고 말해주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현세만을 위하여 그리스도께 희망을 걸고 있다면, 우리는 모든 인간 가운데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1코린 15,19) 세상에는 직장도 당장 오늘 저녁에 먹을 음식도 얻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치를 염원하는 와중에도 말입니다. 주님께 용서와 자비를 청하도록 합시다.

돈 욕심에 얽매어 살지 말고 지금 가진 것으로 만족하십시오. 그분께서 “나는 결코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겠다.” 하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는 분이시니 나는 두려워하지 않으리라. 사람이 나에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히브 13,5-6

돈이 있으면, 우리는 무분별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주위 사람들이 직장, 승진, 어떤 물질적인 것들을 위해 기도하지만 그것들을 얻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돈에 믿음을 두고 있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많은 돈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영혼이 죽어버리면 그것이 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너희는 먼저 하느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로움을 찾아라. 그러면 이 모든 것도 곁들여 받게 될 것이다.

-마태 6,33

우리는 그저 위기가 닥쳤을 때에만 하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려 합니다.

내가 궁핍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는 어떠한 처지에서도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필리 4,11

성경의 가르침을 얻기 위해서 저는 언제나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제가 충만히, 그리고 전적으로 당신께 의지하도록 저에게 시련을 내려주십시오.” 만일 제가 충분한 돈을 가지고 있다면, 저는 하느님을 바라보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필요한 것이 있으면 그저 돈을 들고 사러 가면 그만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꼭 필요하지 않은 것이라도 돈이 있으니 말입니다.

죄인의 사업에 탄복하지 말고 주님을 신뢰하며 네 일에 전념하여라. 주님 보시기에는 가난한 이를 순식간에 부자로 만드는 것이 쉽기 때문이다.

-집회 11,21

돈을 너무 중요시 하는 것도 하나의 죄입니다. 강도들도 부자가 되고 싶어 하며, 그렇기에 다른 사람의 것을 훔치지 않습니까?

가난하십니까? 예수님께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부유하다면, 하느님께 의지하는 것은 아주 힘든 일입니다. 우리 팀원

중에 하주 열심히 일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대학원 과정을 모두 마쳤지만 학위증명서를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대학원 학장은 이 청년에게 학위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200만원을 지불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청년은 저를 여러 번 찾아와서 학위증명서를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했습니다. 학위증명서가 없으면 자신은 직장도 구하지 못하고 학업도 지속할 수 없다고 말했지요. 제 마음 속에서는 자주 이 청년을 도와줘야 한다는 생각이 솟아 올랐지만 주님께서는 이를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청년에게 주님께서 필요한 증명서를 주실 것이라 이야기해주었습니다. 그는 저에게 대답했습니다. “이곳 나이로비에서 어떻게 말입니까?” 2년 후에 이 청년은 하느님의 힘과 기도에 의지해서 자신의 학교로 찾아갔고 이번에는 기적처럼 그 어떤 어려움 없이 무료로 학위 증명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주위 사람들이
직장, 승진, 어떤 물질적인 것들을 위해 기도하지만
그것들을 얻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돈에 믿음을 두고 있기 때문이지요.”

가끔씩 우리는 돈으로 인해 눈이 멀어버리게 됩니다. 한번은 어떤 변호사가 저를 찾아와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그는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재산을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던 부동산도 모두 팔아야 했고 말 그대로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 변호사에게 부정한 방법으로 수임료를 벌어들인 적이 있었는지를 물었습니다. 실제로 이 변호사는 한 과부의 사건을 변호한 적이 있었는데, 이 과부는 남편이 죽고 남긴 유산을 남편의 가족들에게 모두 빼앗겨 빈털터리가 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과부는 법원에 소송을 내고 이 변호사를 찾아왔던 것입니다. 운 좋게도 변호사는 승소했고, 과부에게 유산으로 얻게 된 부동산의 60퍼센트를 수임료로 요구했습니다. 오직 유산의 40퍼센트만이 과부에게 남겨지게 된 것이죠. 이 변호사는 과부에게 말했습니다. “이 사건은 진거나 마찬가지로였습니다. 당신은 40퍼센트라도 받은 것을 다행으로 여기세요. 제가 당신을 변호하기 위해 애쓰지 않았다면, 당신은 빈털터리로 살아가야 했을 겁니다.” 변호사는 자신이 수임료로 유산의 60퍼센트를 가져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가 기억하기로 그날 이후로 사업에 차질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너희는 어떤 과부나 고아도 억눌러서는 안 된다. 너희가 그들을 억눌

러 그들이 나에게 부르짖으면, 나는 그 부르짖음을 들어줄 것이다.

-탈출 22,21-22

의사, 간호사, 변호사, 교사 등, 우리의 직업이 공동체에 필수적이라 하더라도 주님께서는 우리가 가난한 이들을 정의롭게 대하길 요구하십니다. 어떤 피정에서 주님께서는 피정에 참여 중이던 한 특정한 변호사에게 말씀을 내리셨습니다. “거짓으로 돈을 버는 것이 너의 직업이라고 누가 말해주었느냐?” 미카 예언자는 말합니다.

사람아, 무엇이 착한 일이고 주님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분께서 너에게 이미 말씀하셨다. 공정을 실천하고 신의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느님과 함께 걷는 것이 아니냐?

-미카 6,8

의사와 간호사들은 그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고 사람들을, 특히 가난한 이들을 치료해주어야 한다는 사실을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마태오 복음 25장에서 하신 것처럼, ‘내가 아프고 돈이 없어 약을 사지 못했을 때 너는 내가 돈이 없다는 이유로 나를 저버리지 않았느냐? 내가 아프리카에서 말라리아로 죽어가고 있었지만 너는 이곳에 있는 나를 떠나서 부유한 이들을 치료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유럽으로 가버리지 않았느냐?’라고 우리에게 말씀 하실 것입니다.

“변호사는 자신이 수입료로 유산의 60퍼센트를 가져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가 기억하기로 그날 이 후로 사업에 차질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가난한 이들을 제일 먼저 돌보십시오.

어느 여의사가 저를 찾아와서 미국에서 살고 일할 수 있는 비자를 발급 받도록 기도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여의사에게 말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선생님이 이 곳 케냐에 머물면서 가난으로 고통 받는 이들을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한 교사가 새 학교로 옮기자마자 실직을 하게 되어 저를 찾아와 기도를 부탁

했습니다. 교사는 주님께서 왜 자신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으시는지를 알고 싶어 했습니다. 이 교사는 오랫동안 수많은 아이들을 가르치며 아이들에게 희망과 지식을 심어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승진도 없었기에 교사는 더 나은 월급을 제공하는 다른 학교로 옮길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사는 저에게 말했습니다. “주님께서서는 무엇 때문에 제가 승진하는 것을 원치 않으실까요? 새 학교로 옮겨갔지만 별다른 이유 없이 실직하게 되었어요. 지금 저는 갈 곳이 없습니다. 제 자녀의 학비조차 대지 못할 정도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어요.” 주님께서서는 교사의 질문에 대한 답을 질문의 형태로 저에게 내려주셨습니다. “너는 왜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내 아이들을 버린 것이냐?”

“어떤 피정에서 주님께서서는
피정에 참여 중이던
한 특정한 변호사에게 말씀을 내리셨습니다.
거짓으로 돈을 버는 것이 너의 직업이라고 누가 말해주었느냐?”

이 교사는 자신이 가르치던 학교를 떠나서 더 많은 월급을 주는 학교로 갔습니다. 교사는 이전에 근무하던 학교에서 유일한 수학선생님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이 교사가 이전 학교를 떠났을 때, 학생들과 학교는 시련을 겪게 되었습니다. 교사가 일을 그만두는 바람에 학생들의 미래마저 어두워졌습니다. 교사는 이 학생들이 모든 기도에 답을 해주시는 대 스승이신 주님의 자녀들임을 잊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 가련한 이가 부르짖자 주님께서 들으시어 모든 곤경에서 그를 구원하셨네.

-시편 34,7

모든 민족들에게 주님의 날이 가까웠으니 네가 한 그대로 너도 당하고 너의 행실이 네 머리 위로 돌아가리라.

-오바 1,15

여러분은 축복을 받자마자 그 길로 사라져버릴 것입니까?

한 형제님이 기도를 하러 자주 찾아왔었는데, 이 형제님은 직업이 없었습니다. 하느님께서 이 형제님의 기도에 응답해주시어 아주 좋은 직장에 취직을 하

게 되었습니다. 직업을 갖게 되자 이 형제님은 ‘일정이 너무 바빠서’ 더 이상 기도하러 오지 않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형제님은 저를 찾아왔고 직장을 다시 잃어버리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직장을 잃게 된 이유를 물으니, 이 형제님은 취직한 후 두 달 동안은 시간을 내어서 열심히 기도도 하고 십일조도 충실히 내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형제님은 세 번째 달부터 긴급한 일들이 많이 생겨서 그 달의 십일조를 다음 달로 미루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 달에는 대출금을 갚느라 또 다시 십일조를 다음 달로 미루게 되었습니다. 이 같은 일들이 계속 반복되었고 형제님은 결국 십일조를 내지 않게 되었습니다. 너무 바쁘다는 핑계로 주님으로부터 멀어졌기에 형제님은 주님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애야, 너무 많은 일을 벌이지 마라. 일이 많으면 벌을 면하지 못한다.
추구한다고 다 얻을 수는 없고 달아난다고 벗어나는 것은 아니다.

-집회 11,10

십일조를 내는 것은 하느님께 온전히 의지하고자하는 내적 태도의 표현입니다. 하느님께 대한 신앙의 표현인 것이죠. 십일조를 성실히 바치는 것은 하느님을 주님이시며 우리가 벌어들이는 모든 수입의 주인이시며 수입의 모든 원천을 제공해주시는 분으로 받아들이는 행위입니다.

주님께서는 갚아 주시는 분이시기에 일곱 배로 너에게 갚아 주시리라.

-집회 35,13

한번은 젊은 자매님이 저를 찾아와 말했습니다. “신부님, 제가 승진할 수 있게 기도 좀 해주세요.” 이 자매님은 은행에서 근무하고 있었고 이미 안정적인 지위에 있었습니다. 저는 자매님에게 한 달 동안 묵상하고 기도할 수 있는 성경구절을 내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자매님은 두 달을 묵상하고 기도했습니다. 두 달이 지나서 자매님은 저를 다시 찾아왔지요. 저는 자매님에게 한 달 더 성경을 묵상하고 기도하라고 말해주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인내심을 잃어버린 자매님은 저를 다시 찾아와서 말했습니다. “신부님, 성경을 읽어도 똑같은 것 같아요. 기도할 시간도 없을뿐더러, 기도를 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걸요.” 주님께서는 여인에게 다음의 말씀을 내려주셨습니다:

나의 형제 여러분, 갖가지 시련에 빠지게 되면 그것을 다시없는 기쁨으로 여기십시오. 여러분도 알고 있듯이, 여러분의 믿음이 시험을 받으면 인내가 생겨납니다. 그 인내가 완전한 효력을 내도록 하십시오. 그리하면 모든 면에서 모자람 없이 완전하고 온전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야고 1,2-4

**“십일조를 성실히 바치는 것은
하느님을 주님이시며
우리가 벌어들이는 모든 수입의 주인이시며
수입의 모든 원천을 제공해주시는 분으로
받아들이는 행위입니다.”**

저는 자매님에게 삶에서 신앙을 잃어버린 적이 있었는지를 물어보았습니다. 자매님은 대학생 시절 타종교에 심취해 있던 친구의 영향을 받았던 적이 있었다고 대답했습니다. 이 자매님은 친구를 따라 이슬람 사원까지 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무려 8년 동안이나, 자매님은 하느님과 하느님께 대한 신앙을 소홀히 했던 것입니다. 저는 자매님에게 말했습니다. “지금 겪고 있는 시련은 주님께서 내려주신 것입니다. 신앙을 저버렸던 모든 순간을 떠올리면서, 시련 중에 주님의 편에 서서 악을 물리쳐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느님의 강한 손아래에서 자신을 낮추십시오. 때가 되면 그분께서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걱정을 그분께 내맡기십시오. 그분께서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1베드 5,6-7

물질적인 것과 부유함을 우선하게 되면

우리가 물질적인 것을 너무 중요하게 여기게 되면, 그 물질적인 것들이 주님의 자리를 차지해버리고는 우리의 신이 되어버립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 마음이 순수하고 거룩한지, 그리고 물질적인 것에 너무 얽매이지는 않는지 자세히 들여다봐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이 우리를 단죄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느님 앞

에서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청하는 것은 다 그분에게서 받게 됩니다. 우리가 그분의 계명을 지키고 그분 마음에 드는 것을 하기 때문입니다.

-1요한 3,21-22

형제님 한 분이 저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신부님, 제 차를 좀 축복해주십시오.” 저는 주위를 둘러보고는 물었습니다. “근데 차는 어디에 있습니까?” 형제님이 대답했습니다. “차는 여기가 아니라 집 차고에 있습니다. 제가 신부님의 저의 집으로 안내하겠습니다.” 형제님은 자신이 꿈꿔오던 차를 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고가 나기 일쑤였죠. “차를 구입했던 바로 그날, 매장에서 집으로 운전해서 오다가 트럭과 부딪혔습니다. 그날 이후로 너무 많은 사고가 일어났어요. 얼마 전에도 사고가 났습니다. 운전대를 잡기가 너무 무서워서 차고에 세워두었어요. 축복을 받기 전까지는 운전을 하지 않으려고요.” 저는 형제님에게 이전에도 지금처럼 차를 얻고자 했던 적이 있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형제님이 대답했습니다. “신부님, 사실 저는 중학생 때부터 비싼 차를 가지고 싶어했습니다. 취직을 하게 되면 저축을 열심히 해서 지금의 차를 꼭 사고야 말겠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저는 형제님에게 말했습니다. “사고가 나지 않을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음에 가득 찬 욕망을 내려놓고 차를 파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느님을 삶의 첫 번째 자리로 모시는 것이고요.” 저를 바라보는 형제님의 얼굴이 창백해졌고, 힘이 다 빠져버린 듯 기어들어가는 목소리고 말했습니다. “차를 팔아 버리라고요?” 저는 형제님에게, “형제님을 보호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주님뿐이십니다. 그러니 형제님의 영혼에서 가장 값비싸고 새로운 자리를 하느님께 마련해드리세요”라고 하며 시편 88장 11절을 외며 기도하라고 조언해주었습니다:

주님, 제게 당신의 길을 가르치소서. 제가 당신의 진실 안에 걸으오리다. 당신 이름을 경외하도록 제 마음을 모아 주소서.

악마의 상자?

뭘바이에 있는 피정 센터에 있을 때의 일입니다. 인격 장애와 어마어마한 분노를 품고 있는 자매님이 피정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보통 피정이 시작되기 전에 우리는 참가자들에게 피정기간 동안에는 휴대폰 전원을 끄고 텔레비전 시청을 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렇게 온전한 침묵을 유지합니다. 이

자매님은 어머니에 의해 마지못해 피정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자매님은 결혼을 했지만 남편과 함께 있는 시간을 무척이나 불편해 했습니다. 텔레비전에 중독되어 있었기 때문이었죠. 밤이면 밤마다 남편 옆에서 잠을 청하기는커녕, 남편과 따로 방을 쓰면서 밤새도록 텔레비전만 시청했습니다. 자매님은 결혼하기 전에 부모님과 함께 살았었는데, 집안일은 모두 자매님의 어머니 몫이었습니다. 결혼 후에는 모든 집안일을 자매님의 시어머니가 도맡아 해야 했습니다. 자매님의 남편은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자매님과 이혼을 했습니다. 자매님의 어머니는 자매님이 이혼을 하자마자 자매님을 데리고 피정 센터를 찾아 온 것이었습니다.

피정 센터에서조차 자매님은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강당에서 침묵기도가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도 자매님은 이리 저리 돌아다니기 일쑤였습니다. 강당에 있던 수녀님들은 누구도 침묵 기도 중에 돌아다니지 못하게 하는 임무를 받았고, 한 수녀님이 돌아다니고 있던 이 자매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수녀님은 자매님에게 다가가서 무엇을 찾고 있는지를 물었고 자매님은 수녀님에게 말했습니다. “텔레비전은 어디에 있나요?” 도리어 질문을 받게 된 수녀님은 자매님에게 피정 센터에서는 텔레비전 시청이 금지이고 굳이 시청하고 싶다면 피정센터 밖으로 나가야 한다고 말해주었습니다. 수녀님의 대답은 자매님을 화나게 했습니다. 자매님은 수녀님의 머리 수건을 잡아 당겼습니다. 자매님은 몹시 흥분했고 수녀님을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수녀님의 얼굴을 할퀴어 수녀님의 얼굴에서 핏방울이 떨어졌습니다. 수녀님은 도움을 청하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자매님은 소리 지르는 수녀님에게 조용히 하라고 명령했지요. 그럼에도 계속해서 소리 지르는 수녀님을 보고 자매님은 의자를 집어 들었습니다. 그 동안 사람들은 수녀님의 비명소리를 들었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려고 모여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수녀님이 의자에 맞기 일보 직전에 가까스로 수녀님을 구했습니다. 그 즉시 보안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달려왔습니다. 뭄바이의 피정센터는 인도의 이웃나라인 네팔 출신 보안직원을 고용하고 있었는데 네팔 출신 사람들은 덩치가 아주 컸습니다. 보안직원들이 상황을 수습하려 했지만 네 명이나 되는 보안직원들이 26살의 자매님 한명을 당해내지 못했습니다. 보안직원들은 자매님의 다리를 붙잡고 손과 발을 묶었습니다. 그러고는 자매님을 차에 넣어 어머니와 함께 집으로 돌려보내버렸습니다. 우리는 자매님을 위해 그 어떤 것도 해줄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 날 텔레비전 중독을 통해 드러난 악의 힘이 엄청나다라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보는 대로 되는 법이지요. 음란하고 부도덕한 프로그램들을 시청하다보면 자신도 모르게 삶이 흐트러져 음란하고 부도덕한 삶을 살

게 됩니다. 텔레비전에 중독이 되면 벗어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모들은 자신의 자녀들이 어떤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시청하는지 주의를 기울여 지켜보아야 합니다.

“자매님은 결혼을 했지만
남편과 함께 있는 시간을
무척이나 불편해 했습니다.
텔레비전에 중독되어 있었기 때문이었죠.”

청소년 피정을 진행하던 중에, 우리는 청소년들에게 텔레비전 시청을 멈추라고 권고했습니다. 한 학생이 하느님께서 눈을 주셨는데 어떻게 보지 않을 수가 있냐고 질문을 했습니다. 이 질문에 저는 대답했습니다. “하느님께서 눈을 주신 것은 사실이란다. 하지만 하느님께서 원하지 않는 물체나 사진을 가로막을 수 있는 눈꺼풀도 주셨단다.”

“보는 대로 되는 법이지요.
음란하고 부도덕한 프로그램들을 시청하다보면
자신도 모르게 삶이 흐트러져
음란하고 부도덕한 삶을 살게 됩니다.”

외적인 아름다움을 우선하게 되면

외적인 아름다움을 불필요하게 중요시하는 것 또한 우리 삶에서 하느님의 자리를 빼앗는 하나의 집착이 될 수 있습니다. 깔끔하고 아름다운 것을 선호하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하지만 아름다움으로 인해 영혼이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됩니다. 대신 우리는 영원히 지속되고 우리를 영원한 삶으로 이끌어주는 우리 자신의 영혼을 꾸미는 문화를 구축해야 합니다. 저는 약속이 있어서 산책 겸 이웃 동네를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이웃 동네에는 쇼핑센터가 있었고 다양한 종류의 상점이 줄을 지어 늘어서 있었습니다. 상점들 중에서도 미용실이 특히나 많았습니다. 밖에서 보니 한 미용실에 어떤 여성이 머리를 말아 올린 채 꼼짝도 하지 않은 채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세 시간이 지난 뒤 약속을 마무리하고 다시 사제관으로 발길을 옮겼지요. 아까 보았던 미용실 앞을 다시 지나가게 되었고 바로 그 여성이 여전히 머리카락을 말아 올린 채 그 모습 그대로 앉아 있는 모습에 적잖이 놀랐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면 몇 시간을

꼼짝하지 않고 의자에 앉아 있으면서 불평 한마디 내뱉지 않을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는 이를 의지적으로 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게 되었을 때는 어떻습니까? 미사시간에는 어떻고요? 실제로 우리는 종종 강론이 너무 길고 지루하다고 불평을 하곤 합니다. 우리 영혼을 깨끗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더욱 성실하고 진심을 다해 다윗 왕이 했던 것과 같이 기도드려야 합니다.

하느님, 깨끗한 마음을 제게 만들어 주시고 굳건한 영을 제 안에 새롭게 하소서. 당신 면전에서 저를 내치지 마시고 당신의 거룩한 영을 제게서 거두지 마소서. 당신 구원의 기쁨을 제게 돌려주시고 순종의 영으로 저를 받쳐 주소서.

-시편 51,12-14

한 소녀가 고해소를 찾아와서 사제에게 고백을 했습니다. “신부님, 거울을 볼 때마다 드는 생각인데요. 전 세상에서 제일 예쁜 사람인 것 같아요! 언제나 저 자신이 너무 자랑스럽다니깐요. 이 점을 꼭 고백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사제는 잠시 침묵하다가 소녀에게 말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말거라. 착각은 죄가 아니란다.”

주술과 무속 예식들

클레멘트 마자와는 나이로비의 동아프리카 가톨릭 대학교에서 개최된 영성과 치유 심포지움에서 “주술과 무속 예식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대답(아프리카의 주술과 치유: 더욱 심화된 복음화와 총체적인 발전을 위한 신학적 분석)”이라는 논문을 통해 주술과 무속 예식이 아프리카에서 일상적인 현실이라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마자와는 주술의 다양한 징후들을 조사해서 아프리카에서 일어나는 주술들의 분명한 개념과 원칙들을 나열합니다.

1. 모든 악은 개별적이다: 우연으로 일어나는 것은 없다. 반드시 누군가가 악을 유발시킨다.
2. 악한 생각들은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외부에서도 힘을 발휘한다.

악한 생각들은 그것을 물리치거나 제거하지 않는 한, 분명히 다른 누군가의 건강과 삶에 지속적으로 피해와 파괴를 줄 수 있는 독립성을 가지고 있다.

3. 악은 약초상과 무속인이 제공하는 적절한 예식, 주문, 약을 통해 제지 및 제거할 수 있다고 흔히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악을 제거할 수 있다.

4. 주술활동은 언제나 서로 알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난다.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악은 의식, 예식, 부적, 약, 주문 등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로 옮겨진다.

5. 주술은 대부분 한 개인이나 공동체에 두려움, 긴장, 고통을 심어주려고 정신과 신체에 관여하는 악을 이용해서 인간의 감각과 본성을 조작하고 속이는 행위이다.

6. 악은 악의적인 관습들이 사회의 선을 파괴하기 위해 작용하는 곳에서 정신적이고 신체적인 긴장을 유발시키거나 선한 가치와 악습 사이에서 갈등하게 만든다.

주술의 결과들

주술사들은 악의 힘을 통해 자신의 의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악마의 육화로 인지됩니다. 사람들은 주술사가 수많은 죽음을 일으키고 공동체를 파괴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도둑은 다만 훔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올 뿐이다. -요한 10,10

주술사들은 자주 사람들에게 해를 끼칩니다. 한번 주술에 걸리게 되면 그 사람은 전문적인 의학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무당에게 치료를 받을 때까지는 낫지 않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한 사람의 삶에서 무언가 잘못되더라도 한다면, 그 사람은 그 이유를 생각하면서 주술을 의심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1. 주술은 친지와 전체 공동체에 혼란, 의심, 그리고 증오를 야기한다.

2. 주술은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일으켜 개발 프로젝트와 같은 혁신적인 활동을 제한한다.
3. 주술은 공동체에 부조화를 가져온다.
4. 주술의 힘은 나쁘고 사악한 것으로 간주된다.
5. 사람들은 자신의 실패를 주술 탓으로 돌린다.
6. 주술은 생명을 위협한다.
7. 주술은 영적인 성장과 사회적 발달을 저해하는 장애물이다.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술사를 찾아가는 사람들은 대부분 더 적은 비용과 시간적으로 빠른 처리를 그 이유로 듭니다. 하지만 이들은 이 방법이 해롭고 치명적인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어떤 어머니가 자신의 딸을 우리가 진행하던 피정에 데려왔습니다. 딸은 자살을 시도했고 다른 학생들을 동요한다는 이유로 퇴학을 당했습니다. 저는 이 소녀의 손가락에 있는 검은 점을 보았습니다. 소녀는 몇 년 전, 자신의 삼촌이 자신과 남동생을 데리고 악마를 숭배하는 종교로 데려갔던 일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삼촌은 사업가였는데 사업은 뜻대로 되지 않고 내리막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삼촌은 악마 숭배자를 찾아갔으며 악마 숭배자는 삼촌에게 사업을 다시 일으키고 싶다면 친척의 피를 제물로 바쳐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삼촌은 이 소녀와 소녀의 남동생을 희생 제물로 선택했던 것입니다. 삼촌은 자신의 조카들을 악마 숭배 예식에 주기적으로 데려갔고, 소녀와 남동생은 손가락에서 흘린 피를 희생 제물로 바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시간이 흘러도 삼촌의 사업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한 예식에서 소녀와 남동생이 손가락의 피를 흘려 희생 제물로 바치고 난 후에, 소녀는 누군가 삼촌에게 피로는 충분하지 않으니 소녀와 남동생의 목숨을 제물로 바치라고 말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말을 듣자마자 소녀는 도망을 쳤지요. 그날 이 후부터 시작해 소녀는 지금까지도 두려움으로 구토를 하고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두려움이 컸던 나머지, 소녀는 손을 너무 심하게 떨어 펜을 손에 짚 수조차 없었습니다. 소녀

는 점차 호흡곤란과 그 밖의 다른 병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악마에게 피를 제물로 바친 그 순간부터, 소녀의 목숨 또한 악마의 손에 넘어가게 되었던 것이죠.

생물의 생명이 그 피에 있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 자신을 위하여 속죄 예식을 거행할 때에 그것을 제단 위에서 쓰라고 너희에게 주었다. 피가 그 생명으로 속죄하기 때문이다.

-레위 17,10

도둑인 악마는 훔치고 파괴하며 죽이기 위해 옵니다. 악마는 초대받지 않으면 우리 삶에 결코 들어오지 않습니다. 악마가 오게 되었다면, 이는 우리가 문을 열어주었기 때문이지요. 악마 숭배와 미신적인 믿음들과 예식들은 아프리카에 만연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대륙에 사는 사람들의 75퍼센트가 그리스도인들임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가족이나 가계족보 상의 누군가가 주술사를 찾아갔었다면, 악마는 그 한 사람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가족 전체, 심지어 자녀들과 미래의 후손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가족 안에 원인 모를 질병과 죽음이 생기고 자녀들은 결혼도, 직정도 얻지 못하며 불치병에 걸리며 해결책이 없는 불운이 겹치게 되지요. 이 모든 것이 주술 행위로 인해 악마가 한 가족 안으로 초대되었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정녕 내 백성이 두 가지 악행을 저질렀다. 그들은 생수의 원천인 나를 저버렸고 제 자신을 위해 저수 동굴을, 물이 고이지 못하는 갈라진 저수 동굴을 팠다.

-예레 2,13

악마 숭배 예식이나 무속적 예식에서도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은 물질적인 행복이나 즉각적인 이익을 위해 이러한 예식을 찾습니다. 하지만 이익은 짧고 수많은 파괴만이 오랫동안 남게 되지요.

다른 신들을 불쫓는 자들의 고통이 크기에 저는 그 신들에게 피의 제사를 바치지 않으며 그 이름들을 제 입술에 올리지도 않습니다.

-시편 16,4

모든 형태의 점(占)을 물리쳐야 한다. 사탄이나 마귀들에게 의뢰하는 것, 죽은 자를 불러내는 것, 미래를 ‘깨뚫어 본다’고 하는 그릇된 추측 등이 그러한 예이다.45) 탄생 별자리를 믿는 것, 점성술, 손금, 전조(前兆)와 운명에 대한 해석, 환시 현상, 점쟁이(무당)에게 물어보는 일 등에는 시간과 역사, 나아가서는 인간까지 지배하는 능력을 갖고자 하는 욕망이 감추어져 있으며, 신비로운 능력들을 장악하고자 하는 욕망 또한 숨겨져 있는 것이다. 이러한 행동들은 우리가 당연히 하느님 한 분께만 드려야 하는, 사랑의 경외심이 포함된 영예와 존경을 거스르는 것이다.

신비로운 능력들을 복종시켜 뜻대로 사용하고, 이웃에게 — 비록 이웃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려고 할지라도 — 초자연적인 능력을 발휘하기를 바라는 마술이나 요술 행위는 경신덕에 크게 위배되는 행동이다. 이러한 행동들이 남에게 해를 입히려는 의향을 지녔거나 마귀의 개입을 청하는 것이라면 더욱 비난받아 마땅하다. 부적을 지니는 것도 비난받을 일이다. 강신술에는 흔히 점이나 마술 행위가 포함된다. 그러므로 교회는 신자들에게 그러한 행위를 멀리하도록 가르친다. 민간요법이라고 일컫는 치료법을 쓰면서 악한 능력의 힘을 비는 일이나 다른 이들의 잘못된 믿음을 악용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

-가톨릭교회 교리서 2116-2117

“가족 안에 원인 모를 질병과 죽음이 생기고
자녀들은 결혼도, 직장도 얻지 못하며
불치병에 걸리고 해결책이 없는 불운이 겹치게 되지요.
이 모든 것이 주술 행위로 인해
악마가 한 가족 안으로 초대되었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1994년에 있었던 아프리카 공의회에서 주교님들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 사회에 있어 주술행위는 사람들 사이의 평화, 조화, 발전에 지속적인 위협이다.”

나 말고 다른 이름은 없다
두 번째 계명
주 너의 하느님의 이름을 부당하게 불러서는 안 된다(신명 5,11).

두 번째 계명은 우리로 하여금 하느님과 모든 성인에 대해 말할 때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행해야 하는 계약과 서약을 지킬 것을 명합니다.

주 너의 하느님의 이름을 부당하게 불러서는 안 된다. 주님은 자기 이름을 부당하게 부르는 자를 벌하지 않은 채 내버려 두지 않는다.

-탈출 20,7

두 번째 계명은 신성모독이나 저주와 불경의 말 뿐만 아니라, 모든 형태의 거짓되고 경솔하며 부당하고 불필요한 맹세를 금하고 있습니다. 서약과 맹세는 오직 하느님을 공경하거나 우리 자신과 이웃의 선을 위해 요구되어질 때에만 허용 됩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종은 주인을 공경하는 법인데 내가 아버지라면 나에게 대한 공경은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이라면 나에게 대한 두려움은 어디 있느냐? 내 이름을 업신여기는 사제들이 만군의 주님이 너희에게 말한다. “저희가 어떻게 당신의 이름을 업신여겼습니까?” 하고 너희가 말한다마는

-말라 1,6

하느님의 이름은 세상 모든 이름 중에서도 가장 위대하고 중요합니다. 우리는 결코 하느님의 이름을 공경 없이 분노나 개인적 이익을 위해 불러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주님의 기도에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는 하느님의 이름이 언제나 공경 받으셔야 함을 잘 보여줍니다.

그분 말고는 다른 누구에게도 구원이 없습니다. 사실 사람들에게 주어진 이름 가운데에서 우리가 구원받는 데에 필요한 이름은 하늘 아래 이 이름밖에 없습니다.

-사도 4,12

과연 “주님의 이름을 받들어 부르는 이는 모두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로마 10,13

하느님의 이름으로 함부로 행하게 되는 서약이나 맹세는 두 번째 계명을 어

기는 죄입니다.

네 입에 맹세하는 버릇을 들이지 말고 거룩하신 분의 이름을 습관적으로 부르지 마라. 끊임없이 문초를 당하는 종이 상처가 가지지 않듯 언제나 그분의 이름을 부르며 맹세하는 자도 결코 죄악에서 깨끗해지지 못하리라.

-집회 23,9-10

주님의 이름으로 농담이나 저주 또는 거짓말을 하는 것처럼 하느님의 이름을 부당하게 부르는 모든 행위는 두 번째 계명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하고 거짓말을 퍼뜨리는 자는 멸망한다.

-잠언 19,9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구원의 이름이며 예수님의 이름 자체가 구원자를 뜻하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존경과 공경으로 하느님께 말씀을 건네고 하느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킬 수 없는 맹세를 하느님께 하고, 하느님의 종들, 곧 사제나 수도자에 대한 소문을 퍼트리며 그들을 나쁘게 말하는 것 또한 두 번째 계명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존경 없이 그리스도의 종인 사제와 수도자를 대하는 것 또한 죄입니다. 이들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고서 주님을 대리하기 때문입니다.

나의 기름부음 받은 이들을 건드리지 말고 나의 예언자들을 괴롭히지 마라.

-시편 105,15

사제는 주님께서 뽑으시고 성별하신 특별한 사람입니다. 결코 사제나 수도자를 공격하거나 그들에게 부적절한 말을 하지 마십시오.

**“존경 없이 그리스도의 종인
사제와 수도자를 대하는 것 또한 죄입니다.
이들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고서
주님을 대리하기 때문입니다.”**

서약은 지켜야 합니다

한 어머니가 고해소로 와서 말했습니다. “저는 주님께 드린 맹세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이를 용서해주세요, 신부님. 제 아들은 어렸을 때 머리를 다쳐 많이 아팠어요. 저는 주님께 제 아들을 고쳐주신다면 토마스 사도가 걸었던 그 산 꼭대기로 아들을 데려가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주님께서는 제 아들을 치유해 주셨지만 저는 그분께 드렸던 약속을 아직까지 지키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이제 28살이 되었고요. 어떻게 해야 하죠?”

자신이 한 서약은 지켜야 합니다. 그러지 못했다면, 고해사제의 도움을 받을 수 있지요. 고해사제는 서약에 해당하는 적절한 보속을 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이나 자녀를 위한 서약은 되도록이면 하지 않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마십시오. 그러나 서로 사랑하는 것은 예외입니다.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완성한 것입니다.

-로마 13,8

**“고해사제의 도움을 받을 수 있지요.
고해사제는 서약에 해당하는
적절한 보속을 줄 수 있습니다.”**

혹을 치유 받은 수녀

토요일 전례가 진행되는 동안에 참가자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느님께 찬양과 흠숭을 드리고 있었습니다. 전례 막바지에 증언의 시간이 주어졌고 한 수녀님이 앞으로 나와 증언을 했습니다. 수녀님은 위에 큰 혹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혹이 너무 컸고 위험부담도 있었기에 의사들은 수술을 꺼려했습니다. 그래서 수녀님은 혹을 몸에 지닌 채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녀님은 혹 때문에 아주 큰 불편을 겪어야 했습니다. 어떤 음식을 먹든지 위가 더부룩했기에 충분한 양의 음식을 먹지 못했습니다. 참가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짖으며 찬양과 흠숭을 드리고 있을 때, 수녀님도 깊은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 순간 수녀님은 손길과도 같은 어떤 힘이 자신의 위로 들어와서 혹을 제거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수녀님은 자신의 배를 만져보았

고, 혹은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 순간 수녀님은 너무나도 배가 고파왔고 식당으로 달려가 그 자리에서 빵을 여덟 조각이나 먹어치웠습니다. 이전에는 결코 한 번에 먹을 수 없는 양이었습니다. 수녀님은 증언을 마무리하며 말했습니다. “이 같은 기적이 저에게 일어날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주저하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던 제 옆의 참가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저는 온전히 예수님의 사람인 수녀인데도 왜 계속 침묵하고 있었을까요? 저는 부르짖었고 주님께서서는 들으셨습니다. 저는 주님께 모든 영광과 영예를 드립니다.”

오늘날 세상이 악마의 지배를 받고 있다면, 이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는 하느님께 속한 사람들이고 온 세상은 악마의 지배 아래 놓여 있다는 것을 압니다.”(1요한 5,19)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날 낙태나 동성결혼의 합법화 같은 악을 보게 되는 이유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제대로 인식한다는 것은 그분의 힘을 제대로 인식한다는 말과 같습니다. 가장 사랑받으셔야 할 예수님께서서는 악마의 발통에서 세상을 구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주님을 거부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한 가운데에서 살아갈지라도 예수님의 이름을 제대로 인식해야함은 당연하고도 옳은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면, 주님께서 내려오시어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것입니다.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는 정녕 자유롭게 될 것이다.”(요한 8,36)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피정 기간 동안, 참가자들에게 술은 허락되지 않습니다. 또한 알코올 중독자가 술에 취한채로 피정에 참가하는 것 또한 허용하지 않습니다. 맑은 정신에 절제할 줄 아는 사람이 동행을 한다면 조건부로 참가를 허락해주지요. 뭍바이에서 있었던 한 피정에 술을 몰래 가져 들어온 남자가 있었습니다. 이 남자는 바지 호주머니에 술병을 숨기고는 계속해서 술을 마셨습니다. 우리가 강의를 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참가자들 중에 술에 취한 사람이 있음을 계시해주셨지만 우리는 그 사람을 지목하지 못했습니다.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동안 사제들은 참가자들에게 반복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라고 말했습니다. 참가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큰 목소리로 부르고 있던 와중에 이 남자는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정신이 들은 후에 남자는 자신이 피정센터에 술을 몰래 가져온 사실과 주님께서 자신을 눈여겨보시고 치유해주신 사실에 대해 증언을 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분께서는 깊은 바다와 사람의 마음까지 헤아리시고 그 술책을 꿰뚫

어 보신다. 사실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는 온갖 통찰력을 갖추시고 시대의 표징을 살피신다. 그분께서는 지나간 일과 다가올 일을 알려 주시고 숨겨진 일들의 자취를 드러내 보이신다. 어떤 생각도 그분을 벗어나지 못하고 그분 앞에는 말 한마디도 숨길 수 없다.

-집회 42,18-20

예수님의 이름은 그 힘이 너무나도 강하기에 결코 헛되이 불러서는 안 됩니다. 그분의 이름 앞에 숨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하느님 앞에서는 어떠한 피조물도 감추어져 있을 수 없습니다. 그분 눈에는 모든 것이 별거승이로 드러나 있습니다. 이러한 하느님께 우리는 셈을 해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히브 4,13)

허락되지 않은 특전은 예기치 않은 재앙으로 이어 집니다

하루는 너무 심하게 다쳐서 병원에 입원하게 된 국회의원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이 국회의원은 끔찍한 사고를 당해서 두 다리가 모두 부러졌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이 사람은 당뇨도 있었기에 치료가 매우 더딘 상태였습니다. 국회의원은 극심한 우울감에 빠졌고 모든 희망을 잃어버렸습니다. 사고가 나기 전에는 아주 활동적이고 외향적인 사람이었지만, 지금은 그저 초라할 뿐이었습니다. 국회의원은 우리에게 치유기도를 청했습니다. 주님께서서는 이 국회의원에게 주님께서 성별하신 이를 상처 입혔던 것에 대해 용서를 청하라고 말씀을 내려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국회의원은 이전에 거짓으로 고소를 했던 한 수녀님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국회의원은 수녀원에서 운영하는 학교에 다니고 있던 딸의 학비를 계속해서 내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 학교의 학장 수녀님은 국회의원에게 학비를 내지 않는다면 딸은 책상에 앉아 시험을 볼 수 없게 될 것이라 말했습니다. 국회의원은 학교를 찾아가서 딸이 시험을 치를 수 있게 해달라고 청했지만 이는 그저 말뿐이었을 뿐, 여전히 학비를 내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이 국회의원이며 많은 자선을 행했기에 딸의 학비를 면제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학장 수녀님은, “우리는 정책 상, 모든 학생들을 공평하게 대해야 합니다. 또한 의원님이 학비를 낼 수 있는 충분한 재산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따님에게 무상으로 교육을 제공하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말해주었습니다. 아무 말도 없이 돌아간 국회의원은 다음날 학장 수녀님에게 전화해 자신의 딸에게 시험을 치를 수 없게 했다면서 수녀님을 온갖 말로 모욕했습니다. 그러고는 본당 사제에게 가서 학장 수녀님에 대한 거짓된 소문을 들려주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학장

수녀님은 학교에서 쫓겨나 다른 곳으로 발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국회의원은 “남을 심판하지 마라. 그래야 너희도 심판받지 않는다.”(마태 7,1)는 말씀을 잊은 채 살아왔던 것이지요. 퇴원을 해서 피정센터를 찾아온 그에게 우리는 먼저 그 수녀님을 찾아가서 수녀님의 발을 붙잡고 용서를 청하라고 조언해주었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이 국회의원이며
많은 자선을 행했기에
딸의 학비를 면제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제들에게서 돈을 거둬들이지 마십시오.

한 여인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이 여인은 한때 아주 부유했지만 지금은 동전 한 푼 없는 신세가 되어 있었습니다. 여인은 여러 다른 은행에 투자를 했지만 모든 것을 잃고 말았습니다. 여인은 저에게 왜 자신이 이 같은 불행으로 고통 받아야 하는지를 물었습니다. 저는 여인에게 이전에 한번이라도 사제의 돈을 취했던 적이 있는지를 물어보았습니다. 여인은 예전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여인이 다니고 있던 본당의 사제는 성당에서 쓸 키보드가 필요했습니다. 여인은 두바이에서 무역업을 하던 친구가 있었죠. 여인은 본당 사제에게 접근해 두바이에서 저렴하면서 성능이 좋은 키보드를 구해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에게 5만원만 주면 나머지 필요한 비용은 자신이 다 부담한다는 말로 본당 사제를 꼬드겼습니다. 본당 사제는 여인에게 5만원을 건네주었습니다. 당시에 여인은 5만원이 급하게 필요했던 상황에 처해있었고 사제로부터 받은 5만원을 키보드가 아닌 자신의 일에 써버렸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본당 사제가 키보드에 대해 물어보았지만, 여인은 키보드가 두바이에서 케냐로 오던 중에 문제가 생겨서 다른 곳으로 가버리게 되었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본당 사제가 그 돈은 성당의 돈이니 돌려달라고 말했지만 여인은 이미 주문서가 들어갔고 돈이 공급자에게 가버려서 돌려받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다시 거짓말을 했습니다. 저는 이 여인에게 다음의 성경구절을 전해주었습니다.

모든 민족들에게 주님의 날이 가까웠으니 네가 한 그대로 너도 당하고 너의 행실이 네 머리 위로 돌아가리라.

-오바 1,15

사제들과 불필요한 친분을 만들지 마십시오.

사제와 지나치게 가까워지면 그만큼 사제가 주님 앞에 있어야 하는 소중한 시간을 빼앗게 됩니다. 사제에게 가까워짐으로써 사제를 하느님으로부터 떨어트려 놓게 되는 것이죠. 사제는 전적으로 그리고 절대적으로 스승이신 주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하느님께서서는 질투하시는 하느님이시구요. 하느님께서서는 사제를 너무나도 사랑하시어 언제나 사제를 필요로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신 다음, 당신께서 원하시는 이들을 가까이 부르시니 그들이 그분께 나아왔다.

-마르 3,13

주님께 기름부음 받은 이들과 지나친 친분을 쌓는 것은 한 사람의 삶에 장애를 가져옵니다. 사제나 수도자와 가지게 되는 어떤 형태의 외적인 관계도 잘못된 것입니다. 사제직은 하나의 성사입니다. 하나의 성사로서 주님의 은총이 사제를 통해 흘러나오며, 예수님께서 사제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안에 머무르시기에 여인이 사제와 사랑에 빠지는 거나 사제를 유혹하고 친분을 쌓는 것은 죄나 다름없습니다. 이를 행하는 여성은 자신의 삶을 파괴하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그 안에 머무르시기에
여인이 사제와 사랑에 빠지는 거나
사제를 유혹하고 친분을 쌓는 것은
죄나 다름없습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사목을 판단하려 하지 마십시오.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성령은 같은 성령이십니다. 직분은 여러 가지지만 주님은 같은 주님이십니다. 활동은 여러 가지지만 모든 사람 안에서 모든 활동을 일으키시는 분은 같은 하느님이십니다. 하느님께서 각 사람에게 공동선을 위하여 성령을 드러내 보여 주십니다.

-1코린 12,4-7

사목의 종류는 아주 다양합니다. 어느 특별 피정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

가 신령한 언어로 기도를 시작하자 한 여성이 아주 이상하고 기이한 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왜 그런 소리를 내는지 묻자, 이 여성은 목이 딱 막히는 듯한 느낌이 들면서 기이한 소리를 내지 않으려 해도 입에서 저절로 나왔다고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기도했고 성령께서는 여인에게 신령한 언어의 은사를 비웃었던 일을 회개하라는 말씀을 내려주셨습니다. 생각에 잠겼던 여인은 지난 기도모임 시간에 신령한 언어로 기도를 하던 모임의 리더를 비웃었던 자신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여인은 기도모임의 리더가 신령한 언어의 기도를 하는 척만 하고 그 모양새도 우스꽝스럽다고 비난을 했던 것입니다.

하느님의 사목에 대해 험담을 늘어놓는 것 또한 두 번째 계명을 거스르는 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호기심을 못 이겨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고 평가만 하기 위해서 센터를 방문합니다. 피정 장소에 가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피정센터와 그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 주위 사람들에게 말을 할 때면,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성령께서 하시는 일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본 것에 대해 판단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는 주님을 경외함으로 흐뭇해하리라. 그는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판결하지 않고 자기 귀에 들리는 대로 심판하지 않으리라. 힘없는 이들을 정의로 재판하고 이 땅의 가련한 이들을 정당하게 심판하리라. 그는 자기 입에서 나오는 막대로 무뢰배를 내리치고 자기 입술에서 나오는 바람으로 악인을 죽이리라.

-이사 11,3-4

우리는 여전히 주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영적인 일은 물질적인 일보다 훨씬 위대한 법이지요. 바오로 사도와 다른 사도들이 사목을 시작했을 때, 가말리엘은 사도들이 행한 일들이 주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면 사도들이 스스로 죽게 될 것이라 말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뜻을 아는 지혜의 은사를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할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다.”(요한 14,12) 주님께서서는 당신의 지혜를 철부지들에게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마음의 사람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주님의 목소리를 듣지도 보지도 못할 것입니다. 주님께서서는 우리의 머리가 아닌 마음에 말씀을 건네 오시기 때문입니다. 어린이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하느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버지, 하늘과 땅의 주님, 지혜롭다는 자들과 슬기롭다는 자들에게는 이것을 감추시고 철부지들에게는 드러내 보이시니,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마태 11,25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많은 일들 중에서 삼분의 일이 치유사목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단 한번 기뻐하셨는데, 제자들이 돌아와 마귀를 쫓아내고 많은 이들을 치유했다고 말씀드렸을 때였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님의 사목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게 된다면 그것이 무엇이고 언제든지 간에 기쁨함이 마땅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주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영적인 일은 물질적인 일보다 훨씬 위대한 법이지요.”

오늘이 바로 그 날이다
세 번째 계명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여라(신명 5,12-14)

주 너의 하느님이 너에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여라. 옛세 동안 일하면서 네 할 일을 다 하여라. 그러나 이렛날은 주 너의 하느님을 위한 안식일이다. 그날 너의 아들과 딸, 너의 남종과 여종, 너의 소와 나귀, 그리고 너의 모든 짐승과 네 동네에 사는 이방인은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하여 너의 남종과 여종도 너와 똑같이 쉬게 해야 한다.

-신명 5,12-14

세 번째 계명은 우리에게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고 명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날,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인 일요일을 안식일이자 찬미와 흠송의 날로 받아들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일요일은 거룩한 날이지요. 히브리서의 저자는 우리에게 다음의 사실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이 습관적으로 그러듯이 우리의 모임을 소홀히 하지 말고,

서로 격려합시다. 여러분도 보다시피 그날이 가까이 오고 있으니 더욱더 그렇게 합시다.

-히브 10,25

우리는 무거운 업무를 내려놓고 미사에 참석하며 자선을 행함으로써 일요일을 지켜 거룩하게 합니다.

너희는 옛새 동안 일을 하고, 이렛날에는 쉬어야 한다. 이는 너희 소와 나귀가 쉬고, 너희 여종의 아들과 이방인이 숨을 돌리게 하려는 것이다.

-탈출 23,12

일요일을 하느님께 봉헌된 날로 따로 떼어두는 이유는 세상 만물의 창조주이시자 모든 살아있는 것들을 지탱해주시는 주님께 경배를 드리기 위함입니다. 주님께 경배를 드리기 위해서 일요일에 휴식을 취한다는 것은 곧 우리가 하는 일과 노동이 인간의 노력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돌보시는 하느님께 달려 있다는 선포인 것이지요. 우리는 그저 열심히 일하는 것만으로는 성공을 거둘 수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말씀 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안에 머무르는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 없이 아무것도 하지 못 한다.”(요한 15,5) 하느님께 공경을 드리기 위해서 모든 일상적인 일들을 제쳐 두는 것은 모든 것을 베풀어주시는 하느님께 전적으로 의존한다는 마음가짐의 표현인 것입니다.(창세 22,14 참조)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차려입을까?’ 하며 걱정하지 마라. 이런 것들은 모두 다른 민족들이 애써 찾는 것이다. 하늘의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함을 아신다. 너희는 먼저 하느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로움을 찾아라. 그러면 이 모든 것도 곁들여 받게 될 것이다.

-마태 6,31-33

가톨릭교회 교리서에 따르면, 주일미사에 참석하지 않는 것은 대죄입니다. 일요일은 주님을 경배하기 위한 날이기 때문이지요. 주님께서 베풀어주시는 보호를 잃어버리는 길 중 한 가지가 바로 주일미사에 참석하지 않는 것입니다. 태

어난 순간부터 죽는 순간까지 삶은 투쟁입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남고자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주일미사에 참석하고 성경을 읽으며 기도하면서 주님과 함께 하는 시간을 가져야만 합니다.

“일요일을 하느님께 봉헌된 날로
따로 떼어두는 이유는
세상 만물의 창조주이시자
모든 살아있는 것들을 지탱해주시는 주님께
경배를 드리기 위함입니다.”

키레네사람 시몬을 축복받은 이로 만든 것은 다름 아닌 가혹한 군인들 이었습니다

한 젊은이가 질문을 했습니다. “신부님, 엄마의 등살에 밀려 주일미사에 간다고 저에게 무슨 이득이 있을까요? 저는 신앙이 없습니다. 그러니 제발 신부님께서 엄마에게 저를 강요하지 말라고 말씀 좀해주세요.” 저는 이 젊은이에게 대답했습니다. “아직 젊어서 주일미사에 참석해야 하는 이유를 깨닫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단다. 키레네 사람 시몬을 떠올려 보자꾸나.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진 시몬을 축복받은 사람으로 기억하지 않니? 하지만 군인들이 시몬에게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라고 명령했을 때, 시몬은 죄인의 십자가를 짊어질 수는 없다고 말했단다. 군인들은 강제로 시몬에게 예수님을 도와주라고 명령해야 했다. 지금 네가 키레네 사람 시몬에게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짊어졌던 그 위대한 순간에 일어났던 일들에게 관해 질문을 한다면, 시몬은 아마도 세미나라도 열어야 할 만큼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지 않을까? 그 수많은 사람들 중 자신만이 얻게 된 그 특권을 자랑하면서 말하겠지. 내가 왕 중의 왕을 섬기도록 뽑혔던 단 한 사람이었다고 말이야. 하지만 진실은 시몬도 예수님을 저주받은 이로 부르면서 그분을 모욕했다는 점이란다. 자신이 거룩한 사람인양 행동했지. 키레네 사람 시몬은 주님의 십자가라는, 그 축복을 짊어지도록 강요했던 군인들에게 감사해야 하지 않을까?” 우리들 중 누군가는 주일미사에 참석하고 피정에 참가하도록 강요받아왔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 삶을 뒤돌아보았을 때, 자신이 축복받았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집회서는 자녀들이 기도를 하도록 훈육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그가 젊을 때 권한을 주지 말고 그의 잘못을 모른 체하지 마라.”(집회 30,11)

“키레네 사람 시몬은 주님의 십자가라는,
그 축복을 짊어지도록 강요했던 군인들에게
감사해야 하지 않을까?”

가족기도야말로 진정한 보호의 방벽입니다

저희 가족의 전통은 막내가 가족기도를 이끄는 것입니다. 가족기도는 저녁 7시 30분부터 8시 30분까지였죠. 다른 것은 늦어도 괜찮았지만 가족기도만은 예외였습니다. 네 살이었던 저는 당시 우리 가족의 막내였기에 기도방 제일 앞 자리에 앉아서 기도를 이끌었습니다. 가족기도시간 내도록 무릎을 꿇고 있어야 했는데, 제가 잠깐 졸기라도 하면 아버지는 제 귀를 꼬집었습니다. 나머지 가족들은 어떤가 하고 슬쩍 뒤돌아 볼 때면, 어머니는 코까지 골며 졸고 있었고 제 형들은 편안한 자세로 벽에 기대어 앉아 있었지요. 그런데도 아버지는 제 귀만 꼬집으셨습니다. 그때는 얼른 커서 막내 자리를 벗어나고픈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벽에 기대어 편안한 자세로 기도하는 형들이 너무나 부러웠으니까요. 솔직히 기도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되돌아보면, 아버지가 저에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법에 대해 가르쳐 주셨던 그 방법들이 참 사랑스럽게 다가옵니다. 귀를 꼬집히고 고통스럽게 무릎을 꿇고 있었던 것에게 대해 지금은 감사해하고 있죠. 저는 제 부모님이 하느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놀라곤 합니다.

그가 젊을 때 권한을 주지 말고 그의 잘못을 모른 체하지 마라. 젊을 때 그가 목을 숙이게 하고 어릴 때 그의 옆구리를 때려라. 그러지 않으면 그가 고집불통이 되어 네게 순종하지 않고 너는 그로 말미암아 마음의 고통을 받으리라. 네 자식을 올바르게 교육하고 그에게 공을 들여 그의 수치스러운 행동 때문에 다치는 일이 없게 하여라.

-집회 30,11-13

이탈리아에서 온 어떤 의사가 여러 가지 문제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저는 이 의사에게 물었습니다. “기도는 하십니까?” 의사는 빠르게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지요, 신부님. 매일 기도하는걸요.”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매일 목주기도는 하시나요?” 의사는 답했습니다. “5단은 바치지 못하지만 그래도 하루에 성모송 한 번은 바칩니다.” 이 의사는 한 번의 성모송이 하느님께서 베풀어주시는 온갖 은총과 보호에 충분히 합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른 모든

것을 할 시간은 있지만 예수님을 위해서는 그렇지 않다는 사실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매일 기도를 한다고는 하지만 성모송 한 번 바치는 그 짧은 시간동안 어떻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오시어 여러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이 의사는 한 번의 성모송이
하느님께서 베풀어주시는 온갖 은총과 보호에
충분히 합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거룩한 이들을 위한 성찬의 전례

미사에 참석하게 되면 우리는 합당하게 성체를 받아 모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부당하게 주님의 빵을 먹거나 그분의 잔을 마시는 자는 주님의 몸과 피에 죄를 짓게 됩니다.

-1코린 11,27

많은 신자들이 성찬의 전례에서 아무것도 얻지 못하거나 이 거룩한 시간을 지루해 합니다. 우리 주님을 부당하게 받아 모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미사 중에 참회의 기도를 하지만, 교회는 우리가 가진 모든 죄를 고백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가능하다면, 우리는 규칙적이며 즉각적으로 고해성사에 임해야 합니다. 고해성사는 영성체를 받아 모시기 위한 전제 조건입니다.

한 수녀님이 기도를 청하며 찾아왔습니다. 수녀님은 커다란 위기에 봉착해 있었습니다. 수녀회로부터 참사회 참석을 명받고 직무정지를 당한 상태였습니다. 수녀님이 주님의 보호를 언제 어떻게 잃어버리게 되었는지 알기 위해 기도를 하던 중에 우리는 수녀님이 적절한 참회 없이 죄 중에 성체를 영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수녀님은 자신의 죄가 미사 중에 자동적으로 용서 받았다고 생각했으며 이 때문에 고해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수녀님에게 한 달 동안 기도할 수 있는 성경 구절들을 건네주면서, 이 시간 동안에 진실된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조언해주었습니다. 또한 우리는 수녀님에게 성경을 읽는 동안 주님께서 수녀님이 범했던 모든 죄를 드러내 보여 주실 것이라 말해주었습니다. 이 시간 동안 수녀님은 성체를 영하지 않았지요. 한 달 후에, 수녀님은 우리를 다시 찾아와서 고해성사를 청했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뒤에 수녀님은 다시 돌아와서 매우 흥분된 상태로 사람들이 자신을 쳐다보고 있었기 때문에 성체를 영하러 나갈 수 없었다고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수녀님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수녀님을 쳐다보고 있어서 성체를 영할 수 없었다는 말입니까? 그렇다면 수녀님이 죄 중에 당신의 몸을 받아 모시는 것을 매년 지켜보셔야 했던 우리의 가장 사랑하올 예수님께는 어떻게 하셨나요? 그동안 수녀님이 예수님께 얼마나 큰 상처와 고통과 모욕을 드렸는지 헤아려 보셨습니까?” 바오로 사도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내가 지금 사람들의 지지를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까? 하느님의 지지를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려고 하는 것입니까? 내가 아직도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려고 하는 것이라면, 나는 더 이상 그리스도의 종이 아닐 것입니다.

-갈라 1,10

주님의 몸을 부당하게 받아 모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현존을 모욕하는 것과 같은 행위입니다. 2주의 시간이 지난 뒤, 수녀님은 눈물의 고해성사를 가졌습니다. 수녀님은 우리를 찾아와서 자신의 체험을 증언하며 말했습니다. “거룩함 안에서 주님을 받아 모셨을 때 처음으로 저는 성체 성사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수년간 미사 안에서 하느님과의 진실 된 만남을 기도했지만 그분의 현존을 의심했어요. 눈물의 고해성사 후에 주님을 받아 모시게 되었을 때, 저는 제 삶을 통틀어 가장 놀라운 하느님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체를 받아 보신 그 순간, 저는 불꽃이 제 혀에 닿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순간 제 온 몸은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말 그대로 주님의 현존으로 인해 저는 뜨겁게 타올라 주체할 수 없을 만큼 몸이 떨렸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우리의 하느님은 다 태워 버리는 불이십니다.(히브 12,29) 주님의 현존은 타오르는 불꽃이지요. 합당하게 성체를 받아 모신 직후에 또 다른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수녀님이 속한 수녀회가 수녀님의 지난 잘못을 용서하고 공동체에 다시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던 것이지요. 수녀님은 말했습니다. “다시는 주님을 부당하게 모시지 않겠습니다!”

그렇다면 성체를 영하지 않아야 할 때는 언제입니까? 가톨릭교회의 성체성사는 오직 열심 한 가톨릭 신자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성체 성사 안에 주님께서 실제로 현존하신다고 믿기 때문이지요. 한 신자가 저에게 와서 가톨릭 신자가 아닌 남편이 성체를 영해도 되는지 질문했습니다. 저는 이 신자에게 그렇

게 해서는 안 되며, 만약 그렇게 한다면 자신과 자신의 가족에게 장애가 생기게 될 것이라 말해주었습니다. 혼인성사를 하지 않은 채 결혼 생활을 하는 이들에게는 영성체가 허락되지 않습니다. 교회가 이 관계를 합당하게 보지 않기 때문이지요. 이들은 조당에 걸려 고해성사에도 참여할 수 없습니다.

“성체를 받아 보신 그 순간,
저는 불꽃이 제 혀에 닿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순간 제 온 몸은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말 그대로 주님의 현존으로 인해 저는 뜨겁게 타올라
주체할 수 없을 만큼 몸이 떨렸습니다.”

부모를 잊지 마십시오
네 번째 계명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여라(신명 5,16)

주 너의 하느님이 너에게 명령하는 대로,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여라. 그러면 너는 주 너의 하느님이 너에게 주는 땅에서 오래 살고 잘될 것이다.

-신명 5,16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여라. 그러면 너는 주 너의 하느님이 너에게 주는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탈출 20,12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여라.” 이는 약속이 딸린 첫 계명입니다.
“네가 잘되고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하신 약속입니다.

-에페 6,2-3

네 번째 계명은 우리가 부모와 모든 장상, 교사, 연장자, 조부모, 의붓부모, 지도자에게 순종하고 이들을 존경하고 사랑할 것을 요구합니다. 히브리인들에게 보낸 서간은 다음과 같이 가르치지요: “하느님의 말씀을 일러 준 여러분의 지도자들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이 어떻게 살다가 죽었는지 살펴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십시오.”(히브 13,7) 또한 네 번째 계명은 교회의 사목자들에게 협력하라고 가르칩니다. 바오로 사도는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주님께서서는 복음

을 전하는 이들에게 복음으로 생활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1코린 9,14) 마찬가지로, 부모가 자녀를 존중하고 자녀가 필요한 것을 제공해주듯이 사제들은 자신에게 맡겨진 양떼를 잘 돌보아야 하지요. 부모와 사목자는 자녀와 양떼를 교육하고 바로 받아주며 훌륭한 가톨릭 교리를 제공해주어야 합니다.

이제 나는 여러분에게 세 번째로 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폐를 끼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여러분의 재물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입니다. 자녀가 부모를 위하여 재산을 모아 두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자녀를 위하여 그렇게 하는 법입니다.

-2코린 12,14

그리고 아버지 여러분, 자녀들을 성나게 하지 말고 주님의 훈련과 훈계로 기르십시오.

-에페 6,4

수도회 장상은 자신에게 맡겨진 회원들을 제대로 보살펴야 하며 공동체 회원들이 수도자로서의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줘야 합니다. 부모와 수도회 장상을 업신여기고 불순종하며 완고하게 행동하는 것은 네 번째 계명을 거스르는 행위입니다.

자녀 여러분, 무슨 일에서나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주님 마음에 드는 일입니다.

-콜로3,20

부모와 자녀들 중 누가 더 중요합니까? 성경에 따르면 하느님께서서는 부모를, 어머니와 아버지를 자녀들보다 더 중히 여기십니다. 주님께서서는 자녀들로 부모를 영광스럽게 하십니다. 자녀들로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시고 아들에 대한 어머니의 권리를 보장하시지요.(집회 3,2) 어느 자녀가 부모를 공격하면, 이는 그 자녀의 삶에 큰 장애가 될 것입니다. 부모자식의 관계에서 자녀는 결코 부모에게 잘못을 저질러선 안 됩니다.

구약의 성조 야곱은 자신의 아들 요셉에게 부모의 축복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가르칩니다.

네 아버지의 복은 예로부터 있던 산들의 복보다, 처음부터 있던 언덕들의 탐스러운 것들보다 크다. 그 복이 요셉의 머리로, 제 형제들 가운데에서 봉헌된 자의 정수리로 내리리라.

-창세 49,26

이 성경말씀은 다음과 같이 해석되어야 합니다. “네 부모의 축복은 조상들의 축복보다 더 크다.” 여기서 말하는 조상이란 구약의 성조들, 곧 아브라함, 이삭, 야곱입니다. 거룩하고 살아있는 조상들이지요. 자녀를 어떠한 방식으로 다루든 부모는 부모입니다. 우리 부모가 어린 시절 우리를 무시하고 거부하고 버렸거나 지속적으로 때리고 학대하며 제대로 돌보지도 않고 학교도 보내지 않았더라도 말입니다. 저는 누구에게 축복을 청해야 하겠습니까? 위대하고 거룩한 성조들입니까? 아니면 늙고 나약해진 부모입니까?

가장 먼저 부모에게 축복을 청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부모에게 자녀에 대한 권한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많은 불만이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언제나 부모를 자녀로부터 보호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자녀들로 부모를
영광스럽게 하십니다.”**

제 어머니는 저보다 남동생을 더 사랑했어요.

채무자, 실업자, 미혼자를 위한 피정을 진행하던 중에, 한 젊은 여성이 앞으로 나와서 말했습니다. “저는 제 어머니를 끔찍하게 증오했어요. 어머니와는 그 어떤 것도 하길 원치 않았지요. 어머니가 저에게 너무 많은 상처를 줬거든요. 그런데 이 피정을 통해서 저는 어머니를 용서했고 이제 어머니에게 가서 제가 어머니에게 무례하게 대했던 행동들에 대해 용서를 청하려고 해요. 저를 뱃속에 아홉 달이나 품었다는 것만으로도 마땅히 어머니를 사랑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거든요.” 하느님께서서는 집회서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다해 네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고 어머니의 산고를 잊지 마라. 네가 그들에게서 태어났음을 기억하여라. 그들이 네게 베푼 것을 어떻게 그대로 되갚겠느냐?

-집회 7,27-28

“저를 뱃속에 아홉 달이나 품었다는 것만으로도
마땅히 어머니를 사랑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거든요.”

하느님께서서는 어머니의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이사 49,15)

한 기도 모임의 지도자가 기도의 집에 찾아와서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이 지도자는 기도회원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삶에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문제를 결코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않았지요.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할지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지도자에게 질문했습니다. “어머니와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지도자는 대답했습니다. “저는 제 어머니를 사랑해요. 하지만 그렇게 많이는 아니고요. 어머니는 저보다 제 남동생을 더 사랑하시거든요. 그래서 남동생에게 더 많은 재산을 물려 주셨고요. 저는 결혼을 해서 집을 떠나게 될 것이고, 남동생은 집에 남아 당신을 돌볼 것이기 때문이라고 어머니는 말씀하셨어요. 단순히 이 이유로 동생은 당연한 듯이 더 많은 재산을 물려받았죠.” 지도자는 이러한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편애와 불공정함 때문이었지요. 우리는 이 지도자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니의 편애로 인해 부족한 것이 하나라도 있었나요?” 지도자는 답했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저의 주님께서 저에게 크나큰 축복을 내려 주셨거든요. 멋진 남편과 세 명의 자녀들이 바로 그 축복입니다. 하느님께 불평을 드릴 수 없을 만큼 큰 축복이죠.” 우리는 지도자에게 집회서 18장 2절 (“주님 홀로 의로우신 분임이 드러나리라.”)을 읽어보라고 권해주며 말했습니다. “주님께서서는 당신의 어머니를 축복해주시기 위해 당신을 축복하셨습니다. 어머니를 용서하고 예수님을 진실 된 어머니로 받아들이세요.”

여인이 제 젖먹이를 잊을 수 있느냐? 제 몸에서 난 아기를 가엾이 여기지 않을 수 있느냐? 설령 여인들은 잊는다 하더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 보라, 나는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은 늘 내 앞에 서 있다.

-이사 49.15-16

주님께서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당신이심을 드러내십니다.

내 말을 들어라, 야곱 집안아 이스라엘 집안의 남은 자들아, 모태에서부터 업혀 다니고 태중에서부터 안겨 다닌 자들아. 너희가 늙어 가

도 나는 한결같다. 너희가 백발이 되어도 나는 너희를 지고 간다. 내가 만들었으니 내가 안고 간다. 내가 지고 가고 내가 구해 낸다.

-이사 46,3-4

따라서 우리가 부모를 상처 입힌다면 주님 앞에서 우리 스스로를 상처 입히는 것입니다. 부모를 상처 입히고 우리 자신에게 그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 말할 수는 없습니다.

어머니의 저주로 인해 한 남자의 삶이 가로막혔습니다.

뭍바이에서 있었던 피정에 참석했던 남자를 알고 있습니다. 이 남자는 평생직장을 얻지 못하는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20곳이 넘는 회사를 전전했음에도, 가장 오래 머물렀던 직장이 고작 6개월이었지요. 이 남자는 아주 많이 배운 사람이었습니다. 세 개의 석사학위와 하나의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었고 언어능력도 뛰어나서 다수의 언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남자의 친한 친구는 남자에게 피정에 참여하여 1년 동안 팀의 일원이 되면 하느님께서 축복을 내려주실 것이라고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친구의 조언을 가슴에 새긴 남자는 피정에 참여하게 되었지요.

피정에 참여한 후에 남자는 저에게 와서 팀의 일원이 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남자는 팀이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지 지켜보았고 많은 것을 배웠으며 1년 동안 팀의 일원으로 활동할 자신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허락했지요. 하지만 먼저 남자는 중재자로서의 사목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남자는 동의했고 다른 중재자들의 모임에 참여했습니다. 중재자를 위한 경당에서 모든 중재자들은 마룻바닥에 앉아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중재자를 위한 경당 옆을 지나치면서 이 남자가 의자에 앉아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가 어디서 의자를 가져왔는지 알 수가 없었지요. 다른 중재자들이 기도를 하고 있었음에도 남자는 기도에 참여하지 않고 그저 이곳, 저곳을 둘러볼 뿐이었습니다. 저는 남자를 불렀고 그는 즉시 일어나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남자에게 다른 사람들과 함께 기도를 하지 않는 이유를 물었습니다. “왜 이곳에서 헤매고 있습니까? 다른 중재자들과 함께 기도는 하지 않고 이곳저곳 두리번거리며 따로 떨어져 있단지요! 기도는 소리를 지르며 목청을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중재자들처럼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는 저에게 말했습니다. “신부님, 사실 저는 신부님께 말씀드릴 기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신부님께서서는 저에

게 이곳에서 기도를 할 수 있는지조차 물어보지 않으셨지요. 저는 여기서 기도 하고 있는 중재자들처럼 기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귀하 아파 죽을 지경이에요. 저는 침묵하고 묵상하며 관상적인 유형의 기도에 적합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시끄러운 기도와는 맞지가 않는단 말입니다. 신부님께서 저를 이곳에서 내보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한 후에 남자는 세 장의 종이를 저에게 들이밀었습니다. 거기에는 남자의 학력이 상세히 적혀 있었지요. 남자는 말했습니다. “이것을 받아주십시오. 이 서류들을 보시고 저의 자질에 적합한 직무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부님께서 피정센터 잡지를 발행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충분히 잡지 만드는 일을 할 수 있거든요. 어쨌든, 신부님께서 결정을 내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남자는 거칠게 서류를 제 손에 쥐어주었지요.

저는 남자에게 말했습니다. “선생님도 아시다시피, 지금처럼 한 직무에서 다른 직무로 이동할 수는 없습니다. 주님의 훌륭한 도구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선생님 내면에 있는 상처를 치유 받아야 합니다.” 저는 남자에게 마음속에 용서하지 못한 누군가가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남자는 대답했지요. “왜 그런 걸 물어보십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아하니 신부님께서도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 가 봅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진실을 알아야 합니다. 진실만이 선생님을 자유롭게 해줄 것이고, 저는 선생님을 도와주기 위해 이 곳에 있는 것이지요. 어머니와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어머니는 지금 어디에 계신가요?” 남자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모릅니다.” 많이 배웠으며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50세의 남성이 자신의 어머니가 어디에 계신지도 모른다니요! 저는 남자에게 질문했습니다. “어떻게 어머니가 어디계신지를 모를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어머니가 어디계신지를 모를 수가 있습니까?”

그는 자신의 어린 시절의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남자는 외동아들이었지요. 13살 때, 그는 축구에 너무 열성적으로 빠지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아버지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있었는데, 어머니가 이 남자더러 약을 사서 병원에 있는 아버지에게 다녀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필 그날 빠질 수 없는 축구시합이 잡혀있었지요. 남자는 병원에 가서 약을 샀고 아버지에게 약을 건네자마자 축구장으로 쏜살같이 뛰어가 버렸습니다. 불행하게도, 바로 그 날, 아버지는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어머니는 당연히 분노했지요. 특히나 남편이 세상을 떠났던 순간에 아들이 병원에 없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는 분노

가 더욱 커졌습니다. 화를 참지 못한 어머니는 사람들 앞에서 아들을 향해 아버지를 죽인 사람은 바로 자신의 아들이며 가족에게 저주를 가져왔다며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에게 꼴도 보기 싫으니 집을 싸서 나가라고 소리를 쳤지요. 소년이었던 남자는 너무나도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길로 집을 싸서 집을 떠나버렸고, 다시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서 남자는 여성을 혐오하게 되었으며 50세가 되었지만 아직도 결혼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저는 남자에게 집회서의 말씀을 들려주었습니다. “아버지의 축복은 자녀들의 집안을 튼튼하게 해 주고 어머니의 저주는 집안을 뿌리째 뽑는다.”(집회 3,9) 그리고 덧붙여 말했습니다. “어머니의 저주로 인해 선생님이 성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머니께 가서 용서를 청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남자는 대답했습니다. “용서를 청해야 하는 사람이 저인가요? 아니면 어머니인가요? 어떻게 어머니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아들에게 저주를 퍼부을 수가 있습니까? 제 삶과 미래를 망친 것은 다름 아닌 제 어머니입니다. 어머니 때문에 저는 결혼도 할 수가 없어요. 저는 그 어떤 잘못도 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저 13살 소년이었을 뿐이에요. 그때 제가 뭘 알았겠습니까? 제 어머니는 어른이었고 당연히 이해를 해줬어야하지 않나요?”

**“화를 참지 못한 어머니는 사람들 앞에서
아들을 향해 아버지를 죽인 사람은 바로 자신의 아들이며
가족에게 저주를 가져왔다며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용서는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습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을 때, 사실 반대로 제자들이 예수님의 발을 씻어드렸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서는 무릎을 꿇으시고는 모든 제자의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당신을 배반할 유다의 발도 포함해서 말이죠. 이렇듯 용서는 인간적인 이유나 세속적인 정당성을 가지지 않습니다. 이 불쌍한 남자는 자신을 저주했던 어머니의 말을 뒤엎고 자신이 축복이었음을 증명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이것이 남자가 열심히 공부해서 많은 학위를 얻은 이유였죠. 하지만 남자는 증명하지 못했습니다. 고학력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직장을 잡는데 번번이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남자는 자신이 가진 장애물들이 어머니에 대한 원한에서 오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남자는 저에게 물었습니다. “신

부님께서는 어떻게 저더러 용서를 청하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저는 남자에게 집회서의 말씀을 들려주었습니다. “마음을 다해 네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고 어머니의 산고를 잊지 마라. 네가 그들에게서 태어났음을 기억하여라. 그들이 네게 베푼 것을 어떻게 그대로 되갚겠느냐?”(집회 7,27-28) 어머니는 자녀를 뱃속에 품고 다닙니다. 하지만 자녀는 결코 어머니를 뱃속에 품고 다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자녀들이 어머니를 마음속에 품고 다니길 원하시지요. 그렇기에 자녀들은 부모를 존경하고 공경하며 사랑해야 합니다. 무엇을 하거나 어딘가로 떠나기 전에, 어머니와 아버지의 축복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남자에게 어머니의 용서를 얻지 못한다면 영원히 실패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 말해주었습니다. 남자는 스스로를 낮추고서 어머니에게 가서 용서를 청했고 두 사람은 관계를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남자는 성공을 보장하는 직장을 얻게 되었고요.

“용서를 청해야 하는 사람이 저인가요?
아니면 어머니인가요?”

저는 아버지에게 전화를 드리지 않습니다.

피정이 끝날 무렵, 한 수녀님이 일어서서 증언을 했습니다. 수녀님은 말했어요.

“많은 경우, 우리는 부모님이 우리를 이러저러한 방법으로 무시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 반대도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본 적이 없었어요. 자녀가 부모를 무시하는 것은 죄입니다. 저는 제 아버지를 오랫동안 무시해왔어요. 저는 저를 무시하고 학교에도 보내주지 않으며 가족을 돌보지 않은 채 모든 생활비를 술로 탕진하는 아버지가 너무나도 미웠습니다. 아버지가 어머니를 학대하는 모습도 많이 보았습니다. 저는 정말로 아버지를 증오했어요. 휴가를 맞아 집에 갔을 때도, 저는 어머니만 돌봐드렸지 아버지는 거들떠보지도 않았습시다. 수녀원에서 집으로 전화를 걸 때도, 어머니에게만 통화했고, 아버지에게 대해서는 물어보지 않았어요. 이 피정에 참여해서야 저는 제가

제4계명을 거스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버렸을지라도 하느님께서서는 결코 저를 버리지 않으셨어요. 몇 시간을 기도했었지만 이번 같이 따스한 하느님의 현존을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제게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해 말씀하셨어요. “그렇지만 당신은 저희 아버지입니다. 아브라함이 저희를 알지 못하고 이스라엘이 저희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주님, 당신만이 저희 아버지시고 예로부터 당신 이름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이사 63,16) 또한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의 사랑을 느낄 수 없었던 이유에 대한 답을 얻게 되었습니다. “나는 너를 어떻게 나의 아들들 가운데 하나로 내세워 탐스러운 땅, 못 민족 가운데에서 가장 아름다운 상속 재산을 너에게 줄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하였다. 나는 너희가 나를 ‘저의 아버지’라 하고 나를 따르던 길에서 돌아서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예레 3,19) 저는 진실 되고 살아계신 천상 아버지를 찾았습니다. 그렇기에 제 아버지에게 가서 용서를 청할거예요.”

남편이 자녀들보다 더 중요합니다.

아내들은 남편들을 존중해야 합니다. 많은 아내들이 삶을 힘겨워하지요. 남편보다 자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을 남편보다 먼저 챙기는 것은 성숙하지도 건강하지도 않은 행위입니다.

주님께서 자녀들로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시고 아들에 대한 어머니의 권리를 보장하셨다. 아버지를 공경하는 이는 죄를 용서받는다. 제 어머니를 영광스럽게 하는 이는 보물을 쌓는 이와 같다. 아버지를 공경하는 이는 자녀들에게서 기쁨을 얻고 그가 기도하는 날 받아들여진다.

-집회 3,2-5

남편을 존중하고 자녀보다 남편을 먼저 챙기는 것은 모든 아내의 의무입니다.

자신의 나라를 아끼고 시민의 의무를 다 하십시오

세상의 권력은 주님 손에 달려 있으니 그분께서는 때에 맞춰 적절한 인물을 세우시리라.

-집회 10,4

주님께서 우리가 하느님께 속한 것은 하느님께 드리고 카이사르에게 속한 것은 카이사르에게 주길 원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부당한 판결 앞에서도 주님께서 “네가 위로부터 받지 않았으면 나에 대해 아무런 권한도 없었을 것이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인 여러분, 진정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주인에게 복종하십시오. 착하고 너그러운 주인뿐 아니라 못된 주인에게도 복종하십시오.

-1베드 2,18

바로 사도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위에서 다스리는 권위에 복종해야 합니다. 하느님께서 나오지 않는 권위란 있을 수 없고, 현재의 권위들도 하느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권위에 맞서는 자는 하느님의 질서를 거스르는 것이고, 그렇게 거스르는 자들은 스스로 심판을 불러오게 됩니다. 사실 지배자들이란 악행을 할 때에나 두렵지 선행을 할 때에는 두렵지 않습니다. 그대는 권위를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선을 행하십시오. 그러면 권위로부터 인정을 받을 것입니다. 지배자는 그대의 이익을 위하여 일하는 하느님의 일꾼입니다. 그러나 그대가 악을 행할 경우에는 두려워하십시오. 그들은 공연히 칼을 차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악을 저지르는 자에게 하느님의 진노를 집행하는 그분의 일꾼입니다. 그러므로 하느님의 진노 때문만이 아니라 양심 때문에도 복종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그들은 바로 이러한 일에 정성을 다하는 하느님의 심부름꾼입니다. 여러분은 모든 이에게 자기가 해야 할 의무를 다하십시오. 조세를 내야 할 사람에게는 조세를 내고 관세를 내야 할 사람에게는 관세를 내며, 두려워해야 할 사람은 두려워하고 존경해야 할 사람은 존경하십시오.

-로마 13.1-7

교회와 세속 권력

가톨릭교회는 전통적으로 박해시대부터 시작해 오늘날까지 지속적으로 세속

권력을 존중해왔습니다. 아우구스티노 성인은 경고 합니다:

“단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해서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며 교만에 빠져 기뻐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생각하는 이가 있다면, 그 사람은 큰 잘못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베르나르도 성인도 말했습니다.

“카이사르를 창조하신 분께서도 조세의 의무를 무시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서는 여러분이 당신과 같이 현명하게 대처하도록 모범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은 다음과 같이 가르쳤습니다.

공적인 권력에 대한 순종은 사람에 대한 복종이 아니라, 공동생활의 관계는 스스로 정한 규칙에 의해 규제되어야 한다고 규정하신, 인간을 배려하시는 창조주 하느님께 경의를 드리는 행위입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사목헌장에서 “국민은 애국심을 너그럽고 충실하게 길어야 하겠지만, 편협한 정신을 버리고, 인종과 민족과 국가 사이의 여러 가지 유대로 결합된 인류 가족 전체의 복지를 위하여 언제나 마음을 기울여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미사 안에서는 ‘전구’의 기도를 통해 교황과 지역주교의 권위 대한 전례적 공경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교들은 공적 권한과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공정한 법에 대한 순명과 합법적으로 설립된 권한에 대한 존중을 지지해야 합니다. 공산주의 국가나 독재국가에서조차도 공동선을 위해 요구되는 시민으로서의 의무는 이행되어야 합니다.

도덕성은 시민의 자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비도덕적이면서 정치적으로 합법일 수는 없습니다. 법적으로 옳은 것은 도덕적으로 옳을 필요는 없습니다. 전쟁 시에도 사제들과 의사들은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을 합니다. 우리는 기도, 금욕, 객관성, 환대, 공손함, 영적 가치들에 대한 이해, 성스러움에 대한 감각의 중요함을 지지하고 증언할 수 있으며 그 반대 증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비도덕적이면서 정치적으로 합법일 수는 없습니다.
법적으로 옳은 것은 도덕적으로 옳을 필요는 없습니다.”

칼을 내려놓으십시오
다섯 번째 계명
살인해서는 안 된다(신명 5,17)

다섯 번째 계명을 듣게 되었을 때, 누군가를 향해 총의 방아쇠를 당기는 사람이나 칼을 휘두르는 사람을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됩니다. 이는 사실이지요. 하지만 누군가에게 그저 물리적인 죽음만을 안겨주는 것이 살인은 아닙니다. 영적인 죽음을 안겨주는 것 또한 살인입니다. 이것이 바로 험담, 중상, 불관용, 증오, 복수심, 분노와 같은 죄들이 모두 누군가의 영혼을 살해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마찬가지인 이유입니다. 낙태, 약물 남용, 음란하고 부도덕한 프로그램과 같은 나쁜 습관의 반복, 미신과 주술행위에 참여 등도 또한 한 사람의 영혼을 서서히 죽이는 행위입니다. 추문이나 부적절한 모범을 보이는 것도 이웃을 영적인 죽음으로 이끌 수 있기 때문에 삼가야 합니다.

나를 믿는 이 작은 이들 가운데 하나라도 죄짓게 하는 자는, 연자매를 목에 달고 바다 깊은 곳에 빠지는 편이 낫다. 불행하여라, 남을 죄짓게 하는 일이 많은 이 세상! 사실 남을 죄짓게 하는 일은 일어나기 마련이다. 그러나 불행하여라, 남을 죄짓게 하는 일을 하는 사람!
-마태 18,6-7

낙태

정녕 당신께서는 제 속을 만드시고 제 어머니 배 속에서 저를 엮으셨습니다. 제가 오묘하게 지어졌으니 당신을 찬송합니다. 당신의 조물들은 경이로울 뿐. 제 영혼이 이를 잘 압니다. 제가 남몰래 만들어질 때 제가 땅 깊은 곳에서 짜일 때 제 뼈대는 당신께 감추어져 있지 않았습니까. 제가 아직 태아일 때 당신 두 눈이 보셨고 이미 정해진 날 가운데 아직 하나도 시작하지 않았을 때 당신 책에 그 모든 것이 쓰였습니다.

-시편 139,13-16

놀면 존 스테바스가 들려주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의사가 동료에게 다음의 경우에 관해 의견을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매독에 걸려있었고, 어머니는 결핵환자이다. 이들은 이미 네 명의 자녀를 낳았다. 첫째는 장님이었고 둘째는 죽었다. 셋째는 귀머거리에 병어리였으며 넷째는 결핵균을 가지고 있다. 의사는 다섯 번째 아이가 건강하게 태어날 것이라는 작은 희망조차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 “자네는 이 경우에 어떻게 하겠나?” 동료의사는 대답했습니다. “임신 중절을 권하겠지.” 질문을 했던 의사는 동료에게 말했습니다. “자네는 지금 막 베토벤을 죽인 거나 다름없다네.” 아이들은 세상에서 가장 작고 약한 존재임에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모든 아이들 한명 한명이 미래를 향한 무한한 희망의 표징들이지요. 성녀 마더 데레사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살인, 학살, 전쟁과 증오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놀라지 말아야 합니다. 어머니가 자신의 아이를 죽일 수 있다면야 우리가 서로를 죽이는 게 무슨 큰일이겠습니까? 생명은 하느님께서 인간에게 선사해주신 가장 아름다운 선물입니다. 그렇기에 낙태와 안락사로 생명을 파괴하는 사람들과 국가들은 가장 불쌍한 이들입니다. 저는 합법이나 불법이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어떤 사람의 손도 생명을 죽이는 일에 가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할 뿐입니다. 생명은 우리 안에 계신 하느님의 생명입니다. 아직 태어나지 않은 태아의 생명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결정은 임신 후가 아니라 임신 전에 해야 합니다

낙태는 부모들이 자녀를 계획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모든 아이들은 먼저 부모의 마음에서부터 태어나야만 합니다. 그래야 수정의 순간에서부터 온전히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성녀 마더 데레사의 말씀은 적절합니다. “모든 아이들은 하느님의 모상으로서 사랑하고 사랑받으며 더욱 위대한 일을 위해 창조되어 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들이 정말로 자녀를 가지길 원한다면 사전에 결심을 해야만 하는 이유입니다. 아이가 잉태되면, 그곳에는 생명이, 하느님의 생명이 자리합니다. 태아는 살 권리와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낙태는 두 생명을 파괴합니다. 아이의 생명과 산모의 양심이 바로 그것이지요. 태아는 여러분과 저처럼 더욱 위대한 일을 하도록 창조된 하느님의 자녀입니다.”

마더 데레사는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굶주림으로 죽어가는 아프리카의 아이들에게 큰 관심을 보입니다. 이러한 관심은 아주 유익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산모의 의도된 결정에 의해 죽임을 당하는 수백만 명의 태아에게는 관심을 가

지지 않습니다. 사람들을 장님으로 만드는 낙태야말로 오늘날 평화를 위협하는 가장 큰 파괴자입니다.”

임신중절을 지지하는 위험한 법

인간의 생명을 수정이 되는 순간부터 보호해주지 않는 국가가 있다면, 그 국가는 분명 파멸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낙태를 하게 됨으로써, 산모는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의 아이를 죽이게 됩니다. 낙태를 하게 됨으로써, 태아의 아버지는 자기 때문에 세상에 존재하게 될 아이에 대해 아무런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는 말을 듣게 되겠지요. 이 아버지는 다른 여성을 똑같은 처지에 놓이게 만들 것입니다. 그렇기에 낙태는 더 많은 낙태로 이어지게 되지요. 낙태를 합법으로 받아들이는 국가는 국민들에게 사랑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폭력을 쓰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낙태가 사랑과 평화의 가장 큰 파괴자인 이유입니다.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은 “정신 병원으로의 여정”이라는 책에서 제가 읽었던 한 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비록 내가 임신했다는 사실이 좋기도 하고 아니기도 했지만(계획되었던 임신이 아니었기에), 어찌 되었든 내 아이를 지키고 싶었다. 하지만 남편은 나의 생각에 격렬히 반대했다. 입덧이 너무 심했고 많이 아팠기 때문에, 나는 나와 아이를 향한 남편의 분노를 감당할 수가 없었다. 그 당시에는 낙태를 요구하는 남편에게 동의하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단 하나의 해결책으로 보였다.

낙태를 한 후 네 달 동안, 나는 밤낮으로 울었다. 잠을 설치고 흐느끼며 깨어나기 일쑤였으며, 아이들이 죽어가는 끔찍한 악몽에 시달려야 했다.

낮에는 상상 속에서 아기를 안고 있는 것처럼 팔을 흔들며 집주변을 배회하거나 정원에 장미 꽃잎을 흩뿌렸다. 내 아기가 장례식도 치르지 못했다는 사실이 나의 뇌리에서 떠나질 않았고, 슬픈 음악을 강박적으로 반복해서 틀어놓고는 매번 상상 속에서 내 아기의 장례식을 치렀다. 때는 봄이었고, 피어나는 꽃들이 내 애통함과 뒤섞여 슬픔을

더해주는 것 같았다. 내 슬픔을 나눌 이가 한 사람도 없었고 나는 그 어떤 것에도 집중하지 못했다. 모든 시간 육체적으로 진이 다 빠져버린 기분을 느꼈다.

낙태를 하고 한 달 만에 머리카락이 회색으로 변하기 시작했다. 일을 하면서도 계속 울었기에 시간제 직장에서도 해고되기 직전의 상황이었다. 운전을 할 때도 눈물 때문에 시야가 흐려져 크고 작은 사고를 내었고 그 중에는 심각한 사고로 이어질 뻔한 적도 있었다. 나는 자주 나 스스로, 그리고 내 아기의 목숨을 끊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는 나를 집어 삼키는 무서운 분노가 찾아와 수개월 동안 지속되었고 마지막으로 깊은 우울감에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만 있는 시간이 찾아왔다. 나는 얼이 빠진 채로 무기력하게 집 안에 틀어박히게 되었다.

낙태 후 열일곱 달이 지난 오늘, 비록 그 정도가 줄어들기는 했지만 슬픔과 분노와 우울감은 여전히 내 안에 존재하고 있다. 나는 여전히 아거나 임산부를 바라보는 것이 힘겹다. 성적인 부분과 정체성에 혼란을 겪고 있으며, 내 자녀들과의 관계는 악화되었고, 결혼생활은 파탄 났으며, 정신과 의사의 치료를 받고 있다.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은 말년에 낙태와 관련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기술적으로 가능한 모든 것이 윤리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삶의 질을 드높이는 과학의 업적은 감탄스럽습니다. 분명 인간의 생명은 선물이며, 그것이 고통 받고 한계에 직면한 순간에도 생명의 고귀함은 유지 된다는 사실은 결코 잊혀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생명은 모든 순간에 받아들여지고 사랑받아야 하는 선물입니다. 아무런 대가 없이 받았으니 이웃을 위해 아무런 대가 없이 내어놓아야 하는 선물인 것이지요. 사순 시기는 그 고유한 방식으로 우리를 위해 골고타에서 당신 자신을 바치신 그리스도의 모범을 우리에게 제시하면서 생명이 그분 안에서 구원받았음을 우리가 이해하도록 도와줍니다.

-생명의 선물이신 주님께로 돌아서십시오: 2002 사순, 교황 요한 바

오로 2세

저는 다섯 번의 낙태수술을 해야 했던 한 여인을 알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다섯 번이나 낙태를 해야 했던 이유는 임신했을 때마다 남편이 초기에 태아를 지우라고 강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섯 번째 임신을 했을 때, 역시나 남편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낙태를 강요했습니다. 하지만 이전과는 달리 이번에 수정된 태아는 여인의 자궁에서 6개월이나 머물렀고 여인은 초음파 사진으로 태아의 모습까지 보았습니다. 다섯 번째 낙태 후에, 여성은 죽은 아기가 다가와 자신의 몸 위로 피를 쏟는 환시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여인은 미쳐버리게 되었으며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여인은 절대로 그 아기를 잊을 수 없을 것이라 말했습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여인이 제 젖먹이를 잊을 수 있느냐? 제 몸에서 난 아기를 가없이 여기지 않을 수 있느냐? 설령 여인들은 잊는다 하더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이사 49,15) 어머니는 자식을 저버릴 수는 있으나 제 몸에서 난 아기를 결코 잊을 수는 없습니다. 아기가 태어나게 되면 아기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죽음에 사로잡힌 이들을 구해 내고 학살에 걸려드는 이들을 빼내어라. “이봐, 우리는 그걸 몰랐어.” 하고 네가 말하여도 마음을 살피시는 분께서 알아보시지 않느냐? 영혼을 지켜보시는 분께서 아시고 사람에게 그 행실대로 갚으신다.

-잠언 24,11-12

낙태는 살인입니다. 참회하고 고백하며 고쳐지고 회복되어야 할 대죄인 것입니다.

어느 부부가 자녀의 축복을 얻고자 저를 찾아와서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이들 부부는 결혼을 한지 5년이 지났지만 아직 자녀가 없었습니다. 부부는 저에게 말했습니다. “5년의 결혼생활 동안 저희는 자녀계획이 없었습니다. 둘 다 일을 해야 했고 자녀를 키우기에는 너무 바빴거든요.” 이제야 이들 부부는 자녀를 가지기 위해 갖가지 시도를 해보았지만 모두 허사였습니다. 우리는 부부에게 결혼 안에 담겨있는 하느님의 계획을 설명해주었습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의 육체적, 정신적 결합에서 오는 기쁨,

- 결합의 결과로 얻게 되는 자녀,
- 하느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자녀에 대한 양육과 교육.

따라서 결혼생활에서 자녀를 가지길 거부한다면, 이는 삶 안에 계신 하느님의 계획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5년의 결혼생활 동안
저희는 자녀계획이 없었습니다.
둘 다 일을 해야 했고
자녀를 키우기에는 너무 바빴거든요.”

HIV와 AIDS

사악의 길로 어리석게 된 자들 자기들의 죄로 괴로움을 겪었다. 그들의 목은 어떤 음식도 싫어하여 그들은 죽음의 문까지 다다랐다. 이 곤경 속에서 그들이 주님께 소리치자 난관에서 그들을 구하셨다. 당신 말씀을 보내시어 그들을 낮게 하시고 구렁에서 구해 내셨다.

-시편 107,17-20

목이 마르다고 해서 독을 들이켜지 마십시오

젊은이들에게 HIV/AIDS의 전염성에 대해 인식시켜주기 위한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세미나를 진행하는 교사가 참가자들에게 예를 보여주었지요. 교사는 콜라 세병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참가자들 앞에 놓인 테이블에 콜라병들을 올려놓고는 이를 마시고 싶은 사람이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참가자 전원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사는 말했습니다. “여러분 전원이 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콜라는 세 개밖에 없습니다. 세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그러자 세 명의 젊은이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교사는 첫 번째 젊은이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콜라를 마시고 싶은 이유가 무엇이지요?” 젊은이는 대답했습니다. “목이 너무 마르거든요.” 교사는 다시 질문했습니다. “목이 마르다면 물을 마시면 되지 않나요?” 젊은이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뇨, 전 콜라가 마시고 싶어요.” 교사는 두 번째 젊은이에게도 같은 질문을 했고 젊은이는 대답했습니다. “저는 콜라가 너무 좋아요.” 세 번째 젊은이도 대답했습니다. “공짜 콜라를 마다할 이유가 있나요!” 교사는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콜라를 드리지요. 그 전에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밖에 나가서 2분 동안 기다린 다음 제가 부르면 다시 들어오세요.” 세 젊은이가 밖으로 나가자 교사는 콜라병의 뚜껑을 열고는 모든 참가자가 보는 앞에서 콜라를 들이키고는 그것을 삼키지 않고 입에 머금은 후에 다시 병에 빼었습니다. 교사는 세 병의 콜라 모두에 이러한 행동을 했지요. 작업을 마친 교사는 콜라병의 뚜껑을 처음처럼 닫아놓고는 세 젊은이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목이 마르다는 것이 무엇이든 마실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목이 마르다고 해서 독을 마셔서는 안 되는 법이지요. 여러분은 무엇을 근거로 이 콜라가 유익하다고 여기는 것이죠?” 젊은이들은 대답했습니다. “콜라를 처음 마시는 것도 아니잖아요. 괜찮을 거예요.” “그렇군요. 여기 콜라를 받으세요.” 교사는 젊은이들에게 콜라병을 건네주었습니다. 세 명의 젊은이가 콜라를 마시려고 하자 다른 참가자들이 비명을 지르며 멈추라고 소리쳤습니다. 세 명을 뺀 나머지 참가자들은 교사가 콜라에 무엇을 했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이 영리한 세 젊은이들은 이미 콜라를 한 모금씩 들이켜고는 만족감을 느끼고 있었지요. 다른 참가자들의 비명소리는 더욱 커졌고 교사는 세 젊은이들이 콜라를 더 이상 마시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유를 설명해주었지요. “여러분이 동성과 육체관계를 가지게 될 때, 여러분은 상대방이 HIV 보균자인지 알지 못합니다. 사랑이 필요하고 욕정을 느낀다는 이유로 그와 같은 관계를 맺어서는 안 되는 법이지요. 그러한 관계를 맺게 된다면,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과 가족의 삶에 질병과 속박을 끌어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알코올 중독

과음은 가난을 몰고 오며 술의 노예로 만듭니다

불행하여라, 아침 일찍부터 독한 술을 찾아다니고 저녁 늦게까지 술로 달아오르는 자들! 그들은 비파와 수금, 손북과 피리 소리와 더불어 술을 마셔 대면서 주님의 업적에는 관심도 기울이지 않고 주님의 손이 이루신 일에는 눈도 돌리지 않는다. 그러므로 나의 백성은 지각이 없어 포로로 끌려가리라. 귀족들은 굶주리고 평민들은 갈증으로 목이 타리라.

-이사 5,11-13

폭음가와 폭식가는 가난해지고 늘 술에 취하면 누더기를 걸치게 된

다.

-잠언 23,21

성령과 지혜가 필요하십니까?

성령으로 충만해지길 바란다면, 성령께 강렬히 기름부음 받은 위대한 예언자, 세례자 요한에 대해서 읽으십시오. 우리는 루카복음서에서 세례자 요한에 대해 읽습니다. “그가 주님 앞에서 큰 인물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는 포도주도 독주도 마시지 않고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성령으로 가득 찰 것이다”(루카 1,15). 또한, 에페소 신자들에게 보낸 서간에서 바오로 사도는 다음과 같이 가르칩니다: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 거기에서 방탕이 나옵니다. 오히려 성령으로 충만해지십시오.

-에페 5,18

실제로 음주는 성령의 힘을 받아들이는데 장애가 됩니다.

**“실제로 음주는
성령의 힘을 받아들이는데
장애가 됩니다.”**

지혜와 이해를 얻고자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느님의 말씀은 하느님의 지혜와 지식으로 충만했던 다니엘 예언자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다니엘은 궁중 음식과 술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하고, 자기가 더럽혀지지 않게 해 달라고 내시장에게 간청하였다.

-다니 1,8

이 네 젊은이에게 하느님께서서는 이해력을 주시고 모든 문학과 지혜에 능통하게 해 주셨다. 다니엘은 모든 환시와 꿈도 꿰뚫어 볼 수 있게 되었다.

-다니 1,17

그들에게 지혜나 예지에 관하여 어떠한 것을 물어보아도, 그들이 온 나라의 어느 요술사나 주술사보다 열 배나 더 낫다는 것을 임금은 알게 되었다.

-다니 1,20

불의한 자들은 하느님의 나라를 차지하지 못하리라는 것을 모릅니까? 착각하지 마십시오. 불륜을 저지르는 자도 우상 숭배자도 간음하는 자도 남창도 비역하는 자도, 도둑도 탐욕을 부리는 자도 주정꾼도 중상꾼도 강도도 하느님의 나라를 차지하지 못합니다.

-1코린 6,9-10

하루는 어느 여인이 자신의 남편을 피정에 데려왔습니다. 남편은 술에 중독이 되어있었습니다. 아내는 말했습니다. “신부님께서 제 남편을 지켜보셔야 해요. 매일 아침 남편은 일어나자마자 술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몸을 사시나무 떨 듯이 떨면서 피정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고 자리 갈 거예요.” 저는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술을 드시는 이유가 있습니까?” 남편은 대답했습니다. “저는 술을 마시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친구들이 술을 마시고 있으면 술 냄새가 저를 유혹하고 어느새 저 또한 술을 마시고 있거든요. 술의 충동을 무시하려 할 때면 몸이 막 떨립니다.” 이 남자는 9남매 중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술주정뱅이였지요. 막내였기에, 그의 아버지는 언제나 이 남자에게 술심부름을 시켰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남자는 아버지의 술을 한 모금씩 마시고는 비어있는 만큼 물을 채워 넣었습니다. 아버지와 가족들은 그가 한 일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어느새 습관이 되어버려서 아버지가 자신을 술심부름 보낼 때마다 남자는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남자는 서서히 술에 중독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주정뱅이 일꾼은 부자가 되지 못하고 작은 것을 무시하는 자는 조금씩 망하리라”(집회 19,1).

알코올 중독은 병이면서 동시에 치유와 해방이 필요한 악한 행위입니다. 급속도로 퍼져나가며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파괴하는 재앙이지요. 술은 술 마시는 사람의 양심과 상식을 무너뜨려서 동물처럼 행동하게 만듭니다.

빛깔이 좋다고 술을 들여다보지 마라. 그것이 잔속에서 광채를 낸다 해도, 목구멍에 매끄럽게 넘어간다 해도 그러지 마라. 결국은 뱀처럼 물고 살무사처럼 독을 쏜다. 네 눈은 이상한 것들을 보게 되고 네 마

음은 괴상한 소리를 지껄이게 된다. 너는 바다 한가운데에 누운 자와 같고 돛대 꼭대기에 누운 자와 같아진다. “사람들이 날 때려도 난 아프지 않아. 사람들이 날 쳐도 난 아무렇지 않아. 언제면 술이 깨지? 그러면 다시 술을 찾아 나서야지!” 하고 말한다.

-잠언 23,31-35

많은 가정들이 술 때문에 파괴되어 왔습니다. 한 신학생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이 신학생은 학장신부님으로부터 신학교를 떠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신학생은 술로 인한 문제가 있었으며, 이를 그리 심각한 문제로 여기지 않는 듯 했습니다. 악마는 참으로 교활합니다. 악마는 우리의 눈을 멀게 만들어서 술을 마시는 것이 좋은 것이라 말하게 합니다. 이 신학생은 자신의 방에 술을 숨겨놓고는 동료 신학생들에게 술을 공급했습니다. 술에 중독된 사람은 결코 다른 이를 제대로 인도할 수 없습니다. 타락하는 모든 사람을 도와주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의무이지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극히 거룩한 믿음을 바탕으로 성장해 나아가십시오.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하느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를 기다리십시오. 의심하는 이들에게 자비를 베푸십시오. 어떤 이들은 불에서 끌어내어 구해 주십시오. 또 어떤 이들에게는 그들의 살에 닿아 더러워진 속옷까지 미워하더라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자비를 베푸십시오.

-유다 1,20-23

**“많은 가정들이
술 때문에 파괴되어 왔습니다.”**

술에 취한 후 저지르게 되는 죄들

그들은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불륜을 저질러도 자손이 불어나지 않으리라. 그들이 주님을 저버리고 불륜에 빠졌기 때문이다. 그들은 포도주와 햇 포도주에 마음을 빼앗겨 버렸다.

-호세 4,10-11

술은 빈정꾼, 독주는 소란꾼 그것에 취하는 자 모두 지혜롭지 못하다.

-잠언 20,1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궁핍한 사람이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자가 되지 못한다.

-잠언 21,17

술주정꾼들은 모든 종류의 죄, 특히 다니엘 예언서가 가르치듯, 간음과 우상 숭배에 관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술을 마시면서 금과 은, 청동과 쇠, 나무와 돌로 된 신들을 찬양하였다”(다니 5,4).

술은 사람의 뇌와 신경에 영향을 주기에 술주정꾼은 절대 정신을 제대로 차릴 수 없습니다. 술은 성장하는데 그 어떤 도움이 되지 못하며 오히려 재정파탄과 육체적, 영적, 정신적, 윤리적 타락을 가져옵니다. 술은 간, 심장, 신장 등 장기를 손상시키지요. 음주운전은 위험하기 짝이 없으며 보행자를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습니다.

케냐의 알코올 중독

케냐에서 음주는 사람들에게 사회적 지위의 상징이 되어왔습니다. 술을 마시지 않으면 사회는 그 사람을 문제가 있는 것처럼 바라봅니다. 사람들에게 무엇 때문에 술과 약물을 남용하는지 물어본다면, 그들은 축하하기 위해서, 재미를 위해, 고충을 잊으려고, 진정하기 위해, 시험해보려고, 인상적이기에, 멋져 보이니깐, 어울리기 위해, 사업상의 이유로 등등 수만 가지의 이유를 댈 것입니다.

생명을 앗아가는 사업

네 자녀를 둔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사업에 성공했지만 벌어들이는 모든 돈을 빚을 갚는데 사용해야 했지요. 여인은 자주 자녀들을 병원에 데려가야 했습니다. 한 아이가 퇴원을 하기도 전에 다른 아이가 아파서 입원을 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일이 여인의 가정에서 반복되었습니다. 여인은 자신이 술을 만들어서 팔고 있다는 사실을 저에게 숨겼습니다. 여인의 사업은 많은 젊은이

를 망쳐놓았습니다. 사업장이 고등학교 근처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커다란 수익을 거둔 이후, 여인은 사업을 변경하라는 본당 신부의 말은 무시한 채 자신의 사업을 계속 이어나갔습니다. 여인은 벌어들이는 모든 돈을 자녀들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 병원에 지불해야 했습니다. 술을 파는 이들은 파멸과 죽음, 그리고 분열을 파는 것입니다. 가족, 자녀, 친척, 가정이 술로 인해 파괴됩니다. 이 여인은 술을 파는데 관여했기 때문에 많은 가정을 무너뜨리는 데에도 간접적으로 관여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아이들은 어느 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루는 한 남자 아이가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해서 치명적인 사고를 내었습니다. 보통 그러하듯, 얼마 되지 않아 사람들이 사고 현장에 모여들었습니다. 남자 아이는 말했습니다. “아무도 저를 돌보아주지 않아요. 아버지도, 어머니도 저를 돌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다른 사람을 신경 쓰지 않아요.”

아이들에게 적절한 사랑과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아이들은 방향을 잃고 기댈만한 어떤 것을 찾습니다. 아이들은 약물이나 술과 같은 악한 것에 중독이 되지요. 오늘날, 부모와 교사들은 아이들을 바로잡아 주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자신들 스스로가 음주와 부적절한 관계에 관여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그렇기에 젊은이들을 손가락질하며 비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른들이 스스로 나쁜 모범을 보이는데 어떻게 젊은이들을 바로잡아줄 수 있겠습니까? 아이들은 부모로부터 사랑과 보살핌을 필요로 합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을 성당에 데려가고 가정에서 함께 기도하며 자녀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주어야 합니다.

**“아무도 저를 돌보아주지 않아요.
아버지도, 어머니도 저를 돌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다른 사람을 신경 쓰지 않아요.”**

기도는 술주정뱅이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나이 든 어머니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이 어머니의 아들은 술주정뱅이였습니다. 아들은 아내를 저버리고 수많은 혼외관계를 가졌습니다. 집에 주술사를 데려오기까지 했지요. 아들은 더 이상 성당에 나가지 않았고 신앙도 잃어버렸습니다. 아들은 어머니에게 크나큰 걱정거리였지요. 저는 이 어머니에게 한 달 동안 읽고 묵상할 성경구절을 주었습니다. 저는 어머니에게 그동안 아들에게 잘못했던 일들을 참회하고 하느님의 자비를 구하라고 조언해주었습니다. 한 달의 기도가 끝난 후에, 아들은 술을 끊었습니다. 아들은 가톨릭 신앙을 다시 되

찾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아내를 다시 데려왔고 삶은 더 나은 쪽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아들은 저에게 자신의 깨달음을 나누었습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그토록 사랑 가득하신 하느님이시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흡연

☞ 흡연은 위험합니다. 담배는 독성물질이며 성령의 궁전인 몸을 파괴하는 니코틴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흡연이 세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 어떤 개도 뒤따라오지 않으며, 집에 도둑들 일도 없고, 흰머리로 고통 받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맞습니다. 담배를 많이 피운 사람들은 무거운 지팡이에 의지한 채로 걸어가기에 개들이 근처에 오지 않습니다. 또한 흡연으로 인해 밤새 기침을 해 대기에 도둑들이 집안에 사람들이 깨어있다고 착각하게 되지요. 머리카락이 희끄무레하게 변하지도 않습니다. 머리카락이 하얗게 세기 전에 이미 죽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흡연에 관한 어떤 말씀도 나오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사야 예언자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스스로 불을 피우고 불화살에 불을 당기는 너희는 모두 자기가 피운 불 속으로, 자기가 댕긴 불화살 속으로 들어가거라. 이것이 너희가 내 손에서 받아야 할 바이니 너희는 고통 속에 드러누워야 하리라.

-이사 50,11

흡연은 심장과 폐, 그리고 기억력에 영향을 끼칩니다. 고혈압, 신경과민, 현기증, 우울감을 유발하지요. 흡연은 자기연민을 일으키고 타인의 감정을 존중하지 않게 만듭니다. 흡연은 태아에게 심각하고 치명적인 손상을 입힙니다. 또한 건강악화로 불필요한 지출을 하게 만들지요.

문신은 악한 영향을 끼칩니다

사탄의 그림이 그려진 문신은 악마의 힘을 우리 삶 안으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다.

너희는 죽은 이를 위하여 너희 몸에 상처를 내서는 안 된다. 너희 몸에 문신을 새겨서도 안 된다. 나는 주님이다.

-레위 19,28

바로 사도는 다음과 같이 가르칩니다:

아무도 사람을 속이는 헛된 철학으로 여러분을 사로잡지 못하게 조심하십시오. 그런 것은 사람들의 전통과 이 세상의 정령들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골로 2,8

바로 사도는 코린토 신자들에게 보낸 서간에서 다시금 강조합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이러한 연유로 내가 티모테오를 여러분에게 보냈습니다. 그는 내가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나의 성실한 아들입니다. 내가 어디에 가든지 모든 교회에서 가르치는 그대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지켜야 하는 나의 원칙들을 그가 여러분에게 상기시켜 줄 것입니다.

-1코린 4,16-17

여러분의 몸은 하느님께서 머무시는 장소입니다

여섯 번째 계명

간음해서는 안 된다(신명 5,18)

여러분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것을 모릅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의 지체를 떼어다가 탕녀의 지체로 만들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아니면, 탕녀와 결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이 된다는 것을 모릅니까? “둘이 한 몸이 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결합하는 이는 그분과 한 영이 됩니다. 불륜을 멀리하십시오. 사람이 짓는 다른 모든 죄는 몸 밖에서 이루어지지만, 불륜을 저지르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의 성전임을 모릅니까? 그 성령을 여러분이 하느님에게서

받았고, 또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님을 모릅니까? 하느님께
서 값을 치르고 여러분을 속량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몸으
로 하느님을 영광스럽게 하십시오.

-1코린 6,15-20

여섯 번째 계명은 우리의 시선, 말, 행위 안에서 다른 이의 남편이나 아내와
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부정한 죄를 그 대상으로 합니다. 여섯 번째 계명
은 또한 저속한 게임, 야한 춤과 노래, 천박한 옷차림, 음란한 농담, 외설적인
책과 사진을 금지하고 있지요.

계집을 유심히 바라보지 마라. 그와 함께 벌을 받을까 두렵다.

-집회 9,5

**“여섯 번째 계명은 또한
저속한 게임, 야한 춤과 노래,
천박한 옷차림, 음란한 농담,
외설적인 책과 사진을 금지하고 있지요.”**

부정함은 영혼에 가장 위험한 죄들 중 하나이며 대죄로 이어집니다. 여섯 번
째 계명은 우리가 혼자이든 다른 사람과 함께 있든지 간에 행위와(유혹을 피하
기 위해 자신을 보호하고, 행동과 옷차림에 올바름을 유지하는 것) 말, 시선,
생각, 접촉, 읽고 느끼는 것 안에서 단정함을 유지하는 가운데 우리 자신과 다
른 사람을 존중하고 성적인 환상을 피하며 정결과 순결을 지키도록 요구합니
다.

이것을 꼭 알아 두십시오. 불륜을 저지르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욕을
부리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그리스도와 하느님의 나라에서 받을 몫
이 없습니다.

-에페 5,5

인간의 성이 가지는 주요 목적은 또 다른 생명을 낳아서 하느님의 창조사업
에 협력하는 것입니다. 또한 배우자들이 서로의 육체적 정신적 사랑을 표현하
는데 도움을 주지요.

성을 다음과 같이 사용하게 되면 죄악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1. 이유 없이 또는 성적 호기심이나 욕망을 채우기 위해 자신의 또는 다른 사람의 중요 신체부위를 만지는 행위.
2. 부도덕하고 외설적인 대화를 시도하는 행위.
3. 음란한 대화에 참여하고 외설적인 책과 영상을 시청하는 행위.

성과 관련된 죄의 목록

간음: 이미 혼인을 해서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배우자가 아닌 사람(결혼을 했든 하지 않았든)과 육체적 관계를 가지는 행위.

사통(혼전 성행위):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 사이에 육체적 관계를 가지는 행위.

동성애: 동성 간에 육체적 관계를 가지는 행위. 동성애는 대죄입니다. 정상적인 성적 결합은 오직 이성 간에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다. 너희는 읽어 보지 않았느냐? 창조주께서 처음부터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나서,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 것이다.’ 하고 이르셨다”(마태 19,4-5).

성매매: 돈을 매개로 육체적 관계를 가지는 행위. 성매매는 성령의 궁전인 몸을 파는 것과 같은 행위입니다.

자위: 기쁨과 만족을 위해 의도적으로 자신의 중요 신체부위를 흥분시키는 행위. 자위는 이기적인 동기로 하느님께서 주신 선물을 남용하는 행위입니다.

수간: 동물과 육체적 관계를 가지는 행위.

그룹섹스: 다수의 남녀가 동시에 육체적 관계(비정상적 육체관계도 포함)를 가지는 행위.

성경은 여섯 번째 계명과 관련된 또 다른 가르침을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어떤 짐승하고도 교접하면 안 된다. 그것으로 너희가 부정하게 된다.

여자도 짐승과 교접하면 안 된다. 그것은 추잡한 짓이다.

-레위 18,23

짐승과 교접하는 사람은 사형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너희는 그 짐승을 죽여야 한다.

-레위 20,15

나태함, 호기심, 자제력 부족, 나쁜 동료와의 교제, 알코올 중독, 야한 옷차림, 음란한 서적 읽기, 부도덕한 TV 프로그램이나 영화 시청, 외설적인 포스터·사진·잡지·문학 등이 우리로 하여금 여섯 번째 계명을 어기는 쪽으로 인도합니다. 이웃에게 추잡한 메시지를 보내거나, 외설적인 농담을 던지고, 추행하는 언어를 사용하는 등 이웃에게 나쁜 모범을 보이는 것 또한 같은 범주에 속하는 죄들입니다.

성적인 감정이나 욕구는 그 자체로는 죄가 아니지만, 우리가 이를 이용해 재미를 얻고자 한다면 죄가 되는 것이지요.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다.” 하지만, 하느님께서서는 이것도 저것도 다 없애 버리실 것입니다. 몸은 불륜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있습니다. 그리고 몸을 위해 주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1코린 6,13

저는 악마에게 완전히 사로잡혀 지속적으로 결혼한 남자와 육체적인 관계를 가지는 한 여학생을 알고 있습니다. 또 15년 동안 인터넷으로 포르노를 시청하는 습관이 있는 남자가 15년 동안이나 일 해온 정보통신 직장에서 승진을 하지 못한 경우도 있지요. 이 남자는 속으로 ‘이 좋은 것을 나만 볼 수야 없지’라고 생각하고는 직장 동료들에게 저질스럽고 부도덕한 영상들을 전송했습니다. 주님께서 성경을 통해 이 남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저희 하느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는 한, 불의를 미워하시는 하느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그들은 번영하였습니다.

-유딧 5,17

성은 깨어지기 쉬운 선물입니다

인간은 성적인 존재입니다.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성적인 존재로 남아있지요. 성에 대한 욕구 없는 삶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적 본성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정이 밀어붙이는 대로 모든 것을 행해서는 안 됩니다. 욕망과 욕정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자신을 통제해

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님께 속한 이들은 자기 욕을 그 욕정과 욕망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갈라 5,24

주님께서서는 결코 소년과 소녀, 남자와 여자, 연인 간의 육체적 결합을 허락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오직 혼인성사로 결합되어 성사적인 삶을 살고 있는 남편과 아내 사이의 결합만을 허락하시기 때문입니다.

혼인은 모든 사람에게서 존중되어야 하고, 부부의 잠자리는 더럽혀지지 말아야 합니다. 불륜을 저지르는 자와 간음하는 자를 하느님께서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히브 13,4

장애를 가진 자녀를 숨긴 남자

인도에서는 사제가 각 가정들을 방문해 가족과 함께 기도하며 그 가정에 축복을 내려줍니다. 저는 한 가정을 방문했고 집주인은 저를 반겨주었지요. 이 남자는 자신의 고통을 저에게 들려주었습니다. 그는 부자였지만 많은 알 수 없는 병을 앓았고 직원들은 그를 속였습니다. 직원들은 남자에게 직장에서의 여러 일들을 숨겼지요. 이 남자는 말했습니다. “저는 부유할지 모르지만 너무 불행합니다. 사람들이 저를 거부하고 피하는 것을 느껴요. 너무 외롭습니다. 적들이 저를 죽이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이 남자는 축복을 받아 많은 부를 축적했습니다. 저는 이 남자의 가정에 축복을 내리기 전에 가족들을 모두 불러 모아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남자는 가족 모두를 데려왔습니다. 제가 가족과 함께 기도를 막 시작하려고 눈을 감았는데 어디선가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눈을 떠서 주위를 살폈지만, 그 자리에 모인 가족들 중 울고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저는 남자에게 울음소리가 어디서 나는 것인지를 물었고, 남자는 울음소리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자에게 기도하기 전에 모든 방을 포함해 집 전체를 먼저 축복해야겠다고 말했습니다. 방들을 축복하며 돌아다니는데 방 하나의 문이 굳게 잠겨있었습니다. 저는 남자에게 문을 열도록 지시했고, 그 방 안에 정신적, 육체적 장애를 가진 아이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남자는 이 아이를 하인들 중 한명과 사이에서 낳아

서 숨겨왔던 것이었습니다. 이 아이를 거부한 이후로 남자도 버림받음의 감정을 느껴왔던 것이지요. 하느님의 말씀이 이 남자에게 내렸습니다:

간음의 소생들은 크지 못하고 부정한 잠자리에서 생긴 자식들은 망하고 만다.

-지혜 3,16

“저는 남자에게 문을 열도록 지시했고,
그 방 안에
정신적, 육체적 장애를 가진 아이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버리고는 이를 잊어버린 남자

한 남자가 아주 심란해하며 저를 찾아왔습니다. 남자는 삶에 정말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는 성당에서 결혼했음에도 너무나 불행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많은 면접을 보았지만 어느 회사도 그에게 연락을 주지 않았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남자는 자신이 잊고 살았던 여인과의 사이에 아들이 있음을 기억해내었습니다. 남자는 이들에게 생계비를 지원해주겠다고 약속을 했지만 전혀 지키지 않았던 것이지요. 저는 이 남자에게 말했습니다. “선생님이 자신의 소생을 잊었을지라도, 주님께서는 결코 그 아이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선생님은 그 아이의 아버지이고 아이를 돌보고 필요한 것을 제공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이의 울음소리가 주님께 올라 갈 것입니다. 그 아이가 어디에 있는지 얼른 찾아가서 아이에게 필요한 것을 마련해주시시오.” 이 남자는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찾아 길을 떠났고 아이를 찾아내었습니다. 아이는 돈이 없어서 학교에 가지도 못하고 충분히 먹지도 못했으며 여러 가지 어려움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실업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남자는 자신의 아이를 학교에 보내고 보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하느님께서서는 남자에게 일자리를 내려주시며 축복하셨습니다.

첫 번째 부인과 다섯 자녀의 울음소리를 외면해왔던 남자

여섯 자녀를 둔 나이가 지긋한 신사 한 분이 찾아와서 결혼 적령기가 되었음에도 결혼을 하지 못하는 자녀들로 인해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니다. 노신사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신부님,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삶의 돌파구를 찾을 수가 없어요. 제 자녀들이 결혼을 못하고 있습니다. 첫째 아이는 해외에 있는데 비자가 만료되어서 그곳에 머무를 수도 없고 다른 자녀들은 모두 일자리가 없습니다. 매일같이 기도하는데도, 하느님께 닿지가 않는 것 같아요. 제 양심은 깨끗합니다. 제가 주님께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 모든 고통을 떠안아야 하는 것입니까?” 그는 흐느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며 성경을 펼쳤고, 하느님께서 말라키 예언서의 말씀을 드러내 보여 주셨습니다:

너희는 또 이런 짓을 하고 있다. 그분께서 더 이상 제물을 굶어보지도 않으시고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않으신다고 주님의 제단을 눈물과 통곡과 탄식으로 덮고 있다. 그러면서 너희는 “어찌 이러십니까?” 하고 묻는다. 네가 배신한 젊은 시절의 네 아내와 너 사이의 증인이 바로 주님이시기 때문이다. 그 여자는 너의 동반자이고 너와 계약으로 맺어진 아내이다. 한 분이신 그분께서 그 여자를 만들지 않으셨느냐? 몸과 영이 그분의 것이다. 한 분이신 그분께서 바라시는 것이 무엇이나? 하느님께 인정받는 후손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제 목숨을 소중히 여겨 젊은 시절의 아내를 배신하지 마라. 정녕 나는 아내를 내쫓는 짓을 싫어한다. —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 말씀하신다. — 그는 제 옷을 폭력으로 뒤덮는 자다. — 만군의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 그러므로 너희는 제 목숨을 소중히 여겨 배신하지 마라.

-말라 2,13-16

저는 남자에게 혹시나 다른 아내가 있는지를 물어보았습니다. 남자는 지금의 아내와 결혼하기 이전에 첫 번째 아내가 있었으며 그 사이에 다섯 자녀나 낳았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사이에 오해가 있었고 결국 두 사람은 헤어져 각자의 길을 가기로 결정했던 것이지요. 이 남자는 첫 번째 부인에 대해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남자에게 말했습니다. “선생님이 첫 번째 부인과의 사이에 자녀들을 두고 있는 한은 그들을 향해 눈과 마음과 정신을 달을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증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선생님께서는 지금의 6명의 자녀만이 아니라 11명의 자녀 모두 동등하게 필요한 것을 제공해주어야 합니다. 5명의 자녀들이 아버지에게 버림받아 돈도 없고 먹지도 못해서 하느님께 부르짖으면 이 울음소리는 곧장 하느님께 닿을 것입니다.”

한 청년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직업이 없었고 열심히 노력해도

직업을 얻을 수 있다는 희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청년은 일찍이 또래의 여성과 육체적 관계를 맺었고 여성을 임신시켰습니다. 그리고는 여성을 떠나버렸고 곧 여성에 대해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여성은 당연히 상처를 받았지요. 시간이 지나 청년은 알맞은 상대를 찾아 결혼을 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했던 이전의 행동들이 커다란 장애가 되어 결혼에 번번이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누군가를 상처 입히거나 모욕하고서 그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처럼 행동할 수는 없는 법이지요. 우리가 이웃에게 하는 그대로 우리에게 돌아오게 됨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몸을 공유하는 것은 죄도 함께 공유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의 두 번째 아내가 찾아와 자신의 수많은 어려움을 이야기 했습니다. 이 여인의 자녀들은 학비가 없어서 학교에 갈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이전에 한 번 결혼을 했었고 전 부인과의 사이에 일곱 자녀를 두었지요. 여인은 남편이 첫 번째 결혼생활에서 얻은 일곱 자녀 모두를 떠안게 되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우상숭배자와 관계를 가지게 되면 우리 또한 죄를 짊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느님의 말씀, 성경이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는 이유입니다. “그와 같이 죄인을 가까이한 자와 그의 죄악에 끼여든 자를 아무도 동정하지 않으리라.”(집회 12,14)

70세 가까이 된 남성이 저를 찾아와 결혼을 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신부님, 저는 결혼을 하고 싶은 두 명의 여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정을 내리지 못하겠어요. 둘 다 좋은 신부감입니다. 저는 둘 모두를 사랑하고 이 여인들도 저를 사랑합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이 남성에게 질문했습니다. “선생님, 여인들의 나이가 어떻게 됩니까?” 남성은 대답했습니다. “한 명은 스물 셋이고, 다른 한명은 스물여섯입니다.” 사실 이 남성은 아주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아내와 이혼을 했고 스물일곱 살이 된 아들이 하나 있었지요. 저는 남성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남성은 대답했습니다. “저는 69세입니다. 제 아내도 아들도 더 이상 저와 함께 살지 않아요. 저는 너무나 외롭습니다. 저를 보살펴줄 사람이 필요해요.” 저는 남성에게 말했습니다. “음, 선생님께서 필요로 하는 사람은 아내가 아니라 가정부인 것 같습니다.” 저는 남성에게 한 달 동안 읽고 묵상할 성경구절을 주며 말했습니다. “한 달 동안 기도하시면서 주님께 그 여인들이 선생님과 결혼을 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여쭙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선생님의 아내가 되고

싶어서인지, 아니면 선생님이 가지신 재산 때문 인지를요. 선생님께서는 69세 이십니다. 지금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 영혼을 준비하는 시간이지요. 더 이상 필요 없는 짐을 모으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음, 선생님께서 필요로 하는 사람은
아내가 아니라 가정부인 것 같습니다.”

미혼모들에게

기도 중에 우리는 미혼모들이 추가적인 결혼이나 육체적 관계를 멀리하라는 부르심을 받는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미혼모들은 결혼 대신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능력 안에서 그 삶을 주님께 봉헌해야 합니다. 물론 자녀들을 등한시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의붓아버지들이 의붓자녀들, 특히 이제 막 청소년기에 접어든 의붓딸들을 성적으로 학대하며 딸이 아닌 ‘세 번째 부인’으로 여기는 모습들을 너무 많이 보아왔습니다. 의붓아버지들이 자녀들을 그저 자신들의 성적 욕망을 위한 수단으로 대하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을 이 같은 고문 속으로 밀어 넣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자녀들이 12살보다 아래라면, 자녀들의 행복을 위해 재혼을 피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근친상간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들이 틀렸다. 그들의 악이 그들의 눈을 멀게 한 것이다.

-지혜 2,21

한 젊은 여성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이 여성은 고아였고 깊은 슬픔에 잠겨 있었으며 불면증으로 고통 받고 있었습니다. 저는 여인에게 결혼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여인은 자신이 결혼을 하지 않았으며 가정을 꾸리는 삶을 살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여인은 자신이 친오빠와 육체적 관계를 가졌다는 사실을 털어놓았지요. 13살 밖에 되지 않은 어린 소녀가 삼촌에게 성폭행을 당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후에 이 소녀는 자신의 삶을 무너뜨리는 통제 불가능한 해로운 성행위에 몰두하게 되었습니다.

친족과의 육체적 관계나 근친상간은 대죄에 속합니다. 같은 핏줄 사이에서 일

어난 성적 학대나 육체적 관계는 가정에 장애를 들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근친상간 사건들은 점점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저는 태어나는 아이들마다 희귀 행동 장애가 있는 한 가족을 알고 있습니다. 정신과 의사는 이 장애가 일반적인 상담이나 치료로는 해결되지 않는 영속적인 것이라 충고했습니다. 이 가족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는 이 가족이 수많은 근친상간을 행해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녀들의 장애는 이 때문이었던 것이지요. 어찌하여 이러한 비정상적인 성도착증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것일까요? 텔레비전, 인터넷, 포르노 중독, 외설적인 음악이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합니다. 외설적인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함께 시청하는 가족은 자신들끼리 외설스러운 게임이나 농담을 주고받기 시작합니다. TV가 걸림돌이 된다면 우리는 과감하게 TV를 처분해버려야 합니다. 인터넷이 우리를 죄짓게 만든다면 과감하게 인터넷을 끊어버려야 하지요. 포르노 CD가 부도덕한 생각과 관계를 가지게 한다면 희생의 영으로 모든 CD를 불태워야 합니다. 우리는 집회서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네가 원하기만 하면 계명을 지킬 수 있으니 충실하게 사는 것은 네 뜻에 달려 있다.”(집회 15,15)

**“외설적인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함께 시청하는 가족은
자신들끼리 외설스러운 게임이나 농담을 주고받기 시작합니다.”**

부도덕한 옷차림

우리가 하게 되는 이러 저러한 행동들은 변태적인 도착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사람들은 옷을 어떻게 입는지가 아니라 어떠한 인성을 지녔는지에 매료되어야 하지요.

신심 깊은 젊은 여성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결혼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젊은 여인과 함께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저를 통해 여인이 이웃에게 좋지 않은 모범을 보인 적이 있는지를 물어보셨습니다. 여인은 대답했습니다. “아뇨. 제가 아는 한 그런 적은 없습니다.” 우리는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예를 들어 살이 많이 드러나는 옷을 입지는 않았나요?” 여인은 어린 시절부터 어머니가 자신에게 야한 옷을 자주 입혔으며 이로 인해 많은 스캔들이 생겼고 이웃이 죄에 빠지게 되었다는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이것이 여인의 삶에 커다란 장애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입고, 말하고, 행동하는

법이 이웃을 죄짓게 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여성들은 다른 사람의 관심을 끌고 원하는 상대를 유혹하기 위해 야한 옷을 차려 입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 여성들은 자신들을 깊은 슬픔에 잠기게 하는 남성들의 욕정을 초대하는 것이지요.

가정에 필요한 것은 정절입니다

한번은 남자친구를 많이 사귀었던 한 여학생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저는 이 여학생에게 질문했습니다. “AIDS가 두렵지 않니?” 여학생은 대답했습니다. “언젠가는 죽을 건데요 뭘. 저는 태어난 지 한 달되던 날부터 버려져서 혼자였어요. 저는 사랑받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사랑에 약한 것이겠죠. 아무도 저를 보살펴주지 않으니, 저 역시도 누구를 보살피지 않아요.” 저는 여학생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지금 네 삶에 악마와 파멸을 초대하는 동시에 그 악마를 친구들에게 퍼뜨리고 있는 거란다.” 죄가 주는 품삯은 죽음이지만, 하나님께서 무상으로 베풀어주신 은사는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받는 영원한 생명입니다.(로마 6,23 참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저버리지 않으시기 때문이지요. 스스로를 모든 감정에 지배당하도록 내버려두어서는 안 됩니다. 배우자가 바람을 피우는 것이 우리 또한 바람을 피워도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죄인들의 인도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들을 피해야 하지요.

뱀을 피하듯이 죄를 피하여라. 죄에 다가서면 그것이 너를 물것이다.
죄의 이빨은 사자의 이빨, 그것이 인간의 영혼을 파괴하리라.

-집회 21,2

부모와 야한 동영상

우리 몸은 성령의 궁전입니다. 하나님의 영께서 우리 몸 안에 거주하신다는 뜻입니다. 야한 동영상을 보게 되면, 우리는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분(예수님)을 옥죄게 됩니다. 노예는 결코 자유롭지 않습니다. 야한 동영상을 보게 되면, 우리는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의 노예가 됩니다.

한번은 49세의 기도모임 지도자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신부님, 저 스스로가 너무 부끄럽습니다. 저는 외설적이고 성적인 상상을 멈출 수가 없어요. 기도할

때나 미사를 드리고 있는 순간에도 말입니다.” 저는 이 지도자에게 한번이라도 성적인 학대를 당한 적이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그녀는 13살 때 삼촌으로부터 계속적인 성폭행을 당했다고 말했지요. 나중에 이 지도자는 결혼을 했지만 남편은 일찍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저는 이 지도자가 악한 생각을 멈출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해주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녀가 자신에게 일어났던 끔직한 사건을 주님께 내어드리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연히 지도자는 자신의 삼촌을 용서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삼촌을 향해 엄청난 분노와 쓰라림을 내뿜고 살아왔던 것이지요. 삼촌을 용서하지 않는 동안, 악마는 이를 도구로 사용해서 악한 생각으로 여인을 공격해왔던 것입니다.

구세주이신 우리 주 예수님께서서는 당신의 상처로 우리가 육으로 저지르는 모든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신부님, 저는 간음의 죄를 저질렀습니다. 친구들이 저에게 육체적 관계를 경험해보지 않으면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없을 거라고 말했거든요.” 우리의 젊은이들은 이 곳에서 너무나 많은 악한 생각들을 주입받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영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느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성은 하느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선물입니다. 결코 남용되어서는 안 되지요. 따라서 우리는 매일의 삶에서 우리 자신과 우리의 성을 깨끗이 정화해야 합니다.

동료들의 압박과 부도덕함

한 부부가 자신들의 외동딸을 위해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외동딸은 아주 우수한 학생이었지요. 4학년이 될 때까지 학교 수석을 놓친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5학년이 되어서 성적이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딸의 부모님과 선생님들은 급작스러운 성적하락이 너무 걱정되어서 기도를 요청하기 위해 저를 찾아왔던 것입니다. 저는 부부에게 아이와 단 둘이서 대화를 해도 되는지를 물어보았고 그들은 허락했습니다. 제가 말을 건네도, 아이는 저를 똑바로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꼭 숙인채로 아이는 자신에게 일어났던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신부님, 저는 죄인이에요. 저는 남자친구들이 많았어요. 하루는 한 친구가 저를 자신의 방으로 데려갔고 그곳에는 한 무리의 남자애들이 있었어요. 그 애들이 저에게 야하고 저질스러운 동영상 보여줬어요. 후에 저는 완전히 문란해져서 제가 동영상에서 보았던 것들을 실제로 하게 되었어요.” 그 결과 아이는 자신이 보았던 악한 영상을 떠올리느라 기억력이 저하되었고 집중력을 잃어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남자친구들이 많았어요.
하루는 한 친구가 저를 자신의 방으로 데려갔고
그곳에는 한 무리의 남자애들이 있었어요.
그 애들이 저에게 야하고 저질스러운 동영상을 보여줬어요.
후에 저는 완전히 문란해져서
제가 동영상에서 보았던 것들을 실제로 하게 되었어요.”

한 어머니가 자신의 아들을 데려와 기도를 청했습니다. “신부님, 제발 제 아들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제가 목욕을 하거나 옷을 갈아입을 때마다 아이는 제 모습을 지켜보고 있어요. 제가 집안일을 하고 있을 때는 어디에 있는지 보이지도 않다가 옷을 갈아입을 때는 어디에서 왔는지 어느새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 어머니에게 야한 동영상을 시청했던 습관이 있었는지를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대답했습니다. “결혼 전에 남편은 야한 동영상에 중독되어 있었어요. 결혼 후에 남편은 저에게도 그 동영상들을 추천했어요. 우리는 함께 야한 동영상을 보았지요. 제가 임신을 하고 있던 중에도 계속 봤습니다. 저는 그게 죄인지 몰랐어요. 그저 남편이 하자는 대로 했을 뿐이었죠.” 저는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자매님의 아들이 분명 영향을 받았고 그것이 바로 아들이 그렇게 행동하는 이유입니다.” 야한 동영상은 오늘날 사회악 중의 하나입니다.

이웃의 소유물을 소중히 대하십시오
일곱 번째 계명
도둑질해서는 안 된다(신명 5,19)

일곱 번째 계명은 다른 이에게 속한 것을 부당하게 가지려는 모든 시도를 금지합니다. 갖가지 방법으로 속여서 물건을 사고파는 것과 이웃을 부당하게 대하는 모든 행위 또한 일곱 번째 계명을 거스르는 것이지요.

너희는 바른 저울과 바른 추, 바른 에파와 바른 힌을 써야 한다.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 낸 주 너희 하느님이다.

-레위 19,36

또한 우리가 사용 가능한 모든 재화를 회복시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죄는 용서받지 못할 것이고, 우리는 그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그러나 자캐오는 일어서서 주님께 말하였다. “보십시오, 주님! 제 재산의 반을 가난한 이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른 사람 것을 횡령하였다면 네 곱절로 갚겠습니다.”

-루카 19,8

자유시간과 일하는 시간 등, 우리가 시간을 사용하는 것 또한 일곱 번째 계명에 해당합니다. 직장에서의 시간과 물건을 쓸데없이 낭비하는 것은 자신의 것이 아닌 것을 훼손하는 일이지요. 정직하지 못한 행위이지요. 우리 자신을 위한 시간과 업무를 보는 시간 모두 충실히 사용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시간을 잘 쓰십시오. 지금은 악한 때입니다”(에페 5,16). 일곱 번째 계명은 더 나아가 사업에서의 정직함과 합당한 임금 지불을 요구합니다. ‘도둑질해서는 안 된다’는 합당한 시간과 일정 안에서 합당하게 일을 해야 한다는 뜻이지요. 일곱 번째 계명은 또한 우리가 계약과 약속을 충실히 이행해야 함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빌리거나 길에서 주운 것들을 주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는 사실도 가르치지요. 주인이 인지하지 못했거나 주인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물건은 우리의 소유가 아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계명은 다른 이의 재화에 피해를 입히고 부당이익을 챙기며, 다른 이의 소유물을 낭비하고 거짓 측량기를 사용하며, 합당하지 않은 임금을 지불하고 문서나 증명서를 위조하며 약탈하는 모든 행위를 멈추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집을 고의로 불태우고 재화나 자동차를 고의로 훼손해서 보험사기를 노리는 것 역시 해서는 안 되는 행위이지요. 거짓 영수증을 발행해서 더 높은 가격이나 이윤을 취해서는 안 되며, 음식에 불순물을 섞거나 우유에 물을 타고 무게를 높이기 위해 방부제를 첨가하는 것 또한 일곱 번째 계명을 거스르는 행위들입니다.

일곱 번째 계명은 다른 사람의 재화와 땅을 착복하거나 뇌물수수를 멈추라고 요구합니다.

서로 다른 저울추와 서로 다른 뒷박 주님께서는 이 둘을 역겨워하신다.

-잠언 20,10

빈곤한 이를 짓밟고 이 땅의 가난한 이를 망하게 하는 자들아 이 말을 들어라! 너희는 말한다. “언제면 초하룻날이 지나서 곡식을 내다

팔지? 언제면 안식일이 지나서 밀을 내놓지? 에파는 작게, 세켈은 크게 하고 가짜 저울로 속이자. 힘없는 자를 돈으로 사들이고 빈곤한 자를 신 한 켈레 값으로 사들이자. 지스러기 밀도 내다 팔자.” 주님께서 야곱의 자만을 두고 맹세하셨다. “나는 그들의 모든 행동을 결코 잊지 않으리라. 그 때문에 땅이 뒤흔들리고 온 주민이 통곡하지 않겠느냐? 온 땅이 나일 강처럼 불어 오르고 이집트의 나일 강처럼 부풀었다가 잦아들지 않겠느냐?” 주 하느님의 말씀이다. 그날에 나는 한낮에 해가 지게하고 대낮에 땅이 캄캄하게 하리라. 너희의 축제를 슬픔으로, 너희의 모든 노래를 애가로 바꾸리라. 나는 모든 사람이 허리에 자루 옷을 두르고 머리는 모두 대머리가 되어 외아들을 잃은 것처럼 통곡하게 하고 그 끝을 비통한 날로 만들리라.

-아모 8,4-10

“거짓 영수증을 발행해서
더 높은 가격이나 이윤을 취해서는 안 되며,
음식에 불순물을 섞거나 우유에 물을 타고
무게를 높이기 위해 방부제를 첨가하는 것 또한
일곱 번째 계명을 거스르는 행위들입니다.”

신뢰받는 사람이 되는 법을 배우십시오

시험에서 커닝하고 속임수를 쓰는 등의 거짓말 또한 일곱 번째 계명의 범주에 속합니다. 어떤 초등학교 4학년 아이가 공부를 어려워하면서 시험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시험을 치는 동안 내내 아이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요. 아이의 선생님은 자주 아이에게 아픈 것은 아닌지 물어보았지만 아이는 괜찮다고 대답했습니다. 다음날 아이는 또 고개를 꼭 숙인 채 시험을 치렀습니다. 시험감독관은 이 아이가 시험을 치르면서 답이 적힌 종이를 허벅지 위에 놓고 그것을 베껴 쓰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좋은 일과 궂은 일, 삶과 죽음 가난과 부, 이 모두가 주님에게서 온다.”(집회 11,14) 속임수를 써서 시험 하나를 치렀다고 생각해봅시다. 그렇다면 다음 시험은 어떻게 치룰 수 있겠습니까? 커닝은 분명 잘못된 행위입니다. 취업을 하거나 다른 이익을 얻기 위해 증명서를 위조하는 행위 또한 잘못된 일입니다. 증명서가 없을지라도, 주님께서서는 우리가 성공하도록 축복을 내려주십니다.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기에 자기연민에 빠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주님께서 특별한 사랑을 주신다는 사

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집회서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배우지 못한 자들아, 내게 가까이 오너라. 내 배움의 집에 와서 묵어라. 너희는 어찌하여 아직도 지혜 없이 지내며 너희 영혼은 극심한 갈증에 시달리느냐? 나는 입을 열어 이렇게 말하였다. “돈 없이 지혜를 차지하여라.”

-집회 51,23-25

고등학교 3학년 여학생이 깊은 절망감에 빠진 채로 저를 찾아와 말했습니다. “신부님, 아무래도 제 인생은 실패한 것 같아요. 저는 공부에 소질이 없거든요. 성적이 뛰어나지 않아서 취업할 수도 없을 것 같아요.” 이 여학생은 자신이 성적으로만 축복을 받을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집회서의 말씀에 드러난 주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지금은 아주 좋은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한 의대생이 특정 과목에서 계속 낙제를 받았습니다. 그 과목을 이수하지 못하면 이 학생은 졸업을 할 수가 없었지요. 4년이라는 시간 동안 학생은 그 한 과목만 계속해서 낙제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 의대생에게 과거 어떤 것이라도 흠친 적이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의대생은 자신이 고등학생 시절에 과학실에 있는 아주 고가의 실험기구를 훔쳐서 숨긴 일을 기억해냈습니다. 선생님은 실험기구가 사라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모든 학생들에게 기구의 행방을 물었습니다. 이 학생을 포함한 모두가 자신이 기구를 가져가지 않았으며 그것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른다고 대답했습니다. 선생님은 반복해서 누구든 기구를 가져간 사람은 제자리에 가져다 놓아달라고 간청했습니다. 하지만 이 학생은 끝내 돌려놓지 않았죠. 시간이 조금 지나 학생은 실험기구를 부서뜨렸습니다. 교장선생님이 실험기구가 없어져 완전히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화학 선생님께서 정직처분을 내렸습니다. 여태껏 학생은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이 학생은 과거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얽매이게 되었던 것이죠. 학생은 자신이 다니던 고등학교를 찾아가 교장선생님과 화학 선생님, 그리고 모든 학생들 앞에서 자신의 잘못을 시인했습니다. 이 일이 있는 직후에, 학생은 시험을 무사히 통과했으며 지금은 자신이 근무하는 병원에서 가장 존경받는 의사로 환자들을 치료하고 있습니다. 학생은 말했습니다. “삶이 저에게 가르쳐준 것은 스승을 존경하고 결코 누구를 속이거나 진실을 숨겨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죄를 하는 이유가 실수 때문입니까? 아니면 들켰기 때문입니까?

하루는 한 아버지가 아들을 저에게 데려왔습니다. 이유는 아들이 도둑질을 시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보고 있지 않을 때 아들은 아버지의 셔츠와 외투 주머니 속에 있는 지갑에서 돈을 꺼냈습니다. 그러다가 아버지에게 들켰던 것이죠. 아들은 아버지에게 사과했지만 도둑질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신부님, 제 아들놈이 돈을 훔치는 것을 발견해서 제가 바로 잡아주었는데도, 아들 녀석에게서 진심으로 참회하거나 변화되는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아들이 커서 악명 높은 강도가 되면 어찌죠?” 아들에게 관한 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고 우리는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드님은 돈을 훔친 것에 대해 미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훔치는 것을 들켰기에 미안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참회해야 하는 것은 들킨 것이 아니라 우리가 행한 잘못이어야 합니다.

저를 찾아왔던 한 가난한 여인을 기억합니다. 여인은 제게 말했습니다. “신부님, 남편이 자는 동안 몰래 그의 호주머니에서 돈을 빼내는 게 잘못인가요?” 저는 여인에게 물었습니다. “그러한 질문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죠?” 여인은 자신의 남편이 술주정뱅이에다 가정을 돌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돈을 버는 족족 술을 마셔댔습니다. 남편이 집에 오면 여인은 남편이 잠들 때까지 기다렸다가 잠이 들면 남편의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어 다음날에 가족에게 먹일 음식을 사러 갔습니다. 저는 여인에게 말했습니다. “가족을 돌보지 않는 남편분의 죄가 더 큼니다. 남편의 돈이 곧 자매님의 돈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동의를 구해야 하지요.” 아내와 자녀를 절대 돌보지 않는 남편들이 있습니다. 가족들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남편들도 있지요. 또한 가족보다 자신의 직업과 경력을 더 중요시하는 아내들도 있습니다. 이들 모두가 간접적으로 도둑질을 조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부님, 남편이 자는 동안
몰래 그이 호주머니에서 돈을 빼내는게
잘못인가요?”**

뇌물수수

너희는 뇌물을 받아서는 안 된다. 뇌물은 온전한 눈을 멀게 하고, 의

로운 이들의 송사를 뒤엎어 버린다.

-탈출 23,8

뇌물수수의 뿌리는 이기심, 탐욕, 그리고 극도의 자기중심적 사고입니다. 뇌물수수는 유리한 결정을 내려주는데 대한 대가나 보답으로 정의될 수 있습니다.

부정한 이득을 챙기는 자는 집안을 어지럽히지만 뇌물을 싫어하는 이는 잘살게 된다.

-잠언 15,27

네 안에서는 사람들이 뇌물을 받아 남의 피를 쏟는다. 너는 변리와 이자를 받고 이웃을 억압하여 착취한다. 그러면서 너는 나를 잊고 있다. 주 하느님의 말이다.

-에제 22,12

이 세상의 역사를 살펴보면, 굼직굼직한 뇌물수수 사건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중국의 만리장성은 오로지 사람의 힘으로 만들어지고 달에서도 보이는 건축물로 유명합니다. 만리장성을 건설하는데 천문학적인 금액이 사용되었지요. 공사가 끝났을 때, 사람들은 안도했습니다. 난공불락의 성벽이라 생각했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적들은 아주 쉽게 만리장성을 넘었습니다. 어떻게 넘었을까요? 적들이 성벽지기들 중 한 명에게 뇌물을 건네주었던 것입니다. 뇌물수수는 죄이자 사회악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가 직면한 커다란 어려움이 자 위협입니다. 학생들은 책임자에게 뇌물을 주고 평가 목록의 상위권에 자리 해왔습니다. 이렇듯 뇌물수수는 공정함과 정직함을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뇌물수수는 자질이 부족한 행정사와 교사 및 무지한 의사를 배출하는 등, 사회에 부정부패를 일으키고 통제 불가능한 상태를 불러와서 사람들을 오랫동안 비참함에 빠지게 합니다.

거짓말과 거짓 증언은 더 이상 안 됩니다

여덟 번째 계명

이웃에게 불리한 허위 증언을 해서는 안 된다(신명 5,20)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하고 거짓말을 퍼뜨리는 자는 멸망한다.

여덟 번째 계명은 모든 종류의 거짓 증언, 경솔한 판단과 거짓말을 금합니다. 중상과 비방 또한 여덟 번째 계명을 거스르는 행위이지요. 중상은 남이 하지도 않은 일을 의도적으로 꾸며내 나쁘게 말하는 것입니다. 비방은 합당한 근거 없이 남을 비웃고 헐뜯는 말을 퍼뜨리는 행위이지요. 중상과 비방은 근거 없이 남을 헐뜯어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이며 최악입니다. 우리는 진리만을 말해야 할 뿐만 아니라 사랑으로 그 진리를 말해야 합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모든 면에서 자라나 그분에게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그분은 머리이신 그리스도이십니다.”(에페 4,15) 우리 모두는 자신의 이름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름은 큰 재산보다 값지고 명성은 은보다 금보다 낫다.”(잠언 22,1) 만약 나 자신이 이웃을 나쁘게 말하며 상처를 입혔다면, 가능한 모든 것을 통해 이웃의 이름을 회복시켜주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이지요. 집회서는 다음과 같이 가르칩니다. “행복한 삶은 그 날수가 정해져 있지만 좋은 이름은 영원히 남으리라”(집회 41,13).

여덟 번째 계명은 우리에게 모든 것에 있어서 진실 되고, 이웃의 좋은 이름을 존중하고 드높일 것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진실만을 말하고 약속을 지킬 의무가 있습니다. 거짓을 말하는 것은 죄입니다. 이웃에게는 부당한 일을 저지르는 행위이고 주님의 법에는 불순종하는 행위이지요. 거짓말은 이웃의 자존감에 상처를 입힙니다. 우리 주위에는 입만 열면 거짓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짓말의 뿌리는 독선입니다. 하느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란 있을 수가 없는 법이지요.

“거짓말의 뿌리는 독선입니다.”

험담

험담은 결코 정당화 될 수 없습니다. 다른 이의 마음을 깨부수고 그 삶을 폐허로 만들어버리기 때문입니다. 험담은 악의적이고 교활합니다. 험담은 그 진원지를 찾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름도, 얼굴도 없기 때문입니다. 험담은 명성을 더럽히고, 정권을 무너뜨립니다. 결혼생활을 파괴하고, 경력을 망쳐 버리며 무죄한 이가 눈물 흘리게 만들지요. 심장병과 불면증도 가져옵니다. 여러분이 다음번에 험담에 가담하게 될 때면,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십시오.

- 지금 진리를 말하고 있는가?
- 지금 하고 있는 말이 친절과 따뜻함을 내포하고 있는가?
- 지금 하고 있는 말이 꼭 필요한 말인가? 아니면 헛소문을 퍼뜨리는 것인가?
- 남에 대해 긍정적으로 말하고 있는가?
- 다른 이들이 헛소문을 퍼뜨리는 것을 즐기거나 조장하지는 않는가?
- 내가 대화를 시작할 때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고 하지는 않는가?
- 나는 비밀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인가?

험담은 모든 곳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사무실에서, 상점에서, 파티나 모임에서, 성당에서, 통화에서도 우리는 험담을 들을 수 있지요. 험담은 화제와 두통을 유발합니다.

이웃의 가정을 파괴하지 마십시오
아홉 번째 계명
이웃의 아내를 탐내서는 안 된다(신명 5,21)

일반적으로 탐욕, 과음, 방종, 나태, 기도를 경시함에서 아홉 번째 계명을 거스르는 이유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써 보낸 것들에 관하여 말하겠습니다. “남자는 여자와 관계를 맺지 않는 것이 좋다.” 하지만, 불륜의 위험이 있으니 모든 남자는 아내를 두고 모든 여자는 남편을 두십시오.

-1코린 7,1-2

성경은 구약부터 시작해서 끊임없이 불륜에 대한 가르침을 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서는 혼인생활의 충실함에 대해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 이웃의 아내와 역겨운 짓을 저지르는 자가 있는가 하면, 추잡한 짓으로 며느리를 부정하게 만드는 자도 있고, 자기 아버지의 딸인 누이를 범하는 자도 있다.” (에제 22,11)

아홉 번째 계명은 우리에게 거룩한 가정생활을 유지해야 함을 가르칩니다.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해석에 따르면 우리는 생각으로도 남의 집이나 아내를 탐내지 않아야 합니다. 누군가를 음욕을 품고 바라보기만 해도 이미 간음을 한

것이고 성과 관련된 다른 죄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음욕을 품고 여자를 바라보는 자는 누구나 이미 마음으로 그 여자와 간음한 것이다.

-마태 5,28

모든 종류의 부정직한 부의 축적을 피하십시오

열 번째 계명

이웃의 재산은 무엇이든지 욕심내서는 안 된다(신명 5,21)

열 번째 계명은 이웃의 재산을 질투하고 탐내는 모든 생각들과 이웃의 소유물을 향한 그릇된 욕망을 금하고 있습니다(탈출 20,17).

다음의 경우들이 열 번째 계명을 거스르는 행위들입니다:

- 다른 사람의 소유물을 차지하는 것(1열왕 21,1-29)
- 밭의 경계선을 밀어내고 다른 이의 땅을 침범하는 것(잠언 23,10)
- 하느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행한 일을 책임져야 한다는 사실을 무시하는 것
- 정직하지 않은 방법으로 부를 축적하고 뇌물을 주고받으며 정의실현을 방해하는 것(1사무 8,3; 시편 16,10)

환경을 파괴해서는 안 됩니다

하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땅은 푸른 싹을 돋게 하여라. 씨를 맺는 풀과 씨 있는 과일나무를 제 종류대로 땅 위에 돋게 하여라.” 하시자, 그대로 되었다. 땅은 푸른 싹을 돋아나게 하였다. 씨를 맺는 풀과 씨 있는 과일나무를 제 종류대로 돋아나게 하였다. 하느님께서 보시니 좋았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사흘날이 지났다.

-창세 1,11-13

무분별한 벌목, 삼림파괴, 강과 호수의 오염, 탄광개발, 폐기물 매립, 노후 차량의 사용, 대중교통 시스템의 과부하, 주택 공급 과잉, 소음공해 등의 행위들은 하느님의 계획을 거스르는 일입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는 아주 당연하다는 듯이 자연환경을 사용합니다. 이제 자연개발은 하느님의 창조물을 가장 심하게 파괴하는 것 중의 하나가 되었습니다. 나무, 물, 땅, 신선한 공기 등,

특정 천연자원을 풍부히 가진 몇몇 국가들은 자신들이 받은 선물에 전혀 감사를 표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들 국가는 자연을 훼손하면서 그것이 오로지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무를 그저 돈으로만 생각하지요. 돈에 대한 탐욕이 사람으로 하여금 자연환경을 총체적으로 악화시키도록 이끕니다. 벌목, 채굴, 모래채취, 공업으로 인한 물, 공기, 흙의 오염을 통해서 말입니다.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은 세상의 모든 돌들을 빵으로 만들어버리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사람들은 이것이 바로 악마가 예수님을 유혹하기 위해 사용했던 속임수라는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악마가 그분께,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더러 빵이 되라고 해 보시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는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루카 4,3-4

“어떤 사람들은 나무를 그저 돈으로만 생각하지요.”

태만의 죄

작위적인 죄보다 더한 죄가 바로 태만의 죄입니다. 바리사이 시몬이 모른 채 했던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을 마리아 막달레나가 행했습니다. 우리는 이를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설명하신대로 필요한 일을 행하지 못했음에 대한 이야기로 이해합니다. 최후의 심판의 기준은 우리가 ‘행했느냐(해주었느냐) 행하지 않았느냐(해주지 않았느냐)’에 달려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서는 제때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선한 일을 행해서 열매를 맺으라는 우리를 향한 가르침이지요. 겐세마니 동산에서 비탄에 잠기셨을 때도, 주님께서서는 당신과 함께 깨어있지 못하는 제자들을 꾸짖으셨습니다. 달란트의 비유에서 달란트를 숨겨두었던 이는 바깥 어두운 곳으로 내던져집니다. 열 처녀의 비유에서 깨어있어야 했던 어리석은 처녀들은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빌라도는 주님께서 죄가 없으시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유다인들을 만족시키고자 그 어떤 행동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선행을 행하지 않는 것은 범죄입니다. 그 선행은 오직 우리만이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에페소 신자들에게 보낸 서간에서 우

리는 읽습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작품입니다. 우리는 선행을 하도록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창조되었습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우리가 선행을 하며 살아가도록 그 선행을 미리 준비하셨습니다.”(에페 2,10) 헨리 뉴먼 추기경님은 말했습니다. “선을 행하지 않는 것이 사실은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잠언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너는 병어리들을 위하여, 버림받은 모든 이들의 권리를 위하여 입을 열어라. 입을 열어 의로운 재판을 하고 가난한 이와 불쌍한 이의 권리를 지켜 주어라”(잠언 31,8-9).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선행을
행하지 않는 것은 범죄입니다.
그 선행은 오직
우리만이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아프리카의 볼 수 있는 죄스런 전통들

여성 할례

너희가 지켜야 하는 계약, 곧 나와 너희 사이에, 그리고 네 뒤에 오는 후손들 사이에 맺어지는 계약은 이것이다. 곧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는 것이다.

-창세 17,10

이는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이전의 계약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할례를 강조하는 새로운 계약에 속한 이들이지요. 바오로 사도는 말합니다. “여러분은 또한 그분 안에서 육체를 벗어 버림으로써, 사람 손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할례 곧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습니다.”(콜로 2,11) 신약성경에서 언급되어지는 할례는 모두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과 관련되어집니다. 무엇보다 성경이 여성 할례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여성 할례는 불법이자 비윤리적인 행위이며 여성에게 가해지는 끔찍한 폭력입니다.

사람의 육체는 주님께서 아름답게 빚어내신 창조물입니다. 하느님의 계획은 인간이 육적이고 영적인 측면에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 누구도 합당한 이유 없이 다른 이의 신체 일부를 제거하거나 잘라낼 권한은 없습니다. 그 같은 행위는 하느님께서 세우신 본래 계획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여성 할례

는 만성적인 골반내 염증질환과 불임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바오로 사도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성령의 불을 끄지 마십시오. 예언을 업신여기지 마십시오. 모든 것을 분별하여, 좋은 것은 간직하고 악한 것은 무엇이든 멀리하십시오.”(1테살 5,19-22) 주님께서서는 분명 우리에게 악한 것은 무엇이든 멀리하라고 명하십니다.

**“그 누구도 합당한 이유 없이 다른 이의 신체 일부를
제거하거나 잘라낼 권한은 없습니다.
그 같은 행위는 하느님께서 세우신 본래 계획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아내 상속

무의탁 과부들을 존대하십시오.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으면, 그들은 먼저 자기 가정에 헌신하고 어버이에게 보답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느님 마음에 드는 일입니다. 무의탁 과부 곧 의지할 데 없이 홀로 된 여자는 하느님께 희망을 걸고 밤낮으로 끊임없이 간구와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나 자기 욕심대로 사는 과부는 살아 있어도 죽은 몸입니다.

-1티모 5,3-6

예수님께서서는 모든 이에게 하시듯 과부들에게도 커다란 사랑을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까이 불러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저 가난한 과부가 헌금함에 돈을 넣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넣었다.

-마르 12,43

구약성경의 가르침입니다: “형제들이 함께 살다가 그 가운데 하나가 아들 없이 죽었을 경우, 죽은 그 사람의 아내는 다른 집안 남자의 아내가 될 수 없다. 남편의 형제가 가서 그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여, 시숙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신명 25,5) 사두가이파들은 이 성경구절에 대한 답을 하느님의 아드님이 시며 생명의 새로운 길을 제시해주시는 예수님께 듣고 싶어 했습니다.

사두가이파들은 먼저 세상을 떠난 형제의 아내를 다시 아내로 맞아들이는 일곱 형제의 이야기(마태 22,23-28)에 대해 질문합니다. 예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셨던 것은 삶의 궁극적인 목표, 곧 결혼이 더 이상 논란거리가 될 수 없는 부활의 삶 안에서 하느님과 맺는 최종적인 결합입니다. 우리는 로마서의 말씀을 읽습니다. “혼인한 여자는 남편이 살아 있는 동안에만 율법으로 그에게 매여 있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죽으면 남편과 관련된 율법에서 풀려납니다.”(로마 7,2)

아내 상속은 가족 사이에 불일치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몰고 옵니다. 한 신사분이 저를 찾아와서 자신의 가정에는 평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남자는 항상 아내와 다투었지요. 가족들은 힘겹게 하나의 결정을 내렸고, 남자의 삶은 비참해졌습니다. 이 남자는 첫 번째 부인과 슬하에 세 자녀를 두었지만 아내는 일찍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친척들은 남자에게 죽은 아내의 여동생과 결혼을 하도록 부추겼지요. 아내의 여동생은 강요에 의해 결혼을 하게 되었고 이 남자를 전혀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가족 간에 사랑이 없으면, 삶은 멍에가 되어버리지요.

일부다처제

일부다처제는 사회에 분란을 야기합니다. 그 안에 있는 경쟁으로 인해서 말이지요. 일부다처제 사회의 여성들은 아주 불안해합니다. 어딘가에 자신이 알지 못하는 남편의 또 다른 아내와 가족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성당에서 혼인한 이들은 언제나 하느님의 보호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한 젊은 여인이 상담을 요청해왔습니다. “신부님, 저는 성당에서 혼인성사를 하고 싶은데 남편이 이를 허락해주지 않습니다.” 여인은 남편과 20년이나 함께 살았지만 아직 혼인성사를 하지 않았던 것이지요. 저는 여인에게 물었습니다. “언제부터 혼인성사를 해야겠다고 마음먹으셨습니까?” 여인은 대답했습니다. “5년 전부터였어요.” 저는 여인에게 자녀를 두기 이전에 이미 혼인성사에 대해 생각했어야 한다고 말해주었습니다.

주술의 사용

제가 기도모임을 주관하고 있던 때의 일입니다. 기도 중에 한 여학생이 침을 뱉고 구토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끔찍한 모습이었지요. 저는 이 여학생이 무당을 찾아가서 무당이 건넨 정체를 알 수 없는 혼합약물을 먹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기도의 힘으로 이 약물이 여학생의 몸에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온갖 종류의 주술과 부적들이 가져오는 ‘이익’은 오래 지속되지 못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스스로 고통 속에 밀어 넣었다는 사실만 깨닫게 될 뿐이지요. 사람들은 주술과 부적이 자신들을 보호해주고 성공하게 해줄 것이라 생각하지만, 그것이 이르든 늦든 간에 깨닫게 되는 것은 그 어떤 피조물도 우리에게 보호나 성공을 보장해주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주술은 우리를 어둠의 세상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부적으로 인해 우리는 악마에게로 가는 문을 여는 것이지요. 가족 중 알 수 없는 질병에 걸린 이가 있다면 그 사람은 주술이나 곳에 직접적으로 관여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족 중 알 수 없는 질병에 걸린 이가 있다면
그 사람은 주술이나 곳에
직접적으로 관여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강요된 결혼

어느 아버지가 지참금에 눈이 멀어 딸을 강제로 결혼시켰습니다. 이와 같은 강요된 결혼에서 태어난 자녀들은 증오와 비참의 감정을 가지고 태어나 가족과 후대에 수많은 문제를 일으키게 되지요.

한 여인이 저에게 와서 자신의 아버지가 지참금을 만들지 못해 부끄러운 나머지 가출을 해버렸다고 말했습니다.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커플들에게 제가 항상 해주는 말이 있습니다. 결혼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재산은 결혼식에서 받게 될 많은 선물과 축의금이 아니라 바로 서로의 배우자라는 사실 말입니다. 결혼 준비금이 부족할지라도, 커플들은 본당 사제를 찾아가 혼인성사의 날짜를 정하고 혼인을 해야 합니다.

3장 용서: 원수를 사랑하여라

용서는 최고의 치유제입니다. 용서는 포기나 실패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느님의 개입을 이끄는 실로 강력한 도구입니다. 용서야말로 진정한 보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스스로 복수할 생각을 하지 말고 하느님의 진노에 맡기십시오. 성경에서도 “복수는 내가 할 일, 내가 보복하리라.” 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그대의 원수가 주리거든 먹을 것을 주고, 목말라하거든 마실 것을 주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은 그대가 숯불을 그의 머리에 놓는 셈입니다.”

-로마 12,19-20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계속 품고 있는 것은 살인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용서에는 세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 하느님을 향한 용서
- 이웃을 향한 용서
- 나 자신을 향한 용서

하느님과 이웃을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품고 있으면, 자신의 육체와 영혼을 죽이게 됩니다. 이웃을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품고 있는 동안, 우리는 그 이웃과 우리 자신을 조용히 살해하는 것입니다. 우리들 중 대다수가 우리에게 잘 못한 이들을 용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느님과 자신을 향한 용서는 크게 고려하지 않고 있지요.

욥의 아내처럼 행동하십니까?

하느님을 용서하지 않는 이들은 기본적으로 하느님께 원망을 품고 있습니다. 욥은 삶에서 아주 힘겨운 시기를 겪고 있었습니다. 모든 재산과 가족을 잃어버렸지요. 또한 질병을 앓았고 대부분의 친구가 곁을 떠나버렸습니다. 욥의 소식은 많은 이들에게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버림받은 이가 되어버렸죠. 욥의 아내는 욥더러 하느님을 저주하라고 재촉했습니다. 욥의 마지막 남은 세 친구 역시 욥의 아내가 말한 것과 같이 욥에게 충고했습니다. 모든 고통과 비통함으로 인해 욥은 자신이 태어난 날을 저주했습니다. 비록 자신의 삶을 저주했을지라도, 욥은 결코 하느님께 대한 신앙을 잃지 않았습니다. 반면 하느님께서서는 그 모든 불행이 당신의 종 욥에게 내리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마침내 욥은 하느님께 대답했습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당신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음을, 당신께는 어떠한 계획도 불가능하지 않음을!”(욥 42,2)

우리 삶에 찾아오는 불행으로 인해 하느님을 원망하는 것은 하느님께 저주를 퍼붓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하느님을 저주할 때면, 우리는 하느님의 선하심을 바라보지 못하게 되지요. 불행들 안에서 우리에게 전하시는 그분의 메시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어떤 식으로든지 양값음을 하고자 마음먹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신앙을 잃고 하느님께 대한 믿음을 저버립니다. 성당에 가지도 기도하지도 않고, 하느님과 그 어떤 것도 하려하지 않게 되지요. 하느님을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느님의 계획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몸소 마련한 계획을 분명히 알고 있다. 주님의 말씀이다. 그것은 평화를 위한 계획이지 재앙을 위한 계획이 아니므로, 나는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고자 한다.

-예레 29,11

**“우리 삶에 찾아오는 불행으로 인해
하느님을 원망하는 것은
하느님께 저주를 퍼붓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웃을 향한 용서

15년 동안 무직이었던 한 형제님이 저를 찾아와 취업을 위한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이 형제님은 자신이 성당에 규칙적으로 나가는 열심 한 신자임에도 번번이 취업에 실패했다고 말했습니다. 형제님은 주님께서 왜 자신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으시는지 알고 싶어 했지요. 그렇기에 저에게 기도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 형제님은 신앙의 위기도 겪고 있었습니다. “신부님, 저는 자녀교육에 실패했고, 빚도 많으며 직장도 없습니다. 집을 잃었고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우리는 기도 중에 빌라도 앞에 서계신 예수님 환시를 보았습니다. 또한 하느님의 말씀도 받았지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서로 고소한다는 것부터가 이미 그릇된 일입니다. 왜 차라리 불의를 그냥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왜 차라리 그냥 속아 주지 않습니까?”(1코린 6,7)

우리는 형제님에게 환시에 대해 설명하며 말했습니다. “형제님은 스스로 예수

님을 묶어놓고는 주님의 도움을 받을 수 없게 만든 것 같군요.” 하지만 이 형제님은 전혀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제 삶에 개입을 해주시길 원하고 있습니다. 결코 그분을 속박한 적이 없단 말입니다.”

우리는 형제님에게 물었습니다. “직장을 얻기 위해 어디에 지원을 했습니까?” 형제님은 대답했습니다. “저를 해고했던 그 회사에 지원을 했습니다.” 우리는 “무엇 때문에 같은 회사에 지원을 하신 겁니까?”라고 질문했고, 형제님은 “제가 부당하게 해고되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다니던 직장의 매니저가 자신의 가족을 제 자리에 앉히려 했지요. 아무런 자질도 없는데 말입니다.”라고 답했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질문을 했습니다. “부당하고 당한 것을 고발하셨나요?” 형제님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했습니다. 15년 동안이나 법정에서 싸우고 있지요. 사실 제가 큰 빛을 진 것도 다 이 법정다툼 때문입니다.” 이 형제님은 다른 회사에서 스카웃 제의를 자주 받았지만 어떻게든 자신을 해고한 회사에 다시 들어가 6개월만이라도 근무해서 자신을 해고했던 이들이 틀렸음을 증명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15년 동안 이 형제님은 회사에 다시 복직하기 위해 힘겨운 싸움을 이어왔습니다. 이제는 집도 잃어버리고 큰 빛만 얻게 되었지요.

자신이 고용했던 변호사가 재판에서 이기지 못하면, 이 형제님은 또 다른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형제님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완전히 잊고 있었지요. “내가 너에게 말한다. 내가 마지막 한 닢까지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에서 나오지 못할 것이다”(루카 12,59). 우리는 형제님에게 자신을 부당하게 해고했던 전 매니저를 용서하고 고소를 취하하라고 조언해주었습니다. 형제님은 말했습니다. “저한테 있어서 고소 취하는 실패이자 부당함이 세상에 퍼지도록 허용하는 일이란 말입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는 고소 취하가 주님의 계획이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형제님은 비이성적인 일이라며 고소 취하를 강하게 거부했습니다. 주님께서 이 형제님에게 말씀을 내리셨습니다. “내가 네 앞을 걸어가면서 산들을 평지로 만들고 청동 문들을 부수며 쇠 빗장들을 부러뜨리리라. 내가 어둠 속에 있는 보화와 숨겨진 보물을 너에게 주리니 내가 바로 너를 지명하여 부르는 주님임을, 이스라엘의 하느님임을 내가 알게 하려는 것이다.”(이사 45,2-3) 형제님은 성경 말씀의 힘에 의지하며 고소를 취하했고 한 주 만에 어느 항공사의 매니저로 취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전 회사에 있던 불의한 매니저가 형제님을 찾아와 용서와 복직을 청했지요. 용서와 고소 취하를 결심한 그 순간, 형제님은 예수님을 속박하던 포승줄을 끊어버리게 되었고, 주님께서는

즉시 이 형제님의 삶을 위해 움직이셨던 것입니다.

판사는 진리나 진실보다는 증거에 입각해 판결을 내립니다. 더 부유한 사람은 더 많은 증거를 만들 수 있고 그 증거로 진실을 왜곡할 수도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가장 먼저 다가가야 할 첫 번째 법정 은 바로 주님의 법정이지요. 주님께서서는 가난한 이와 고아들과 과부들에게 공정을 실천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시편에서 읽습니다. “저희 선조들은 당신을 신뢰하였습니다. 신뢰하였기에 당신께서 그들을 구하셨습니다. 당신께 부르짖어 구원을 받고 당신을 신뢰하여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않았습니다.”(시편 22,5-6) 하느님께서서는 결코 우리가 부끄러운 일을 당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악한 생각과 성적 학대

삼촌에게 지속적으로 성적 학대를 당했던 13세의 소녀는 언제나 악한 생각을 품게 되었으며 기도 중에도 음란한 상상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소녀가 그토록 고통스러운 사건과 기억들을 주님께 내어드리지 않고 마음으로 삼촌을 용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누군가를 용서하기 힘들어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서는 우리가 우리에게 상처를 안겨준 이들을 용서하길 바라시고 또 기대하시지요. 용서는 인간의 이해를 넘어섭니다. 용서가 거룩함의 영역에 속해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우리를 상처 입힌 사람을 그 어떤 쓰라린 감정을 느끼지 않고 마주할 수 있을 때까지 매일 용서의 은사를 청하며 기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한 은행원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이 은행원은 자신이 벌어들이는 수익에 기뻐할 수 없었습니다. 수익의 대부분이 빚을 갚는데 쓰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은행원에게 원수가 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은행원은 원수들이 있었지만 이미 그들 모두를 용서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은행원에게 말했습니다. “형제님, 원수들이 형제님을 용서할 때까지 그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우리는 바오로 사도의 가르침을 떠올리며 하느님을 위해 이를 행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무엇인가 용서해 준 사람을 나도 용서합니다. 사실 내가 무엇을 용서하였다면, 그리스도 앞에서 여러분을 위하여 용서한 것입니다

다. 그래야 우리가 사탄에게 속아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의 의도를 잘 알고 있습니다.

-2코린 2,10-11

원수를 용서해주고 주님을 묶은 줄을 풀 때까지 우리는 결코 하느님의 은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여라. 그리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그래야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될 수 있다. 그분께서는 악인에게나 선인에게나 당신의 해가 떠오르게 하시고, 의로운 이에게나 불의한 이에게나 비를 내려 주신다.

-마태 5,44-45

**“형제님, 원수들이 형제님을 용서할 때까지
그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부전자전

봄베이에서 있었던 기숙 피정 첫날에 술에 취한 사람이 피정에 참여하길 원하며 찾아왔습니다. 우리는 보통 취객은 피정 참여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르치는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또한 금주로 인한 금단 증상이 일어나게 되면, 이는 다른 참가들에게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자가 피정에 참가하려면, 보호자를 동반해야만 하지요. 저는 형제님에게 집으로 돌아가서 술이 깨고 나면 다시 찾아오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러자 형제님이 말했습니다. “신부님! 신부님은 누구를 위해서 피정을 지도하십니까? 거룩한 사람들을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죄인들과 저 같은 중독자를 위해서입니까?” 저는 예수님을 많이 필요로 하는 이들을 위해 피정을 지도하는 것은 사실이라고 대답해주었습니다. 하지만 피정에 참여하려면 일단 술부터 끊어야 했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자신을 돌보아줄 누군가를 데려와야 했지요. 제가 이 형제님을 피정 내도록 돌보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저는 형제님에게 말했습니다. “형제님이 금주 현상으로 인해 공격적이 된다면, 제가 진정시킬 수가 없습니다.” 형제님은 대답했지요. “신부님, 저를 돌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돌봐 주실 테니까요!” 저는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우리를 통해 형제님을 돌보십니다!” 형제님은 자신이 홀몸이라 돌봐줄 사람이 없다며 흐느끼면서 말했습니다. “신부님마저 저를 버리면, 저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저는 형제님을 위로하며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피정에 참여하십시오. 대신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형제님에게 손을 뻗어서 제 손에 대고 다시는 술을 입에도 대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라고 했지요. 형제님은 손을 뻗어 제 손바닥 위에 얹고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신부님, 먼저 제 아버지에게 가지지요. 제 아버지는 저보다 더 지독한 술주정뱅이입니다. 아버지는 무섭고 잔인했으며 제 삶을 망가뜨린 장본인입니다. 술 마시는 습관을 아버지에게서 배웠거든요. 제발 제 아버지에게 함께 가서 아버지가 제 삶을 얼마나 영망으로 만들었는지 말 좀 해주십시오.” 저는 말했습니다. “형제님의 아버지께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한다고 무엇이 나아지겠습니까? 형제님의 아버지는 아마도 형제님과 똑같은 이야기를 들려주겠지요. 결국 우리는 이 모든 일의 책임을 아담에게까지 묻게 되지 않겠습니까?” 누구도 자신의 잘못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으려 했기 때문에 아버지 하느님께서서는 당신의 외아들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분께서 당신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마태 1,21)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의 죄를 없애주셨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 외에는 누구도 다른 사람을 고소할 권리를 가지지 않습니다. 원수를 용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느껴지는 순간에 다음의 성경구절들을 반복하면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나에게 힘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필리 4,13) “자녀 여러분, 여러분은 하느님께 속한 사람으로서 거짓 예언자들을 이미 이겼습니다. 여러분 안에 계시는 그분께서 세상에 있는 그자보다 더 위대하시기 때문입니다.”(1요한 4,4)

수리하는 이는 바로 여러분입니다

비록 아주 많은 기도와 간청을 드린다 할지라도 삶에서 걸림돌을 발견하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이는 아마도 가족의 잘못을 수선하고 복구하고 일으켜 세우는 이가 되라는 하느님의 부르심일 것입니다. 주님의 약속은 다음과 같습니다.

너는 오래된 폐허를 재건하고 대대로 버려졌던 기초를 세워 일으키리라. 너는 갈라진 성벽을 고쳐 쌓는 이, 사람이 살도록 거리를 복구하는 이라 일컬어지리라.

-이사 58,12

예수님께서서는 가족을 포함한 우리들 각자의 삶을 변화시키길 수 있으십니다. 다른 사람을 탓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자신과 사랑하는 이의 치유에 대한 책임과 노력만이 필요할 뿐입니다. 뱀에게 물렸을 때, 치료를 받기 위해 병원으로 가야하는 쪽은 누구입니까? 뱀이 아니라 뱀에게 물린 나 자신입니다. 따라서 지금 나 자신이 고통 받고 있다면, 치유를 필요로 하는 이는 나에게 고통을 준 사람이 아니라 고통 받고 있는 나 자신인 것이지요. 집회서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애야, 죄를 지었느냐? 그러면 더 이상 죄짓지 말고 지난날의 죄악에 대하여 용서를 빌어라. 뱀을 피하듯이 죄를 피하여라. 죄에 다가서면 그것이 너를 물 것이다. 죄의 이빨은 사자의 이빨, 그것이 인간의 영혼을 파괴하리라”(집회 21,1-2).

누가 우리 아버지이십니까?

옛된 얼굴을 한 여학생이 피정에 참석했습니다. 이 학생은 자신의 아버지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받았기 때문이었죠. 학생은 아버지가 어머니와 심하게 다툰 뒤로 학비를 더 이상 지원해주지 않아서 학업을 중단해야 했습니다. 학생이 학비 때문에 아버지를 찾아갔지만 아버지는 딸을 모욕하며 말했습니다. “누구를 찾아왔니? 난 네가 누군지 모른다. 그 여자에게 가서 도움을 요청하려무나.” 학생은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아버지는 온갖 추잡하고 저속한 말들로 딸을 능욕했습니다. 친아버지가 자신의 딸을 내치고 모욕까지 주었던 것이지요. 여학생은 자신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아버지를 잃어 외롭고 버림받은 이가 될 것이라 상상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학생은 어안이 병병해서 그 어떤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후로 학생은 아버지에게 용서 베푸는 것을 힘겨워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서는 이사야서를 통해 이 여학생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당신은 저희 아버지입니다. 아브라함이 저희를 알지 못하고 이스라엘이 저희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주님, 당신만이 저희 아버지시고 예로부터 당신 이름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이사 63,16

이 성경구절을 통해 주님께서서는 여학생에게 “나는 너를 알아보고 너를 사랑한다. 바로 내가 너의 참 아버지이기 때문이지”라는 메시지를 주셨던 것입니다. 아버지 하느님께서서는 예수님을 통해 여학생의 아버지를 위한 당신의 뜻을

드러내셨습니다. “이와 같이 이 작은 이들 가운데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마태 18,14). 하느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학생은 자신이 아버지를 용서해야할 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길을 잃지 않도록 아버지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 또한 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여학생은 완전히 새로운 신앙인이 되었습니다.

가족을 용서하십시오

구약의 성조 요셉은 형들에 의해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형제들이 요셉을 질투했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우리는 요셉이 하느님의 뜻을 깨닫는 지혜를 간직하고 있었음을 알고 있습니다. 요셉은 형제들에게 말했습니다. “형님들은 나에게 악을 꾸몄지만, 하느님께서서는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그것은 오늘 그분께서 이루신 것처럼, 큰 백성을 살리시려는 것이었습니다.”(창세 50,20) 요셉은 자신이 겪게 된 모든 고통에서 불구하고 결코 그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복수를 꿈꾸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실 수 있으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우리의 신앙이 너무나도 나약하다는 사실이지요. 이로 인해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서는 우리의 원수들이 살아가는 것을 허용하십니다. 그들 역시 주님의 모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원수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친구들입니다.

우리가 용서를 베풀지 않을 때면, 우리는 주님의 손을 포박하게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서는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선을 행하실 수 없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원수들을 용서할 수 있을 때, 하느님께서서는 우리를 해방하시고 당신의 축복을 가득 내려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를 베풀지 않을 때면,
우리는 주님의 손을 포박하게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서는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선을
행하실 수 없게 되는 것이지요.”**

자신을 용서하기

우리는 때로 대죄를 범하기도 합니다. 주님의 은총으로, 우리는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고해소로 향하지요. 주님께서서는 우리가 고해를 하기도 전

에 이미 우리를 용서해주십니다. 가끔 우리는 우리가 고백했던 죄들을 떠올려 보고는 다시금 부끄러워하며 얼굴을 붉히고 죄책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고는 하느님께서 정말로 우리를 용서하셨는지 의문을 가지게 되지요. 성매매나 근친상간과 같이 성과 관련된 죄나 낙태 등이 바로 고해성사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의 용서를 확신하지 못하게 하는 죄들입니다. 고해자가 그저 “죄가 사하여졌으니 평안히 돌아가십시오.”라는 말로는 용서받는 것이 힘들 정도로 그 죄가 크고 무겁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지요. 주님께서 용서하시기에 너무 크고 무거운 죄는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해 기도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나, 바로 나는 나 자신을 위하여 너의 악행들을 씻어 주는 이. 내가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리라.

-이사 43,25

이 말씀을 반복하게 되면, 우리의 죄의식을 씻어내어 주시는 주님의 자비와 용서를 확신하게 됩니다.

“저는 십계명 전부를 거슬렀습니다!”

온갖 관절염과 질병을 달고 사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저는 여인에게 질병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진실 된 고해성사를 드리라고 조언해주었지요. 여인은 저에게 고해성사를 본지 10여 년이 넘었다고 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신부님, 하느님께서 저를 용서하실지 모르겠어요. 저는 간음을 저질렀고 낙태도 했으며 수많은 남자들에게 HIV를 옮겼습니다. 저는 십계명 전부를 거슬렀어요. 제가 어디로 가야할까요? 도대체 누가 저를 용서하겠어요?” 저는 말했습니다. “왜 그토록 힘겨운 질병을 안고 살아가십니까? 예수님 앞에 끌려왔던 간음한 여인을 떠올려 보세요. 예수님께서서는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단죄하지 않는다. 가거라. 그리고 이제부터 다시는 죄짓지 마라.’(요한 8,11)” 저는 이 여인이 얼마나 많은 수의 남자와 잠자리를 가졌으며 낙태를 몇 번이나 했는지 알지 못합니다. 제가 아는 한 가지는 바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용서하셨으며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셨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히브리 신자들에게 보낸 서간에서 어느 창녀에 관한 말씀을 듣습니다: “믿음으로써, 창녀 라합은 정탐꾼들을 평화로이 맞아들였기에, 순종하지 않은 자들과 함께 망하지 않았습니다.”(히브 11,31)

탕자의 비유에서 둘째 아들은 사람이 저지를 수 있는 모든 죄를 지었습니다. 냄새 고약한 돼지들과 밥을 나눠먹으며 인간의 존엄성까지도 잃어버렸지요. 하지만 사랑하시는 아버지는 아들을 조건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원래의 자리, 가장 좋은 자리를 되돌려 주었습니다. 아들의 부서지고 뉘우치는 마음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예수님께서서는 지금도 살아계시며 지금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실 유일한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의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리라”(히브 10,17).

비참한 여인

어느 젊은 여인이 기도를 청하며 찾아와서 말했습니다. “신부님, 저는 비참한 여인입니다. 이제 23살이 되었지만 벌써 아이가 있어요.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말입니다. 저는 직장도 없고 삶이 완전히 엉망이에요. 저를 받아들여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도무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저는 누구에게도 짐이 되지 않으려 노력하는데도 삶은 전혀 나아지지 않습니다.” 저는 여인에게 용서를 해주어야 할 사람이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여인은 말했지요. “저는 용서를 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았다면 저는 그 사람들을 벌써 오래전에 가만두지 않았을 겁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용서를 해주지 않은 사람이 있군요.” 여인이 말했습니다. “그게 도대체 누구죠?” 저는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자매님 자신을 용서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인은 “아마도 그런 것 같아요”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여인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여인이 한 살이 되던 해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여인은 친아버지의 얼굴도 본 적이 없었지요. 여인의 어머니는 재혼하기 위해 그토록 노력했지만 결국 홀로 자녀들을 키워야 했습니다. 어머니는 삶의 모든 고통을 딸의 탓으로 돌렸습니다. 여인은 성장하면서 부모님의 사랑을 전혀 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인은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다른 형제들이 아버지가 얼마나 사랑가득한 사람이었는지에 대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을 찾아 헤매기 시작했지요. 그 결과 여인은 언제나 나이가 많이 든 남자와 만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인은 취직을 하게 되었고 자신이 다니는 회사의 대표와 일을 하는 게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대표는 68세였지요. 여인은 대표에게서 아버지의 사랑을 발견했습니다. 이 사람이 너무나 따뜻하고 애정이 넘쳤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갑자기 관계는 급변했고 늙은 대표는 여인을 강간했습니다. 여인은 임신

을 하게 되었지요. 여인은 기도를 통해서 그 대표를 용서했지만 자기 자신은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여인은 스스로를 실패자이자 가치가 없는 사람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인에게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해 자신을 용서하라고 조언해주었습니다.

보소서, 저의 쓰디쓴 쓰라림은 행복으로 바뀌었습니다. 당신께서는 멸망의 구렁텅이에 빠지지 않게 제 목숨을 지켜 주셨습니다. 정녕 저의 모든 죄악을 당신의 등 뒤로 던져 버리셨습니다.

-이사 38,17

주님께서서는 또한 여인을 위한 말씀을 직접 내려주셨습니다:

예전의 일들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의 일들을 생각하지 마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하려 한다. 이미 드러나고 있는데 너희는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정녕 나는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리랴.

-이사 43,18-19

알면서도 행하는 죄

의도적으로 죄를 범해서 주님을 상심케 해드렸더라도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보다 훨씬 자비로운 분이십니다: “그분께서는 은혜를 모르는 자들과 악한 자들에게도 인자하시기 때문이다.”(루카 6,35) 우리는 히브리 신자들에게 보낸 서간에서 다음의 말씀을 읽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는 대사제가 아니라, 모든 면에서 우리와 똑같이 유혹을 받으신, 그러나 죄는 짓지 않으신 대사제가 계십니다. 그러므로 확신을 가지고 은총의 어좌로 나아갑시다. 그리하여 자비를 얻고 은총을 받아 필요할 때에 도움이 되게 합시다.

-히브 4,15-16

하느님께서서는 우리 인간의 자만과 악함을 알고 계십니다. 베드로는 알면서도 세 번이나 주님을 부인했지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요구하신 배상은 “예수님, 저는 당신을 사랑합니다.”를 세 번 반복하는 것이었습니다. 가장 극악무도한 죄인에게 왕 중의 왕께서 내리시는 최고 형벌은 바로 “저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 한마디의 고백이 전부입니다.

“가장 극악무도한 죄인에게
왕 중의 왕께서 내리시는 최고 형벌은 바로
‘저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 한마디의 고백이
전부입니다.”

우리가 상처들을 잊지 못하는 이유

많은 사람들이 상처 준 사람을 몇 번씩이나 용서를 했지만 그 상처들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말합니다. 기억에서 상처를 놓아주는 것은 아주 힘든 일이지요. 또한 상처로 인한 슬픔을 잊는 것 또한 힘겨운 일입니다. 상처를 주었던 사건을 떠올릴 때면, 가슴 저 깊은 곳에서 쓰라린 감정들이 북받쳐 오릅니다. 과거의 고통스러운 감정을 놓아버릴 수 없다면, 우리의 용서는 완료되지 않은 것입니다. 용서는 원수를 친구로 받아들일 수 있을 때에만 완성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여라. 그에게 잘해 주고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 주어라. 그러면 너희가 받을 상이 클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자녀가 될 것이다. 그분께서는 은혜를 모르는 자들과 악한 자들에게도 인자하시기 때문이다. 너희 아버지께서 자비하신 것처럼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루카 6,35

예수님께서서는 원수를 그저 용서하는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원수를 사랑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원수를 사랑할 수 있을 때까지는 용서가 끝나지 않았다는 뜻이지요. 우리가 어떻게 느끼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감정을 거슬러 사랑을 실천 하겠다는 결심이 중요한 것입니다. 용서했다고 하면서도 용서한 사람을 피하고 거리를 두며 정겨운 인사나 미소를 건넬 수가 없다면, 이는 원수를 위해서 기도를 바쳐야 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원수를 친구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해주는 유일한 치료제는 바로 기도입니다. 바로로 사도가 전해주는 사랑의 가르침은 우리가 원수를 진실로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도록 도와주지요:

사랑은 무례하지 않고 자기 이익을 추구하지 않으며 성을 내지 않고
양심을 품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에 기뻐하지 않고 진실을 두고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 주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
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어 냅니다.

-1코린 13,5-7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원수를 사랑할 수 있을 때까지
용서는 끝난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상처 준 사람에 대해서 여전히 참지 못하고 불친절하며 무례하게 대
한다면, 이는 사랑의 은사를 청하는 기도를 바쳐야 한다는 신호입니다. 하느님
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기만 하면, 우리는 용서하지 못함의 속박으로부터 해
방될 수 있습니다. 영성이 뛰어난 신부님들은 누군가 우리를 공격하고 방해하
거나 계속해서 삶의 장애물로 다가온다면, 실제로 그 사람이 우리의 기도를 절
실히 필요로 하고 있는 것이라 말합니다. 요컨대,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이 진
정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나는 네 기도가 절실히 필요하기 때문에
너를 방해하고 있는 거야. 나는 하느님의 은총에 목말라 있거든.” 우리를 상처
입히는 이들이 주는 모욕이 크면 클수록 이들은 더 많은 하느님의 은총을 필
요로 하는 것이지요. 남편의 태도가 더 악화되면 될수록 남편을 위해 더 많이
기도하며 성령께 남편을 맡겨드려야 합니다. “아버지 하느님께서서는 예수님의
성혈로 제 남편을 정화해주시고 성령으로 가득 차게 해 주소서”라는 거룩한
삼위일체 기도를 규칙적으로 바치면, 남편은 완전히 변화될 것입니다.

학장 신부님의 실수를 담은 일기장

신학생 시절, 저는 학장신부님의 저의 원수로 여겼습니다. 학장신부님이 저를
크게 보살펴주지 않는다고 생각했지요. 일찍, 저는 신학교를 한 번 떠났었지만
예수님께서 저를 다시 불러주셨습니다. 그렇기에 학장신부님은 매의 눈으로 저
를 지켜보았습니다. 제가 잘못을 하면 저를 신학교에서 내쫓을 구실로 삼기 위
해서였죠. 학장신부님은 고양이처럼 사뿐 사뿐 걸어 다녔습니다. 누구도 학장
신부님이 접근하는 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우연히 뒤를 돌아다보면 학장신부
님은 어느새 제 뒤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매일 매일 학장신부님의 실수를 일
기장에 기록하는 습관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학장신부님이 저에게 범한 잘못을

20개 이상 기록했습니다. 날짜와 시간도 모자라 사건이 생겼을 때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증인들의 이름까지 정확하게 기록해두었습니다.

매년 사제서품을 받기 전, 신학교를 떠나는 졸업생(부제들)을 위한 작별파티가 열렸습니다. 졸업생들 중 한명이 나머지 졸업생들을 대신해 작별 연설을 해야 했지요. 만일 작별 연설의 기회가 저에게 주어진다면 저는 일기장에 기록해둔 모든 사건들을 낱말이 폭로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어찌나 철저히 계획했던지 저는 제가 작별 연설을 하는 꿈까지 꾸었습니다. 신학교를 졸업하는 제 동창들과 후배신학생들, 그리고 학장신부님 모두가 강당에 모였습니다. 저는 단상에 올라 작별 연설을 시작했지요. “존경하는 교수 신부님들과 사랑하는 후배님들, 오늘 우리는 신학교에서 함께하는 마지막 시간을 축하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먼저 저는 오늘이 현실이 되도록 도움을 주신 학장신부님과 교수신부님들, 그리고 영성지도 신부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특별히 학장신부님께 감사의 인사를 전해드립니다. 학장신부님께서서는 우리 모두를 위해 모든 것을 해주셨습니다. 특히 저에게 말이지요. 저는 진실을 말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무엇도 아닌 오직 진실만을 위해서입니다.” 여기까지 연설을 했을 때, 저의 동료 부제들과 후배 신학생들은 박수를 치면서 환호를 보냈습니다. 이들도 역시 하고 싶은 말이 많았던 것이지요. 저는 연설을 이어나갔습니다. “존경하는 신부님들, 2002년 X월 X일 오후 2시에 저는 학업 시간에 동료 신학생들과 TV를 보고 있다가 학장신부님께 들켰습니다. 신부님은 고양이 걸음으로 다가와 저에게 방에서 당장 나가라고 소리 지르셨습니다. 그런데 밖으로 걸어 나가면서 뒤 돌아보니, 학장신부님은 저와 함께 TV를 보았던 다른 신학생들에게는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았지요. 학장신부님께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기억나지 않으신다면 어쩔 수 없지요. 어쨌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만약 제가 학장신부였다면, 저는 결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학장신부님께서 이러한 행동을 다시는 되풀이 하지 않으시길 희망합니다. 진실만이 학장신부님을 자유롭게 하기에, 저는 이것을 제 의무로 받아들이는 바입니다. 학장신부님께서서는 스스로에 대해 아주 좋은 평가를 내리실 것입니다. 하지만 학장신부님께서 편애를 하셨다는 사실을 지금 이 자리에서 일깨워 드립니다. 학장신부님께서 누구가를 변화시키고 스스로 변화되시도록 우리는 기도를 봉헌합니다.” 이것이 그저 꿈이었다는 사실에 저는 아직까지 하느님께 진심을 다해 감사드립니다.

나중에 저의 피정지도 신부님께서 다가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안토니오 형

제, 형제는 삶에 아주 커다란 장애물을 가지고 있구먼. 학장 신부가 저지른 실수를 기록한 일기장 말이지.” 저는 신부님께 말했습니다. “신부님, 제가 쓴 것은 모두 진실뿐입니다.” 피정지도 신부님께서 말했습니다. “자네가 예수님의 훌륭한 제자가 되고자 한다면 바로 지금 그 일기장을 불태워야 한다네.” 이 말을 듣고 저는 참으로 서럽게 울었습니다. 저는 아무런 해결도 나지 않은 상태에서 그 고통스런 사건에 대한 기억을 놓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대가도 치르게 하지 않고 보내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다고 생각했지요. 피정지도 신부님은 저에게 요한 묵시록의 말씀을 설명해주셨습니다. “그때에 나는 하늘에서 큰 목소리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 하느님의 구원과 권능과 나라와 그분께서 세우신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다. 우리 형제들을 고발하던 자, 하느님 앞에서 밤낮으로 그들을 고발하던 그자가 내쫓겼다.’(묵시 12,10)” 악마의 이름은 ‘고발하는 자’입니다. 우리 하느님께서 결코 거짓을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악마 또한 하느님께 결코 거짓을 고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악마가 하느님 어전에서 우리를 고발한다면, 악마는 진실만을 말하는 것이지요. 하느님 앞이기에 악마가 결코 거짓을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고발하면, 우리는 악마의 배우자가 되어 버립니다. 피정지도 신부님은 저에게 지혜서의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러니 조심하여 쓸데없이 투덜거리지 말고 비방하지 않도록 혀를 잡도리하여라. 은밀히 하는 말도 반드시 결과를 가져오고 거짓을 말하는 입은 영혼을 죽인다”(지혜 1,11). 이 말씀을 듣자마자 저는 일기장을 태워버렸습니다.

저는 삶에서 배운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제가 인간의 정의와 가치를 세우기 위해 불림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왜곡된 정의 때문에’ 붙잡혀 돌아가셨습니다. 이는 이사야서에 잘 표현되어있지요(이사 53,8 참조). 저의 성소는 예수님을, 더 정확히는 그분의 발자취를 따르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하라고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겪으시면서, 당신의 발자취를 따르라고 여러분에게 본보기를 남겨 주셨습니다. “그는 죄를 저지르지도 않았고 그의 입에는 아무런 거짓도 없었다.” 그분께서는 모욕을 당 하시면서도 모욕으로 갚지 않으시고 고통을 당 하시면서도 위협하지 않으시고, 의롭게 심판하시는 분께 당신 자신을 맡기셨습니다.

-1베드 2,21-23

“악마가 하느님 어전에서 우리를 고발한다면,
악마는 진실만을 말하는 것이지요.
하느님 앞이기에 악마가 결코 거짓을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고발하면,
우리는 악마의 배우자가 되어 버립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기록한 이웃의 잘못에는 관심이 없으십니다. 또한 우리가 범한 죄와 잘못들을 기록하지 않으시지요. 만약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잘못을 기록하신다면, 누가 그분 앞에 나설 수 있겠습니까? “계명을 기억하고 이웃에게 분노하지 마라. 지극히 높으신 분의 계약을 기억하고 잘못을 눈감아 주어라.”(집회 28,7) 주님께서는 우리의 잘못을 눈감아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위해, 그리고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합니다. 저는 자주 예수님께 “제가 당신이었다면, 부활하자마자 빌라도를 찾아가 그의 뺨을 세 차례 후려 갈겼을 겁니다!”라고 말씀드리곤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지요. 주님은 너무나도 선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침묵하실 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는 빌라도를 위해서도 십자가에 못 박히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이시며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를 빌려야 합니다.

저는 남편의 건강이 악화되길 기도했어요

하루는 건강이 아주 좋지 않은 남자가 저를 찾아와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남자를 위해 기도하던 중에, 주님께서는 저에게 남자의 아내가 남편의 건강이 악화되길 바라며 기도를 하고 있음을 계시해주셨습니다. 저는 남자에게 아내와 함께 다시 와달라고 부탁했지요. 남자가 아내와 함께 다시 저를 찾아 왔을 때, 저는 아내에게 남편의 건강이 악화되기 위한 기도를 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불행을 위해 기도했던 사실을 인정했고 남편이 질병의 고통으로 교훈을 배우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남편이 배워야 하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물어보았습니다. 아내는 남편이 자신을 너무 많이 학대해왔다고 답했지요. 이 남자는 아주 부유한 사람이었지만 아내에게 한 푼의 생활비도 건네준 적이 없었습니다. 또한 자주 불륜을 저질렀고 심지어 내연녀를 집에 데려와서 아내가 보는 앞에서 애정행각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남자는 아내에게 참으로 무례하게 굴었으며 아내를 노예처럼 부려먹었습니다. 이로 인해 아내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어왔던 것입니다. 남편이 병을 얻게

되자, 아내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주님께서 남편으로 하여금 내가 겪었던 거부와 모욕을 똑같이 겪게 하시는구나!’하고 말입니다. 남자가 병을 얻자 내 연녀는 남자의 곁을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는 아내를 기쁘게 했지요. 아내는 생각했습니다. ‘내연녀가 떠나버렸으니 그이는 이제 아내로서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인지 알게 될 거야. 사실 남편이 병을 얻었다는 사실이 너무 행복해. 남편이 이제야 나와 아이들을 돌보게 되었거든. 더 이상 나에게 소리도 지르지 않고 말이야.’

여러분의 원수 또한 예수님의 친구일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원수들 또한 주님의 모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원수의 불행을 위해 기도하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주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아내는 남편의 불행을 위해 기도했던 사실을 인정했고
남편이 질병의 고통으로
교훈을 배우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말했습니다.”**

제 아들놈이 그랬어요

성녀 마더 데레사는 쓰레기 더미에서 죽어가고 있던 늙은 여인을 데려왔던 일을 회상하며 말했습니다. “저는 노파를 수녀원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녀는 ‘제 아들놈이 그랬어요’라는 말만 끊임없이 반복했습니다. 단 한번도 ‘배고파요, 죽을 것 같아요, 고통스러워요’라는 말을 한 적이 없었어요. 오로지 ‘제 아들놈이 그랬어요’라고만 했지요. 노파가 제 품안에서 숨을 거두기 전, ‘저는 아들을 용서합니다’라는 말을 하도록 도와주는데 참으로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난다면 이 용서는 무효일세!

톰과 매튜는 어린 시절부터 친구였으며 사업 파트너였지만 지금은 서로 말을 섞지도 않았습니다. 같이 사업을 하는 도중에 톰이 매튜를 속였기 때문이었지요. 15년 후에 매튜는 끔찍한 사고를 당해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눈을 감기 전에 마음속에 품고 있던 응어리를 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톰에게 전화를 해서 사과를 하며 말했습니다. “과거는 모두 잊고 서로를 용서하도록 하세요.” 톰은 이에 동의했고 매튜가 누워있는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15년 만에 조우한 두 친구는 두 시간 가량 함께 있으면서 서로의 안부를 묻고 그동안 각자에게 있었던 일들을 나누었지요. 이윽고 톰이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매튜의 병실 문을 열고 나가려는데 매튜가 뒤에서 소리쳤습니다. “이봐 친구! 이건 정말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서 하는 말이야. 내가 죽지 않는다면 이 용서는 무효라는 점을 기억하게나! 내가 살아서 병원을 나간다면 자네가 훔쳐갔던 돈을 다시 갚아야 할 것이야!”

용서는 지나간 상처의 감정들을 영원히 묻어버려야 하는 무조건적인 선언입니다. 용서를 베풀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언젠가 자신이 들어가야 하는 문을 잠그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를 갈면서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다면 결국 우리가 해치게 되는 사람은 우리 자신이라는 말이지요.

억울한 이들을 용서 하십시오

제 형제 사제인 조니 신부님이 한 작은 마을에서 있었던 일란성 쌍둥이 형제 상인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쌍둥이 형제는 아버지 소유의 잡화점에서 함께 일했습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고 형제가 함께 잡화점을 물려받았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로웠습니다. 1달러짜리 지폐 한 장이 사라지기 전까지는 말이지요. 쌍둥이 형제 중 한명이 1달러짜리 지폐 한 장을 계산대 위에 두고 잠시 밖에 나가 손님과 대화를 했습니다. 다시 돌아왔을 때, 1달러짜리 지폐는 사라지고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형에게 물었습니다. “계산대 위에 있던 1달러짜리 지폐 못 봤어?” 쌍둥이 형은 모른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동생은 형에게 집요하게 캐물었습니다. 형을 가만히 두지 않았죠. “지폐가 혼자서 움직일 리가 없잖아! 그걸 못 보았을 리가 없어.” 동생의 목소리에는 고발하는 투가 묻어있었지요. 두 사람의 내면에서는 울화가 치밀어 오르고 곧 억울함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오래지 않아 쌍둥이 형제 사이에는 깊고 쓰라린 심연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둘 사이에는 일절 대화가 없었습니다. 마침내 쌍둥이 형제는 함께 일을 할 수가 없어서 잡화점 가운데에 벽을 세우고야 말았지요. 20년 동안 적대감과 분노만이 자라서 가족과 공동체에 퍼져나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다른 지역의 변호판을 단 차를 타고 가던 어떤 남자가 쌍둥이 형제가 운영하는 잡화점에 멈추었습니다. 남자는 상점 안으로 들어와서 점원에게 물었습니다. “여기서 얼마나 살아오셨습니까?” 점원은 대답했습니다.

“여기서 태어나 지금까지 살고 있지요.” 남자는 말했습니다. “드려야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20년 전 저는 실업자였고 기차 화물칸에 몸을 싣고 이 마을에 들어왔습니다.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었지요. 저는 이 잡화점 뒷문으로 들어왔는데 계산대 위에 1달러짜리 지폐 한 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 지폐를 제 호주머니에 집어넣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저는 이 일을 한시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이 큰돈은 아니었지만 언젠가는 다시 돌아와서 용서를 청하리라 마음먹고 있었습니다.”

이 이방인은 말을 끝내고 얼굴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자신 앞에 있는 나이 지긋한 남자가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점원은 말했습니다. “방금 제게 해주신 그 이야기를 벽 너머에 있는 점원에게도 해주시겠습니까?” 남자는 벽 너머에 있는 점원에게도 똑같은 이야기를 들려주었지요. 이제 마을을 떠나기 위해 밖으로 나온 남자는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얼핏 봐도 쌍둥이처럼 꼭 닮은 중년의 남자 두 사람이 서로 부둥켜안고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쌍둥이 형제는 둘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억울함의 벽을 걷어냈습니다. 종종 아주 사소한 것이 사람들을 갈라놓지요. 재촉, 비판, 고발, 분개의 말들이 바로 그 사소한 것들 중 대다수입니다. 한번 갈라진 사람들이 다시 함께 하는 것은 아주 어렵습니다. 많은 경우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는 사건이 일어난 원인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지폐가 혼자서 움직일 리가 없잖아!
그걸 못봤을 리가 없어.”**

오래된 격언이 하나 있습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반드시 건너가야만 하는 다리를 부수는 것이다.” 세상 모든 사람은 예외 없이 하느님의 용서가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는 불완전하고 반복해서 실수를 저지릅니다. 끊임없이 잘못된 행동을 하고 죄를 범하지요. 따라서 우리는 하느님과 또한 더불어 살아가는 이웃의 용서가 필요합니다.

배신자 유다와 함께 사는 법을 익혀야 합니다

사제서품을 받고 난 뒤에 제가 사목을 하는 본당에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저

에 대한 거짓 소문이 퍼지고 있었던 것이지요. 저는 너무 슬펐고 당황해서 어찌해야할 바도 몰랐으며 배신을 당한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성전으로 가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지만 너무 화가 나서 기도가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제 안에서 불타고 있는 분노가 너무 커서 지금은 기도하고 싶지 않다고 예수님께 말씀드리고는 그냥 그 자리에 앉아서 주님을 응시했습니다. 주님께 지금 당장 헛소문을 퍼트린 이들을 찾아가서 진실을 확인하고 싶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일종의 ‘기도 파업’을 하면서 주님 앞에서 시위 아닌 시위를 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저에게 질문하셨습니다. “안토니오야, 너는 조금 전 공동체로부터 배신을 당한 기분을 느꼈다고 말했단다. 그렇다면 너는 얼마나 많이 나를 배신했는지 생각해 보았느냐?” 그 순간 다음의 말씀들이 강한 울림으로 저를 흔들었습니다. “너는 유다와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한 단다! 그가 배신할 줄 알면서도 나는 유다와 함께 살았었지. 너 또한 유다와 함께 하는 법을 익혀야 해!” 예수님을 은전 서른 닢에 팔아넘겼던 유다를 보십시오. 은전 서른 닢(마태 27,3)이라니요? 왕 중의 왕께 대한 모욕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서는 공생활 3년 내도록 유다와 함께 하셨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예수님께서서는 유다를 부당하게 대하지 않으셨죠. 다른 제자들과 똑같이 대하셨습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했던 그날 밤에도, 예수님께서서는 다른 제자들에게 하신 것과 같이 유다의 발도 씻어주셨습니다. 제자들은 누가 주님을 배신할지 몰랐으며, 그들도 이스카리옷 유다와 함께 생활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저의 스승이시며 저는 모든 것에서 주님을 닮아가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서는 당신의 말씀으로 저에게 참고 견디는 법을 가르쳐 주셨지요.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에게 조건 없는 사랑을 주십니다. 주님께서서는 있는 그대로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가 배신할 줄 알면서도
나는 유다와 함께 살았었지.
너 또한 유다와 함께 하는 법을 익혀야 해!”

4장 고해성사: 천국으로 향하는 문

우리가 우리 죄를 고백하면, 그분은 성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시므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 주십니다.

-1요한 1,9

고해성사는 그것이 대죄이든 소죄이든 간에 우리가 세례 이후 범한 죄를 사제와 교회가 하느님의 이름으로 용서해주는 성사입니다.

죄를 인정하십시오

오래전 프랑스의 왕자가 감옥을 찾았습니다. 자신이 지목한 죄수를 관리소장에게 풀어주라고 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왕자는 죄수들을 개별적으로 불러서 “너는 무엇 때문에 이곳에 있는 것이냐?”라고 질문을 하며 면담을 시작했습니다.

한 죄수가 울부짖었습니다. “저는 죄가 없습니다, 왕자님!” 다른 죄수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저는 누명을 썼습니다!” 대부분의 죄수들이 위증, 편견, 부당함, 차별과 압제를 자신들이 감옥에 갇힌 이유로 들었지요. 오직 한 명의 죄수만이 다르게 말했습니다. “전하, 저는 여기에 갇혀 마땅한 인간이기에 그 어떤 불평거리도 없습니다. 저는 아주 악랄한 살인자였지요. 지금 이곳에 갇혀 있는 것이 세상과 저를 위한 커다란 자비입니다.”

“참으로 악하고 비열한 죄수로다!” 왕자는 말을 이었습니다. “이 악랄한 인간이 이곳의 수많은 솔직한 사람들 사이에 구금되어 있다니 참으로 애석한 일이다! 너는 스스로 여기 있는 모든 죄수들에게 해를 끼칠 만큼 충분히 악하다는 것을 인정했다. 나는 너같이 비열한 인간이 이곳에서 다른 죄수들과 함께 있는 모습을 단 1분도 보기 싫구나. 여봐라, 지금 당장 이 죄수를 풀어주도록 하여라!” 고해성사를 통해서 하느님의 용서를 받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바로 우리의 죄와 잘못에 대한 인정입니다. 자신의 실수를 받아들이는 것은 분명 대단하고 훌륭한 일이지요.

고해/참회/화해의 성사

고해성사로 널리 알려져 있는 화해의 성사는 우리 주님이시며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가톨릭교회를 통해 전승되어 온 일곱 성사 중 하나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느님 은총의 보이는 표징이 바로 성사입니다. 따라서 고해성사는 우리가 하느님께 은총을 받을 수 있는 방법 중 한가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고해성사를 통해서 우리 죄를 사해주십니다. 당신께서 기름 부으시고 세우신 거룩한 종들, 곧 성품 성사를 통해 서품된 주교와 사제들을 도구

로 쓰시지요. 오직 주님께서만 죄를 사해주실 수 있으십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서는 당신 스스로 이 권한을 제자들에게 부여해주셨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가 용서를 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다”(요한 20,23). 부활하신 후에 주님께서서는 제자들, 특별히 교회에 용서하는 권한을 주셨습니다. 고해성사는 겸손의 성사입니다. 고해성사를 통해서 악마는 굴복하고 하느님께서서는 우리를 다시 한 번 당신의 아들로 받아들여 주시지요. 고해성사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하느님의 용서라는 은총을 거절하는 길을 선택한다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이 사람은 결혼도 하지 않았고 직업도 없었으며 삶의 여러 문제들을 짊어지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을 위해 기도하면서 저는 환시를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남자 바로 옆에 서계셨습니다. 예수님의 두 손목은 포승줄에 묶여있었고 그분의 몸은 피로 덮여 끔찍한 몰골이었습니다. 환시를 보고 난 후 저는 남자에게 물었습니다. “고해를 한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남자는 고해한지 10여년이 넘었다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주님을 구속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분께서 형제님 바로 옆에 서계심에도 불구하고 손이 묶여 어떤 것도 해주지 못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고해성사를 하지 않는 동안 형제님은 예수님께 ‘저는 당신의 은총을 받기 싫습니다’라고 말씀드려 온 것입니다!” 저는 지금껏 수많은 사람들이 고해성사를 통해 치유 받고 자유로워지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집회서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병들기 전에 너 자신을 낮추고 죄를 지었을 때에는 회개의 태도를 보여라”(집회 18,21).

고해성사를 통한 치유

한 여인이 고해성사를 하기 위해 케냐 중부지방에 있는 마을, 니에리에서 저를 찾아왔습니다. 고해를 끝내고 사죄경을 받자마자 여인은 등에 불길이 닿는 것을 느끼면서 큰 목소리로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지요. 여인은 35년이라는 세월 동안 등 통증으로 고통받아왔습니다. 고해성사를 통해서 주님께서 여인에게 육체의 치유를 주셨던 것입니다. 고해성사는 실로 육체적 영적 치유를 동반합니다. 그렇기에 다윗은 이렇게 기도했지요.

제 잘못을 당신께 자백하며 제 허물을 감추지 않고 말씀드렸습니다.
“주님께 저의 죄를 고백합니다.” 그러자 제 허물과 잘못을 당신께서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시편 32,5

또한 집회서는 다음과 같이 가르칩니다.

애야, 내가 병들었을 때 지체하지 말고 주님께 기도하여라. 그분께서 너를 고쳐 주시리라. 잘못을 그만두고 손을 씻으며 온갖 죄악에서 마음을 깨끗이 하여라.

-집회 38,9-10

**“고해를 끝내고 사죄경을 받자마자
여인은 등에 불길이 닿는 것을 느끼면서
큰 목소리로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지요.”**

고해성사에 대해 제기된 의문들

“그냥 하느님께 바로 고백하면 되지 않나요? 예수님께서 죄를 용서하는 힘을 가지신 유일한 분이시잖아요.” 이처럼 가톨릭 신자들이 자신들의 죄를 누군가에게 말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중풍병자가 네 명의 친구에 의해 들것에 실려 예수님께서 계신 집의 지붕에 낸 구멍으로 내려졌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애야,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였습니다(마르 2,1-10). 그 자리에 있던 율법학자들은 예수님께서 누군가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율법학자들의 속마음을 아시고는 당신께서 죄를 용서하는 권한을 가지고 계심을 알려주셨지요. 예수님께서서는 죄를 용서하는 권한을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가 용서를 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다”(요한 20,23). 제자들은 주님께서 주신 용서의 권한을 교회에 전했습니다. 바로 사도는 주교와 사제를 그리스도의 사절로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절입니다. 하느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권고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여러분에게 뱉니다. 하느님과 화해하십시오”(2코린 5,20). 만약 예수님께서 우리가 직접 당신께 고백하기를 원하셨다면, 용서의 권한을 제자들에게 주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주님께서서는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라, 내가 세상 끝 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마태 28,20). 예수님께

서 당신의 권한을 제자들에게 넘겨주셨기에, 우리가 주님께서 세우신 종들인 사제를 통해서 용서를 구해야 하는 것은 주님의 계획입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요르단 부근 지방의 모든 사람이 세례자 요한에게 나아가, “자기 죄를 고백하며” 요르단 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마태 3,6). 마찬가지로, 사제들에게 나아가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받는 것은 하느님의 뜻인 것입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가 용서를 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다

-요한 20,23

**“만약 예수님께서 우리가
직접 당신께 고백하기를 원하셨다면,
용서의 권한을 제자들에게 주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범하게 되는 죄들은 사회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는 우리와 하느님, 이웃들,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깨뜨립니다. 깨어진 관계는 중재자를 통해서만 회복될 수 있지요. 사제들은 우리를 도와주는 이들입니다. 사제들은 화해의 성사와 실천적인 속죄와 보속의 제안으로 우리가 이 세 가지(하느님, 이웃, 나 자신) 측면의 화해를 도와주는 이들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분쟁이 생겼을 때 주님께서 주신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가 그들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거든 교회에 알려라. 교회의 말도 들으려고 하지 않거든 그를 다른 민족 사람이나 세리처럼 여겨라”(마태 18,17).

“하느님과 화해하십시오.”(2코린 5,20)와 “먼저 그 형제와 화해하여라.”(마태 5,24)라는 말씀이 그리스도의 사절인 사제에게 행하는 고백의 기초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우리가 하느님께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주님의 기도)’라고 기도하도록 가르치셨고 교회를 통해 끊임없는 회개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바오로 사도는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당신과 화해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해의 직분을 맡기신 하느님에게서 옵니다.”(2코린 5,18) 죄는 공동체적 성격을 가집니다. 그렇기에 주님께서서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나는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그러니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마태 16,19).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고해자가 충족해야 하는 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참회, 고백, 보속이 바로 그것이지요. 참회는 범한 죄로 인해 진심으로 아파하는 것입니다: “정녕 저는 제 죄악을 고백하며 저의 죄 때문에 괴로워합니다.”(시편 38,19) 고백은 우리가 범한 죄들을 사제에게 말하는 것이지요. 보속은 하느님과 이웃에게 입힌 피해를 보상하는 해결책이자 하느님의 은총으로 죄지을 상황을 피하겠다는 다짐을 위한 예방책입니다. “네 오른 눈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빼어 던져 버려라.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지체 하나를 잃는 것이 낫다”(마태 5,29).

모든 인간은 감각 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언가를 만지거나 보지 않으면, 그 무엇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기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만지거나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는 사람은 극히 일부이지요. 특히 우리가 이해하거나 받아들이기 어려운 경우에는 더욱 그러합니다. 이는 인간이 전형적으로 가지는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화해의 성사 안에서, 성사적 표징이자 눈으로 볼 수 있는 중재자인 사제들은 우리가 인간으로서 더 쉽게 거룩함을 어루만지도록 돕습니다.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사제는 화해의 성사 안에서 사죄경을 외며 우리 죄가 용서 받았다는 확언으로써 기도를 끝맺습니다: “주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평화로이 가십시오.” 또한 예수님께서서는 사제를 통해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가장 가까운 사람과도 의논하지 못하는 문제에 대해 충고해주시고 하느님께 직접 고백했을 때는 결코 얻지 못할 무언가를 주시면서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해주십니다.

사제는 고해성사 안에서 고백한 비밀을 결코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고해자를 판단하고 평가할 필요가 없습니다. 고해성사 안에서 고백된 모든 죄들은 예수님의 삶과 죽음 그리고 부활이라는 공로에 의해 용서받습니다. 따라서 고해성사를 하러 발걸음을 옮길 때, 우리는 예수님의 용서와 해방을 받기 위한 걸음을 옮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서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주면 그가 용서를 받을 것이고”(요한 20,23)라고 말씀하시며 제자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시고 죄를 용서하는 권한을 주시면서 참회의 성사를 세우셨습니다.

고백을 했는데도 왜 전혀 나아지지 않을까요?

하루는 어떤 남학생이 저에게 와서 자신은 고해성사를 자주 보는데도 전혀 나아지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학생은 여섯 번의 피정에 참가했음에도 삶의 변화를 느끼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피정기간 동안 기도실에 있을 때는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피정이 끝나서 피정의 집을 나서자마자 학생은 같은 죄로 인해 공격받았습니다. 학생은 자위의 죄로 인해 고통 받고 있었지요. 아무런 변화도 보이지 않자, 학생은 저에게 고해성사를 보러가는 것도 그만둬야겠다고 말했습니다. 같은 죄를 계속해서 고백하는데 지쳤기 때문이었지요. 저는 학생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은총이 부족해서 죄를 짓는 것이란다. 바오로 사도도 말했지 않니. ‘이 일과 관련하여, 나는 그것이 나에게서 떠나게 해 주십시오 주님께 세 번이나 청하였습니다.’(2코린 12,8) 주님께서는 바오로에게 말씀하셨지. ‘너는 내 은총을 넉넉히 받았다. 나의 힘은 약한 데에서 완전히 드러난다.’(2코린 12,9) 하느님께서서는 고해성사 후에도 거룩함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삶에 그 어떤 변화도 없어서 힘들어 하는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신단다. ‘너는 악습을 이겨 낼 은총을 충분히 받았다’라고 말이지.” 그때부터 남학생은 자위를 할 때마다 매번 고해소로 달려가 모든 잘못을 낱낱이 고백했습니다. 이로 인해 학생은 주님의 은총과 축복을 받고 거룩함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 삶을 변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지금 이 학생은 신학생이 되었지요. 그는 저에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죄를 짓는 것보다 그 죄를 고백하지 않는 게 더 부끄럽습니다.” 주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 닥친 시련은 인간으로서 이겨 내지 못할 시련이 아닙니다. 하느님은 성실하십니다. 그분께서는 여러분에게 능력 이상으로 시련을 겪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시련과 함께 그것을 벗어날 길도 마련해 주십니다.”(1코린 10,13)

습관적인 죄들이야말로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는데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특정한 죄들은 몸의 일부분처럼 우리에게 들러붙어 있지요. 우리가 죄를 범하는 이유는 하느님의 은총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이 은총은 고해성사 안에서 우리가 자주 범하는 죄를 고백함을 통해 주어집니다. 그렇기에 고백할 때, 분노, 자만, 질투, 게으름, 증오, 복수심과 같이 나쁜 습관을 유도하는 죄의 성향까지 모두 언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악습을 이겨내고 영적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주 은총을 받아야 합니다. 고해성사 이후에도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는 바로 우리가 양심성찰을 충분히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죄를 범했는지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불완전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악습을 이겨내고
영적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주 은총을 받아야 합니다.”**

빈번한 고해성사와 관련하여

비오 12세 교황님은 빈번한 고해성사와 관련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빈번한 고해성사의 가치를 절하하는 성직자는 그것이 그리스도의 영에 반하며 우리 구세주의 신비체를 심각하게 훼손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교황님은 이어 말씀하십니다.

존경하는 형제들이 잘 알고 있듯이, 소죄들이 교회에 의해 권장되어 지는 다양한 방법으로 속죄 될 수 있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덕의 여정 안에서 날마다 더욱 빠른 진전을 보장하기 위해 우리는 경건한 마음으로 고해성사에 자주 참여하기를 명합니다. 이는 성령의 영감에 의해 교회에 전해진 것이므로 진심으로 옹호되어야 합니다. 고해성사에 자주 참여함으로써, 참된 자기 이해가 증가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겸손이 자라나며, 악습은 고쳐지고, 영적 방임과 미온함은 저항을 받게 되며, 양심은 깨끗해지고, 의지는 강화되며, 유익한 자제력이 성취되고, 성사 그 자체의 덕 안에서 은총이 증대됩니다. 그러므로 젊은 성직자들 중에서 빈번한 고해성사의 가치를 경감하는 이들에게, 그것이 그리스도의 영에 대한 대적이며 우리 구세주의 신비체에 대한 재난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게 도와주도록 합시다.

-비오 12세, 회칙 「그리스도의 신비체」, 1943

더 나아가서,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도 다음과 같이 가르치셨습니다.

고해성사는 대체불가능 한 영성학교이자 영혼의 쇄신을 위한 가장 긍정적인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고해성사는 이미 그 자체로 영적 지도의 최고형태인 것입니다. 이 화해의 성사는 심각한 죄를 범한 이들을 위해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죄의 사함을 위해 제정되었지요. 그리고 이 성사로부터 흘러나오는 은총은 회개와 진전의 노력 안에서 정확과 지원이라는 특별한 효과를 지니고 있습니다. 고해성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대체불가능 한 성사이기에, 성

속으로 나아가는 거룩한 삶의 씨앗을 원하고 또 모든 바라던 열매를 맺고자하는 사람이라면, 이 성사를 결코 평가 절하하거나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일반 알현, 1983

사제를 믿지 않기 때문에 고해성사를 하지 않아요!

고해성사를 저버리는 이를 그대로 둔다면, 그 사람은 죄 속으로 깊이 가라앉게 될 것입니다. 바람의 분노에 노출된 새싹처럼, 가장 개탄스러운 무절제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고해성사와 영성체는 건강한 교육을 위한 첫 번째 단계입니다.

돈 보스코

10년이라는 시간을 실업자로 살아온 한 남자가 기도를 청하며 찾아왔습니다. 저는 고해성사를 마지막으로 본 것이 언제인지를 물었고 남자는 그저 오래 전이라고만 하며 말을 덧붙였습니다. “저는 사제를 믿지 않기 때문에 고해성사를 하지 않아요!” 저는 말했습니다. “왜 사제를 믿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십니까? 그 어떤 사제도 형제님의 죄를 위해 죽지 않았습니다. 형제님을 위해 당신의 목숨을 내어놓으신 분은 예수님이시지요. 사제들은 그저 도구일 뿐입니다.” 그러자 남자는 저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오래 전 남자는 규칙적으로 고해성사에 참여했습니다. 고해성사를 볼 때마다, 고백을 30분씩 하곤 했지요. 하루는 고해소에서 고백을 마쳤는데 신부님이 보이지 않았고, 남자는 사제가 맞은편에 없었던 것은 아닌지 불안해졌습니다. 남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신부님이 있는지를 확인하러 나가는 순간 까무러칠 뻔 했습니다. 사제 석에 앉아 있어야 할 신부님이 밖에 나와서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남자는 엄청나게 화가 났습니다. 남자는 저에게 질문했습니다. “어떻게 사제라는 사람이 제가 고백을 하고 있는 중에 저를 쳐다보면서 저를 판단할 수가 있습니까?” 남자는 이어 말했습니다. “저는 모욕당했습니다. 신부님이 그렇게 행동하는 것을 보았는데 제가 어떻게 다시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형제님은 방금 그 신부님이 형제님을 모욕했다고 말씀했습니다. 사제는 신자와 마찬가지로 죄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손 안에 있는 도구일 뿐이지요. 그 어떤 사제도 형제님을 위해 목숨을 내어놓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님께서만이 목숨을 내어놓으셨지요. 그 신부님을 판단하기 전에 질문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님의 고백을 들어주는 그 사제를 위해 몇

번이나 기도하셨는지요? 사제들은 우리가 그들을 위해 기도를 해야만 올바르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사제는 사죄경을 외며 ‘하느님의 힘’으로 죄를 용서합니다. 주교와 사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서는 교회 안에서 당신의 용서와 치유 사목을 이어가시는 것입니다.

고해성사는 죄를 반복해도 된다는 허가증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본성적으로 연약하고 죄에 넘어가는 경향이 크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고해성사를 죄를 반복해도 된다는 허가증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지요. 우리는 집회서의 말씀을 읽습니다. “같은 죄를 두 번 짓지 마라. 정녕 단 한 번의 죄악도 벌을 면할 수 없으리라”(집회 7,8). 주님께서서는 죄로부터 떨어져 있겠다는 다짐을 견고히 하는데 관심이 없는 이들에게 경고하십니다.

“죄를 지었어도 내게 아무 일도 없었지 않은가?” 하지 마라. 주님께서서는 분노에 더디시기 때문이다. 속죄를 과신하지 마라. 죄에 죄를 쌓을 뿐이다. “그분의 인자함이 크시니 수많은 내 죄악이 속죄받으리라.”고 말하지 마라. 정녕 자비도 분노도 다 그분께 있고 그분의 진노가 죄인들 위에 머무르리라. 주님께 돌아가기를 미루지 말고 하루 하루 늦추려 하지 마라. 정녕 주님의 분노가 갑자기 들이닥쳐 너는 징벌의 날에 완전히 망하리라.

-집회 5,4-7

우리가 알고도 같은 죄를 반복하게 되면, 주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한 번 빛을 받아 하늘의 선물을 맛보고 성령을 나누어 받은 사람들이, 또 하느님의 선한 말씀과 앞으로 올 세상의 힘을 맛본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면, 그들을 다시 새롭게 회개하도록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스스로 하느님의 아드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욕을 보이는 것입니다.

-히브 6,4-6

저는 고해성사 후 천사가 되었습니다

수녀님들을 위한 피정을 진행하고 있을 때입니다. 저는 수녀님들에게 종이를 나누어주고는 수녀님들이 범한 모든 죄를 적어서 고해성사를 보러 갈 때에 그 종이를 가져가라고 했지요. 피정 마지막 날에, 한 수녀님이 앞으로 나와서 자신이 겪은 일을 증언했습니다. 수녀님은 말했지요. “처음 피정에 왔을 때, 제가 고해성사를 보러 갈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피정 일주일 전에 이미 고해성사를 보았고 일주일 동안에 고백할 만한 죄를 짓지 않았다고 생각했거든요. 또 고해성사 후 별다른 것을 느끼지 못했기에 이번 고해성사를 통해서 제 신앙이 성장하는 특별한 기적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도신부님이 양심성찰을 위한 죄들을 읽으면서 참회예절을 진행하실 때, 하라는 대로 그냥 종이 한 장과 펜을 가져왔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신부님이 읽어준 죄들 모두가 제가 범했던 죄들이었고 죄를 다 적고 나니 종이가 네 페이지나 되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종이를 가지고 고해소로 갔습니다. 고백을 마치고 경당으로 향하는 복도를 걸어오는데 저는 또 한 번 놀라게 되었지요. 제가 땅을 걷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걷고 있는 기분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맞아요. 저는 실제로 복도를 하늘을 걷듯이 걸었습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저의 모든 죄스러움의 무게를 가져가셔서 저를 가볍게 해주셨음을 믿습니다. 이번 고해성사가 제 삶에서 가장 정성어린 고해성사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청했던 특별한 기적이 일어나서 제가 천사가 되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번 고해성사가
제 삶에서 가장 정성어린 고해성사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청했던 특별한 기적이 일어나서
제가 천사가 되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인내에 필요한 것은 바로 하느님께 드리는 감사입니다

용서라는 선물을 주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은 중요합니다. 저는 과거를 떠올리며 하느님께서 저에게 해주신 모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내 영혼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그분께서 해 주신 일 하나도 잊지 마라. 네 모든 잘못을 용서하시고 네 모든 아픔을 낮게 하시는 분.

-시편 103,2-3

우리는 사랑과 용서의 하느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느님의 이름은 자비입니다.

주님께서서는 모세 앞을 지나가며 선포하셨다. “주님은, 주님은 자비하고 너그러운 하느님이다. 분노에 더디고 자애와 진실이 충만하며 천대에 이르기까지 자애를 베풀고 죄악과 악행과 잘못을 용서한다.

-탈출 34,6-7

저는 예수님의 용서하시는 말씀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 병자에게 말씀하셨다. ‘얘야,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마르 2,5)” 예수님께서서는 우리가 선택하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무조건적인 사랑이 우리를 선택하게 만들지요. 그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2코린 5,17)이 됩니다. 우리는 주님께 용서를 청하고 주님께서서는 용서를 주시지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예수님께서서 베푸신 용서를 다른 이들과 함께 나눕니다. 시편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악인들에게 당신의 길을 가르쳐 죄인들이 당신께 돌아오리이다.”(시편 51,15)

회개의 선물

고백을 하려면, 먼저 깊이 뉘우치는 것이 필요합니다. 죄를 지음으로써 우리는 선택하시고 사랑 가득하신 하느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립니다.

당신께, 오로지 당신께 잘못을 저지르고 당신 눈에 악한 짓을 제가 하였기에 판결을 내리시더라도 당신께서는 의로우시고 심판을 내리시더라도 당신께서는 결백하시리이다.

-시편 51,6

회개와 완전한 참회는 고해성사에서 하느님의 용서를 받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회개는 죄를 고백하러 나아가면서 우리가 범한 죄를 슬퍼하는 것이지요. “하느님의 뜻에 맞는 슬픔은 회개를 자아내어 구원에 이르게 하므로 후회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현세적 슬픔은 죽음을 가져올 뿐입니다”(2코린 2,10). 완전한 참회는 순수하게 하느님의 사랑을 떠올리며 우리 죄를 슬퍼하는 것입니다. 완전한 참회를 통해 우리 죄는 고백도 하기 전에 즉시 용서를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고백을 하고 주님의 용서를 마주하며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마련하신 수단을 통해 치유의 은총을 경험해야 하지요. 게다가

가 우리가 범한 죄들이 대죄에 속한다면 반드시 고백을 해야 합니다.

참회는 하느님의 벌이 두려워 고백하게 되었을 경우 불완전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쫓아냅니다. 두려움은 벌과 관련되기 때문입니다. 두려워하는 이는 아직 자기의 사랑을 완성하지 못한 사람입니다”(1요한 4,18). 불완전한 참회는 고백을 하기에 불충분하지요.

우리 죄를 고백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죄를 고백한다는 것은 우리 죄를 사제 앞에서 소리 내어 말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세례 이후 범한 모든 대죄를 고백해야 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자기 잘못을 감추는 자는 성공하지 못하지만 그것을 고백하고 끊어 버리는 이는 자비를 얻는다.”(잠언 28,13)

올바른 고백을 위해서 하지 말아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1. 죄의 고백을 부끄러워함: “죄의 고백을 수치스러워하지 말고 강물의 흐름을 거스르지 마라.”(집회 4,26)
2. 죄를 숨김: “자기 잘못을 감추는 자는 성공하지 못하지만 그것을 고백하고 끊어 버리는 이는 자비를 얻는다”(잠언 28,13).
3. 고백의 날을 미룸: “주님께 돌아가기를 미루지 말고 하루하루 늦추려 하지 마라. 정녕 주님의 분노가 갑자기 들이닥쳐 너는 징벌의 날에 완전히 망하리라.”(집회 5,7)
4. 지은 죄에 대한 자기 과신: “‘죄를 지었어도 내게 아무 일도 없었지 않은가?’ 하지 마라. 주님께서서는 분노에 더디시기 때문이다. 속죄를 과신하지 마라. 죄에 죄를 쌓을 뿐이다. “그분의 인자함이 크시니 수많은 내 죄악이 속죄 받으리라.”고 말하지 마라. 정녕 자비도 분노도 다 그분께 있고 그분의 진노가 죄인들 위에 머무르리라.”(집회 5,4-6)
5. 죄의 탓을 하느님께 돌리기: “그분께서는 아무에게도 불경하게 되라고 명령하신 적이 없고 어느 누구에게도 죄를 지으라고 허락하신 적이 없다”(집회 15,20)

사제가 외는 사죄경을 통해 우리의 모든 죄는 용서받습니다. “인자하신 천주

성부께서는 성자의 죽음과 부활로 세상을 당신과 화해시키시고 죄를 용서하시려고 성령을 보내주셨으니 교회의 직무를 통하여 몸소 이 교우에게 용서와 평화를 주소서. 나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 교우의 죄를 용서합니다.”

거짓 고백을 하지 마십시오!

거짓 고백은 오히려 더욱 해가 될 뿐입니다. 하느님께 거짓을 고하는 것은 그 자체로 끔찍한 일이지요. 진실로 참회하지 않거나 고해사제를 위해 기도를 하지 않을 때, 우리는 불완전한 고백을 행하는 경향에 빠지게 됩니다. 한 사람이 고해성사 안에서 의도적으로 대죄를 숨기는 경우 이 사람은 성령께 거짓을 고함에 의해 신성 모독의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하나니아스와 사피라의 행동과 같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말하였다. “하나니아스, 왜 사탄에게 마음을 빼앗겨 성령을 속이고 땅값의 일부를 떼어 놓았소?

-사도 5,3

**“진실로 참회하지 않거나
고해사제를 위해 기도를 하지 않을 때,
우리는 불완전한 고백을 행하는 경향에 빠지게 됩니다.”**

몇 년 전에 파리의 아름다운 주교좌성당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본당 사제가 신자들에게 새로운 참회예식서에 대해 알려주고 있을 때, 파리교구 대주교님이 뒷문으로 들어오셨습니다. 대주교님은 앞으로 걸어오셨고 신자들에게 한 말씀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지요. 대주교님은 신자들에게 새로운 예식서가 나왔다는 소식을 들었으며 신자들이 더 친근한 언어로 바뀐 예식서를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보기 위해 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대주교님은 신자들에게 아주 오래전 이 곳 주교좌성당에서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다고 말했지요. “오래 전, 한 사제가 성전 뒷문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는 고해소의 사제석에 앉아있었습니다. 고해행렬이 모두 돌아갔기에 사제는 성무일도를 펴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고해소 밖 뒷문 근처에서 한 무리의 소년들이 비속어를 사용하며 서로 내기를 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내기는 바로 고해소에 가서 거짓 고해를 할 배짱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것이

었습니다. 소년들 중 한 명이 거짓 고해를 하고 오는 친구에게 20프랑을 주겠노라고 말했습니다. 한 소년이 손을 들고는 자신이 가겠다고 말하고 나서 사제가 앉아 있는 고해소로 향했습니다. 소년은 평소에 고하던 죄들에다가 그것들과는 다른 죄들을 몇 가지 더 추가해서 고백을 했지요. 사제는 소년에게 그것이 전부인지 물었고 소년은 자신이 기억하는 모든 죄를 다 고백했다고 답했습니다. 사제는 소년에게 보속으로 주교좌성당의 제단에 걸려있는 십자가 앞으로 가서, ‘예수님, 당신께서는 저를 위해 이 모든 것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제가 당신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해드리는 것입니다’라고 말하고는 예수님의 얼굴을 향해 침을 뱉으라고 했습니다. 소년은 고해소에서 나가 친구들이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리고는 고백을 했으니 20프랑을 달라고 했지요. 친구들 중 한 명이 말했습니다. ‘기다려. 보속을 해야지. 보속도 고해성사의 일부잖아?’ 소년은 성전의 제대 앞에 있는 십자가로 갔습니다. 그리고 말했지요. ‘예수님, 당신께서는 저를 위해 이 모든 것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제가 당신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해드리는 것입니다.’ 말을 마친 소년은 예수님 조각상에 있는 그분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뒤를 돌아서 주교좌성당을 나와 친구들을 뒤로 한 채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주교님은 다음의 말씀으로 하시려던 이야기를 마무리 하셨습니다. “저는 이것이 실제로 일어났던 일임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바로 그날 밤 고해소로 들어갔던 소년이었기 때문입니다.”

5장 고통스러운 과거 기억의 치유

육체적 질병의 약 65퍼센트 가량이 심리적 문제 또는 내면의 상처로 인해 생긴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우리의 행동양식과 인격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 형성되는 것이지요. 이 행동양식은 우리의 인격을 긍정적으로 보완해주거나 우리의 본성을 부정적으로 파괴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부정적이라면, 그 행동양식들은 보통 우리 마음과 정신 안에 있는, 인식하고 있었거나 그렇지 못했던 상처들이 외부로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이 같은 상처들은 어떻게 해서 생기게 되는 것일까요? 행동양식에서 외부적으로 드러나는 증상을 토대로 마음 안에 있는 상처의 크기를 가늠하는 것이 가능한 것일까요? 지금 나 자신이 드러내고 있는 행동양식이 정신과 마음의 상처로 인한 결과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상황을 바로 잡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은 무엇일까요? 이번 장에서 우리는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시도할 것입니다. 주목해야하는 가장 중요한 점은 “우리의 과거가 예수님께

는 현재”라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도 오늘도 또 영원히 같은 분이십니다”(히브 13.8)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내면의 상처를 숨길 수 없을뿐더러 분명 치유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속해있는 한 치유는 가능하구요.

내면의 상처란?

내면의 상처는 마음과 정신에 관련됩니다. 저는 3살 때 까지 집 안의 막내였고 부모님과 형제들의 관심과 사랑을 독차지 했었습니다. 삼촌들과 고모들이 우리 집을 방문하면, 언제나 과자와 초콜릿, 그리고 장난감들을 가져오셨고 그 선물들을 분배하는 몫은 제 차지였죠. 형제들에게 선물을 배분해주고 나서 남은 것들을 차지하는 것은 저에게 주어진 커다란 특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동생이 태어나고 나서부터 그 모든 특권은 여동생 차지가 되었습니다. 저는 잊혀졌고, 모든 관심은 우리 가족의 새 ‘공주님’에게 쏠리게 되었지요. 저는 그것이 너무나도 싫어서 자주 여동생을 때리고 할퀴며 여동생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겼습니다. 이제 삼촌과 고모들은 선물을 여동생에게 주어 그것들을 나누게 했습니다. 제가 여동생을 괴롭힌 이후로 여동생은 저에게 그 어떤 선물도 나누어주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저는 더욱 화가 나게 되었고 어찌 보면 이는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제가 여동생을 괴롭히면 여동생은 소리를 지르며 울었고 어머니는 쏘살같이 달려오셔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확인하셨습니다. 제가 여동생을 괴롭혔다는 사실을 확인하면, 어머니는 저에게 회초리를 들고 기도 방으로 가있으라고 하셨습니다. 기도 방에 가서 주님의 사진 앞에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으고 있으면, 어머니는 와서 제가 가져온 회초리로 저를 무자비하게 때리셨습니다. 아픔으로 제가 소리를 지르고 울음을 터뜨리면, 어머니는 “옆집 사람들이 듣겠구나, 조용히 하여라.”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의 아픔은 어머니에게 문젯거리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는 오히려 옆집 사람들이 제 울음소리를 들을까 봐 신경을 쓰셨죠. 어머니가 저를 때리는 그 회초리로 어머니에게 휘두르는 상상을 몇 번이나 했지만 그럴 수 없었죠. 어머니가 저보다 훨씬 몸집이 컸기 때문입니다. 저를 때리고 난 후에, 어머니는 다시 열 명의 자녀를 돌보는 아주 바쁜 주부로 돌아가서는 부엌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저는 제 방 구석에 앉아 머리를 무릎 사이에 파묻고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울었습니다. 식사준비가 끝나고 어머니가 ‘안토니!’하며 저를 부르면, 저는 즉시 울음을 멈추고 일어나서 식사를 하러 뛰어 내려갔습니다. 왕성한 식욕으로 인해서 저는 언제 맛았냐는 듯 맛있게 식사를 했지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저는 음식이 결코 저에게 내면의 치유를 가져다 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모

든 표출되지 않은 분노를 그저 참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실수를 할 때마다 받았던 벌이었습니다. 실수를 하지 않았는데도 벌을 받았던 적도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저는 제 마음 속에 그것을 억누른 채로 어마어마한 분노를 쌓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상처를 받고 난 뒤에 생긴 감정을 간단히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음식은 저의 고통스러운 감정을 없애주지 않았습니다. 그 감정들은 제 마음과 기억 속 어딘가 깊은 곳에 묻혀서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는 제가 화가 났을 때 보이는 행동에서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보통 저는 화를 내지 않았지만, 화를 낼 때는 그 누구도 제 곁에 다가오기를 꺼려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저는 학생시절에 축구를 좋아했습니다. 일반적으로 학교에서 쉬는 시간에 축구를 하게 되면 심판이 없기 때문에 게임 중에 부당한 행위와 눈속임이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상대팀이 비신사적으로 경기를 할 때마다, 저는 공을 빼앗아서 경기장을 나가버려 시합을 중지시켜버렸지요. 그 누구도 저에게 뭐라고 하지 못했습니다. 저의 고약한 성미를 다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공정한 시합을 하는 팀의 아이들이 제가 운동장으로 걸어오는 것을 보게 되면, 그 아이들은 얼른 공을 가지고 제 앞에서 달아나기 일쑤였습니다.

억누르고 참아왔던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우리의 기억과 마음속에 숨겨져 있기 마련입니다. 감정 또한 억눌러져서 숨겨질 수 있습니다. 그 감정들이 분명하게 드러나지는 않지만 언젠가 폭발하는 순간이 찾아오면 이웃과 심지어 자기 자신을 해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화를 전혀 내지 않을 것 같던 사람이 억눌러 왔던 화를 참지 못하고 분노에 휩싸이게 되면 우리는 그 사람 근처에 갈 엄두도 내지 못합니다. 고함과 비명을 지르며, 폭력을 행사할 수도 있지요. 억눌린 분노는 내면의 상처들 중 하나의 예시에 불과합니다. 내면의 상처를 보여주는 또 다른 예들은 거부, 수치감, 죄의식, 강박적인 열등감 등을 포함합니다.

내면의 상처들이 드러나는 행동들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한다. 커다란 모임에서도 혼자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2. 다른 사람의 삶에 무관심하다. 그 어떤 사람이나 물건에도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3. 대화를 나누면서 얼굴을 바라보지 않는다. 대신 시선을 다른 곳으로 자꾸만 옮긴다.
4. 욕실에서 노래를 부른다.
5. 큰 소리로 농담을 던지고 숨이 넘어갈 정도로 웃는다.
6. 아주 재밌는 농담을 해도 전혀 미소 짓거나 웃지 않는다.
7. 작은 일에도 쉽게 눈물을 흘린다.
8. 어둠을 두려워한다.
9. 완고하다.
10. 모두를 싫어한다.
11. 항상 비판적이다.
12. 쉽게 화를 낸다.
13. 성적 욕망이 지나치다.
14. 심하게 부끄러워한다.
15. 학업에 집중하지 못한다.
16. 자기주장을 꺾지 않는다.
17. 언쟁을 좋아한다.
18. 말을 너무 많이 한다.
19. 세균을 두려워 한다.
20. 사람들 앞에서 말을 하기 두려워 한다.
21. 친구를 잃을까 전전긍긍 한다.
22. 감정들이 억눌려있다.
23. 실망감과 절망감을 가지고 있다.
24. 음주나 흡연에 중독되어 있다.
25. 약물에 중독되어 있다.
26. 과식한다.
27. 매순간 졸음이 쏟아진다.
28. 다른 이를 물리적이거나 성적으로 학대한다.
29. 활동적이지 않다.
30. 강박적인 열등감을 가지고 있다.
31. 모든 형태의 권위를 증오한다.
32. 누구도 믿지 않는다.
33. 반항적이다.

이러한 행동들이 내면의 상처가 드러났을 때 나타나는 다양한 징후들입니다.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우리가 보이는 행동양식들은 내면의 상처로 인한 결과입니다. 모든 사람은 살면서 상처받거나 거부를 당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내면의 상처들은 조상, 부모, 어린 시절, 청소년기, 중년과 노년의 시기를 통해 우리를 찾아오는 불청객이지요. 내면의 상처는 제멋대로 우리를 찾아오기에 악마의 공격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주 작은 상처로 보이더라도 가능한 빨리 해결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내면의 상처는 시간을 가지고 서서히 스스로 모습을 드러냅니다.

삶은 그 자체로 투쟁이며 우리는 삶의 다양한 경험들을 토대로 앞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분명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우리가 보이는 행동양식들은
내면의 상처로 인한 결과입니다.
모든 사람은 살면서
상처받거나 거부를 당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어머니 배 속에서 나오는 날부터 만물의 어머니에게 돌아가는 날까지 모든 사람에게 몹시 힘든 일이 맡겨졌고 무거운 멍에가 아담의 아들들에게 지워졌다. 그들의 고민과 마음의 두려움 다가올 일에 대한 걱정, 그것은 바로 죽음의 날이다. 영광의 왕좌에 앉은 자부터 먼지와 재를 뒤집어쓴 비천한 자에 이르기까지, 자주색 옷을 입고 왕관을 쓴 자부터 누더기를 걸친 자에 이르기까지, 분노와 질투와 고난과 불안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격노와 분쟁에 싸여 있다. 자리에 누워 쉬는 시간에도 한밤의 잠이 그의 의식을 혼란케 한다.

-집회 40,1-5

그러나 우리 주님이시며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 오셔서 우리와 같은 어려움을 겪으셨습니다. 그렇기에 그분께서는 우리가 힘겨워하는 때에 무엇을 겪는지를 정확하게 아시고 이해하시지요. 예수님께서서는 그저 우리와 같은 고난을 겪으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감당하기 힘든 수난 또한 겪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는 대사제가 아니라, 모든

면에서 우리와 똑같이 유혹을 받으신, 그러나 죄는 짓지 않으신 대사가 계십니다.

-히브 4,15

히브리인들에게 보낸 서간의 저자는 또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이 유혹을 받으셨지만 죄를 짓지 않으심을 넘어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까지 흘리셨다는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살아가면서 다양한 유혹을 마주하고 그 위에서 상처들을 받는 와중에도, “여러분은 죄에 맞서 싸우면서 아직 피를 흘리며 죽는 데까지 이르지 않는 것입니다.”(히브 12,4)라는 말씀을 통해 우리는 용기를 얻습니다. 당신의 수난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 예수님께서서는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에서 고난을 겪을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요한 16,33)

어머니의 몸종

치유피정을 진행하는 도중에 한 젊은 여인이 와서 증언을 했습니다. 여인은 말했지요. “저는 초등학생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34살입니다. 결혼을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제 자신이 너무 미워요. 제가 태어났을 때, 어머니는 대학생이었습니다. 공부 때문에 저를 돌보지 못해서 저를 외할머니에게 맡겼지요. 저는 외할머니의 손에 자랐습니다. 외할머니는 반복적으로 저를 학대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저를 버린 어머니에게로 돌아가라고 소리쳤지요. 저는 어머니의 사랑을 한 번도 받아 본 적이 없습니다. 모유도 먹어본 적이 없고요. 나중에 어머니는 한 남자와 사랑에 빠졌고 그 사람과 결혼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어머니에게 자녀가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남자는 어머니에게 말했지요. ‘당신에게 아이가 있다면 나는 당신과 결혼하지 않겠소.’ 그 남자를 잃고 싶지 않았기에 어머니는 자신이 아이는 없지만 몸종은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몸종이 바로 저였죠. 남자는 어머니와의 결혼을 결심했고 이내 저의 양아버지가 되었습니다. 물론 양아버지는 저를 몸종으로 알고 있었지만 말이죠. 어머니는 양아버지와 사이에서 네 명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요리하고 청소하고 동생들의 옷을 빨는 것이 저의 일이었습니다. 저는 가족들이 먹고 남긴 음식으로 끼니를 때우곤 했습니다. 양아버지가 저를 성폭행하기 시작했고, 저는 이 사실을 어머니에게 알렸지만 어머니는 저에게 소란을 피우지 말고 입을 다물라고 했죠. 어머니는 말했습니다. ‘그이는 이제 너의 아버지이니 너는 아버지를 존경해야 해. 너 때문에 내가 인생을 잃어버렸는데, 너는 지금 들고 일어나서 내 삶을

다시 한 번 박살내려 하는구나. 너 자신을 위해서라도 이 일은 그 누구에게도 알리지 말거라! 나는 그이를 향한 불평을 한 마디도 듣고 싶지 않구나. 이곳을 떠나려거든 네 맘대로 하려무나.’ 저는 어머니의 몸종이었습니다: 어머니와 배다른 동생들과 양아버지를 위해 매일같이 청소하고 요리하고 빨래를 해야 했습니다. 학교에 갈 기회도 없었고, 끼니를 걸러야 했던 적도 많았지요. 이 모든 것이 너무 힘겨웠고 저는 세 번이나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짐을 꾸려서 도망을 나왔습니다. 지금 저는 이 피정에 참여하고 있고 이사야서의 말씀을 듣게 되었지요.

내 말을 들어라, 야곱 집안아 이스라엘 집안의 남은 자들아, 모태에서부터 업혀 다니고 태중에서부터 안겨 다닌 자들아. 너희가 늙어 가도 나는 한결같다. 너희가 백발이 되어도 나는 너희를 지고 간다. 내가 만들었으니 내가 안고 간다. 내가 지고 가고 내가 구해 낸다.

-이사 46,3-4

저는 삶 속에서 예수님을 마주하게 되고, 하느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졌으며, 그분께서 저를 돌보아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머니에게 돌아가서 도망쳤던 것에 대해 용서를 구하려 합니다. 이제 저는 제가 작든, 말랐든, 어떻게 생겼는지에 상관없이 저를 사랑하시고 결코 저를 배신하지 않으시는 참 부모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분께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구요! 앞으로 저는 제가 결혼을 못한다고 불평하지 않으려 합니다. 예수님께서 저를 위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야 말로 참으로 나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잘못과 죄악이 너무나도 크다는 이유로 주님께 다가가는 것을 결코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당신께 오는 이들을 결코 저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요한 6,37).

**“저는 어머니의 몸종이었습니다:
어머니와 배다른 동생들과 양아버지를 위해
매일같이 청소하고 요리하고 빨래를 해야 했습니다.”**

모유수유의 부족으로 인해 생긴 내면의 상처들

오늘날 많은 여성들이 모유수유의 필요성에 대해 의문을 가집니다. 우리는 애가의 말씀을 듣습니다. “승냥이들도 가슴을 헤쳐 제 새끼들에게 젖을 먹이건만 내 딸 백성은 사막의 타조처럼 매정하게 되어 버렸구나”(애가 4,3). 이 말씀에서 들짐승(승냥이)들도 제 새끼들에게 젖을 먹이지만 사람은 자신의 자녀들에게 젖 먹이는 것을 거부합니다. 인간은 젖을 먹이지 않는 타조처럼 되어버렸지요. 모유는 아기가 육체적, 정신적으로 성장하고 아기의 면역체계를 강화하며 특정 질병으로부터 아기를 보호하는데 필요한 다양하고도 중요한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모유수유를 통해 산모는 아기와 특별한 방식으로 유대관계를 맺게 되지요. 모유수유를 받지 못한 아기는 많은 것을 놓치게 됩니다.

우리 삶을 통틀어, 우리는 하나 혹은 여러 형태의 내면의 상처를 가지게 됩니다. 인간이 사회적 존재이며 가족, 공동체, 이웃, 동료, 학우 등 다양한 사람들과 만나고 관계를 맺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관계 맺는 이들은 의도적이든 아니든 간에 잘못된 방법으로 우리의 감정을 해치고 상처 입힐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감정의 손상이 내면의 상처가 되지 않도록, 매일 기도하고 우리가 받은 상처들을 주님께 넘겨드려야 합니다.

버림받음

버림받음은 공통된 내면의 상처입니다. 인간이라면 한가지 또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버림받음의 고통을 체험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지요. 가까운 이들에게 있는 그대로의 자신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쓸모없는 이로 여겨지고 무시당하는 사람은 버림받음의 감정을 느끼고 상처를 입게 됩니다. 남편과 아내, 부모와 아이, 교사와 학생, 같은 반 친구들, 모임의 구성원 사이에서 버림받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는 심지어 임신한 여인과 여인의 뱃속에 있는 태아 사이에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버림받음은 극도로 고통스러운 감정이지요. 버림받음으로 고통 받는 사람은 그 감정을 주변으로, 특히 가까운 이들에게 전염시키게 됩니다. 어떤 아이들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부모로부터 버림을 받습니다. 이 아이들은 자라서 잔인한 성품을 가지게 되거나 반사회적인 사람들과 어울리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고 인정해 주는 사람을 얻게 되리라는 희망을 간직한 채 말입니다.

버림받음은 교만으로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저는 피정 센터에서 아주 놀랍고도 책임감 있게 자신의 업무를 수행하던 한 직원을 기억합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서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직원이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혼자서 일을 처리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는 나머지 직원들을 화나게 만들었고, 직원들은 저에게 와서 이 직원이 너무 교만해서 피정센터의 직원으로 맞지 않는다며 불평을 했습니다. 센터의 모든 직원들이 그 직원을 해고해야 한다며 저를 끊임없이 설득하려 들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그 직원이 일하는 것을 지켜보았고, 그 사람의 문제가 교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직원은 자신의 부모로부터 버림을 받았고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 부단히도 노력하고 있었던 것이었죠. 그녀는 8남매 중 일곱 번째 자녀였습니다. 또한 자라면서 충분한 인정과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부모님은 이미 다른 자녀들이 있기에 집안의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데 그녀를 결코 참여시키지 않았습니다. 결혼생활은 그녀의 삶을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남편은 군인이었고 오직 명령하는 법만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직원은 피정센터에서 일을 하기 전까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기회가 단 한 번도 없었던 것이지요. 센터에서 일을 하면서 그녀의 숨겨진 재능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직원들은 그녀로 인해 또 다른 버림받음을 체험하게 된 것이었죠. 만약 제가 그 직원을 해고했다라면, 버림받음의 상처는 더욱 깊어져 그녀는 더욱 극심한 고통을 안고 살아야 했을 것입니다. 가장 유익한 방법은 이 직원에게 성령의 적절한 지도를 전해주고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는 점을 시간을 들여 확신시켜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녀가 보여준 행동들은 자신이 인정과 사랑을 받기에 가치가 있다는 것에 대한 증거였습니다. 버림받음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느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져야 하는 법이지요.

**“이 직원은 자신의 부모로부터 버림을 받았고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
부단히도 노력하고 있었던 것이었죠.”**

버림받음은 분노와 잔인함을 야기합니다

히틀러는 인류 역사 상 가장 잔인했던 사람들 중 한 명입니다. 그는 아주 어린 시절 어머니를 여의었고 아버지의 누이의 손에 자랐습니다. 고모는 히틀러를 다주 잔인하게 대했습니다. 머리채를 잡고 때리기 일쑤였으며, 온갖 욕지거리를 해댔죠. 아버지는 히틀러를 ‘개’라고 부르며 사정없이 때렸습니다. 히틀러

가 독일의 총통이 되었을 때, 가장 먼저 자신의 아버지의 무덤을 탱크로 짓이겨 버렸습니다. 그가 아버지를 얼마나 미워했는지 잘 알 수 있는 대목이지요. 우리는 또한 그가 재임기간에 얼마나 악랄한 짓들을 했는지에 대해 많이 들어왔습니다.

슬픔과 분노를 자주 느끼는 소년을 위해 기도하던 중에, 우리는 소년의 어머니가 소년이 갓 난 아기였을 때 소년을 버리고 떠났으며, 소년이 악랄하고 분노로 가득 찬 양어머니 슬하에서 성장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소년은 언제나 왜 주님께서 자신을 친어머니와 떨어트려 놓으셨는지에 대해 묻곤 했지요. 부모들은 자녀들이 유아(2-3세)일 때 받지 못한 사랑을 다시 줄 수 없습니다. 잃어버린 사랑을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이 유일하며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삶에서 그분을 필요로 하는 이유이지요.

1960년대에 아프리카 수단에서 종교박해가 일어났습니다. 흑인이었고 천주교 신자였으며 그 학생이었던 파리데 타반은 우간다로 피신을 했지요. 타반은 우간다에서 신학교에 들어갔고 사제로 서품 받았습시다. 수단이 안정을 되찾게 되어서 젊은 사제 타반은 고국으로 돌아갔습시다. 그리고 팔로타카라는 마을의 본당에 부임을 하게 되었지요. 하지만 본당 신자들은 타반이 사제라는 사실을 믿지 않았습시다. 타반 신부님은 당시를 회상하며 말했습시다. “신자들은 저를 뚫어져라 쳐다보면서 ‘흑인 양반, 당신이 정말 신부란 말이오? 우리는 믿지 못하겠소’라고 말했습시다.” 신자들은 단 한 번도 흑인 사제를 본당 신부로 맞이한 적이 없었습시다. 언제나 옷과 약을 나누어 주던 백인 사제만 봐왔던 것입니다. 타반 신부님은 마디 부족 출신이었고 신자들에게 나누어 줄 어떤 것도 가지고 있지 않았습시다. 그저 신자들처럼 가난한 사제였지요. 설상가상으로 타반 신부님은 본당신자들에게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가르침을 소개해주어야 했습시다. 공의회가 가르침에 따른 변화로 신자들은 괴로워했습시다. 신자들은 서로에게 말했지요. “이 젊은 흑인이 제대를 반대로 돌리는 것까지 모자라서 우리말로 미사를 집전한단 말이지. 이 흑인은 진짜 사제일 수가 없어.”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나서야 비로소 팔로타카 신자들은 타반 신부님을 본당 사제로 받아들일 수 있었습시다.

**“잃어버린 사랑을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이 유일하며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삶에서**

그분을 필요로 하는 이유이지요.”

예수님께서서는 당신의 사람들로부터 버림 받으셨습니다

안식일이 되자 예수님께서서는 회당에서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많은 이가 듣고는 놀라서 이렇게 말하였다. “저 사람이 어디서 저 모든 것을 얻었을까? 저런 지혜를 어디서 받았을까? 그의 손에서 저런 기적들이 일어나다니! 저 사람은 목수로서 마리아의 아들이며, 야고보, 요세, 유다, 시몬과 형제간이 아닌가? 그의 누이들도 우리와 함께 여기에 살고 있지 않는가?” 그러면서 그들은 그분을 못마땅하게 여겼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예언자는 어디에서나 존경받지만 고향과 친척과 집안에서만은 존경받지 못한다.”

-마르 6,2-4

예수님에 대한 선입견이 사람들로 하여금 그분을 메시아 또한 하느님께서 보내신 분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가로막았습니다. 회당에 있었던 사람들에 따르면, 예수님은 믿음을 주거나 인도자가 될 만큼 충분히 성공하거나 영향력을 가지지도 않았으며 명망 높은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주님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거부했습니다. 사제가 강론하기 가장 힘든 곳이 바로 출신 본당입니다. 예수님의 생전에, 그분께서 버림을 받으셨기에 주님을 따르는 이들 또한 다시금 버림을 받을 것입니다. 버림받았을 때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낙담하고 자신감을 잃으며 쉽게 포기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직무는 사랑하는 것이며, 버림받은 순간에도 사랑을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슬픔으로 괴로워하는 한 어머니가 저를 찾아와서 말했습니다. “제 자녀들은 학비가 없어서 학교에 갈 수가 없습니다. 저는 직장도 없어서 음식도 살 수 없고 자녀들이 필요한 것을 사다줄 수도 없어요. 집세를 낼 돈도 없는걸요.” 저는 여인에게 남편은 어디에 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여인은 남편과 13년 동안 결혼생활을 했는데 어느 날 남편에게 또 다른 아내와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여인은 남편과의 사이에 세 자녀를 두었습니다. 남편은 여인과 세 자녀를 버리고 다른 아내에게 가버렸고, 버려진 아내와 아이들을 전혀 돌보지 않았던 것이지요.

아프리카의 많은 사람들이 버림받음으로 인한 고통 때문에 상담을 받으러 옵

니다. 남편들은 아내들을 버립니다. 남자친구들은 임신한 여자 친구들을 버리지요. 어머니들은 자신의 자녀들을 버립니다. 이는 결코 끝나지 않을 악순환의 고리입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인정받으신 것입니까?

어느 젊은 여인이 상담을 하러 왔습니다. 여인은 자신이 결혼할 상대를 만났다고 말했지요. 여인의 말에 따르면, 남자친구는 자신이 만나왔던 다른 남자들과는 달리 아주 착하고 친절하게 여인을 대해주었습니다. 저는 여인에게 남자친구가 어떤 면에서 착한지 물어보았고 여인은 남자친구가 자신을 아주 정성스럽게 대하며 자신이 특별한 사람으로 느끼게끔 사랑스럽게 말을 한다고 대답했습니다. 여인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부모님으로부터 한 번도 자신이 사랑을 받고 있다고 느낄만한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자신의 외모, 명석함, 말투와 모든 것을 칭찬해주고 사랑해주는 누군가가 나타난 것이었죠. 그런데 문제가 한 가지 있었습니다. 결혼식을 준비하려고만 하면 장애물이 생겨서 번번이 계획이 틀어진 것이지요. 4개월을 준비했지만 모든 계획이 허사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여인에게 이 남자가 주님께서 자신에게 짝지어 주신 사람임을 확신하는지 물었습니다. 여인은 대답했습니다. “신부님, 저는 32살이 되어서야 마침내 저를 사랑하고 또 저와 결혼하고자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어요. 지금 저 사람과 헤어진다면, 이 나이에 어디서 어떻게 또 다른 짝을 얻을 수 있겠어요? 게다가 저는 이 사람이 하느님께서 태초부터 저를 위해 마련해 놓으신 사람이라고 확신하거든요.”

저는 삶의 배우자를 찾는 일이 엄청난 체력을 소모하고 때로는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사실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결혼은 그저 지금 당장 알맞은 배우자를 찾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여생을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을 또한 찾아야 하는 것이지요. 그렇기에 미래의 배우자에 대해서 가능한 한 많은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저는 여인에게 지금의 남자친구에 대해서 더 알아보라고 조언해주고 한 달 동안 읽으면서 기도할 수 있는 성경구절을 주었습니다.

당신은 저의 바위, 저의 성채이시니 당신 이름 생각하시어 저를 이끌고 인도하소서.

-시편 31,4

당신은 저의 하느님 당신의 뜻 따르도록 저를 가르치소서. 당신의 선하신 영이 저를 바른길로 인도하게 하소서.

-시편 143,10

한 달의 시간이 지난 후에 여인은 다시 찾아왔고 남자친구의 친절은 그저 말뿐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기도를 하면서 여인은 남자친구가 한 여자도 아닌 두 명의 여자와 결혼을 이미 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전 부인들 중 한 명은 해외에, 다른 한 명은 이곳에 있었고 남자친구는 두 명의 전 부인과의 사이에서 자녀도 있었습니다. 여인은 남자친구와의 관계를 끝내버렸지요.

**“결혼은 그저 지금 당장 알맞은 배우자를
찾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여생을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을
또한 찾아야 하는 것이지요.”**

버림받은 미혼모들

젊고 늙음에 관계없이, 젊은 여성들과 관계를 가지고 임신을 시킨 채 떠나버리는 남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들은 자신에게서 난 자녀를 책임질 준비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짊어져야 하는 자녀를 낳아 키우는 일이 여성에게만 남겨지게 되지요. 심지어 결혼을 한 남자들이 아내와 아이들을 버리고는 다른 여자에게로 가서 새 가정을 꾸리는 일이 허다합니다.

탄자니아에서 피정을 진행하고 있을 때, 36세의 남성이 저를 찾아와서 노총각으로서의 신세를 한탄했습니다. 저는 이 남자에게 한 번이라도 누군가를 성적으로 상처 입힌 적이 있는지를 물어보았습니다. 이 남성은 대학생 시절에 수많은 여자 친구를 사귀었고 그 중 몇몇은 임신도 시켰으며 제대로 돌봐주지도 않았다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남자에게 그 같은 행동들이 수많은 여성들의 삶을 망쳐놓았고 이제는 자신에게로 되돌아와 커다란 장애가 되고 있는 것이라 말해주었지요. 말라키서는 말합니다.

유다 사람들은 배신을 저지르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에서는 역겨운 짓이 벌어졌다. 유다 사람들은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그분의 성소를 더럽히고 이방 신을 섬기는 여자와 혼인하였다. 주님께서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을 증인이건 보증인이건 만군의 주님께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건 야곱의 천막에서 모두 없애 버리시리라.

-말라 2,11-12

버림받음의 감정으로 고통 받고 있는 미혼모들이 많이 있습니다. 버림받음의 감정을 받게 되면, 그 감정을 또 다른 사람, 특히 가장 가까운 이에게 전염시키게 되지요. 미혼모의 경우에는 버림받음의 감정을 자녀들에게 넘겨주게 됩니다. 이는 자녀들과 관계하는 방식에서 가장 크게 드러나지요. 계속해서 자녀를 혼내고 작은 실수에도 폭력을 휘두릅니다. 자녀에게 항상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해대지요. 때로 자기 자신과 자녀들을 완전히 내버려 두기도 하지요(이런 경우에는 미혼모의 내면에 자신이 무가치하다는 감정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위안거리를 찾아 술과 약에 중독이 되어버립니다. 아이는 자신이 마땅히 받아야 할 사랑을 받지 못하고 받아야 할 보살핌을 받지 못하게 되면, 역시 버림받음의 감정을 느끼기 시작하게 되고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다는 생각을 하게 되지요. 이러한 생각과 감정은 아이의 삶을 처참하게 파괴합니다. 아이는 가정에서 사랑을 발견하지 못하게 되면, 다른 곳에서 그것을 찾게 됩니다. 알코올과 섹스에 중독되는 등의 위험한 행위들 안에서 말입니다.

**“아이는 가정에서 사랑을 발견하지 못하게 되면,
다른 곳에서 그것을 찾게 됩니다.
알코올과 섹스에 중독되는 등의
위험한 행위들 안에서 말입니다.”**

어느 사제의 이야기

심술로 가득한 사제가 한 명 있었습니다. 이 신부님은 심지어 누군가가 축하나 칭찬의 말만 해주어도 화를 내기 일쑤였지요. 칭찬을 받아들이는 법이 없었습니다. 동료 사제들은 이 신부님에게 사람들이 건네는 칭찬의 말들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이라 말을 해주었지만 신부님은 동료사제들에게도 화를 내며 상처를 주었습니다. 이러한 행동을 고칠 수 있도록 내면의 치유를 위한 피정에 참여하라는 조언을 받아들이고는 피정에 참여했지요. 우리는 신부님에게 개인적으로 기도하면서 성령께 자신의 행동을 야기한 뿌리를 드러내 보여 달라는 청을 드리라고 조언해주었습니다. 신부님이 기도를 하는 중에 주님께서는 신부님이 어린 시절에 겪었던 사건을 드러내 보여주셨지요.

신부님이 초등학교 3학년이었을 때, 영어 과목에서 100점을 받았습니다. 반 친구들 모두가 깜짝 놀랐습니다. 외국어 과목에서 100점을 받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었기 때문이었지요. 선생님들과 반 친구들 모두가 신부님에게 축하의 인사를 건넸습니다. 100점이 크게 쓰여진 시험지를 두 손에 들고 집에 도착했을 때, 신부님의 부모님을 서로 싸우고 있었지요. 신부님의 아버지는 술주정뱅이였고 어머니는 말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신부님의 아버지는 술에 얼큰하게 취한 채 귀가를 했고, 어머니는 그런 남편의 바가지를 긁었습니다. 결국 크게 싸우기 시작했지요. 소년이었던 신부님이 집에 들어와서는 시험지를 높이 들어 올리며 소리쳤습니다. “아빠! 엄마! 저 영어 시험 100점 맞았어요!” 하지만 부모님을 싸우느라 정신이 없었고 그 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신부님은 더욱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신부님의 아버지는 화가 잔뜩 난 채로 돌아서서는 신부님이 들고 있던 시험지를 낚아채서 그것을 찢어버렸습니다. 어머니 역시 화가 나서 신부님에게 소리쳤지요. “저리 가서 시험지로 국이나 끓여 먹어라.” 신부님은 그 누구보다 부모님의 칭찬이 듣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 중 어느 누구도 칭찬과 격려의 말을 보내주지 않았지요. 이 답안지는 신부님에게 삶의 증거나 다름없었습니다. 선생님과 친구들 모두 자신을 칭찬했지만 부모님은 칭찬의 말을 건네지 않았습니다. 또한 부모님의 행동과 말은 신부님에게 아주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날 이후로 누군가 칭찬이나 감사의 말을 건네기만 하면 신부님은 사람들이 비꼬거나 진심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고 생각하며 화를 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서는 신부님에게 다음의 말씀을 건네셨습니다:

내 말을 들어라, 의로움을 아는 이들아 내 가르침을 마음속에 간직한 백성아. 사람들의 모욕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악담에 낙심하지 마라.

-이사 51,7

지난 세대를 살펴보아라. 누가 주님을 믿고서 부끄러운 일을 당한 적이 있느냐? 누가 그분을 경외하면서 지내다가 버림받은 적이 있느냐? 누가 주님께 부르짖는데 소홀히 하신 적이 있느냐? 주님께서서는 너그럽고 자비하시며 죄를 용서하시고 재난의 때에 구해 주신다.

-집회 2,10-11

주님과의 직접적인 대화를 통해 신부님은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결코 우리를 저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가장 극악한 죄악을 저지르더라도 그분께 돌아서기만 하면 주님께서서는 두 팔 벌려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나약함은 은총을 통해 강함이 됩니다

어느 수녀회의 청원수녀님이 저를 찾아와 도무지 자기 자신을 이해할 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수녀님은 아주 사회적이고 사람들과 어울리기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했지요. 수녀님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말을 너무 많이 합니다. 제가 입을 다물고 있는 모습을 보면 수련담당 수녀님은 제가 침울해 있다고 생각하시고, 또 제가 말을 하고 있을 때면 날카로운 눈으로 저를 바라보시거든요. 저는 정말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수련담당 수녀님이 저를 집으로 돌려보낼 그 어떤 이유도 만들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수녀님에게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세상에서 가장 총명한 분이시지요. 누구도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수녀님의 나약한 점과 뛰어난 점을 모두 아시면서도 수녀님을 부르셨습니다. 그분께서는 분명 있는 그대로의 수녀님을 부르셨고 당신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길로 수녀님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많은 계획이 들어 있어도 이루어지는 것은 주님의 뜻뿐이다”(잠언 19,21).

저 또한 어렸을 때, 지나치게 말을 많이 하는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쉬지 않고 말을 할 수 있었지요. 제 어머니는 항상 저를 나무라시며, ‘말을 많이 하는 것은 남자에게 정상적이지 않다, 여자들이나 그렇게 말하는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그 어디에도 저를 데려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저의 습관 때문이었지요. 그래서 하루는 예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예수님, 저는 왜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 것일까요? 어머니가 저를 나무라지 않도록 말하는 은사를 거두어 가주시면 안 될까요?” 하지만 주님께서서는 제 기도에 그 어떤 답도 해주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는 제가 당신의 말씀을 선포하고 끊임없이 당신에 대해 말해야 하는 사람이 되도록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서는 “하느님을 사랑하는 이들, 그분의 계획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이들에게는 모든 것이 함께 작용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로마 8,28) 제가 알고 또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는
제가 당신의 말씀을 선포하고
끊임없이 당신에 대해 말해야 하는 사람이 되도록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토마스 사도의 완고함

토마스 사도는 성급한 결단과 완고함으로 유명하지요. 사도는 말했습니다. “나는 그분의 손에 있는 못 자국을 직접 보고 그 못 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어 보고 또 그분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 보지 않고는 결코 믿지 못하겠소.”(요한 20,25). 우리는 예수님께서 아무런 어려움 없이 토마스 사도에게만 당신의 모습을 드러내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스승께서는 토마스 사도의 나약함을 최고의 강점으로 탈바꿈 시켜 주셨지요. 토마스 사도가 위대한 복음 선포자가 되어 주님의 부활을 선포하기 위해, 문화, 언어, 풍습이 전혀 다른 나라였던 인도까지 왔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인도에 있는 시리아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토마스 사도를 통해 전파된 신앙을 간직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지요. 주님께서는 우리와 다른 이들의 나약함들 또한 사용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러나 이제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분, 이스라엘아, 너를 빚어 만드신 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너를 구원하였으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나의 것이다. 네가 물 한가운데를 지난다 해도 나 너와 함께 있고 강을 지난다 해도 너를 덮치지 않게 하리라. 내가 불 한가운데를 걷는다 해도 너는 타지 않고 불꽃이 너를 태우지 못하리라. 나는 주 너의 하느님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너의 구원자이다. 내가 이집트를 너의 몸값으로 내놓고 에티오피아와 스바를 너 대신 내놓는다. 내가 나의 눈에 값지고 소중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내가 너 대신 다른 사람들을 내놓고 네 생명 대신 민족들을 내놓는다.

-이사 43,1-4

주님께서 우리가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오길 원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 또 그분께서 우리의 나약함에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특별히 버림받음으로 고통 받고 있는 이들에

평안을 얻을 수 있도록 이 기쁜 소식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우리 자신을 더욱 깊이 사랑하는 것은 하나의 초대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사랑해야하고 주님께서 우리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은사를 베풀어 주시길 기도해야 하지요. 그러면 우리는 결코 외로움, 버림받음, 배신의 감정을 느낄 이유가 없게 될 것입니다.

두려움

한 어머니가 두려움으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는 딸을 기도의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주님께서서는 우리에게 딸보다 어머니가 두려움으로 더욱 크게 고통 받고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주셨지요. 저는 어머니에게 집에서 어떻게 수면을 취하는지 물어보았습니다. 어머니는 집에서 딸과 함께 한 방에서 잠을 청한다고 대답했습니다. 딸의 침대는 창가에 붙어있었고 어머니의 침대는 딸의 침대 바로 옆에 붙어있었습니다. 밤이 되면, 어머니는 딸에게 창문 너무 가까이에서 잠을 청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많은 것들이 밖에서 창문을 통해 들어와서 딸에게 붙을까 두려웠던 것입니다. 이러한 두려움은 딸에게 그대로 전염되었습니다. 저는 이 모녀에게 시편의 말씀을 건네주었지요.

주님을 찾았더니 내게 응답하시고 온갖 두려움에서 나를 구하셨네.

-시편 34,5

한 수녀원의 수련담당 수녀님이 지원자를 데려와 이 지원자가 너무 자주 아프다고 말했습니다. 지원자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오는 길이었지요. 그런데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나오자마자 또 다시 아픔을 느꼈고 이번에는 몸의 다른 부분에서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수련담당 수녀님은 저에게 이 지원자를 위해 기도를 부탁했고 지원자가 정말로 하느님으로부터 수도생활의 성소를 받았는지 식별해달라고 했습니다. 기도를 하는 중에, 저는 이 지원자가 끝없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원자는 자신이 엄청난 두려움에 휩싸여 있음을 인정했지요. 이 지원자가 아플 때마다, 수련담당 수녀는 지원자의 성소를 의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게 되는 두려움으로 인해서 지원자는 식욕도 잃고 잠을 거의 자지 못했으며, 이로 인해 쉽 없는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제대로 먹지도, 잠들지도 못했고, 걱정과 불안까지 겹쳤으니 몸이 아파 오는 것은 당연했습니다. 지원자는 분명 집으로 돌려보내질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지원자의 아버지는 딸이 수녀원에 입회하던 날 친척과 이

옷을 모두 불러모아놓고 성대한 파티를 열며 말했습니다. “저의 딸이 수녀님이 됩니다! 이 얼마나 기쁜 일이란 말입니까!” 이 두려움이 바로 지원자가 계속해서 몸이 아픈 이유였던 것이지요.

하지만 저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으며 수련담당 수녀님은 그저 주님의 도구일 뿐이며 결코 주님의 계획을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려주며 지원자에게 용기를 북돋워줬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뽑은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뽑아 세웠다.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어 너희의 그 열매가 언제나 남아 있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하여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청하는 것을 그분께서 너희에게 주시게 하려는 것이다”(요한 15,16). 저는 이 지원자에게 수도자로서의 성소를 가지고 있는 것을 느끼는지 물어보았고 지원자는 대답했습니다. “신부님, 저는 매일 저의 성소를 위해 기도합니다. 제 마음 깊은 곳에서 저는 주님께서 저를 당신의 종으로 부르셨음을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련담당 수녀님은 믿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저는 지원자에게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주며 읽어보라고 권했습니다:

모태에서 너를 빚기 전에 나는 너를 알았다. 태중에서 나오기 전에 내가 너를 성별하였다. 민족들의 예언자로 내가 너를 세웠다.

-예레 1,5

이사야서의 말씀도 주었지요.

네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다시 일으키고 이스라엘의 생존자들을 돌아오게 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나의 구원이 땅 끝까지 다다르도록 나는 너를 민족들의 빛으로 세운다.

-이사 49,6

조금 뒤에 저는 수련담당 수녀님과 대화를 나누었고, 그날 이후 이 지원자는 두려움으로 인한 고통을 받지 않았으며 그 어떤 육체적 질병으로도 고통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분노

“화가 나더라도 죄는 짓지 마십시오.” 해가 질 때까지 노여움을 품고 있지 마십시오.

-에페 4,26

다른 이들의 말과 행동은 우리의 분노를 부추깁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즉시 반응하거나 자제력을 잃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바오로 사도는 말합니다. “우리가 비록 속된 세상에서 살아갈지언정, 속된 방식으로 싸우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전투 무기는 속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느님 덕분에 어떠한 요새라도 무너뜨릴 수 있을 만큼 강력합니다. 우리는 잘못된 이론을 무너뜨리고, 하느님을 아는 지식을 가로막고 일어서는 모든 오만을 무너뜨리며, 모든 생각을 포로로 잡아 그리스도께 순종시킵니다.”(2코린 10,3-5). 그리스도인도 화를 낼 수 있을까요? 당연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결코 분노가 악한 대응으로 나아가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 되지요. 리처드 드 한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잘못을 두 번 반복한다고 해서 그것이 옳은 것이 되는 것은 아니다.” 속담도 있습니다: “입을 꼭 다물고 있어야 하는 때가 두 번 있다. 첫 번째는 수영할 때이고, 두 번째는 화가 났을 때이다.” 그 이유는 바로 “분노에 더딘 이는 매우 슬기로운 사람이지만 성을 잘 내는 자는 제 미련함만 드러내”(잠언 14,29) “정신에 자제력이 없는 사람은 파괴되어 성벽이 없는 성읍과 같기”(잠언 25,28) 때문입니다.

저도 당신한테 경적을 울릴 수 있어요!

신호등에 초록불이 켜지자마자 한 여인이 운전하던 차의 엔진이 멈추었습니다. 재시동을 걸었지만 엔진은 반응하지 않았지요. 그 동안 인내력이 없는 한 남자가 여인의 차 바로 뒤에서 경적을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앞의 차가 움직이지 않자 남자는 더 빨리 경적을 울렸습니다. 여인은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지요. 자신의 차에서 내려, 그 남자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부드럽게 말했지요. “선생님, 만약 선생님이 제 차에 시동을 걸어주실만큼 충분히 친절하시다면, 기쁜 마음으로 선생님의 경적으로 팡파르를 울려드리도록 하죠.”

분노는 사람들의 눈을 가립니다. 중국인들은 논쟁을 해결하는 놀라운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로 논쟁하는 두 사람이 서로 마주보고 앉아서 당면한 문제에 대해 대화를 나눕니다. 논쟁의 심판은 그 주변에 앉아서 점수를 매기며 시험을 지켜봅니다. 논쟁을 하는 동안에 목소리가 먼저 커지거나 이성을 잃는 사람은 진 것으로 간주되지요. 평정심을 끝까지 유지한 사람이 승자가 됩니다. 화는 참 이상한 열정입니다. 이성을 잃게 되면 화는 결코 없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의 어머니는 저에게 화가 나면 일단 숫자를 일부러 열까지 세고 난

뒤에 말을 하라고 조언해주곤 했습니다.

“화는 참 이상한 열정입니다.
이성을 잃게 되면
화는 결코 없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없던 일로 하세나!

키가 큰 신사가 급하게 길을 내려가고 있었고 또 다른 사람은 이제 막 문을 열고 길로 나오고 있었지요. 순간 두 사람은 세계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문을 열고 나오던 남자는 분노에 휩싸여서 욕지거리를 내뿜었지요. 키가 큰 신사는 미소를 지으며 친근한 태도로 말했습니다. “여보게, 이 만남으로 비난받아야 할 사람이 우리 둘 중 누구인지 나는 잘 모르겠구먼. 그것을 조사해보기에는 내가 급히 서둘러야 할 일이 있어서 말이야. 내가 자네에게 돌진 한 것이라면 자네의 용서를 빌겠네. 자네가 나에게 돌진 한 것이라면, 그냥 없던 일로 하세나!” 그 순간 다른 남자도 미소를 지으며 자신이 가야 할 길로 걸어갔습니다.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위에 새겨진 글씨 같은 사람입니다. 쉽게 화를 내고 그 화가 오래도록 남아있습니다. 두 번째는 모래에 쓰인 글씨 같은 사람입니다. 화를 내기는 하지만 분노의 생각들이 빠르게 흩어져버립니다. 세 번째는 흐르는 물에 새겨진 글씨 같은 사람입니다. 이들은 지나간 생각들을 담아두지 않습니다. 모욕과 불편한 소문들이 흘러가게 내버려두지요. 세 번째 유형의 사람들은 언제나 순수하고 평온함을 유지합니다.

내면의 치유의 중요성

내면의 치유는 악한 행동을 일으키는 뿌리를 아는 것에서 옵니다. 이는 주님을 우리의 행동으로 초대하고 이 행동을 극복하기 위해 하느님의 은총을 청함으로써 이루어지지요. 주님께는 불가능한 것이 없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그 무엇도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내면의 상처 안으로 예수님을 초대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상처를 극복할 힘을 주시도록 말입니다. 예수님을 초대하지 않게 되면, 오히려 상처들이 우리를 지배해서 우리는 자제력과 통제력을 잃게 됩니다. 어떤 이들은 다른 사람이 무언가를 하는 것은 원치 않음에도 자신은 그 무엇을 행하고 있다는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커닝을 원하지 않는 학생들도 시험이 코앞에 닥쳐오면 그 유혹을 떨쳐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나는 내가 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나는 내가 바라는 것을 하지 않고 오히려 내가 싫어하는 것을 합니다. 그런데 내가 바라지 않는 것을 한다면, 이는 율법이 좋다는 사실을 내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런 일을 하는 것은 더 이상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죄입니다. 사실 내 안에, 곧 내 육 안에 선이 자리 잡고 있지 않음을 나는 압니다. 나에게 원의가 있기는 하지만 그 좋은 것을 하지는 못합니다. 선을 바라면서도 하지 못하고, 악을 바라지 않으면서도 그것을 하고 맙니다. 그래서 내가 바라지 않는 것을 하면, 그 일을 하는 것은 더 이상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자리 잡은 죄입니다. 여기에서 나는 법칙을 발견합니다. 내가 좋은 것을 하기를 바라는데도 악이 바로 내 곁에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내적 인간은 하느님의 법을 두고 기뻐합니다. 그러나 내 지체 안에는 다른 법이 있어 내 이성의 법과 대결하고 있음을 나는 봅니다. 그 다른 법이 나를 내 지체 안에 있는 죄의 법에 사로잡히게 합니다. 나는 과연 비참한 인간입니다. 누가 이 죽음에 빠진 몸에서 나를 구해 줄 수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구해 주신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나 자신이 이성으로는 하느님의 법을 섬기지만, 육으로는 죄의 법을 섬깁니다.

-로마 7,15-25

한 번은 옆 마을로 산책을 갔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십대 아이를 한 명 만나게 되었지요. 저는 이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술을 마시는 이유가 무엇이니?” 아이는 대답했습니다. “신부님, 저는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고 어머니가 어디에 계신지도 몰라요. 엄마는 오래 전에 저를 남겨두고 떠나버렸어요. 저는 언제나 혼자였고 저를 보살피거나 사랑해준 사람도 없었어요. 학비를 내어주는 사람도 없어서 학교도 갈 수 없었고요. 그래서 술을 마시기 시작했죠.” 저는 아이에게 말했습니다. “너를 보살피고 사랑해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말은 하지 말거라.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며 너를 돌보아주고 계신단다.” 저는 인도인 사제이며 이 곳 아프리카에서 사목을 하고 있습니다. 제 부모님과 가족들은 아주 멀리 떨어져 있지요. 제가 정말로 주님을 많이 사랑하고 그분께 의지하지 않았었다면, 저는 이 곳에서 결코 살아남지 못했을 것입니

다. 하느님 품으로 떠난 요셉 빌 신부님은 이렇게 말하고 했지요. “네 아버지와 어머니는 너를 위해 목숨을 내어놓은 적이 없어. 오직 예수님만이 너를 위해 목숨을 내어 놓으셨단다.” 힘겨운 시간을 겪고 있더라도 삶의 불행에 대해 누구에게도 불평하거나 비난의 화살을 돌리지 않도록 합시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살피십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지탱해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내면의 상처를 한 가지 혹은 몇 가지씩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소식은 이들 내면의 상처가 예수님 안에서 치유가능 하다는 사실이지요. 이미 앞에서 언급되었듯, 내면의 상처가 스스로의 모습을 드러내는 방법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끄러움, 두려움, 외로움, 슬픔, 강박적 열등감-이 감정들은 우리가 선행을 하지 못하게 막습니다.
- 분노, 증오, 질투, 복수심, 교만-이 감정들은 우리를 죄로 인도합니다.
- 성에 대한 과도한 집착, 흡연, 음주, 약물 사용-이러한 행위들은 우리 안에서 습관적인 죄를 형성하게 될 것입니다.

내면의 상처들이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선한 행위를 멈추게 만드는지에 대한 예들을 알아보도록 합시다.

수치심

부끄러움은 낮은 인물, 권한을 가진 사람, 이성, 심지어 동료들과 어울리는 것을 힘겨워하는 감정입니다. 이는 다른 사람의 시선을 과도하게 의식해서 여러 방식으로 피해자에게 영향을 주게 되지요. 어떤 이들은 부끄러움으로 인해 당황 합니다: 시선은 아래로 향하고 심장은 빠르게 뛰며, 자신이 그 어떤 말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또 어떤 이들은 평정심을 잃고는 설 새 없이 떠들지요. 자신의 의견과 뜻을 전달하기 힘겨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부끄러움은 행동의 윤곽을 잡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과 함께 했던 경험을 통해 배워왔고 또 강요되었던, 상황에 대한 대응과 행동양식을 그려내지요. 다른 사람이 나 자신을 나쁘게 평가하거나 나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을 나 보다 더 뛰어나거나 정상인 것으로 여기지요. 다른 사람과 어울리려고 하면 모든 것을 망치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일이 악화될 것을 예상하고, 또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쉽게 긴장하게 되고 믿음이나 신념

에 따라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주저하고 내뺀며, 말수를 줄이고, 자기 자신에게 너무 정신이 팔린 나머지 다른 사람에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사람들에게 거만하고 불친절하며, 무신경하거나 무시한다는 인상을 심어주게 되지요. 자신에 대해 생각하게 될 때면, 그 어떤 일도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지금 받고 있는 정보들에게 주의를 덜 기울이지요. 그러다 가장 두려워하던 일이 일어나고 어리석은 사람으로 보이게 됩니다.

부끄러움으로 고통 받고 있는 사람들은 본질적으로 수치라는 감옥의 벽 뒤에 서 스스로 문을 잠그고 그 열쇠를 저 멀리 내던져버린 이들입니다. 좋은 기회들이 자신을 지나쳐 가는 것을 내버려둡니다. 실제로는 원하지 않는 물건이나 상황들만 받아들이지요. 이 모두가 말하고 의견을 표출하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삶을 건강하게 해주는, 사람들과의 새로운 만남에서 오는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지요. 사람들은 결코 진정한 나의 모습을 알지 못하게 됩니다.

예전에 부끄러움을 많이 타는 젊은 남자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시편 말씀을 발견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아라. 기쁨에 넘치고 너희 얼굴에 부끄러움이 없으리라’(시편 34,6). 이 말씀으로 두 가지에서 해방되었어요. 첫 번째는 자기중심적인 생각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할지가 겁나서 항상 저 자신만을 생각했거든요. 두 번째는 제가 다른 사람들에게 나쁜 동기를 부여해주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믿지 못했고 그들이 저를 무시한다고 생각했었죠.”

부끄러움은 자존감 부족으로 이어집니다

인간은 본성적으로 단순하고 깨어지기 쉽습니다. 한 여학생이 상담을 청하며 찾아왔지만 결코 제 얼굴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제 얼굴을 뺀 모든 곳을 이리저리 바라보았지요. 자신의 아버지에게 학대를 당해왔고 자신 안에 죄의식과 수치심을 키워왔기 때문이었습니다. 또 다른 여학생은 성체를 받아 모시지 않았습니다. 윗니가 심하게 돌출되어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이 학생의 친구는 학생을 놀려대었습니다. 학생이 성체를 모시기 위해 혀를 내밀면 윗니 때문에 신부님 손가락에 상처가 날거라고 말입니다. 이 말에 상처를 받아, 삶에 왕 중의 왕을 모실 수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내면의 상처들은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거나 주님에 대해 말을 할 수 없게 만들어 버립니다. 어느 미혼모가 딱 보기에다 수줍음을 많이 타는 딸을 데려와 기도를 청했습니다. 딸은 집에 오는 어떤 손님과도 얼굴을 마주할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과 마주하기 싫었기에 방으로 뛰어 올라가서는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니다. 저는 딸아이의 어머니에게 아이를 가졌을 때 당시에 있었던 일들을 물어보았습니다. 어머니는 대학생이었던 시절, 한 남자와 사랑에 빠졌고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사실이 너무나도 두렵고 부끄러웠습니다. 배는 점점 불러오게 되었고 이 어머니는 이를 감추기 위해 험렁한 옷을 입고는 불룩해진 배를 가리고 다녔습니다. 임신했다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걸음걸이도 바꾸었지요. 자신의 뱃속에 있는 아기를 인정하려 하지 않았고 이 감정은 그대로 태아에게 전달이 되었습니다. 아이는 자라면서 생각했습니다. “사람들 앞에 나가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니야. 내 모습을 숨겨야 해. 그게 당연한 거야.” 딸아이를 위해 기도를 하는 도중에 주님께서 딸에게 말씀을 건네셨습니다. “너희는 이 작은 이들 가운데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않도록 주의하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에서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늘 보고 있다”(마태 18.10). 업신여기지 않아야 하는 이들 중에 자기 자신도 포함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의 창조주께 참으로 귀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천사들이 자신과 하느님 아버지의 얼굴을 늘 보고 있다는 메시지로 인해 딸아이의 삶은 변화되었습니다.

일단 내면의 상처를 발견하게 되면, 결코 다른 누군가를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내면의 상처로 피해를 입고 고통 받은 이는 우리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비난대신 우리는 즉각 주님의 치유를 간구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그는 우리의 병고를 메고 갔으며 우리의 고통을 짊어졌다. 그런데 우리는 그를 별받은 자, 하느님께 매맞은 자, 천대받은 자로 여겼다. 그러나 그가 찢린 것은 우리의 악행 때문이고 그가 으스러진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우리의 평화를 위하여 그가 징벌을 받았고 그의 상처로 우리는 나았다”(이사 53,4-5).

어느 미혼모 이야기

이제 마흔이 된 한 여인이 딸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하며 저를 찾아왔습니다. 딸은 어머니의 말을 듣지 않았고 반항했으며 고집이 세었습니다. 여인은 말했습니다. “딸은 저를 증오하고 무례하게 굴어요.” 저는 여인에게 질문했습니다. “딸을 사랑하십니까?” 여인은 대답했습니다. “사랑하고말고

요. 그렇지 않았다면 오래 전에 재혼을 했을 거예요. 재혼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딸이 제 삶에서 가장 소중하기 때문이고요. 딸을 사랑하지 않았다면 이토록 오랜 시간 동안 딸을 돌보지 않았을 겁니다.” 저는 여인에게 다시 질문했습니다. “딸을 사랑하지 않았던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습니까?” 여인은 자신이 아니라 아이의 아버지에게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를 꺼내어 놓았습니다. 저는 이유를 물었지요. 여인은 대학생 시절의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대학생 때 여인은 사랑하는 남자가 있었고 서로 친구가 되었습니다. 여인이 4학년 마지막 학기 시험을 남겨두고 있었을 때, 두 사람은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여인은 자신이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지요. 그래서 여인은 남자에게 가서 아이가 생겼다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남자는 그럴 리가 없으며 임신을 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대답했지요. 또 자신이 아버지가 될 준비가 되었지 않다고 했습니다. 해외로 유학을 떠날 예정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남자는 여인에게 낙태를 권했습니다. 여인의 마음은 무너져 내렸지요. 여인은 이 문제로 부모님과 다투어야 했습니다. 부모님은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태어날 아기를 돌봐줄 수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여인은 집을 떠나 혼자 살기로 결심했지요. 여인은 학업도 포기하지 않고 마쳐서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아기를 낳아서 혼자 힘으로 키웠습니다. 이후에 여인은 한 남자를 만나게 되었고 사랑에 빠졌습니다. 이 남자는 프리포즈도 했지요. 하지만 여인이 자신에게 딸이 하나 있다는 얘기를 하자 딸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심지어 딸을 고아원으로 보내자는 제안도 했습니다. 여인은 자신의 딸을 버린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고 그 남자와의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어느 날 딸은 낙제점을 받은 시험지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여인은 너무나 화가 나서 딸에게 소리쳤지요. “내가 이렇게 힘들게 일하는 이유가 뭐니? 너 잘 되라고 그러는 거잖니! 그런데 너는 공부 하나도 제대로 못하고 매일 같이 놀기만 하는 거니? 너 때문에 엄마는 삶의 모든 것을 포기했잖아! 사랑하던 사람과 결혼을 못한 것도 다 너 때문이야. 네가 내 삶을 모두 망쳐버린 거라고!” 딸은 엄마에게 대답했습니다. “엄마 딸로 태어난 게 제 탓은 아니잖아요! 대학생 시절에 저를 낳으라고 누가 그러던가요? 정말 저를 사랑한다면 왜 아버지 얼굴을 안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엄마 삶을 망쳐놓은 거라면, 전 엄마랑 더 이상 함께 살고 싶지 않아요!” 쓰라린 논쟁이 뒤따랐습니다. 여인은 딸이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했고 딸 또한 “엄마는 제가 결혼에 장애물이라 생각해요”라며 어머니가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했지요.

“엄마 딸로 태어난 게 제 탓은 아니잖아요!
대학생 시절에 저를 낳으라고
누가 그러던가요?”

자기 연민

한 여학생이 아주 슬퍼하며 찾아와서는 어떤 사람이 이 여학생의 피부가 아주 검고 윤기가 없다는 말을 했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성령께서는 저에게 아가서의 말씀을 계시해주셨지요:

예루살렘 아가씨들이여 나 비록 가뭇하지만 어여쁘답니다. 케다르의 천막처럼 솔로몬의 휘장처럼.

-아가 1,5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여학생은 말했습니다. “저의 생각들이 성경에서 이토록 아름답게 표현되는지 상상도 못했어요! 저는 너무 행복해요. 하느님께서 진실로 저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거든요!” 부정적인 말들은 우리를 아프게 하고 이는 곧 내면의 상처가 됩니다. 신학생 시절, 그 해에 큰 가뭄이 들었습니다. 모든 신학생이 공동 목욕탕에서 샤워를 해야 했지요. 그런데 한 신학생이 옷을 입은 채로 샤워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신학생은 자신이 사제가 될 것이기에 벗은 몸을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보여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알고 보니 이 신학생이 어렸을 때, 친구들로부터 해골처럼 비쩍 골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던 것이었죠. 이 신학생은 사람들이 자신의 앙상한 몸을 보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다시 ‘해골’이라고 놀릴까봐 말이지요.

슬픔

슬픔과 근심은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입니다. 집회서는 말합니다.

슬픔에 너 자신을 넘겨주지 말고 일부러 너 자신을 괴롭히지 마라.
마음의 기쁨은 곧 사람의 생명이며 즐거움은 곧 인간의 장수이다. 긴장을 풀고 마음을 달래라. 그리고 근심을 네게서 멀리 던져 버려라.
정녕 근심은 많은 사람을 망쳐 놓고 그 안에는 아무 득도 없다.

삶 속에 스며있는 슬픔은 아주 다양한 뿌리와 다른 모양의 증상을 가집니다. 슬픔은 사람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손상시키고 삶의 희망과 의미를 잃게 만듭니다. 우리가 믿는 하느님께서서는 다정하시고 우리에게 늘 관심을 주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믿는지에 관계없이 언제나 우리 곁에 계셔 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지요. 그분께서는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어머니이시기에 우리는 부모님께 하듯이 하느님께 부르짖으며 애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 기억하소서, 저희가 어찌 되었는지를. 바라다보소서, 저희의 처욕을. 저희 상속의 땅은 외국인들에게 넘어가고 저희의 가옥들은 이방인들에게 넘어갔으며 저희는 아버 없는 고아들이 되고 저희의 어머니는 과부가 되었습니다.

-애가 5,1-3

우리는 하느님께서 “마음이 부서진 이들을 고치시고 그들의 상처를 싸매 주신다.”(시편 147,3)는 사실을 알고 또 믿습니다. 주님께서서는 애통해 하는 이들을 위로하십니다.

그들은 울면서 오리니 내가 그들을 위로하며 이끌어 주리라. 물이 있는 시냇가를 걷게 하고 넘어지지 않도록 곧은길을 걷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가 되었고 에프라임은 나의 맏아들이기 때문이다.

-예레 31,9

죽음으로 인한 슬픔

사랑하는 이의 죽음은 우리 삶을 무력화 시킵니다. 모든 것을 신앙의 빛으로 바라보도록 이끄시는 하느님의 도움이 없다면 가족이나 친지의 죽음은 아주 고통스럽고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습니다. 절망적으로 보이는 상황 한 가운데에서도 주님께서서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도록 허용하시는 이유가 있으십니다. 사랑하는 이를 잃고 무력해진 모습으로 찾아오는 이들에게 나는 사무엘기 하권의 말씀을 건네곤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야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아 준 아이를 치시니, 아이가 큰 병이 들었다. 다윗은 그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님께 호소하였다. 다윗은 단식하며 방에 와서도 바닥에 누워 밤을 지냈다. 그의 궁원 로들이 그의 곁에 서서 그를 바닥에서 일으키려 하였으나, 그는 마다하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으려고도 하지 않았다. 이레째 되는 날 아이가 죽었다. 다윗의 신하들은 아이가 죽었다고 그에게 알리기를 두려워하며 이렇게 말하였다. "왕자님이 살아 계실 때에도 우리가 그분께 말씀드리면 우리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셨는데, 지금 우리가 어떻게 왕자님이 돌아가셨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소? 그분께서 해로운 일을 하실지도 모르오." 다윗은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아이가 죽었다는 사실을 알아차렸다. 다윗은 신하들에게 "아이가 죽었소?" 하고 물었다. "예, 돌아가셨습니다." 하고 그들이 대답하였다. 그러자 다윗은 바닥에서 일어나 목욕하고 몸에 기름을 바른 다음, 옷을 갈아입고 나서 주님의 집에 들어가 경배하였다. 그리고 자기 궁으로 돌아와 음식을 가져오게 하였다. 그들이 그에게 음식을 차려 오자 그것을 먹었다. 신하들이 그에게 여쭙었다. "임금님께서 어찌 이런 행동을 하십니까? 왕자님이 살아 계실 때에는 단식하고 우시더니, 이제 왕자님이 돌아가시자 일어나시어 음식을 드시니 말입니다." 다윗이 말하였다. "아이가 살아 있는 동안에 내가 단식하고 온 것은, '주님께서 나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그 아이가 살게 될지 누가 알겠는가?' 하고 생각하였기 때문이오. 그러나 지금 아이가 죽었는데 무엇 때문에 내가 단식하겠소? 아이를 다시 데려 올 수라도 있다는 말이오? 내가 아이에게 갈 수는 있지만 아이가 나에게 돌아올 수는 없지 않소?"

-2사무 12,15-23

로마 신자들에게 보낸 서간은 우리 삶을 포함한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지적하며 또 다른 위안의 메시지를 줍니다.

우리 가운데에는 자신을 위하여 사는 사람도 없고 자신을 위하여 죽는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셨다가 살아나신 것은, 바로 죽은 이들과 산 이들의 주님이 되시기 위해서입니다.

집회서는 죽음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하는 올바른 마음가짐에 대한 지혜를 담은 거울을 우리에게 비춰주지요. 그 빛은 우리 마음속에 강한 울림을 가져옵니다.

애야, 죽은 사람을 위해 눈물을 흘리고 극심한 고통을 겪는 이처럼 애도를 시작하여라. 죽은 사람의 처지에 따라 그 시체를 염하고 그의 장례를 소홀히 치르지 마라. 슬피 울며 통곡하여라. 애도는 죽은 사람의 지위에 따라 하루나 이틀 동안 계속하여 비난받지 않도록 하여라. 그리고 나서 너 자신의 슬픔을 달래라. 슬픔이 지나치면 죽음으로 이어질 수 있고 마음의 슬픔은 기운을 떨어뜨린다. 불행 가운데 슬픔도 머무르니 마음은 가난한 자의 삶을 저주할 뿐이다. 네 마음을 슬픔에 넘기지 마라. 슬픔을 멀리하고 마지막 때를 생각하여라. 한번 가면 다시는 돌아오지 못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라. 너는 죽은 이를 돕지 못하고 너 자신만 상하게 할 뿐이다. 그의 운명을 돌이켜 보며 네 운명도 그와 같다는 것을 기억하여라. 어제는 그의 차례요 오늘은 네 차례다. 죽은 이는 이제 안식을 누리고 있으니 그에 대한 추억만을 남겨 두고 그의 영이 떠나갔으니 그에 대하여 편안한 마음을 가져라.

-집회 38,16-23

자살

선교 수녀회의 수녀님이 저를 찾아와 기도와 수도 생활에 스며든 극심한 고통을 들려주었습니다. 수녀님은 집으로부터 남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수녀님은 그 소식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보아왔던 동생은 가장 따뜻하고 신심 깊은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남동생은 사람들을 아주 잘 보살피고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기도와 겸손의 사람이었지요. 수녀님이 받은 또 다른 충격은 바로 남동생이 자살을 하고 시간이 꽤 지나서야 그 소식을 듣게 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수녀님의 가족은 처음에 수녀님에게는 동생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다고 알려주었습니다. 가족은 수녀님이 너무 멀리 떨어져 있었기에 그 사실을 숨겼던 것입니다.

이 충격적인 소식을 듣자마자 수녀님은 기도를 멈추고 예수님께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남동생이 자살을 하도록 어떻게 그냥 내버려 두실 수 있습니까? 동생이 숨을 거둘 때 당신께서는 어디에 계셨나요? 정말 살아계신 하느님 맞으십니까? 제가 당신께 삶을 봉헌했음에도 제 동생 하나 보호해주지 않으신단 말입니까? 왜 자살이라는 저주가 저희 가족 안에 들어오는 것을 허락해주셨습니까? 수녀로서의 제 삶은 무엇을 위한 것인가요? 어찌하여 이 같은 비극을 가져오셔서 제 가족을 치시는 겁니까? 저는 남동생의 자살을 막을 수도 없는 비참한 인간인 것인가요? 저의 수도 생활이 주님을 위해 사용될만한 곳이 있긴 한 것입니까? 가족들 얼굴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이 이야기를 어떻게 다른 사람들과 나눈단 말입니까? 머리가 터질 것 같고 고통으로 몸부림치는 제가 보이지 않으십니까?”

수녀님은 너무나도 많은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남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유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수녀님에게 남동생은 자살을 하거나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는 것을 생각할 수도 없을 만큼 착하고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지혜서를 통해 수녀님에게 말씀을 건네셨습니다.

의인들의 영혼은 하느님의 손안에 있어 어떠한 고통도 겪지 않을 것이다. 어리석은 자들의 눈에는 의인들이 죽은 것처럼 보이고 그들의 말로가 고난으로 생각되며 우리에게서 떠나는 것이 파멸로 여겨지지만 그들은 평화를 누리고 있다.

-지혜 3,1-3

수녀님은 이 성경말씀을 듣고는 놀라움 가득한 목소리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자신에게 직접 말씀을 건네 오셨다고 말했습니다.

**“수녀님은 너무나도 많은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남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유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과거, 교회는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들이 천주교인들을 위한 묘지에 묻히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교회의 입장은 자살을 선택한 이들의 천주교 묘지 매장이 거부되지 않아야 한다는 쪽이지요. 세상을 떠난 이의 마지막 마음가짐이 어떠한지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선한 죄수가 마지막

막 순간에 하느님의 나라에 들어 갈 수 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선한 죄수는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동안 자신의 죄를 뉘우쳤습니다.(루카 23장 참조)

한 여성이 아버지를 여의고 어깨를 축 늘어뜨린채 슬퍼하며 찾아왔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여인은 해외에 있었고 아버지와 마지막 대화를 가질 기회를 얻지 못했지요. 이 일로 여인은 심하게 자책을 했습니다. 그 후로 여인의 삶은 변했지요. 여인은 말했습니다. “제 삶에 그 누구도 채울 수 없는 커다란 구멍이 생겼습니다. 이 서러움과 슬픔을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제 삶은 암울함 그 자체인걸요. 저는 아버지의 죽음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가 떠나실 때 곁에 있어드리지 못한 것도 너무나 후회가 되요.” 주님께서는 여인에게 집회서를 통해 말씀을 건네셨습니다.

죽은 이에 대한 애도는 이레 동안 계속되지만 어리석은 자와 불경한 자의 일생은 모든 날이 초상 날이다.

-집회 22,12

세상을 떠난 사랑하는 이들은 하느님과 함께 있습니다. 이들은 이제 세상에 살아 있었을 때보다 훨씬 더 주님 가까이에 있지요. 따라서 살아 있을 때보다 우리에게 훨씬 더 큰 도움이 됩니다. 주님 곁에서 우리를 위한 중재자가 되기 때문이지요. 하늘로 떠나보낸 사랑하는 이들이 하느님과 함께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끊임없이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들이 하느님 어전에 들어가게 되는 순간부터 이들은 하느님 앞에서 우리를 위한 중재를 시작할 것입니다.

외로움

“삶에서 가장 무거운 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을 받자, 어느 외롭고 나이든 남자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짊어질 짐이 없다는 것입니다.” 외로움의 치유는 다른 이들의 짐을 함께 짊어짐에서 이루어집니다. 이웃의 어려움에 동참하고 외로움에 힘겨워 하는 이들을 찾아가는 것이지요. 이웃이 가진 어려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우리를 필요로 하는 이들을 찾고 이들을 위해 무언가를 하십시오. 이웃의 짐을 함께 짊어지게 되면 우리가 가진 외로움의 무게가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한 여인이 크리스마스가 되어 가족들에게 황금색 천사

모양의 옷핀을 가족들에게 선물로 나누어주었습니다. 여인 가족들에게 말했지요. “이 옷핀을 옷깃이나 어깨에 달아두세요.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수호천사가 어깨에서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떠올리면서요.” 여인의 오빠는 자신이 받은 천사 옷핀의 한쪽 날개가 부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날개를 수리하면서 오빠는 여동생에게 농담을 던졌지요. “내 이럴 줄 알았다. 내 수호천사는 한 쪽 날개를 어디서 잃어버리고 왔구나. 천사도 자기 자신을 돌보지 못하잖나!”

2년 뒤에 여인의 오빠는 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가족이 받고 있을 고통을 생각하면서, 저는 오빠가 받았던 한쪽 날개를 잃은 천사가 참으로 우리들 개개인과 닮았음을 새삼 깨닫게 되었지요. 우리는 서로를 상처 입힙니다. 또한 상실의 경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로는 외롭기도 하지요. 옷핀에 달려있던 천사처럼, 우리는 저마다의 방식으로 부러진 부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러진 부분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 내면의 것이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우리는 모두 한쪽 날개를 잃은 천사와 같습니다. 그렇기에 서로를 보듬어야만 하늘로 날아올 수 있습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표현이지 않습니까? 서로 안아주는 것이 최고의 치유입니다. 외로움을 극복하는 최선의 길은 이웃에게 팔을 뻗어 이웃이 겪고 있는 시련을 함께 헤쳐 나가는 것이지요. 이 가족은 서로를 보듬었습니다. 서로의 짐을 짊어주었기에, 각자가 가진 짐들은 가벼워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외로움에 대한 해결법이자 행복을 위한 방정식입니다. 성녀 마더 데레사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약으로 육체의 질병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외로움과 절망은 오직 사랑으로만 치유될 수 있습니다. 빵 한 조각이 없어서 목숨을 잃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쌀 한 톨의 사랑도 받지 못해서 죽어가는 이는 더욱 많습니다.”

**“빵 한 조각이 없어서 목숨을 잃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쌀 한 톨의 사랑도 받지 못해서 죽어가는 이는
더욱 많습니다.”**

어떻게 해서 내면의 상처를 얻게 되는가

우리는 삶의 다양한 단계에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내면의 상처를 얻습니다. 조상으로부터, 또는 유아기, 청소년기, 중년과 노년기를 통해서 말이지요.

1) 조상

- 조상들 중에서 굿, 이교도 예식, 악마 숭배, 기타 다른 미신적 행위에 참여한 경우
- 조상이 간음, 성매매, 성폭행, 일부다처, 근친상간 등 성적으로 부정한 일을 저지른 경우
- 다른 이의 재화를 부정하게 취득한 조상이 있는 경우
- 날카롭고 악의적인 말을 사용했고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은 조상이 있는 경우
- 알코올 중독과 약물 중독에 빠졌던 조상이 있는 경우
- 합당하지 않은 상태로 성체를 영했던 조상이 있는 경우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의 상처들이 가지는 뿌리의 원인이 조상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더라도 우리는 결코 우리 안에 있는 조상들을 비난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께 해결책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여러분은 조상들에게서 물려받은 헛된 생활 방식에서 해방되었는데, 은이나 금처럼 없어질 물건으로 그리된 것이 아니라, 흠 없고 티 없는 어린양 같으신 그리스도의 고귀한 피로 그리된 것입니다.

-1베드 1,18-19

이 말씀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죽음과 부활로써 우리 조상들의 헛된 삶의 방식을 위한 값을 치르셨다는 것을 뜻합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수님께서 우리 구세주이심을 받아들이고 우리의 가계 안에 그분의 고귀하신 피가 흐르고 있음을 선포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이들은 단죄를 받을 일이 없습니다.”(로마 8,1) 빛이 있는 곳에 어둠은 존재하지 않듯, 예수님께서 계신 곳에 악마가 자리할 곳은 없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가 주님을 받아 모셨다는 사실이지요. “그분께서는 당신을 받아들이는 이들, 당신의 이름을 믿는 모든 이에게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권한을 주셨다”(요한 1,12). 예수님께서 우리 구세주이십니다. 우리는 조상이 아닌 예수님의 후손들입니다. 조상들의 잘못이 결코 우리에게 어떤 영향도 미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마태오 복음과 루카 복음에서 예수님의 족보를 봅니다. 그 족보 안에는 죄인도 있고 간음한 여인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족보 안의 인물들은 모두 거룩해졌습니다. 예수님을 우리 자신의 족보로 모셔 오게 되면, 우리는 족보 전체를 정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각각의 가족이라는 나무 안에서 가족 전체를 위해 당신을 모실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예루살렘 거리마다 쏘다니며 살펴보고 알아보아라. 한 사람이라도 만날 수 있는지 광장마다 찾아보아라. 올바르게 행동하고 진실을 찾는 이가 있어 내가 그곳을 용서할 수 있는지 알아보아라.

-예레 5.1

**“우리는 조상이 아닌 예수님의 후손들입니다.
조상들의 잘못이 결코 우리에게
어떤 영향도 미칠 수 없다는 뜻입니다.”**

2) 부모님(현세적)

아이들은 반드시 탐욕의 결합이 아닌 사랑으로부터 태어나야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많이 범하게 되는 죄들 중 하나가 바로 욕정에 의한 죄입니다. 욕정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우리 안으로 침투합니다. 예를 들면, 음탕한 책을 읽고 저속한 영화를 보며, 부도덕하고 저질스러운 음악을 듣고, 야한 농담에 참여하는 것 등이 있지요. 욕정으로 가득 차게 되면 성적 욕구를 통제하지 못하고 성매매, 간음, 자위, 동성애 등 성적으로 왜곡된 행위에 몰두하게 됩니다.

편부모

미혼모는 이곳 케냐에서 아주 흔한 현상이 되었고 HIV 또는 AIDS, 그리고 점점 확산되는 물질주의와 개인자유와 권리의 과장에 의해 그 상황이 점점 악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이가 부부 모두의 손에서 자라나는 것이 하느님의 뜻이지요. 주님께서서는 한 부모 가정을 바라지 않으십니다. 그럼에도 미혼모들에게 끊임없이 자비를 베푸시지요. 세상에는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미혼모가 된 이들이 있습니다. 자유에 대한 왜곡된 이해로 인해 자신의 의지로 한 부모 가정을 꾸리는 이들도 또한 있습니다. 한 신학생이 미혼모에 관한 논문을

쓴 적이 있습니다. 자료를 조사하던 중에, 이 신학생은 스스로 한 부모가 되기로 결심한 여성들이 남편과 이혼 한 이후에 자신의 능력과 직업 면에서 훨씬 잘 해나가고 있음을 알게 되었지요. 이 여성들은 일하지 않고 항상 취해있으며 약물에 의존하는 남편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매우 힘들어했습니다. 하지만 혼인생활의 거룩함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특정한 어려움들 때문에 배우자와 간단히 이혼하는 것은 그냥 지나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결정입니다. 편부모의 손에 양육되어 성장해나갈 자녀를 생각해서도 말입니다. 우리는 결혼생활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자녀를 가지는 데에만 흥미가 있는 미혼모들에 대해 듣습니다. 이러한 여성들은 아이들의 아버지를 거부함으로써 후손들에게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어떤 편부모들은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에만 집중해서 양쪽 부모 모두를 가져야 할 자녀의 권리를 망각하게 되지요.

어느 여성이 저를 찾아와서 자신이 너무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음을 토로했습니다. 이 여인은 직업도 없었고 집세를 낼 돈도 없었으며, 자녀들의 학비를 내고 음식을 살 돈도 없었습니다. 저는 자녀들의 아버지가 어디에 있는지를 물어 보았습니다. 여인은 남편이 자신과 아이들을 돌보지 않아서 이혼을 했다고 대답했지요. 저는 여인이 자신의 완고함과 악한 의지를 따랐다고 말해주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거룩한 혼인성사를 통해 결합된 남편과 아내가 이혼하는 것을 결코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어떠한 일이 일어났더라도 이 여인은 남편을 주님께 되돌려야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이는 코린토 신자들에게 보낸 첫 번째 서간에 잘 나와 있습니다. “아내 된 이여, 그대가 남편을 구원할 수 있을지 혹시 압니까? 그리고 남편 된 이여, 그대가 아내를 구원할 수 있을지 혹시 압니까?”(1코린 7,16). 만약 아내가 길을 벗어난다면, 남편의 의무는 아내와의 이혼이 아니라 아내를 다시 주님께로 데려오는 것입니다.

두 명의 자녀가 있고 남편과는 이혼을 한 어느 여인이 재혼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저를 찾아와 재혼에 대한 허락과 축복을 요청했습니다. 저는 여인에게 다시 결혼을 한다면 그 배우자는 분명 두 자녀의 친아버지가 되어야 한다고 말해주었습니다. 여인이 여생을 자신의 남편과 함께 보내고 남편이 자신의 아내와 여생을 함께 보내는 것은 태초부터 정해진 하느님의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거스르는 어떤 것도 하느님의 계획을 벗어나는 것이지요.

하지만 대부분의 미혼모들은 자신의 직업을 가지고 남편의 도움 없이 자신과

자녀들을 돌볼 수 있다는 사실에 편안함을 느낍니다. 이들은 자신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몹쓸 짓을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아버지의 사랑 없이 삶을 살아가야 하기 때문이지요. 하늘을 날아가는 새를 한 번 보십시오. 새는 양쪽 날개를 힘껏 움직이기에 하늘에서도 완벽한 균형을 잡으며 멀리까지 날아갈 수 있습니다. 한쪽 날개를 다치게 되면, 날아오를 수가 없습니다. 그저 땅을 걸어 다닐 수 있을 뿐이지요. 결혼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과 아내는 혼인생활의 양 날개입니다. 두 사람이 함께 해야 날아오를 수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 중 한쪽을 잃게 되면, 결혼생활은 마비되고 그것이 고쳐지지 않으면, 하느님께서 정하신 목적지로 날아오를 수 없습니다.

**“결혼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과 아내는 혼인생활의 양 날개입니다.
두 사람이 함께 해야 날아오를 수 있습니다.”**

남자가 아이에 대한 책임을 모두 여자에게 떠넘기고 떠나버린 채 태어난 아이들, 혼외정사로 태어난 아이들, 어머니가 아직 학생일 때 태어난 아이들, 합당한 사랑 없이 태어난 아이들이 모두 욕정으로 태어난 아이들입니다.

간음의 소생들은 크지 못하고 부정한 잠자리에서 생긴 자식들은 망하고 만다. 오래 산다 하여도 그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겨지고 결국은 나이가 많음도 그들에게는 영예롭지 못하다. 일찍 죽는다 하여도 희망이 없고 심판 날에 아무 위안도 받지 못할 것이다. 불의한 족속의 끝은 이처럼 비참하다.

-지혜 3,16-19

우리가 오늘날 보게 되는 강도들은 모두 우리 자신의 자녀들, 형제, 자매들이나 다름없지요. 이처럼 욕정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부모의 온전한 사랑이 부족하기에 범죄자로 자라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한 어머니가 저를 찾아와서 남편이 세 아이의 학비를 보내주도록 기도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어머니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물었습니다. 여인은 세 아이들 중 오직 한 명만이 지금 남편의 핏줄이라 말했습니다. 두 아이는 다른 남자와의 사이에서 태어났던 것이지요. 저는 여인에게 지금 함께 머물고 있는 남자와 성당에서 혼인을 했는지 물어보았고 여인은 아니라고 하면서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세 아이 모두에게 아버지의 사랑 또한 줄 수 있어요. 두 사람이 해야 할 기본적인 의무는 다 행하고 있거든요.” 사실 이 여인은 아이들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주지 않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아버지가 되어 주고 싶었겠지만 결코 불가능한 일이지요. 이는 분명 자녀들의 삶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진실 된 가족은 세 가지 유형의 관계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1. 영성적 관계: 영성적 관계를 통해서 남편의 영과 아내의 영이 하나가 됩니다. 이는 남편과 아내가 함께 기도함으로써 이루어지지요.
2. 감정적 관계: 감정적 관계는 마음과 마음의 관계입니다. 서로 대화를 나눔으로써 남편의 마음과 아내의 마음이 하나가 됩니다.
3. 육체적 관계: 육체적 관계의 열매는 바로 자녀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함께 지냄으로써 두 사람의 몸은 하나가 됩니다.

주님께서는 혼인서약을 행한 남편과 아내 외의 육체적 관계를 결코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애인을 선호하는 문화 안에는 오로지 간음으로 여겨지는 육체적인 관계만 있을 뿐입니다. 이러한 문화 안에는 감정적이고 영성적인 관계가 들어설 자리는 없습니다.

내면의 치유를 받는 방법

내면의 상처들에 관해 알아보면서, 그 어떤 의사나 심리학자도 이 상처들을 치유하거나 도움을 줄 수 없다는 점이 명백해졌습니다. 내면의 상처들은 오직 하느님에 의해 치유될 수 있는 분야인 것입니다. “평화의 하느님께서 친히 여러분을 완전히 거룩하게 해 주시기를 빕니다.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온전하고 흠 없이 지켜 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을 부르시는 분은 성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그렇게 해 주실 것입니다.”(1테살 5:23-24) 이 말씀처럼, 하느님께서서는 우리가 내면의 치유를 받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내면의 상처들을 제거하거나 낫게 하려고 시도하는 모든 과정을 바로 **내면의 치유**라고 부릅니다.

내면의 치유를 받기 위한 단계

1. 예수님을 현재의 위기 상황으로 초대한다.

2. 원인이 되는 뿌리를 보여주시길 성령께 청한다.
3. 주님께서 나의 삶에 베풀어주신 모든 축복에 감사와 찬양을 드린다.
4. 상처에 연관된 모든 사람을 용서한다.
5. 나의 상처를 당신의 고귀한 피로 씻어주시길 예수님께 청한다.
6. 나를 아버지의 사랑으로 충만히 채워주시길 아빠 아버지 하느님께 청한다.
7. 나 자신의 모든 권한을 가져가시길 성령께 청한다.

저는 이렇게 내면의 치유를 받았습니다

한 동료 사제는 제가 분노를 억눌러왔음을 깨닫게 해주고는 내면의 치유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말해주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분노가 저의 사제로서의 삶에 커다란 장애가 될 것이라는 말을 덧붙였지요. 동료사제는 저에게 내면의 치유를 받기 위한 단계를 설명해주었습니다. 현재의 위기인 억눌러왔던 분노 속으로 예수님을 초대하고 있는 중에, 그분께서는 저의 어린 시절을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작은 실수에도 어머니께서 저를 심하게 야단치고 매질을 하셨던 때였죠. 저는 아홉 번째 자녀였고 막내는 언제나 사랑과 관심을 독차지했기에 저는 항상 막내였던 제 바로 아래 여동생에게 화가 나있었습니다. 여동생이 제가 받아야 할 사랑을 모두 빼앗아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여동생을 때리고 할퀴고 괴롭혔습니다. 여동생은 아주 작은 괴롭힘에도 큰 소리로 울어댔고 어머니는 달려와서 저를 때렸습니다. 심지어 제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음에도 여동생은 소리를 질렀고 어머니는 제 말을 듣지 않고 다짜고짜 저를 때리고는 다시 가족들을 위한 식사를 준비하러 주방으로 내려갔습니다. 저는 화가 머리 끝 까지 치밀어 올라서 어머니와 여동생을 마구 때리는 상상을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러지는 못했습니다. 어머니의 덩치가 너무 컸기 때문입니다. 어머니에게 맞을 것을 알기에 여동생에게 복수도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이웃이 듣는다는 이유로’ 제가 울음을 터트리는데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울 수조차 없었던 것입니다. 또한 어머니가 허락 할 때까지 무릎을 꿇은 채 반성을 해야 했지요. 여동생은 저를 골려주기 위해 언제나 저를 주시했습니다. 이것이 제 안에 억눌려진 분노가 형성되었던 이유입니다. 보통 시간이 지나서 어머니가 저를 주방으로 부르고는 “와서 먹어라. 음식이 준비 되었구나”라고 말하면 저는 모든 것을 잊고는 의자 위로 뛰어 올라서는 맛있게 식사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음식이 우리를 치유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억눌려진 분노로 예수님을 초대했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는 분노

의 뿌리를 찾아 과거로 여행을 떠났지요. 성령께서는 모든 일어났던 사건들을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성령께서 보여주신 환시 속에서 저는 울고 있었고 예수님께서 제 앞으로 다가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저와 같은 나이의 모습이셨지요. 예수님께서서는 제 옆에 앉으시고는 제 어깨에 팔을 두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네 어머니로 하여금 너를 벌하도록 허락한 사람은 나란다.” 말씀을 마치시고 예수님께서서는 제가 우는 것과 똑같이 울기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시는 것을 보고 저는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왜 우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서는 대답하셨습니다. “네가 울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울음을 멈출 수가 있겠니. 네가 눈물 흘리는 동안 나 역시 눈물 흘릴 거란다. 네가 나의 자녀이기 때문이지. 어머니를 용서하고 어머니를 위해 기도하려무나. 그리고 어머니의 선한 뜻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그 순간 저는 울음을 멈추었습니다.

이후에, 저는 저의 과거를 아주 슬프게 기억하고 있었다는 사실-어머니를 포함해서 모두가 나를 싫어한다고-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드러내 보여주셨지요. 어머니가 저를 벌하던 어느 날, 저는 의도적으로 땅바닥에 드러누워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일어나라며 저를 더욱 세게 때렸죠. 그래도 제가 거부하자 어머니는 저를 질질 끌고 가며 말했습니다. “곤충들이 네 귀 속으로 들어가서 너를 괴롭힐 거란다.” 지금 다시 그 때를 떠올리는 와중에 희미한 목소리가 저에게 속삭였습니다. “보거라, 네 어머니는 곤충 한 마리도 너를 물지 못하게 하려 하잖니. 너를 벌하는 순간에도 너를 사랑하고 보살피는 것이란다.” 바로 이 날, 예수님께서서는 저의 억눌려진 분노를 치유해주셨습니다.

지금의 저는 가장 사랑하는 제 어머니의 아들이란 사실을 특권이자 축복으로 받아들입니다. 어머니는 오늘날의 제가-그리스도의 종- 되도록 저를 지도하셨지요. 어머니는 저의 실수들을 절대로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저를 벌하고 그 자리에서 잘못을 바로 잡았죠. 제 부모님이 집회서의 말씀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에 언제나 놀라곤 합니다. “그가 젊을 때 권한을 주지 말고 그의 잘못을 모른 채하지 마라”(집회 30,11). 어찌 되었든 저는 지금 사제이고 어머니에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용서는 내면의 치유를 받기 위한 열쇠입니다. 치유를 받기 위한 첫 단계는 바로 “네가 나의 눈에 값지고 소중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내가 너 대신 다른 사람들을 내놓고 네 생명 대신 민족들을 내놓는다”(이사 43,4)라는 주님의 마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드리는 내면의 치유를 위한 기도들

다음에 나오는 기도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슬픔에 빠진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희망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슬픔과 상처의 감정들을 다음에 나오는 간단한 기도문의 반복을 통해 극복했습니다. 이 기도문들 중 하나를 하루에 적어도 50번씩 반복해서 기도하곤 했습니다. 이 기도문들은 제가 하느님의 사랑 안에 머무르도록 뒷받침 해주었지요. 이 기도문들은 또한 여러분 각자가 자신만의 기도를 만드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주님 앞에서는 말보다는 마음의 자세가 더 중요한 법입니다. 요한 복음사가는 다음과 같이 가르치지요:

그러나 진리를 실천하는 이는 빛으로 나아간다. 자기가 한 일이 하느님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드러내려는 것이다.

-요한 3,21

1. 예수님, 저에게 당신 말고 누가 있겠습니까?
2. 예수님, 오직 당신만이 저를 위해 계십니다.
3. 예수님, 저를 저버리지 마소서.
4. 저의 진정한 아빠 아버지, 당신의 사랑으로 저를 가득 채우소서.
5. 예수님, 당신의 은총을 듬뿍 내려주소서.
6. 성 안토니오와 모든 천사와 성인들은 저를 위해 기도해주시고 저의 힘이 되어주소서.
7. 예수님, 당신을 영광스럽게 하지 않는 저의 모든 생각과 말과 행위를 하지 않게 하소서.
8. 예수님, 당신의 뜻이 아닌 것, 당신께 상의 드리지 않고 당신의 허락이 없는 생각과 말과 행위를 하지 않게 하소서.
9. 아빠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에게 성령과 당신의 말씀과 지혜의 기쁨을 부어주소서.
10. 예수님, 제 이마에 입 맞추시어 당신의 사랑으로 저를 가득 채워주소서.
11. 예수님, 저의 모든 생애가 당신을 흠송하고 찾게 하소서.
12. 예수님, 제가 오직 당신만을 위해 살게 하소서.
13. 예수님, 제 생애 마지막 순간까지 당신께 충실케 하소서.
14. 예수님, 저는 당신의 종이오니 당신의 뜻을 명하소서.
15. 아빠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제게 말씀하소서.
16. 예수님, 저에게 사랑의 은사와 불타는 열정을 주시어 마지막 숨을 내쉬는

순간까지 당신 발치에서 시중들게 하소서.

17. 예수님, 제 모든 생각을 당신께 드리나이다.
18. 예수님, 제 모든 말을 당신께 드리나이다.
19. 예수님, 제 모든 행위를 당신께 드리나이다.
20. 삼위일체이신 하느님, 저의 생각과 말과 행위를 영원히 다스리소서.
21. 예수님, 매순간 쉽게 넘어지는 저를 당신의 발에 사슬로 묶으소서.
22. 예수님, 제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당신을 사랑하나이다.
23. 아빠 아버지, 제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당신을 사랑하나이다.
24. 제 안에 머무르시는 성령님, 제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당신을 사랑하나이다.
25. 예수님, 제 삶은 온전히 당신께 빛을 졌나이다.
26. 예수님, 온전히 당신께 신뢰와 희망을 두나이다.
27. 예수님, 모든 순간 제게 말씀하시옵소서.
28.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과 성령을 통하여 슬기 지혜 지식 깨달음 기도, 가르침, 의견, 굳셈, 경외의 은사와 사랑, 기쁨, 평화, 인내, 회의, 선의, 성실, 온유, 절제, 지혜와 지식의 말, 예언, 식별, 치유, 기적, 구마, 신령한 언어의 해석, 환시, 영의 식별의 열매를 주셨음에 감사드리나이다.
29. 거룩하신 하느님, 고귀한 예수님의 피로 제 마음, 정신, 육체, 영혼, 성,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상처를 씻어주소서.
30. 예수님, 저를 배었던 부모의 죄를 당신의 상처 입으신 손으로 받아 안으시어 그 고귀하신 피로 씻어주소서.
31. 예수님, 당신의 성혈과 성령의 힘으로 제 눈을 통해 들어온 육욕의 영을 물리치게 하소서.
32. 예수님, 당신의 수난과 죽음과 부활의 은혜에 힘입어 저의 생각과 말과 행위와 기억들을 십자가에 매달리신 당신의 발아래 내려놓고 오래도록 저의 정신을 지배해왔던 욕정을 부숩버리게 하소서.
33. 예수님, 제가 저의 어머니에게 주었던 감정의 상처들을 치유하시고 당신의 사랑으로 어머니를 가득 채우소서.
34. 예수님, 제 어머니가 저에게 주었던 감정의 상처들을 치유하시고 저를 당신 어머니의 사랑으로 가득 채우소서.
35. 예수님, 제가 저의 아버지에게 주었던 감정의 상처들을 치유하시고 당신의 사랑으로 아버지를 가득 채우소서.
36. 아빠 아버지, 제 아버지가 저에게 주었던 감정의 상처들을 치유하시고 저

- 를 당신의 사랑으로 가득 채우소서.
37. 예수님, 제가 저의 형제자매들에게 주었던 모든 상처를 치유하시고 그들을 당신의 사랑으로 가득 채우소서.
 38. 예수님, 제 형제자매들이 저에게 주었던 모든 상처를 치유하시고 저에게 성령의 사랑을 가득 채워주소서.
 39. 예수님, 제가 행위와 무절제한 모습으로 상처를 주었던 이가 있다면 무릎 꿇고 사죄하오니, 저를 용서하시고 그들에게 당신의 넘쳐흐르는 사랑을 내려주소서.
 40. 예수님 저의 감각을 통해 들어와 오랫동안 저를 지배했던 버림받음의 상처를 당신의 성혈로 씻으시어 정화해주소서.
 41. 예수님, 당신의 수난과 죽음과 부활로 저를 저 자신의 억압으로부터 영원히 해방주소서.
 42. 예수님, 저에게 청하는 이가 있다면 언제나 당신의 동의를 얻고 난 뒤에 그에게 응답하게 하소서.
 43. 예수님, 제가 매순간 당신을 찾고 당신과 이야기를 나누는 은총을 내려주소서.
 44. 예수님 다른 이들이 저를 통하여 당신을 보고 당신의 이름을 드높이게 하소서.
 45. 예수님, 무릎 꿇고 당신께 찬양과 흠숭과 경배와 영광을 드리나이다.
 46. 아빠 아버지, 당신 외아드님의 고귀하신 피로 저의 눈을 씻어주시고 제 두 눈을 당신의 성령으로 채워주소서.
 47. 예수님, 당신 생애의 공로로 모든 종류의 무절제한 인간적 애착으로부터 저를 자유롭게 하소서.
 48. 진리의 하느님, 모든 인간적 찬양에서 저를 자유롭게 하소서.
 49. 예수님, 하느님 말씀의 힘으로 모든 불안에서 저를 자유롭게 하소서.
 50. 예수님, 패배를 모르는 당신 오른손으로 저를 붙드시어 모든 두려움에서 저를 자유롭게 하소서.
 51. 예수님 제가 당신의 뜻을 깨닫고 그 뜻에 맞갖은 삶을 살아가는 은총을 내려주소서.
 52. 가장 복되신 동정녀 마리아님, 당신께서 하느님의 뜻을 받아들이시면서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라고 말씀하셨듯이, 저 또한 겸손과 온순과 순종의 은총을 허락주소서.
 53. 예수님, 저를 당신 발에 묶으시어 제가 헛된 길로 빠지지 않게 하소서.

54. 예수님, 그 누구도 저에게 현혹되지 않고 저 또한 당신 아닌 누구에게도 현혹되지 않게 하소서.
55. 예수님, 누군가 저에게 어떤 것에 대해 물어본다면, 당신께 상의 드린 후에 답을 하는 은총을 주소서.
56. 아빠 아버지, 구세주 예수님, 성령님, 당신을 향한 충직한 신앙을 내려주소서.
57. 예수님, 당신 누구도 저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하소서.
58. 예수님, 제가 당신 아닌 누구에게서도 행복을 찾는 일이 없게 하소서.
59. 예수님, 누구도 저를 잘못 인도하지 않고, 저 또한 누구도 잘못 인도하지 않게 하소서.
60. 예수님, 제가 당신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지 않게 하소서.

6장 올바른 배우자를 만나 함께 살아가기

좋은 아내를 가진 남편은 행복하다. 그가 사는 날수가 두 배로 늘어 나리라. 훌륭한 아내는 제 남편을 즐겁게 하고 그 남편은 평화롭게 수를 다하리라. 좋은 아내는 큰 행운이다. 주님을 경외하는 이들에게 그런 아내는 행운으로 주어지리라. 그 남편은 부유하든 가난하든 마음이 즐겁고 얼굴은 언제나 활기가 넘친다.

-집회 26,1-4

배우자의 점수

자신과 잘 맞는 여성을 찾는데 열과 성을 다하던 젊은 남자가 있었습니다. 마침내 이 남자는 한 여자를 찾아내었고 평소 친근하게 알고 지내던 본당의 나이 많은 주임신부님에게 달려갔지요. “신부님, 드디어 꿈에 그리던 여자를 찾았어요. 그녀는 아주 부유한 집안 출신이에요.” 신부님은 아무런 말도 없이 펜을 들고 종이에다가 아주 크게 0을 썼습니다. 젊은이는 다시 말했습니다. “그녀는 아주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신부님은 이번에도 0을 썼습니다. “아주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났고요.” 또 다시 0이 써졌습니다. “직장도 좋고 월급도 많이 받습니다.” 다시금 0이 하나 더 추가되었지요. “아주 사교적인 사람이에요.” 0이 또 추가되었습니다. “교육도 잘 맞았고요.” 0이 하나 더 추가되었습니다. “그녀 집안에 신부님만 3명이나 있어요.” 하지만 또 0이 추가되었습니다. 이제 젊은이는 심란해졌습니다. 신부님이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기쁜 내

색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신부님이 침묵하며 무언가를 쓰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지도 못했지요. 신부님의 관심을 더 끌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그 여자에 대한 정보를 하나 더 말했습니다. “그녀는 가톨릭 신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부님은 0을 하나 더 추가할 뿐이었지요. 잔뜩 실망한 젊은이는 집으로 돌아가려고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신부님, 신부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제가 아내로 맞이하려는 여자가 그토록 거룩하고 하느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인데 말이에요.” 이 말을 듣자마자 신부님은 재빨리 이미 써놓았던 8개의 0 제일 앞에 크게 ‘1’이라는 숫자를 썼습니다. 그렇게 100,000,000이라는 숫자를 완성한 신부님은 자리를 박차고 그 숫자가 적힌 종이를 젊은이에게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애야, 어서 가서 오늘이라도 당장 그 여인과 결혼을 하거라! 이 여인은 억만금보다 훨씬 가치 있는 사람이다!” 노신부님의 반응을 보고 젊은이는 신부님이 말하고자 하는 것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지요. 혼인의 거룩함과 하느님에 대한 두려움이 평화롭고 행복한 결혼생활을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수표장을 확인하세요

제 남동생이 저에게 바오로와 바울리나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은 암초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10여년의 결혼생활로 이제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침내 두 사람은 이혼을 결심했지요. 바오로는 원만한 이혼을 위해 재산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오래된 수표장을 찾게 되었지요. 첫 번째 수표를 바라보다가, 바오로는 다음 수표로 넘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전화기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바울리나의 핸드폰에 녹음을 남겼습니다. “모든 걸 던져버리기에는 서로에게 투자한 것들 너무 많은 것 같아. 다시 손을 잡고 모든 걸 새로 시작할 순 없을까?” 그 사이에 바울리나 역시 결심한 것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실수가 무엇이었는지 알 수 있는 빛과 실패를 극복할 수 있는 힘과 은총을 베풀어주시길 하느님께 기도하고 있었지요. 그리고 나서 바울리나는 남편에게 전해줄 쪽지를 한 장 썼습니다:

“바오로에게

당신에게 약속할 것이 몇 가지 있어요.

1. 당신을 절대 당황하게 만들지 않겠어요.

2. 당신이 이야기를 하면 주의를 기울일게요.
3. 당신이 신문을 읽고 있을 때면 라디오 소리를 줄일게요.
4. 전화통화는 5분 이내로 마칠게요.
5. 당신과 저의 친구들을 비교하지 않겠어요.
6. 끝난 문제를 가지고 투덜대던 습관을 버릴게요.
7. 당신을 기다리게 하지 않을게요.

당신의 바올리나가

‘이상적인’ 배우자를 찾고 있나요?

“어떻게 해서 결혼을 이토록 미루게 되었나요?” “음, 저는 이상적인 여성을 찾고 있는 중이었거든요.” “그 여성과 무슨 일이 있었나요?” “그 여자도 ‘이상적인’ 남자를 찾고 있더라고요.” 실제로 이상적인 배우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상상 속에서나 존재하는 이상적인 아내와 어서 빨리 헤어지십시오.

돈, 지위, 명예, 권력, 계급을 위한 결혼은 해선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배우자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의 내면을 변화시켜서 이혼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혼인 생활의 성공여부는 올바른 배우자를 찾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 또한 올바른 배우자가 되는 것에도 달려있습니다.

한 주에 5만원을 받고 집안일을 하는 것은 가정부의 일입니다. 하지만 그 어떤 보수도 없이 집안일을 하는 것이 바로 결혼생활이지요. 모든 미혼 여성들에게 드리는 말입니다. 경험의 목소리이니 귀를 기울이십시오: 아름다운 여성은 남성을 유혹할 수 있습니다. 현명한 여성은 남성에게 관심을 일으키지요. 선한 여성은 남성에게 영감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감하고 동정할 줄 아는 여성은 그 남자를 얻을 수 있지요. 만약 여자가 결혼생활에 대하여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남편일 것입니다. 결혼 전에는 남자가 말하고 여자는 그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결혼 후에는 여자가 말을 하고 남자는 듣고만 있지요. 시간이 더 지나면 서로 목소리를 높여 이야기하려고 하고 그것을 듣는 것은 이웃의 몫입니다.

“만약 여자가 결혼생활에 대하여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남편일 것입니다.”

토빗기

우리는 성경이 제공하는 말씀 중 토빗기에서 혼인에 대한 가장 유익한 말씀을 얻습니다. 토빗기의 시작은 아주 슬프지만 그 끝은 해피엔딩이지요. 토빗기는 토빗이라 불리던 한 남자의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토빗은 성령의 영감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는 아주 가난했지만 모든 것에서 하느님을 첫 번째로 여겼습니다. 토빗은 선하고 올곧으며 하느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지요. 또한 같은 민족 사람들에게 많은 자선을 베풀었습니다. 안나라는 여인과 결혼을 했고 토비아라는 이름의 아들도 두었습니다.

왕이 하느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그들을 죽이게 되자 토빗은 비밀리에 죽은 동족 사람들의 몸을 운반해서 매장해주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토빗을 마땅치 않게 여겨서 왕에게 이를 보고했습니다. 왕은 토빗을 찾아 사형에 처하려고 했지요. 토빗은 두려운 나머지 도망을 쳤습니다. 왕은 토빗의 모든 재산을 몰수해버렸습니다. 하지만 토빗의 아내와 아들에게는 손을 대지 않았지요. 시간이 지나서 토빗은 니네베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고 아내와 아들과 재회하게 되었습니다. 유배에서 돌아 온 뒤로도 토빗은 선한 마음으로 자신이 할 수 있는 한 동족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축제일이 되어 토빗이 집으로 돌아온 것을 축하하는 잔칫상이 마련되었는데, 아들이 들어와서는 같은 민족 사람이 살해를 당해서 장터에 버려져 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토빗은 즉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잔칫상을 뒤로 한 채 장터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동족의 시신을 가져다 자신의 집에 있는 방에 두었고 해가 지고 난 뒤에 시신을 묻어주었습니다. 이웃들은 그런 토빗을 보고는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저 사람이 이제는 두렵지가 않은 모양이지? 전에도 저런 일 때문에 사형감으로 수배되어 달아난 적이 있는데, 또 저렇게 죽은 이들을 묻는구먼”(토빗 2,8). 시신을 묻어주고 토빗은 자신의 집 마당의 담벼락에 누워 잠을 청했습니다. 무더웠기에 얼굴을 덮지 않고 잠들었고, 참새가 그의 머리맡에 앉아 똥을 싸는데 그것이 토빗의 눈 위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앞을 보지 못하게 되었지요. 치료를 받기 위해 여러 의사를 찾았지만 시력은 더 나빠지기만 했습니다. 결국 눈이 완전히 멀게 되었지요. 토빗은 네 해 동안이나 시력을 잃은 채 지냈습니다.

시력을 잃고 지내는 동안 토빗은 가족들에게 그 무엇도 제공해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내인 안나가 일을 해야 했습니다. 안나는 남편 토빗과 아들 토비야를 위해 여자들이 하는 일에 품을 팔았습니다.

부자일 때나 가난할 때나,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성당에서 혼인을 하는 신랑과 신부는 하느님 앞에서 서약을 주고받습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죽음이 두 사람을 갈라놓을 때까지 함께 하겠다고 서약을 하지요. 보통은 남편이 양식을 벌여 와야 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남편이 한 가지 또는 여러 가지 이유로 양식을 벌여오지 못한다면, 아내는 사랑과 겸손으로 남편이 다시 일어설 때까지 양식을 벌여 와야 하지요. 아내는 남편이 가족을 위한 일용한 약식을 벌여오지 못한다고 해서 결코 남편을 깔보거나 등한시해서는 안 됩니다. 많은 여인들이 저를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신부님, 저를 위해 기도를 해주세요. 가족 중에서 일하는 사람이 저 혼자뿐입니다.” 많은 커플들이 망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자신들이 짊어진 것은 무엇이든 관대한 마음으로 함께 나누어야 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나는 마음이 몹시 괴로워 탄식하며 울었다. 그리고 탄식 속에서 기도하기 시작하였다. “주님, 당신께서는 의로우십니다. 당신께서 하신 일은 모두 의롭고 당신의 길은 다 자비와 진리입니다. 당신은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주님, 저를 기억하시고 저를 살펴보아 주소서. 저의 죄로, 저와 제 조상들이 알지 못하고 저지른 잘못으로 저를 벌하지 마소서. 그들은 당신께 죄를 짓고 당신의 계명들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신께서는 저희를 약탈과 유배와 죽음에 넘기시고 당신께서 저희를 흠으신 모든 민족들에게 이야깃거리와 조롱거리와 우썃거리로 넘기셨습니다. 저의 죄에 따라 저를 다루실 적에 내리신 당신의 그 많은 판결들은 다 참되십니다. 저희는 당신의 계명들을 지키지 않고 당신 앞에서 참되게 걷지 않았습니다. 이제 당신께서 좋으실 대로 저를 다루시고 명령을 내리시어 제 목숨을 앗아 가게 하소서. 그리하여 제가 이 땅에서 벗어나 흠이 되게 하소서. 저에게는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습니다. 제가 당치 않은 모욕의 말을 들어야 하고 슬픔이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주님, 명령을 내리시어 제가 이 곤궁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제가 이곳에서 벗어나 영원

한 곳으로 들게 하소서. 주님, 저에게서 당신의 얼굴을 돌리지 마소서. 살아서 많은 곤궁을 겪고 모욕의 말을 듣는 것보다 죽는 것이 저에게는 더 낫습니다.”

-토빗 3.1-6

위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중요한 것은 아내가 가족을 위한 양식을 벌어들여도 그것이 가장으로서의 남편의 역할을 축소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아내는 남편이 양식을 벌어들일 때와 같은 존중을 남편에게 해주어야 합니다.

배우자에게 어떠한 방식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까?

제가 인도의 피정센터에 있을 때였습니다. 하루는 한 부부가 자녀와 함께 저를 찾아왔습니다. 아내는 말했지요. “신부님, 저희 부부는 이제 이혼하게 될 것 같으니 제발 저희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남편이라는 인간이 매일같이 술만 마시고 가족은 전혀 돌보지 않습니다. 제가 그토록 수많은 청혼을 받았었는데, 결국은 이런 원숭이 같은 인간이랑 결혼을 해버렸지 뭐예요!” 남편은 창피를 당했고 얼굴을 붉히며 부끄러워했습니다. 바오로 사도가 지적했듯이, 우리는 말을 할 때 단어를 잘 선택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말은 언제나 정당고 또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아야 합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은 누구에게나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알아야 합니다”(골로 4.6). 토빗의 아내 안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토빗이 새끼 염소를 주인에게 되돌려주라고 하자 안나의 본성이 드러났던 것이지요. “제가 직장에서 선물을 들고 오면 당신은 그냥 입을 다물어야 해요. 그냥 조용히 음식이나 드세요.” 가족을 위해 양식을 벌어들이는 많은 아내들이 이처럼 행동하며 남편을 하찮은 존재로 여기고 있습니다.

당신과 당신의 배우자

삶의 배우자를 얻기 위한 과정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험난한 여정이 될 수 있습니다. 같은 사람과 여생을 함께 살아가는 것 또한 또 다른 힘겨운 일입니다. 한 젊은 남자가 저를 찾아와서 말했습니다. “신부님, 저를 위해 기도를 해주세요. 저는 배우자를 찾기 위해 마흔 명의 여성을 만났지만 그 누구도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한 가지씩 결점을 가지고 있어요. 저 자신이 좋은 신랑감이라고 생각하는데도, 배우자를 찾는 일이 쉽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첫 번째로 만났던 여자는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말을 걸어도 대답을 하지 않았죠.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녀는 병어리였습니다. 두 번째 여자는 벽에 기대어 서있었어요. 그녀에게 이쪽으로 와서 제 옆에 서라고 했지만 여자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절름발이였기 때문이었어요. 제가 만났던 또 다른 여성은 피부가 너무 어두웠어요. 어떤 여성은 너무 키가 작고 뚱뚱해서 걸어가는 모습이 마치 ‘굴러가는 공’같았어요.” 이 젊은이는 자신이 만났던 여성들에 대해 너무 많은 불만과 불평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다음부터 미래의 배우자를 만나러 나갈 때면, 반드시 거울을 챙기세요. 만나는 여성에게 불만을 가지게 될 때마다 거울을 보면서 자신의 얼굴을 오래도록 들여다보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 까다롭다는 점과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다는 사실을 망각한 채 살아가고 있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우리 모두는 약점을 적어도 한가지씩은 가지고 있지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늘에서 천사로 살지 않고 지상에서 비틀거리는 인간으로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주님을 결혼생활 안으로 초대해서 함께 살아간다는 것

결혼 이후의 삶이 결혼 이전의 삶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한 여인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신부님, 술주정뱅이와 결혼하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희생적인 삶인 것 같아요. 제 남편은 24시간 동안 술만 마신답니다. 남편에게선 항상 고약한 술 냄새가 풍겨요. 하지만 저는 제 남편이기에 그를 사랑하고 돌보아야 하죠.” 우리 안에 있는 사랑과 인내가 시험에 드는 때는 결혼 이후입니다. 이 시험은 어렵고 견디기 힘들지요. 하지만 예수님께서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에게는 불가능하지만 하느님께는 그렇지 않다. 하느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마르 10,27). 혼인성사를 통해 결혼한 부부는 하느님의 보호와 은총을 경험합니다. 물론 이들에게도 어려움은 찾아오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결혼 생활 안에 하느님께서도 함께 계시기에, 하느님께서서는 부부가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필요한 도움을, 곧 인간적인 것을 넘어서는 도움을 주실 것입니다. 제가 사제로 서품되던 날, 제 부모님은 금혼식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살아오면서 부모님이 서로 싸우고 오해하는 모습을 참 많이 봐왔습니다. 그럼에도 두 분은 여전히 서로를 사랑하고 지금까지 꼭 붙어 다니시지요.

불운한 여인의 울음소리

토빛이 슬픔과 탄식으로 하느님께 기도를 드리던 바로 그날에, 라구엘의 딸

사라는 아버지의 여종으로부터 모욕을 받고 있었습니다. 사라는 일곱 번이나 결혼을 했지만, 첫날 밤 부부가 합방을 하기 전에 아스모대오스라 불리는 악귀에 의해 그녀의 남편들이 차례로 모두 죽어버렸습니다. 여종은 사라를 남편들을 죽인 범인이라 말하면서 그녀에게 남편들을 따라(죽은 이들의 땅으로) 가서 그녀의 아들딸을 보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지요. 이러한 말들과 모욕들이 사라에게 어마어마한 상처가 되었음은 명백합니다. 사라는 목을 매어 자신의 목숨을 끊을 생각으로 아버지의 방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사라는 아버지에게 모욕이 되는 일은 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대신 사라는 기도 안에서 주님께 울부짖기로 결심했습니다. 사라가 기도하고 있던 바로 그 시각에 토빗 또한 기도를 하고 있었지요. 두 사람의 기도는 영광스러운 하느님 앞에 도달했고, 전능하신 하느님께서서는 대천사 라파엘을 파견하시어 두 사람을 치유하게 하셨습니다. 대천사 라파엘은 토빗의 눈을 뜨게 하고, 사라에게 토빗의 아들 토비야를 남편으로 짝지어 주어야 했으며, 사라에게서 아스모대오스라는 가장 나쁜 악귀를 쫓아내야 하는 임무가 주어졌습니다: “사라를 아내로 맞아들이고 싶어 하는 그 누구보다도 토비야가 사라를 차지할 자격을 갖추고 있었던 것이다”(토빗 3,17); “두려워하지 마시오. 그 여자는 세상이 생기기 전부터 그대의 아내로 정해졌소. 그대가 이렇게 그 여자를 구해 내면 그 여자는 그대를 따라나설 것이오”(토빗 6,18).

주님께서서는 여러분의 배우자를 알고 계십니다

전능하신 하느님께서서는 모든 개개인의 필요를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직 결혼을 하지 못해서 배우자를 찾고 있다는 사실을 하느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결혼도 못하고 불행하게 되는 것은 하느님의 계획이 아닙니다. 당신의 계획이 우리가 결혼을 하는 것이라면, 분명 하느님께서서는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 자리하던 그 순간에 이미 우리의 배우자를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이고 기도를 통해 하느님께서서는 미리 예정된 배우자들을 결합시키시기 위해 천사를 보내실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배우듯, 그 누구보다도 토비야가 사라를 차지할 자격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이미 우리를 위해 배우자를 정해놓으셨습니다. 배우자를 찾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하는 유일한 일은 바로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나머지 것들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계획을 만들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당신은 저의 하느님 당신의 뜻 따르도록 저를 가르치소서. 당신의 선하신 영이 저를 바른길로 인도하게 하소서”(시편 143,10).

“우리가 결혼도 못하고 불행하게 되는 것은
하느님의 계획이 아닙니다.”

제 배우자는 언제쯤 저에게 오게 될까요?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삶의 배우자를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합니까? 제 나이는 점점 들어만 갑니다. 제 결혼은 왜 이렇게 늦어만 가는 것인가요?” 어느 부부가 딸을 데리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딸이 배우자를 찾으려하지 않는 것이 문제였고 부부는 딸의 결혼이 성사되도록 저에게 기도를 청했지요. 기도 중에 하느님께서 딸이 부모에게 신경질적이고 때로는 폭력적으로 반응한다는 사실을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딸아이에게 결혼을 하지 않은 채 머무르는 것은 하느님의 계획이 아님을 알려주었지요. 하느님께서 분명 이 아이가 결혼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하지만 때로 하느님께서 결혼의 시기를 늦추시지요. 부정적이고 상처 입은 감정들을 치유할 기회와 시간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이는 우리의 행위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부정적이고 상처입은 감정으로 인한 행위를 결혼생활에 끌어들이지 않기 위해서이지요. 그렇지 않으면 온전히 다른 배경을 가진 누군가와 함께 지낸다는 것이 엄청난 고통으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해주는 말

토빗은 스스로 목숨을 끊을 생각을 하고 있었기에 자신의 장례를 위한 비용이 필요했습니다. 먼 이국땅에 있는 누군가가 토빗에게 빚을 졌었습니다. 그래서 토빗은 자신의 아들 토비야를 보내기로 했지요. 아들이 늦어져 자신이 죽은 후에 돌아오게 될 것을 염려해, 토빗은 토비야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토빗은 아들에게 어머니를 공경하고 살아가는 내내 결코 어머니를 저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하지요. 토빗은 아주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아내가 자신을 모욕하는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토빗은 아내에게 어머니를 존중하고 잘 돌봐드릴 것을 명합니다. 이 풍요로운 조언은 토빗기 4장에 나옵니다. 4장 12절을 보면, 토빗은 토비야에게 어떠한 종류의 간음도 저지르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조언합니다. 혼인 생활의 잠자리를 더럽히는 어떤 행위도 피하라는 것은 결혼을 준비하는 모든 이들이 가슴에 새겨야 할 조언입니다. “혼인은 모든 사람에게서 존중되어야 하고, 부부의 잠자리는 더럽혀지지 말아야 합니다. 불

를을 저지르는 자와 간음하는 자를 하느님께서서는 심판하실 것입니다”(히브 13,4). 주님께서서는 결혼 이전의 어떠한 성적인 결합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오직 혼인 성사를 통해 함께 살아갈 것을 서약한 남편과 아내 사이의 관계만 허락하시지요. 거룩한 혼인 생활 밖에서 일어나는 어떠한 종류의 성적 접촉들은 성령의 궁전인 우리 몸을 더럽힙니다. 몸을 더럽힌 후에 거룩한 혼인생활을 시작하게 되면 혼인성사와 함께 흘러들어오는 풍성한 은총을 놓치게 되는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토빗은 토비아에게 하느님을 경외하고 모든 죄악을 피하며 하느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일을 하면, 큰 재산을 얻게 될 것이라 말해줍니다. 이는 이미 결혼을 했거나 결혼을 준비하는 이들이 새겨들어야 할 가장 중요한 조언입니다.

태워서 잊어버리십시오.

결혼을 계획하고 있는 이들이 결혼 전에 과거의 실수나 잘못을 묻어버리고, 또 이미 결혼 한 이들이 문제를 마주했을 때 서로를 용서하고 과거를 묻으며 화해하는 법을 배우는 것은 중요합니다. 대천사 라파엘 또한 토비아에게 같은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라파엘은 토비아에게 일전에 잡았던 물고기의 간과 염통을 향로의 잿불에 올려 태우라고 말했습니다. 곧바로 고약한 냄새가 퍼지고 악귀는 도망가서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지요. 결혼한 부부 역시 자신들의 과거를 불에 태워버려야 하고 결혼을 준비하는 이들은 혼인성사 전에 고해성사를 보아야 합니다. 한 여인이 저를 찾아와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여인이 결혼 전에 신앙의 삶을 살지 않고 여러 남자들과 수많은 관계를 가졌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인은 이러한 사실을 결코 남편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여인의 남편이 선한 사람이었고 여인을 철썩 같이 믿고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남편의 선함이 아내에게 어마어마한 죄의식을 느끼게 만들었습니다. 여인은 남편에게 자신의 과거를 털어놓아야 한다고 생각했지요. 저는 여인에게 과거를 고백하려 마음먹은 것은 잘한 일이지만, 오직 주님께서 성별하신 사람에게 고백을 해야 한다고 말해주었습니다. 다시 말해, 남편이 아닌 사제에게 과거의 죄를 고백하라고 조언을 해주었던 것이지요. 그것이 결혼생활을 무너뜨리는 중대한 문제가 될 수 있다면, 부부는 서로에게 자신들의 과거를 고백하지 않아야 합니다. “예전의 일들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의 일들을 생각하지 마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하려 한다. 이미 드러나고 있는데 너희는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정녕 나는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리라”(이사 43,18). 이 말씀이 바로 주님께서 결혼을 준비하는 이들에게 주시는 충고와 약속입니다. 제대 앞에서 서약에 동의한 커플은 그 순간 완전히 과거를 잊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부부

가 결혼 전에 스스로 외적으로 준비할 뿐만 아니라 영성적으로 준비를 해서 진심어린 고해성사에 참여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고해성사가 끝나면, 과거는 온전히 매장되어야 하지요.

**“남편이 아닌 사제에게 과거의 죄를 고백하라고
조언을 해주었던 것이지요.
그것이 결혼생활을 무너뜨리는 중대한 문제가 될 수 있다면,
부부는 서로에게 자신들의 과거를
고백하지 않아야 합니다.”**

남편을 사랑하지 않는 여인

“신부님, 저는 남편이 너무 너무 싫어요.”라고 말하며 한 여인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여인은 말을 이었지요. “제 남편 외에 다른 어떤 남자들과도 문제없이 지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과는 도저히 안 되겠어요! 어떻게 해도 남편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 없이 어떻게 결혼생활을 이어갈 수 있겠어요. 신부님, 저는 이혼을 원해요!” 저는 여인에게 말했습니다. “문제는 남편이 아닌 자매님에게 있어 보이는군요. 결혼 전에 육체적 관계를 가지신 적이 있으신가요?” 여인은 자신이 결혼 전에 수많은 관계를 가졌으며 낙태를 한 적도 있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혼인은 모든 사람에게서 존중되어야 하고, 부부의 잠자리는 더럽혀지지 말아야 합니다. 불륜을 저지르는 자와 간음하는 자를 하느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히브 13,4). 혼인은 거룩한 성사입니다. 죄의 상태에서 혼인하게 되면, 주님의 보호와 은총을 잃어버리고는 악마에게 공격당하기 쉬운 상태가 됩니다. 그렇기에 혼인생활에 들어가기 전에 진실 된 고해성사를 보고 나서 과거의 죄악을 땅에 확실히 묻어버리십시오.

무슨 지파에 속해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토비아는 아버지가 자신을 보내는 곳의 지리를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자신을 인도해줄 사람을 찾겠다고 말씀드렸지요. 토비아는 라파엘에게 함께 동행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대천사 라파엘은 기뻐하며 토비아에게 동행을 약속했습니다. 토비아는 동행할 사람을 찾았다는 소식을 아버지에게 가장 먼저 알려야 했습니다.

토빗은 아들과 함께 동행 할 사람의 지파에 특히 관심을 보였습니다. 심지어 아들을 여행보내기 전에 해주었던 조언에서도 토빗은 아들에게 아버지의 부족 밖의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이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토빗은 아들에게 다음과 같이 조언을 했습니다:

얘야, 어떠한 간음도 저지르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무엇보다 먼저 네 조상의 후손들 가운데에서 아내를 맞아들이고, 네 아버지 부족 밖의 낯선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이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우리는 예언자들의 자손이다. 얘야, 우리의 옛 조상 노아, 아브라함, 이사악, 야곱을 생각해 보아라. 그분들은 모두 자기 친족 가운데에서 부인을 맞아들여, 자녀들로 복을 받으셨다. 이제 그 후손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토빗 4,12

토비야가 대천사 라파엘에 대해 토빗에게 이야기 했을 때(주님의 천사는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었기에 라파엘이 주님께서 자신들에게 보내신 천사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토빗은 “그의 집안이 어떠한고 그가 무슨 지파 출신이며, 너와 함께 갈 만큼 믿을 수 있는 사람인지 알아보아야겠다”(토빗 5,9)라고 말했습니다. 라파엘이 들어오자, 토빗은 그에게 어느 가문의 어느 지파 출신인지를 물었고 라파엘은 답했습니다. “지파는 알아서 무엇 하시겠습니까?”(토빗 5,12)이는 우리 모두에게 아주 중요한 대답입니다. 우리들 중 많은 이가 이웃의 선함을 보지 못하도록 하는 부족적, 문화적, 전통적 믿음으로 꽉 막혀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한 지파, 곧 그리스도의 지파에 속해있고 우리 모두는 하나입니다. 바오로 사도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기에는 그리스인도 유대인도, 할례 받은 이도 할례 받지 않은 이도, 야만인도, 스키티아인도, 종도, 자유인도 없습니다.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이며 모든 것 안에 계십니다”(골로 3,11).

비 신앙인과의 결혼

신앙인이 비 신앙인 또는 냉담교우와 만나 결혼을 하고자한다면, 하느님께 끊임없이 기도하며 하느님의 도움으로 비 신앙인과 냉담교우를 신앙으로 이끄는 노력을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이러한 노력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면,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서로에게 유익하지요.

한 홀어머니가 딸을 데리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딸은 밤마다 비명을 지르며 난리를 피워댔습니다. 딸아이의 아버지는 비신앙인이었지요. 아버지는 하느님께 대한 믿음이 전혀 없었고 하느님에 관해서는 그 어떤 말도 하지 않았습다. 아내가 하느님께 관련된 말을 꺼내기만 하면 부부는 심하게 싸웠습니다. 남편은 하느님과 관련된 그 어떤 것도 행하기 싫어했습니다. 저는 아이의 어머니에게 비 신앙인과의 잠자리로 인해 남편의 죄에 물들게 되었음을 말해주었습니다. “그와 같이 죄인을 가까이한 자와 그의 죄악에 끼어든 자를 아무도 동정하지 않으리라”(집회 12,14).

어느 여학생이 저에게 질문했습니다. “신앙인이나 선한 사람만을 선택해야 한다면, 잃어버린 이들은 누가 도와줘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서는 죄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이기에 비틀거리는 이들을 도와주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지요. 여학생의 대답은 “예수님 안에 머무르고 있다면 잃어버린 이들을 도와줄 수 있다”입니다. 하느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용기를 줍니다: “하느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를 기다리십시오. 의심하는 이들에게 자비를 베푸십시오”(유다 1,21-22). 우리는 나약한 존재들이지요. 죄에서 허덕이는 이들을 도와줄 수는 있지만 그것이 자신의 힘을 넘어서야 한다면, 한발 뒤로 물러서서 겸손한 마음으로 그 사람을 하느님께 맡겨 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작품입니다. 우리는 선행을 하도록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창조되었습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우리가 선행을 하며 살아가도록 그 선행을 미리 준비하셨습니다.”(에페 2,10) 우리는 주님께서 미리 준비해놓으신 선행을 하며 살아가도록 부르심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 줄다리기 시합을 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두 팀이 나와서 경기를 하겠지요. 남자들이 한쪽에 서고 여자들이 반대쪽에 섭니다. 여자 쪽이 신앙인이고 남자 쪽이 비신앙인이고요. 여자들은 남자들을 자신들 쪽으로 끌기 위해 모든 힘을 다 쏟아야 합니다. 하지만 남자쪽이 더 강해서 여자들을 자신들 쪽으로 끌어당기게 되면, 여자들은 재빨리 줄을 놓아두고 달아나야 합니다. 코린토 신자들에게 보낸 서간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나쁜 교제는 좋은 관습을 망칩니다”(1코린 15,33).

토비야는 아버지의 축복을 받고 나서 대천사 라파엘과 함께 길을 떠났습니다. 토비야가 길을 떠날 때, 어머니 안나는 눈물을 흘리며 토빗에게 말했지요:

“어찌자고 내 아이를 보내십니까? 우리 앞에서 들고 나고 하는 이 아이는 우리 손에 들린 지팡이나 마찬가지로 아닙니까? 돈에 돈을 쌓지 마십시오. 그 돈일랑 우리 아이의 몸값으로 여겨 버립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살림, 우리에게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러자 토빗이 대답하였다. “걱정하지 말아요. 우리 아이는 건강한 몸으로 갔다가 건강한 몸으로 우리에게 돌아올 것이요. 이 아이가 건강한 몸으로 당신에게 돌아오는 날을 당신 눈으로 볼 것이요. 그러니 여보, 걱정하지 말고 이 사람들 때문에 염려도 하지 마시오. 선하신 천사께서 토비야와 함께 가실 터이니, 이 아이는 여행을 잘 마치고 건강한 몸으로 돌아올 것이요.” 그러자 그 여자는 울음을 그쳤다.

-토빗 5,18-6,1

자녀들의 삶에서, 부모를 위해 자녀들이 떠나야 하는 순간은 찾아옵니다. 부모들은 신중함을 잃지 않아야 하지만 또한 자녀가 배우자를 찾아 먼 곳으로 떠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대신 부모들은 토빗의 마음을 그대로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선하신 천사께서 자녀와 함께 가시고 자녀들이 여행을 잘 마치고 건강한 몸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그 믿음 말이지요. 토비야가 집에 가만히 머물러있었다면, 자신의 아내가 될 사라를 만나는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토비야가 집을 떠나는 것이 주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장인의 의무

토비야와 대천사 라파엘이 목적지에 다다르자 사라의 아버지 라구엘이 이들을 반가이 맞아주었습니다. 라구엘은 두 사람을 위해 성대한 잔치를 베풀었죠. 식사를 마치고 토비야는 사라를 아내로 주십사고 청합니다. 라구엘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하며 고귀한 행위를 하게 됩니다. 바로 사라의 불운이라는 진실을 토비야에게 알리는 것이지요. 토비야는 진실을 듣고도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만약 우리가 토비야의 입장이었다면, 잠시 실례하겠다는 말과 함께 부리나케 줄행랑을 쳤을 것입니다. 토비야는 대천사 라파엘과 함께 있었기에 도망치지 않았지요. 우리는 반드시 여생을 함께 보내고자 하는 사람에게 스스로에 대해 진실을 말해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드러내고자 하는 진실의 범위가 헛갈릴 때는 수호천사께서 우리 대신 말씀 하시도록 청해야 하고요. 전능하신 하느님께서서는 우리들 각자의 수호천사에게 우리를 당신께 더욱 가까이 인도하는 직무를 맡기셨습니다. “주님을 찬미하여라, 주님의 천사들이 그분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분 말씀을 실천하는 힘센 용사들아”(시편 103,20).

사라와 결혼한 토비야는 장인과 장모를 존경하는 마음으로 잘 모셨습니다. “그는 늙은 처부모를 존경하는 마음으로 잘 모시다가, 메디아의 엑바타나에 그들을 문었다. 그리하여 그는 자기 아버지 토빗만이 아니라 라구엘의 재산까지 물려받았다.”(토빗 14,13) 토비야는 진실로 복을 받게 되었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처부모를 존경하는 마음으로 모시길 원하십니다. 또한 이는 토비야가 그랬듯, 우리의 의무이며, 이를 잘 수행했을 때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나이차가 너무 많이 나는 사람과는 결혼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주님께서는 여자가 이미 결혼한 남자와 혼인하는 것을 허락지 않으십니다. 젊은 여인이 노년의 남자와 결혼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33세의 여성이 68세의 남자와 결혼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여성은 말했습니다. “저는 그이가 아프고 나약해서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결혼을 생각했지요. 이게 잘못된 생각인가요?” 이는 분명 잘못된 생각입니다. 결혼은 일방통행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숙한 도움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결혼은 신체건강하고 비슷한 나이 대와 문화를 가진 사람 사이에서 이루어져야 하지요. 여인이 이 노인과 결혼을 생각했던 이유는 그가 부자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여인은 남편이 죽으면 자신은 부자가 되어 다른 멋진 남자와 결혼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결혼은 연예사업이 아닙니다. 일생의 서약입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은총 없이는 그 누구도 성공할 수 없는 것이 결혼생활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모든 사람이 이 말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허락된 이들만 받아들일 수 있다’”(마태 19,11). 예수님을 떠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여성은 말했습니다.
‘저는 그이가 아프고 나약해서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결혼을 생각했지요.
이게 잘못된 생각인가요?’”

여전히 결혼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많은 젊은이들이 결혼을 가로막는 다양한 장애물을 마주합니다. 이 장애물 들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고 젊은이들은 기도 안에서 이를 식별하고 주님께 장애물을 없애 주십사고 청해야 하지요. 많은 경우, 장애물들은 가족으로부터 기 인합니다. 여기서, 저는 가족이 원인이 되는 몇 가지 예시들을 제시합니다. 부모님과 친척의 죄가 주 예수님의 고귀한 피로 씻기도록 기도한다면 장애물이 제거되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예시들이 장애물의 전부가 아니지만 저는 여러분에게 장애물들 중 일부만이라도 보여드리려고 하는 것이지요. 모든 장애 물들은 기도의 힘으로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 부모님이 일부다처의 관계에 있는 경우
- 혼외정사로 인해 태어났고 홀어머니 아래서 성장한 경우
- 부모님이 별거했거나 이혼한 경우
- 어린 시절에 부모님의 이혼을 원했던 경우
- 어머니가 의도적으로 이미 혼인을 한 남자와 결혼을 한 경우
- 아버지가 가정 밖에서 또 다른 가정을 꾸린 경우
- 가족 안에 근친상간이 있었던 경우
- 부모 중 한 명이 어린 시절에 자신을 버린 경우
- 아직 세례를 받지 않은 경우
- 성체를 합당하지 않게 받아 모신 경우

모든 가정의 여왕이신 동정녀 마리아께 기도하십시오

우리 가정의 삶과 행복을 가장 크게 걱정하는 이들 중 한 분이 복되신 동정녀 마리아입니다. 이는 요한복음 2장 1-11절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지자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없구나.’ 하였다. 예수님께서 서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여인이시여, 저에게 무엇을 바라십니까? 아직 저 의 때가 오지 않았습시다.’ 그분의 어머니는 일꾼들에게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하고 말하였다”(요한 2,4-5). 동정녀이시며 여인 중에 가장 복되신 마리아께서는 우리의 행복을 걱정하시며, 카나의 혼인잔치에서 그러하셨듯이 우리를 위해 하느님께 중재를 청하실 준비가 되어있으십니다. 매일의 삶 안에서 성모님의 중재를 얻고자 한다면, 적어도 하루에 묵주기도 5단은 바 치십시오. 복되신 동정녀 마리아께서 당신의 거룩한 아드님으로 하여금 우리의 울음소리를 듣고 우리가 미리 정해진 배우자를 얻게끔 도와주도록 청하고 계

심을 금방 깨닫게 될 것입니다.

7장 재정적 어려움

우리는 재정적인 어려움에 대해서는 자주 언급하지만 영적인 어려움에 대해서는 간과합니다. 야고보 서간은 “누구든지 율법을 전부 지키다가 한 조목이라도 어기면, 율법 전체를 어기는 것이 됩니다”(야고 2,10)라고 말합니다. 모든 부유함의 주인이신 주님께 영적인 빛을 갖게 되면 그분께서는 하늘에 있는 당신의 보물창고의 문을 활짝 여실 것입니다. “주님의 선물은 경건한 이들 곁에 머물고 그분의 호의는 항구하게 성공으로 이끈다”(집회 11,17). 뉘우치지 않고 해결되지도 않은 다양한 죄들을 통해 우리는 영적인 빛을 쌓게 됩니다.

아예 일자리를 구하지 않거나, 오래도록 일자리를 구하려 노력했지만 실패하고, 그것을 구하더라도 일을 시작하기도 전에 그만두게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직업은 있지만 자신의 임금에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지요. 월급을 받아도 다음 날이면 빛을 갚는데 월급의 대부분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월급날까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다시 돈을 빌려야하지요. 다음 월급날이 되면 다시금 빌렸던 돈을 갚아야 합니다. 악순환의 고리에 갇혀버리는 것입니다. 월급을 받아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나 마찬가지인 것이지요. “만군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가 살아온 길을 돌이켜 보아라.”(하까 1,5)

많은 장애와 속박들은 자신의 실수나 가계 안의 영적 빛에 한 가지 또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선하고 올바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삶에서 부유함을 즐기지 못하고, 무엇이 문제인지에 대해서도 어리둥절해 합니다. 물리적인 눈으로는 그 어떤 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눈으로 보는 것보다 훨씬 많은 것이 실제로 존재하는 법이지요. 바로 참회와 보속을 통해 우리가 갚아야 할 영적인 빛입니다.

누가 성벽을 보수할 것인가

때로 가족의 모든 짐을 짊어지는 책임이 한사람에게만 부여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주님께서서는 멸망의 구렁텅이로 향하는 가족을 구하기 위해, 가족 구성원 중에서 한 명 또는 소수의 인원을 선택하십니다. 선택된 이들은 가혹한 시련을 맞이하지만, 그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어떻게 해서든지 선을 향하고 고

통의 이유가 되는 잘못을 행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닥친 시련은 인간으로서 이겨 내지 못할 시련이 아닙니다. 하느님은 성실하십니다. 그분께서는 여러분에게 능력 이상으로 시련을 겪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시련과 함께 그것을 벗어날 길도 마련해 주십니다.

-1코린 10,13

이웃을 위하여 멸망의 성벽 틈새를 몸으로 막아선다는 것은 대단한 영광이자 특권입니다. 현세에서는 그 열매를 볼 수 없지만 미래의 후손들 안에서, 그리고 현세를 떠나 우리가 행한 일에 대한 진실 된 보상을 경험하게 될 천국에서 열매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에제키엘 예언서에서 주님께서 성벽을 막아설 수리공을 찾고 계신다는 말씀을 읽습니다:

이 땅을 멸망시키지 못하도록 성벽을 보수하며 그 성벽이 무너진 곳에 서서 나를 막는 이가 그들 가운데에 행여 있는지 내가 찾아보았지만, 찾아내지 못하였다.

-에제 22,30

우리 삶 안에 있는 주님의 계획

고난과 시련이 닥쳐와서 열심히 기도해보지만 그 어떤 돌파구도 찾을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순간에 우리는 질문을 하게 되지요. “예수님께서 정말로 나의 아픔을 알고 계시는 것일까? 그분께서는 나와 내가 가진 것들을 정말로 돌보시는걸까?” 저를 찾아와 하소연 했던 한 여인을 기억합니다. 여인은 말했습니다. “신부님, 오늘 저와 제 가족은 다 같이 죽을 겁니다!” 저는 이유를 물었고 여인은 답했습니다. “집세를 지불하지 못해서 집주인이 저와 아이들을 쫓아내었어요. 저는 돈도 없고 갈 곳도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여인에게 조금의 양식과 하느님의 말씀을 건네주었습니다.

죄인의 사업에 탄복하지 말고 주님을 신뢰하며 네 일에 전념하여라. 주님 보시기에는 가난한 이를 순식간에 부자로 만드는 것이 쉽기 때문이다.

-집회 11,21

내 딸 내 백성의 상처 때문에 내가 상처를 입었다. 나는 애도하고 공포에 사로잡혔다.

-예레 8,21

주님께서는 우리들 하나하나를 모두 행복하고 유복한 삶으로 이끌기를 원하십니다.

너희가 주 너희 하느님의 말씀을 잘 듣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분의 모든 계명을 명심하여 실천하면, 주 너희 하느님께서 땅의 모든 민족들 위에 너희를 높이 세우실 것이다. 너희가 주 너희 하느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이 모든 복이 내려 너희 위에 머무를 것이다. 너희는 성읍 안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다. 너희 몸의 소생과 너희 땅의 소출도, 새끼소와 새끼 양을 비롯한 너희 가축의 새끼들도 복을 받을 것이다. 너희의 광주리와 반죽 통도 복을 받을 것이다. 너희는 들어올 때에도 복을 받고 나갈 때에도 복을 받을 것이다. 주님께서는 너희를 거슬러 일어나는 적들이 너희 앞에서 패배하게 하실 것이다. 그들이 너희를 치러 한 길로 나왔다가, 너희 앞에서 일곱 길로 흩어져 도망칠 것이다. 주님께서 명령하시어, 너희의 곳간과 너희 손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이 넘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주 너희 하느님께서는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서 너희에게 복을 내리실 것이다. 너희가 주 너희 하느님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분의 길을 따라 걸으면, 주님께서는 너희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희를 당신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실 것이다. 그리하여 땅의 모든 민족들이 너희가 주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을 보고 너희를 두려워할 것이다. 주님께서는, 너희에게 주시겠다고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땅의 소출을 풍성하게 해 주실 것이다. 주님께서는 너희를 위하여 당신의 그 풍요로운 곳집 하늘을 여시어, 너희 땅에 때맞추어 비를 주시고 너희 손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실 것이다. 너희는 많은 민족들에게 꾸어 주기는 하여도 너희가 꾸어 주는 않을 것이다. 내가 명심하여 실천하라고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주 너희 하느님의 계명들을 너희가 듣고 따르면, 주님께서 너희를 머리가 되게 하시고 꼬리는 되지 않게 하실 것이며, 너희는 위로만 올라가고 아래로는 내려가지 않을 것이다. 또한 너희에게 명령하는

모든 말씀에서 오른쪽으로든 왼쪽으로든 벗어나서 다른 신들을 따라
가 섬기지 않으면, 그렇게 될 것이다. -신명 28,1-14

금전적인 성공을 위한 첫 번째 원칙은 순종입니다. 오직 하느님의 목소리에
성심을 다해 순종할 때에만 진정으로 삶의 풍요로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가 풍요로운 삶을 영위하는 것이 주님의 계획이지요. 하지만 주님께서 베푸시
는 재산은 우리가 죄와 악행을 미워하는 것으로부터 오게 됩니다.

죄를 지을 수 있는데도 짓지 않고 나쁜 짓을 저지를 수 있는데도 저
지르지 않는 그는 누구인가? 이 때문에 그의 재산은 확고해지고 회중
이 그의 자선을 날날이 이야기하리라.

-잡회 31,10-11

**“금전적인 성공을 위한 첫 번째 원칙은
순종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따르면, 죄를 저지를 수 있는데도 이를 참아내고 그것을 저지
르지 않는 이는 주님의 재산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부지런히 주님의 말
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가 승진하고 더 높은 임금을 받으며 일에서 성공을
이루는 것이 하느님의 계획입니다. 하지만 승진도 없고 일에서 계속 실수만 되
풀이하게 된다면 이는 우리가 주님의 목소리에 진실되이 순종하고 있지 않다는
표징인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죄를 저지를 수 있는데도
의도적으로 그것을 저지르지 않는 이는
주님의 재산을 얻게 될 것입니다.”**

물질적이고 영적인 재산 모두를 얻을 수 있는 길을 찾고 있다면, 가장 먼저
삶 속에 있는 죄를 없애버려야 합니다.

그들이 저희 하느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는 한, 불의를 미워하시는
하느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그들은 번영하였습니다. 그러
나 하느님께서 명령하신 길에서 벗어나자, 그들은 많은 전투에서 무
참히 패배하고 이국땅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들의 성전은 완전히 파괴
되고 그들의 성읍들은 적군에게 빼앗겼습니다. -유딧 5,17-18

주위 사람들이 죄를 짓더라도, 우리는 이를 따라서는 안 됩니다. 친구가 야한 동영상이나 잡지를 보고 있어도 우리는 이에 동참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것이 잘못된 일이기 때문이지요. 직장 동료가 한턱을 낸다고 해서 모든 직장동료들이 흥청망청 술을 마시더라도 우리는 이들을 따라서는 안 됩니다. 배우자가 바람을 피우게 되더라도,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말을 하며 똑같이 바람피우는 행동은 하지 말아야 하지요. “네가 원하기만 하면 계명을 지킬 수 있으니 충실하게 사는 것은 네 뜻에 달려 있다.”(집회 15,15)

주님께서는 너희를 위하여 당신의 그 풍요로운 곳집 하늘을 여시어, 너희 땅에 때맞추어 비를 주시고 너희 손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실 것이다. 너희는 많은 민족들에게 꾸어 주기는 하여도 너희가 꾸지는 않을 것이다.

-신명 28,12

하느님께서는 천국의 창고를 열어 당신의 보화들을 비처럼 내려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주님의 힘을 충분히 확신하지 않습니다. 11년 동안 일자리를 얻지 못한 여인이 기도를 청하러 찾아왔습니다. 저는 여인에게 한 달 동안 읽으며 기도할 수 있는 하느님의 말씀을 주었지요. 한 달이 지나고 여인은 저를 다시 찾아와서는 ‘숙제’를 끝마쳤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여인에게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를 물었습니다. 여인은 대답했지요. “저는 이제 한 달 전보다는 아주 조금 더 행복해진 것 같아요. 일자리를 얻긴 얻었는데 비정규직이라 걱정이 되긴 해요. 정규직을 얻게 될 줄 알았거든요.” 저는 여인에게 말했습니다. “자매님은 11년 동안 직업이 없었습니다. 이제 하느님께서 비정규직으로 복을 내려주시는군요. 같은 하느님께서 분명 정규직으로 복을 내려주실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자매님이 진실로 그분께 믿음을 둔다면 말이지요.” “네가 믿으면 하느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요한 11,40)라는 말씀을 기억하며, 당신의 사람들이 행복해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미와 흠숭을 드리십시오. “당신 종의 평화를 좋아하시는 주님께서는 위대하시다!”(시편 35,27). 저는 여인에게 질문했습니다. “하느님께서 베풀어주신 비정규직에 대해 감사는 드리셨나요?” 여인은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사실 정규직을 얻게 되면 감사드리려 했어요.” 일주일 뒤에 여인은 흥분을 감추지 못한 채 돌아와 말했습니다. “신부님, 제가 정규직이 되었답니다. 사장님이 저를 불러서 제 업무가 너무 마음에 든다며 정규직으로 해주겠다고 말하더라고요.”

그 누구도 하느님의 계획을 꺾을 수 없습니다

모든 권한과 권능은 주님이시며 스승이신 예수님께 속합니다. 주님께선 어떤 일이 일어나도록 결심하시면, 그 어떤 일은 일어나고야 마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권한은 우리 신앙을 통해 세상에 드러나게 됩니다. 주님께 말씀드리거나 일어나길 바라는 일을 청할 때에 우리는 굳건한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까? “사람의 마음속에 많은 계획이 들어 있어도 이루어지는 것은 주님의 뜻뿐이다”(잠언 19,21). 민수기는 다음과 같이 가르칩니다. “하느님은 사람이 아니시어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인간이 아니시어 생각을 바꾸지 않으신다. 그러니 말씀만 하시고 실천하지 않으실 리 있으랴? 이야기만 하시고 실행하지 않으실 리 있으랴?”(민수 23,19). 욥은 굳건한 신앙 고백으로 말합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당신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음을, 당신께서는 어떠한 계획도 불가능하지 않음을!”(욥 42,2). 하느님께서서는 약속하시면 실행하십니다.

나는 주님이며 모든 인간의 하느님이다. 무엇이 나에게 어려운 일이나?

-예레 32,27

하느님께서서는 당신께서 하신 말씀은 반드시 실천하십니다. 그분께서는 인간과는 달리 마음과 말씀을 바꾸지 않으시지요. 따라서 적절한 시기에 비를 약속하시면,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기도이지요. “주님, 당신의 말씀대로 당신 구원이, 당신 자애가 저에게 다다르게 하소서”(시편 119,41). 케냐에는 두가지 주요 시기가 있습니다. 바로 건기와 우기입니다. 우기에도 계절이 있지요. 짧은 우기와 긴 우기입니다. 하지만 때로 비가 예상했던 대로 내리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건기가 더 길어지게 되지요. 농부들이 우기를 기다리며 가꾸었던 농작물이 말라버립니다. 이는 농부들이 좋은 수확을 얻지 못하고 수확량이 적거나 품질이 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비가 늦어지고 예상치 못한 패턴을 따르는 것은 주님의 계획이 아닙니다. 주님께서서는 예상되어진 때에 필요한 만큼 비를 내려주실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부채(빚을 지는 일)는 하느님의 계획이 아닙니다

하느님의 계획과는 달리, 대부분의 경우 우리가 너무 많이 빌리면서 그 어떤

것도 빌려주지 않는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내어줄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빛을 지는 것은 주님의 계획이 아닙니다. 모든 것 안에서 우리는 복을 받아야 하지요. 이것이 바로 주님의 계획입니다.

자, 목마른 자들아, 모두 물가로 오너라. 돈이 없는 자들도 와서 사 먹어라. 와서 돈 없이 값 없이 술과 젖을 사라. 너희는 어찌하여 양 식도 못 되는 것에 돈을 쓰고 배불리지도 못하는 것에 수고를 들이느냐? 들어라, 내 말을 들어라. 너희가 좋은 것을 먹고 기름진 음식을 즐기리라.

-이사 55,1-2

바오로 사도는 말합니다. “아무에게도 빛을 지지 마십시오.”(로마 13,8). 우리는 가능한 모든 것을 동원해서 빛을 지게 되는 일을 피해야 합니다. 대신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들로 살아가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나를 생각해 주는 마음을 마침내 다시 한 번 보여 주었기에, 나는 주님 안에서 크게 기뻐합니다. 사실 여러분은 줄곧 나를 생각해 주었지만 그것을 보여 줄 기회가 없었던 것입니다. 내가 궁핍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는 어떠한 처지에서도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필리 4,10-11

우리를 위한 하느님의 계획은 우리가 변성해서 풍요로운 삶을 영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하느님의 말씀, 목소리에 순종하고 그분께서 주신 계명을 관철하는 것이 바로 그 조건입니다. 하느님의 계명은 우리가 생명과 풍요로움의 길을 찾도록 도와줍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느님의 계명을 이행하겠다고 약속해야 합니다. 이사야서는 말합니다. “너희가 기꺼이 순종하면 이 땅의 좋은 소출을 먹게 되리라”(이사 1,19).

2009년 3월 29일에 인도네시아의 한 댐이 붕괴해서 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이로 인해 70명 이상이 사망하고 수백 명이 실종되었지요. 또한 거대한 쓰나미가 동남아시아를 덮쳤을 때, 인도네시아는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은 국가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과 삶의 터전을 잃었습니다. 지금도 많은 재해가 인도네시아를 힘들게 하고 있지요. 불행이 자주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면, 우

리는 사람이 하느님의 분노를 일으켰다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당신의 자비를 결코 거둬들이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떨어지는 재앙들은 사람의 죄로 인한 결과이지요.

땅이 주정꾼처럼 마구 비틀거리고 원두막처럼 흔들거린다. 땅은 자기
가 지은 죄에 짓눌려 쓰러져서 다시는 일어서지 못한다.

-이사 24,20

저는 왜 늘 가난에 허덕여야 합니까?

만일 하느님께서 우리가 풍요로운 삶을 영위하길 바라시고 또 그렇게 계획하셨다면, 어째서 우리는 이 풍요로움을 영위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왜 우리 사회에는 실업자와 노숙자,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이 이처럼 많은 것입니까? 우리 삶에서 하느님의 계획이 실현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난의 고리에 영원히 갇힌 듯이 보이는 몇 가지 이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합시다. 제가 보여드리는 이유들이 전부는 아니지만 분명 그 이유들에 연관될 수 있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재정적 위기

요한복음 9장에서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의 치유사화를 읽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스승님, 누가 죄를 지었기에 저이가 눈먼 사람으로 태어났습니까? 저 사람입니까, 그의 부모입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지요. “저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그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다. 하느님의 일이 저 사람에게서 드러나려고 그리된 것이다.” 우리 삶에 무언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족보 안에 현재 세대에 재난을 가져다 줄 법한 죄를 범했던 조상들도 있을 수 있지요. “너희 마음이 하느님을 떠나 방황하였으나 이제는 돌아서서 열 배로 열심히 그분을 찾아야 한다. 그러면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신 그분께서 너희를 구원하시고 너희에게 영원한 기쁨을 안겨 주시리라”(바룩 4,28-29).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으로 인해 과거 잘못을 저질렀던 이들을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예수님께 말씀하신 것처럼, 부모의 죄로 인해 태생소경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베풀어주시길 치유를 통해 하느님의 일이 드러나려고 그렇게 된 것임을 믿고 또 받아들여야 하지요. 무언가 잘못 되고 있음을 깨달았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련하신 구원을 청하면서 삶의 상황을 이전보다 더 나은 쪽으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들을 위하여 저 자신을 거룩하게 합니다. 이들도 진리로 거룩해지게 하려는 것입니다”(요한 17,19). 예수님께서서는 하느님이시기에 이미 아주 거룩한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도 진리로 거룩해지게 하시려고, ‘제자들을 위해서’ 당신 자신을 거룩하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구약의 성조 요셉은 자신이 겪은 모든 불행의 탓을 형제들에게 돌리고 그들을 비난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말합니다: “형님들은 나에게 악을 꾸몄지만, 하느님께서서는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그것은 오늘 그분께서 이루신 것처럼, 큰 백성을 살리시려는 것이었습니다.”(창세 50,20) 요셉은 형제들을 온전히 용서했습니다. 일찍이 요셉은 아들을 낳았고 아들을 용서의 열매로 생각했었지요. 요셉은 아들의 이름을 므나쎄로 지었습니다. 므나쎄는 “하느님께서 나의 모든 고생과 내 아버지의 집안조차 모두 잊게 해 주셨구나.”(창세 41,51)하는 뜻입니다.

주님의 축복을 받기 위한 첫 번째 단계로서, 우리는 하느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우리 자신과 가정, 나라를 정화해야 합니다. 그러면 악한 이들의 공격으로부터 자유로워 질 것입니다.

그러면 주 너희 하느님께서서는 너희 손이 하는 모든 일과, 너희 몸의 소생과 너희 가축의 새끼와 너희 땅의 소출을 풍성하게 해 주실 것이다. 주님께서서 너희 조상들을 두고 흐뭇해하셨듯이, 정녕 다시 너희의 번영을 두고 기뻐하실 것이다. 너희가 주 너희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이 율법서에 쓰인 그분의 계명들과 규정들을 지키며,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느님께 돌아오면 그러하실 것이다.

-신명 30,9-10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으로 인해
과거 잘못을 저질렀던 이들을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어느 간호사의 이야기

저는 아프리카에 오기 전 몸바이에 있는 피정센터에서 사목했습니다. 그곳에 찬양과 경배사목을 맡고 있는 그룹원이 한 명 있었지요. 이 자매님이 처음 찬양과 경배 팀에 들어왔을 때는 아직 직업이 없었습니다. 찬양사도로 6개월을 봉사한 이후, 하느님의 은총으로 일자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직장이 그리스도교의 활동에 많은 제약이 있으며 가톨릭 성당도 거의 찾아보기 힘든 사우디아라비아였던 것입니다. 이는 자매님이 주일 미사에 참석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자매님은 피정센터에 있던 신부님의 허락을 받고 직장에 다니기로 결심했습니다. 그곳에 도착하고 나서, 주일 미사에도 참석할 수 없고 심지어 성경을 들고 다는 것도 눈치를 봐야했기에 자매님은 크게 상심하게 되었습니다. 영성지도 신부님에게 전화를 걸어 지속적인 기도를 청했습니다. 자매님은 간호사였는데 학위를 받은 대학교가 인도 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지 못한 학교였습니다. 대학교로부터 받은 학위는 인정되지 않았고 허위 증명서로 간주되었던 것이지요. 자매님은 그때까지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자매님이 그 대학교를 선택했던 이유는 그저 학비가 아주 저렴하다는 점이었습니다. 자매님의 아버지는 심한 술주정뱅이였고 살고 있던 땅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매님과 자매님의 형제자매들은 날이면 날마다 굶주림에 허덕여야 했습니다. 자매님의 이웃은 아주 부자였습니다. 모두가 잠든 밤이면, 부유한 이웃이 쓰레기를 버리는 구덩이로 달려가서 먹고 남은 음식물이 있는지 살펴보았지요. 찾아낸 음식물은 무엇이든 집으로 가져와서 끓여먹었습니다. 자매님과 자매님의 형제들은 이렇게 살아왔던 것이지요. 자매님의 형제들은 학비가 없어서 학교도 다니지 못했습니다. 부모님은 오직 자매님에게만 공부의 기회를 주었습니다. 자매님은 옷을 잘 차려입지도 못했고 영양부족으로 정신적인 성장도 더뎠습니다. 질문에 아주 천천히 대답해야 했지요. 하지만 자매님은 주님께 헌신하는 아주 착한 학생이었습니다.

이 자매님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직장생활을 하며 영적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던 어느 날, 카타르에 새로운 병원이 개설된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카타르 정부는 예외적으로 이 곳에만 그리스도교 예식을 자유롭게 허용하고 있었지요. 이 소식을 들은 자매님은 영성지도 신부님에게 전화를 걸어 이 직장에 지원할 예정이니 특별기도를 해달라고 청했습니다. 자매님에게 이것이 일도 하면서 동시에 주님께 헌신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면접은 인도의 몸바이에서 개최되었지요. 이 병원은 수익을 아주 많이 내었기에 높은 수준의 임금을 보장해 줄 수 있었습니다. 자매님은 면접을 위해 몸바이로 돌아왔지만 가장 먼저 들렀던 곳은 피정센터였습니다. 신부님들은 자매님을 위해 계속해서 기도를

하고 있었지만 자매님은 확신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이 똑똑하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지요. 실제로 인도 전역에서 면접을 보기 위해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뭍바이로 몰려왔습니다. 하지만 뽑는 인원은 고작 13명이었지요. 뭍바이에 있는 모든 호텔들이 몰려온 사람들로 문전성시를 이루었습니다. 지원자들은 모두 친구들이나 친척들과 함께 와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자매님은 면접실로 들어갔고 면접관은 자매님을 슬쩍 바라보더니 말했습니다. “제가 이전에 지원자분을 본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젯밤 꿈속에서 제가 보았던 소녀가 바로 당신이었습니다. 저희 병원의 직원이 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그 어떤 질문도 없이 여인은 직업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느님께서 그 면접관에게 꼭 뽑아야 할 사람에 대한 환시를 이미 보여주셨던 것이지요. “주님을 찬미하여라, 주님의 천사들이 그분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분 말씀을 실천하는 힘센 용사들이”(시편 103,20). 이 말씀이 그날 자매님에게 내린 말씀이었습니다. 시편의 말씀대로, 우리가 청하면 천사들은 우리를 위해 주님의 말씀을 실천합니다. 자매님은 직업을 얻는다는 아주 순수한 의도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높은 임금이나 명예를 추구하지 않았지요. 그저 주님과 관계가 방해받지 않는 직업을 원했을 뿐입니다.

카타르에 있는 병원에서 일하고 싶다는, 단 하나의 원의만을 가지고 있었던 자매님은 이제 주일미사에도 참석하고 성경도 자유로이 들고 다니며 언제 어디서든 자유롭게 하느님께 경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하느님께 재정적인 축복을 내려달라고 청할 때에는, 순수하게 하느님을 영광스럽게 해드린다는 생각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제가 이전에 지원자분을 본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젯밤 꿈속에서 제가 보았던 소녀가 바로 당신이었습니다.
저희 병원의 직원이 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다국적기업이라는 헛된 꿈

한 남자가 겸손한 마음으로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어느 작은 신발끈 제조회사에 300케냐 실링을 투자했지요. 이 남자의 투자는 적중했습니다. 첫 해에 1000케냐 실링의 이윤을 남겼습니다. 그 이듬해에는 3000케냐 실링의 이윤을 남겼지요. 5년이 되자 남자는 신발 제조업체를 차리기에 충분한 자본을 모으게 되었습니다. 남자는 아주 열심히 일했고 능숙하게 회사를 경영 했기에 10

년 만에 나라에서 제일가는 신발제조업체로 거듭날 수 있었습니다. 남자는 이제 더 높은 매출량과 더 높은 이윤 등 돈에 대해서만 말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돈 이외의 것은 부차적인 것이 되었습니다. 남자는 나라에서 제일가는 신발제조업체로는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더 큰 야망을 품었지요. 다국적 신발제조업체가 되어 국제 시장에 진출하는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꿈이 실현되기 전에, 남자는 뇌출혈로 쓰러졌습니다. 직원들이 남자를 급히 병원으로 옮겼지만, 한 시간이 채 되지 않아 세상을 떠나고야 말았지요. 사후 소견서에서 남자의 심장이 비정상적으로 확장되고 위가 궤양으로 인해 구멍이 나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과도한 야망으로 다국적기업을 꿈꾸던 남자가 치러야했던 값이었지요. 삶이 없다면, 은행계좌에 가득 들어찬 돈은 다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한 선교사는 아프리카 사람들이 죽은 이를 매장하기 전에 죽은 이가 입고 있던 옷을 벗기는 풍습을 여전히 따르고 있음을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풍습이 있는 이유는 우리가 세상에 왔던 모습대로 세상을 떠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으며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1티모 6,7) 우리가 죽음에 직면해서 고려해야 하는 것은, ‘살아생전에 얼마나 많은 재물을 모았는지’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성숙한 삶을 살았는지’ 중요합니다.

**“우리가 죽음에 직면해서 고려해야 하는 것은,
‘살아생전에 얼마나 많은 재물을 모았는지’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성숙한 삶을 살았는지’입니다.”**

“무슨 수를 쓰더라도”하는 마음이 모든 장애를 가져옵니다

우리는 부를 얻기 위해 사용하게 되는 모든 부당한 수단을 피해야 합니다.

(1) 과분한 재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 어머니가 자녀들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찾아와 말했지요. “저는 그리 크지는 않지만 이곳 저곳에 땅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순전히 제가 노력해서 얻은 땅들이지요. 그런데 자녀들이 땅 때문에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저는 이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자매님은 이기적이고 독선적인 것 같습니다. 자매님이 모은 모든 재산은 자매님만이 아닌 모든 가족을 위

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자녀들에게 동등하게 나누어주어야 합니다. 사람은 섬처럼 혼자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무엇을 가지고 있든 우리는 가족들과 나누어야 하지요.” 이 어머니는 두 번째 남편과의 사이에서 세 명의 자녀를 두었습니다. 첫 번째 결혼에서는 일곱 명의 자녀를 두었지요. 저는 이 어머니에게 재산을 열한등분해서 나누라고 말해주었습니다. 그리고 한 명분의 재산을 자신과 남편을 위해 남겨 두어서 자녀들이 재산을 나누어 받더라도 그들에게 의존해서 살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해주었습니다. 자신과 남편의 몫을 뺀 10명분의 재산을 자녀들에게 똑같이 나누어주어야 한다고도 말해주었지요. 어머니는 말했습니다. “신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재산을 자녀들에게 나누어 줄 겁니다. 하지만 막내아들에게 더 많은 재산을 물려 줄 거예요. 자식들 중에 그 아이가 저를 가장 많이 챙긴답니다.” 저는 어머니에게 절대 편애해서는 안 된다고 말해주었지요. 현 상황에서는 재산을 분배하는 것이 너무 늦어버렸습니다. 더 일찍 해결되었어야 하지요. 저는 말했습니다. “지금 자매님은 68세입니다. 자매님은 지금 재산분배보다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자매님의 영혼에 신경을 써야하는 때입니다.” 재산분배는 자녀들이 결혼을 하자마자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부모들은 마음이 홀가분해지고 자녀들은 복을 받게 되지요. 하지만 어떤 부모들은 마지막으로 숨을 내쉬는 순간까지 의도적으로 기다립니다. 그러고는 변호사를 불러서 재빨리 유언을 남기지요. 자녀들은 조금 더 유리한 유언을 얻고자 마지막 순간까지 부모 앞에서 굽실거리게 될 것입니다.

(2) 형제나 친척들의 재산을 부당하게 취했던 사람

제 아버지의 형제는 모두 5명입니다. 남자가 네 명이고 여자는 한 명입니다. 아버지는 형제들 중 셋째였습니다. 아버지의 아버지, 곧 저의 할아버지는 방앗간을 하나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형제들은 방앗간 운영을 도우면서 나오는 수익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다들 자신의 몫이 있었지요. 그런데 할아버지의 첫째 아들, 곧 큰아버지는 정해진 대로 수익을 나누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제 아버지는 그 어떤 불평도 하지 않았지요. 나중에 저는 큰아버지가 일곱 명의 자녀가 있는데, 자녀들에게도 방앗간으로부터 나오는 수익을 전혀 배분해주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큰아버지의 자녀들 사이에 싸움이 끊이지 않았고 큰아버지는 방앗간을 원래 가치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팔아버리도록 지시했습니다. 방앗간을 팔고나자 큰아버지 가족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게 되어버렸지요. 사람들은 눈앞의 이익만을 쫓지만 실제로 필요한 것은 주님께로부터 오는 영원한 축복입니다.

가족이 유산을 분배할 때, 어떻게 하면 자신의 몫을 올바르게 가져갈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은 재산의 분배와 처리에 대한 가장 탁월한 예를 보여줍니다.

아브람은 아내와 자기의 모든 소유를 거두어 롯과 함께 이집트를 떠나 네겟으로 올라갔다.

-창세 13,1

창세기 13장에서 우리는 아브람과 그의 조카 롯의 이야기를 읽습니다. 아브람과 롯, 두 사람 모두 주님으로부터 크나큰 복을 받아서 수많은 재산과 가축을 얻게 되었지요. 그들이 한 곳에 머무르려 해도, 두 사람이 함께 살기에는 비좁을 만큼 그들의 재산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땅은 그들이 함께 살기에는 너무 좁았다. 그들의 재산이 너무 많아 함께 살 수가 없었던 것이다. 아브람의 가축을 치는 목자들끼리와 롯의 가축을 치는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기도 하였다. 그때 그 땅에는 가나안족과 프리즈족이 살고 있었다. 아브람이 롯에게 말하였다. “우리는 한 혈육이 아니냐? 너와 나 사이에, 그리고 내 목자들끼리와 너의 목자들 사이에 싸움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온 땅이 네 앞에 펼쳐져 있지 않느냐? 내게서 갈라져 나가라. 네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고, 네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가겠다.”

-창세 13,6-9

우리는 여기서 아브람이 얼마나 올곧은 인물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아브람은 자신의 조카에게 자신과 롯 사이에, 그리고 자신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 사이에 싸움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롯이 자신의 혈육이라는 사실을 존중해주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가족끼리 재산을 나누게 되면, 우리는 우리가 한 핏줄을 나눈 혈육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일가친척보다 우리 자신의 재산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아브람은 조카에게 온 땅이 자신들 앞에 펼쳐져 있음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조카에게 어느 쪽으로 갈 것인지 선택하라고 합니다. 아브람은 롯에게 말하지요. “네가 왼쪽

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고, 네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가겠다.” 아브람은 조카에서 먼저 선택할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마음에 드는 쪽을 먼저 고르고 난 뒤에 그 나머지를 자신이 가지겠다고 말합니다. 아브람이 조카인 롯보다 나이가 훨씬 많았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아브람은 롯을 친절과 겸손으로 대하고 있습니다. 아브람에게 있어서 재산은 혈육보다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연장자라는 이유로 선택권을 가져가려하지 않았다는 사실에서 이는 분명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먼저 선택을 할 기회를 얻은 롯은 주위를 둘러보고는 물이 넉넉하고 비옥해 보이는 요르단 들판을 선택했습니다. 요르단 들판은 동쪽에 있었지요. 아브람은 서쪽으로 옮겨가 버려진 것처럼 보이는 가나안 땅에 천막을 쳤습니다. 비옥하지도 않고 좋은 소출을 내는 것도 불가능해 보이는 땅을 선택한 아브람이 그의 아내와 자녀들에게 얼마나 바보천치로 보였겠습니까? 아내가 남편에게 ‘공항 근처 땅이 최고예요. 싸워서 그 땅을 가져와요. 누구도 그 땅을 가져가게 내버려두면 안 되지요. 지금 아이들이 한창 공부하고 크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건 아니겠죠?’라고 말하는 경우를 많이 접합니다.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하지만 무언가를 얻기 위해 혈육을 등져서는 안 되는 법이지요. 주님께서서는 아브람으로 인해 기뻐하셨습니다. 아브람이 이 세상의 사람과는 다르다는 것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서는 아브람에게 당신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소돔 사람들은 악인들이었고, 주님께 큰 죄인들이었다. 롯이 아브람에게서 갈라져 나간 다음, 주님께서 아브람에게 말씀하셨다. “눈을 들어 네가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을, 또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아라. 네가 보는 땅을 모두 너와 네 후손에게 영원히 주겠다. 내가 너의 후손을 땅의 먼지처럼 많게 할 것이니, 땅의 먼지를 셀 수 있는 자라야 네 후손도 셀 수 있을 것이다. 자, 일어나서 이 땅을 세로로 질러가 보기도 하고 가로로 질러가 보기도 하여라. 내가 그것을 너에게 주겠다.”

-창세 13,13-17

나중에 우리는 롯이 선택한 땅이 악인들의 도시인 소돔 근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롯에게는 두 딸이 있었는데 이들은 불행하게도 소돔사람들과 어울리게 됩니다. 주 하느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치실 때,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되고 말지요. 롯은 두 딸과 함께 초아르로 피신합니다.

자신의 모든 재산은 파괴되었고 롯은 빈털터리가 되었지요. 이후에 롯은 초아르를 떠나 산으로 올라가 굴속에 자리를 잡습니다. 우리는 롯의 딸들이 소돔사람들과 어울려 부정하게 되었고 이 후에 자신들의 아버지 롯에게 죄를 범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창세 19,30-38). 아내를 잃고 자식들은 부정해졌으며 모든 재산과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잃어버린 롯에게 남은 것은 없었습니다.

아브람은 아브라함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받고 하느님께 모든 것에 있어서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가족 간에 재산을 나누게 되면, 그저 ‘최고로 값나가는’ 것을 선택하려하지 마시오. 그리스도인으로서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은 중요합니다. 각각의 환경에서 무엇이 우리를 위한 주님의 뜻인지 우리는 알아내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모든 것에 있어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주 근면한 여인이 저를 찾아와 말했습니다. “신부님, 저를 위해 기도해주세요. 저는 가족 중에 일하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정말 열심히 일하는데 돈이 모이지가 않아요. 저의 일곱 남매들은 일하지 않고 그저 먹고 마시기만 합니다.” 저는 여인에게 말했습니다. “자매님이 남매들을 위해 저축을 하게 되면, 돈은 더 많이 모이게 될 것이고, 무엇이든 가진 것을 남매들과 나눈다면, 주님께서 복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3) 다른 사람이 가진 땅의 경계나 표식을 허락 없이 바꾸는 것

옛 경계선을 밀어내지 말고 고아들의 발을 침범하지 마라. 그들의 후견인은 강력하신 분 그분께서 너에게 맞서 그들의 송사를 떠맡으신다.

-잠언 23,10-11

‘이웃의 경계를 밀어내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하면, 온 백성은 ‘아멘.’ 하고 말해야 한다.

-신명 27,17

어느 부부가 저를 찾아와서 기도를 청했습니다. 남편과 아내 모두 심각한 부상을 입었고 둘 다 다리가 부러져있었지요. 아내는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털어

놓았습니다. 또한 자신들이 교통사고를 자주 당한다는 사실도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일어난 사고가 가장 컸습니다. 이 부부는 부정직한 수단을 사용해서 땅을 샀습니다. 바로 그날 부부는 수수료를 지불하기 위해 자신들이 산 땅으로 향하고 있었지요. 운전을 하다가 두 사람 모두를 불구로 만들 수 있는 끔찍한 사고를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떤 남자가 기도의 집을 찾아와서 자신의 ‘마타투’를 위해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마타투’는 케냐의 통근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대중미니버스입니다. 이 남자의 친구는 ‘마타투’를 가지고 있었고 남자에게 자신의 ‘마타투’를 인수하도록 권했습니다. 거의 공짜나 다름없는 가격과 함께 말이죠. 남자는 두 번 생각할 틈도 없이 돈을 지불하고 ‘마타투’를 인수했습니다. 하지만 매일같이 사고가 나기 일쑤였지요. 남자는 사고가 너무 자주 일어나다보니 이익보다는 손해가 더 크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공짜 혹은 아주 저렴한 가격에 얻을 기회가 찾아오면, 이것이 정말 주님께서 베풀어주시는 것인지에 대해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어느 지역의 슈퍼마켓이 아주 다양한 가정용품들을 50퍼센트 할인을 해서 내어놓았습니다. 이 슈퍼마켓은 고품질의 상품을 판매하는 것으로 유명했기에, 사람들은 앞 다투어 몰려들었습니다. 저의 한 친구는 그 곳에서 물건을 하나 샀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이 물건은 여러 조각으로 부서지고 말았지요. 아무리 좋은 가격이라 해도 그것을 꼭 살 필요는 없습니다. 판매자들은 보통 진열장에 오래 두어서 그 누구도 사려 하지 않는 물품들을 헐값에 내어놓습니다. 악마 또한 물질적인 것으로 사람을 현혹하고 공격할 수 있지요. 물질적인 것을 많이 가진다고 해서 인간의 삶이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차를 몰고 천국에 들어갈 수는 없는 법이지요.

한 친구가 저에게 이메일을 하나 보내주면서 읽어보라고 했습니다: 어느 남편이 아내에게 자신이 죽으면 집 안의 모든 것에 자신의 이름을 새겨 넣으라고 말했습니다. 아내는 그렇게 하겠노라 대답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유언장을 읽어나가던 변호사가 남편을 여윈 아내에게 남편의 지시를 잘 이행하고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소유였던 물품 각각의 값어치를 매기고 수표장에 그 가격을 써서 남편의 관 안에 잘 넣어두었다고 대답했습니다. 남편이 천국에 도착하게 되면 그 수표로 돈을 인출할 수 있게 말이지요!

신부님, 저에게는 세 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이 아이들을 더 잘 돌보고 아이들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더 많은 돈이 필요 합니다'라고 한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자녀들을 위해 계획을 짜고 정말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 자녀들이 나중에 자라서 부모를 버리거나 무례하게 대할지도 모르는데 말이죠. 자녀들의 재산을 위해 싸우기보다는 더 영원과 맞닿아 있는 것들을 위해 싸워야 합니다. 가족기도처럼 말입니다. 도대체 왜 우리는 자녀들에게 예수님은 건네주지 않는 것입니까?

(4) 가난한 이들로부터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경우

저는 다세대 주택을 임대해주고 많은 수익을 올리는 사람들을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같은 사업은 아주 위험합니다. 세입자를 받아들일 때, 세입자가 월세를 제때에 재대로 지불 할지에 대해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세입자가 월세를 지불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들을 내쫓는다면, 스스로를 수많은 위험 속으로 밀어 넣는 것입니다. 집주인이 된다는 말은 자신의 집에 머무르는 사람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세입자를 내쫓는다면 세입자의 가족 모두가 길거리에서 떨게 되고 이는 전적으로 집주인의 책임입니다.

**“세입자가 월세를 지불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들을 내쫓는다면,
스스로를 수많은 위험 속으로 밀어 넣는 것입니다.”**

한 남학생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남학생의 어머니는 자주 아팠기에 가족이 벌어들이는 모든 수입이 병원비로 지출되었습니다. 남학생은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저희 가족은 매일 기도해요. 그런데 기도를 하면 할수록 어머니의 병이 더 악화되는 것 같아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어요.” 저는 학생에게 물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어떤 사업을 하시니?” 학생은 대답했습니다. “아버지는 대출 사업을 하세요. 돈을 빌려주고 그 이자를 받으시죠. 그런데 이제 그 사업으로도 부족한 지경에 이르렀어요. 벌어들이는 모든 수입이 어머니 병원비로 지출되거든요.” 저는 학생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도와 줄 테니 일러주는 대로 해야 한단다. 지금 당장 아버지에게 가서 이자를 부당하게 받아왔던 일을 그만두라고 말하거라.” 학생은 저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신부님, 아버지께 사업을 중단하시라고 말씀드리기가 곤란해요. 사업 때문에 아버지도 돈을 많이 빌리셨거든요. 제발 다른 방법을 가르쳐주세요.” 저는 학생에게 다른 방법은 없다고 말해주었습니다. 탈출기는 말합니다:

너희가 나의 백성에게, 너희 곁에 사는 가난한 이에게 돈을 꾸어 주었으면, 그에게 채권자처럼 행세해서도 안 되고, 이자를 물려서도 안 된다.

-탈출 22,25

부당하게 이자를 거둬들이는 것은 그들의 서러움과 눈물을 거둬들이는 것입니다. 주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선한 방법으로 사업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언제나 인지해야 하지요. “주님의 복은 부를 가져오지만 사람의 노고는 보탬이 되지 않는다”(잠언 10,22). 어떤 이들은 빌렸던 돈의 이자를 갚느라 생계를 유지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 이들은 여러분들의 불행을 바라는 기도를 바치게 될 것이지요. 한 여인이 저를 찾아와서 말했습니다. “신부님, 제발 저를 위해 기도해주세요. 제가 언제 죽게 될지는 모르지만, 빠른 시일 내로 그 날이 찾아올 것 같습니다. 빚쟁이들이 시도 때도 없이 찾아와서 협박을 해요. 제가 또 돈을 빌린다면 다음날로 죽은 목숨이지만 자신들은 언젠가 저에게 돈을 요구할 수 있다며 위협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자는 돈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큰 재물을 사랑하는 자는 수확으로 만족하지 못하니 이 또한 허무이다.

-코헬 5,9

불행하여라, 남의 것을 굶어모으고 담보로 잡은 것을 쌓아 두는 자!
언제까지 그러할 셈인가?

-하바 2,6

**“부당하게 이자를 거둬들이는 것은
그들의 서러움과 눈물을 거둬들이는 것입니다.”**

(5) 장부를 속이고 돈을 훔치는 행위

인도에서 어떤 실업자가 저를 찾아와서 기도를 청했습니다. 이 남자는 버스 승무원이었지만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결혼을 해서 두 명의 자녀도 있었습니다. 자녀들의 학비가 필요했지만 저축해놓았던 돈이 없었던 남자는 승객들에게 버스 티켓이 매진되었다고 말하며 티켓을 발행하지 않은 채 돈을 받아서 자신의 주머니에 넣었지요. 남자는 이런 방식으로 몇 개월 동안 돈을 착복했습니다. 하지만 남자의 행위는 고용주에게 적발되었고 그 자리에서 해고당했습니다.

다. 저는 남자에게 주님께 용서를 청해야 한다고 말해주었습니다.

(6) 빚을 갚지 못한 경우

한 남자가 누군가에게 천만 실링을 빌렸지만 이 돈을 갚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돈을 갚아야만 했지요. 남자는 저를 찾아와서 도움과 조언을 구했습니다. 저는 남자에게 지금 당장 갚아줄 수 있는 돈이 얼마인지를 물었고 남자는 오백만 실링은 갚을 수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남자에게 오백만 실링을 가져가서 돈을 빌려준 사람에게 지금 당장 전부를 갚지 못하지만 오백만 실링을 먼저 갚고, 나머지 오백만 실링은 분할해서 돌려주겠다고 말하라고 조언해주었습니다.

누군가의 돈을 빌리게 되면, 우리가 가진 돈이 충분치 않아도 빌린 돈을 갚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돈을 빌려준 이를 우리의 재정적인 성공에 장애물이라고 되는 것처럼 바라보게 된다면, 우리는 돈 갚는 것을 거절하거나 돈을 빌려준 이를 회피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우리 자신과 가족, 자녀들, 그리고 미래의 후손들에게 장애를 가져와 슬픔을 더욱 증폭시키지요. 돈을 빌려준 이가 우리의 빚을 모두 탕감해주지 않는 한 우리는 빌린 돈의 한 푼까지도 모두 갚아야 합니다. 지산에서 거대한 빚을 남긴 채 하늘나라로 들어갈 수는 없는 법입니다. 먼저 빚을 깔끔하게 청산하고 나면, 천국의 문이 우리에게 활짝 열리게 될 것입니다.

(7) 뇌물

뇌물은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에 해를 끼칩니다. 마땅히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억울함을 안겨주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느 가난한 사람이 여러분 보다 먼저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여러분은 진찰을 먼저 받기 위해 간호사에게 뇌물을 주지요. 그 가난한 사람은 뇌물을 줄 돈이 없기에 순번이 뒤로 밀리고 아예 치료를 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가난한 사람은 건강이 악화되고 시간이 흘러 죽음에 이르게 될 수도 있습니다. 뇌물은 불평등을 조장하며 국가에 수치를 안겨줍니다. 뇌물수수자는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의 번영도 가로막습니다.

(8) 소매치기, 약탈, 강도, 거짓 증언

우리가 소매치기, 약탈, 강도, 거짓 증언을 통해 돈을 모으게 되면 분명히 재정적인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9) 일꾼에게 아주 적은 임금을 지불하거나 임금을 아예 지불하지 않는 경우 어떤 본당의 성당지기에 관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성당 지기는 생전에 언제나 가난과 굶주림을 겪었습니다. 성당 지기는 언제나 본당 신부가 먹고 남은 음식들로 배를 채우곤 했지요. 성당지기가 세상을 떠나고 곧이어 본당 신부도 영원한 안식을 맞이했습니다. 두 사람이 천국에 도착했을 때, 베드로 사도가 성당지기를 먼저 안내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성당지기를 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저택으로 데려가서 그 저택이 성당지기 소유의 집이라고 말해주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본당 신부를 데리러 가기 위해 발길을 돌렸지요. 베드로 사도와 본당 신부가 함께 길을 걸어오다가 성당지기의 집 앞을 지나가게 되었고 성당 지기는 반가움에 두 사람을 향해 팔을 힘차게 흔들었습니다. 이 모습을 본 본당 신부는 부푼 기대를 안고 다음과 같이 생각했습니다. ‘저 성당지기도 저토록 아름다운 저택을 얻었는데, 난 훨씬 더 크고 아름다운 저택을 얻게 되겠지?’ 아름다운 저택들이 도로의 양쪽으로 즐비했지만 두 사람은 멈추지 않고 모든 집을 지나쳤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본당 신부에게 걱정이 되는지 물었습니다. 본당신부는 지체하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전혀 아닙니다. 아주 아름답고 커다란 저택이 저를 기다리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거든요.” 마침내 두 사람은 아주 작고 짙은 지붕을 엮은 오두막 한 채 앞에 멈추어 섰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말했습니다. “도착했네. 이곳이 자네 집일세.” 이 얼마나 청천벽력 같은 말입니까! 본당 신부는 자신의 두 눈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베드로 사도에게 “정말 이게 제 집이란 말입니까?”라고 질문했지요. 베드로 사도는 말했습니다. “자네가 지상에서 나에게 올려 보낸 물건들로는 오직 이 오두막을 짓는 게 전부였다네. 자네가 저 성당지기에게 욕박을 지를 때마다 그 친구는 침묵을 지켰지. 결코 자네에게 보복을 하지 않았다네. 그 친구는 자네에게 언제나 친절하고 충심을 다했네.”

제가 항상 해주는 말이 있습니다. 매달 말에 수입이 다 들어오지 않았고 무엇을 먼저 지불해야 할지 주저하고 있다면, 집세를 빼기 전에 먼저 가정부에게 임금을 지불하라고 말입니다. 가정부들 또한 돌봐야 하는 가족이 있고, 한 달이라는 시간을 꼬박 여러분을 위해 일했습니다. 가정부나 다른 집안일을 돌보는 사람을 고용하게 되면, 일을 시작하는 날부터 이해관계를 확실히 하기 위해 그들과 기본적인 룰과 시간당 수당, 그리고 보너스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느님의 모상으로 창조되었기에 하느님 앞에서는 모두 동등합니다(갈라 3.28). 우리를 위해 일해주는 이들에게 의무를 다 하지 않

음으로 인해 우리는 수많은 재정적 속박에 묶일 수 있습니다.

(10)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경우

한 여학생이 자신의 삼촌으로부터 학비를 지원해주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서 삼촌은 자신의 조카에게 자신과 육체적인 관계를 갖지 않는다면 후원을 철회하겠다고 했지요. 이는 명백한 잘못이며 하느님의 진노를 결코 피할 수 없습니다.

우간다에서 피정을 지도하고 있을 때, 저는 일시적으로 직업을 얻지 못하게 된 형제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형제님은 허위 일자리 주선을 많이 받았습니다. 자신에게 일자리를 주겠다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력서를 보냈지만 그들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주위의 다른 사람은 이 형제님에게 재정적인 지원을 약속했지만 이 또한 지키지 않았습니다. 저는 형제님에게 과거 본당 신부님이나 성당에 무언가 하기로 약속을 하고는 그것을 지키지 않았던 적이 있었는지를 물어보았습니다. 형제님은 대답했습니다. “언젠가 제가 속해 있던 교구에서 성당을 짓기 위해 모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저마다 성전건립기금약정서를 통해 일정한 양의 돈을 봉헌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형제님은 성전건립기금약정서에 100,000우간다 실링을 적고 나서 사람들 사이를 차례로 오가는 바구니에 집어넣었습니다. 자신이 그만한 돈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말입니다. 형제님은 사람들이 누가 그랬는지 모르게 하고자 약정서에 이름도 쓰지 않았습니다. 저는 형제님에게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하느님께서서는 아신다고 말해주었습니다. 주님께서서는 모든 것을 아시고 그 어느 것도 그분 눈으로부터 숨길 수 없습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집을 지어라. 그러면 나는 그 집을 기꺼이 여기고 그것으로 영광을 받으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너희는 많이 거두기를 바랐지만 얼마 거두지 못하고 집으로 거두어들인 것조차 내가 날려 버렸다. 무슨 까닭이냐? 만군의 주님의 말씀이다. 내 집이 무너져 있는데도 너희가 저마다 제집 돌보는 데에만 바빴기 때문이다.

-하까 1,8-9

그리고 우리는 잠언에서 읽습니다.

너는 네가 한 말에 말려들고 네가 한 말에 붙잡힌 것이다. -잠언 6,2

우리는 자신을 구속하게 될 말들을 내뱉고는 스스로 걸려 넘어집니다.

(11) 술, 담배, 콘돔을 판매하거나 클럽 또는 술집을 운영하는 경우

어느 여인이 주님께 더 가까이 다가오고 난 뒤에 사업에서 쓰라린 실패들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그 이전에 여인은 착실한 가톨릭 신자였습니다. 하지만 열성적이지는 않았지요. 여인이 열성적인 신자가 되고 나서부터 장애물을 맞닥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여인은 도시 한복판에서 주류사업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나이트클럽 경영에도 참여했었습니다. 하지만 사업파트너가 여인을 속여서 사업에서 손을 떼게 만들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이는 수많은 가정과 관계를 훼손하는 부도덕한 사업에서 손을 떼야 한다는, 주님께서 여인에게 내려주신 계시였음을 깨닫게 되었지요. “배가 몹시 고프면 네 목구멍에 칼을 세워 두어라” (잠언 23,2).

(12) 직장에서의 불만

저의 친구 사제가 동료사제를 태우려 공항으로 운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방책을 세우고 있던 경찰이 친구 사제를 멈춰 세웠지요. 경찰은 친구 사제의 차 주변을 돌며 무언가 구실로 삼을 것을 찾았지만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마침내 운전자석 창문 쪽으로 다가온 경찰은 친구 사제에게 소화기를 비치했는지 물었지요. 친구 사제는 자신의 차에 싣고 다니는 소화기를 보여 주었습니다. 그러자 경찰은 친구 사제에게 면허증을 제시하라고 했고 면허증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찰은 친구 사제에게 말했습니다. “어찌되었든, 내가 당신을 멈춰 세웠는데 콜라 한 잔 사먹으라고 50실링도 주지 않는단 말이오?”

한번은 또 다른 경찰관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당신도 알다시피 우리가 받는 월급은 너무 적어요. 우리는 겨우 생계를 꾸린답니다. 저는 교통순경으로 발령나도록 참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교통순경이 되면 적어도 운전자들의 사소한 실수를 꼬투리 잡아서 여분의 돈을 모을 수가 있거든요. 그것으로 저는 쥐꼬리만 한 월급을 보충할 수 있답니다.”

13) 십일조

십일조는 수입의 10분의 1을 주님께 바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십일조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었지요.

살렘 임금 멜키체덱도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다.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의 사제였다. 그는 아브람에게 축복하며 이렇게 말하였다. “하늘과 땅을 지으신 분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께 아브람은 복을 받으리라. 적들을 그대 손에 넘겨주신 분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께서는 찬미 받으소서.” 아브람은 그 모든 것의 십분의 일을 그에게 주었다.

-창세 14,18-20

이 풍습은 초기 그리스도교 시대부터 교회의 전통으로 이어져오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느님을 약탈할 수 있느냐?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약탈하면서 “저희가 어떻게 당신을 약탈하였습니까?” 하고 말한다. 십일조와 예물이 아니냐! 너희 온 백성이 나를 약탈하고 있으니 저주를 받으리라. 너희는 십일조를 모두 창고에 들여놓아 내 집에 양식이 넉넉하게 하여라. 그리고 나서 나를 시험해 보아라. 만군의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하늘의 창문을 열어 너희에게 복을 넘치도록 쏟아 붓지 않나 보아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 떼를 꾸짖으리라. 그래서 그것들이 너희 땅의 소출을 망치지 않고 너희 밭의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일이 없게 하리라. 만군의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러면 모든 민족들이 너희를 행복하다고 하리니 바로 너희가 기쁨의 땅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만군의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말라 3,8-12

이 성경말씀들은 십일조와 우리가 십일조를 했을 때 주님께서 주시는 약속들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십일조는 우리가 하느님께 의지하고, 그분을 주인이시자 우리가 얻게 되는 모든 것을 제공해주시는 분으로 인식한다는 사실에 대한 표현인 것입니다.

한 남자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이 사람은 임금이 아주 높은 직업에 종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통장에 돈이 한 푼도 없었습니다. 남자는 은행계좌를 세 개나 가지고 있었지만 계좌들은 텅 비어있었지요. 월급이 들어오면 이 남자가 그 돈을 사용하기도 전에 돈이 빠져나가버렸습니다. 이 사람은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알고 싶어 했습니다. 저는 기도를 하던 중에 남자에게 물었습니다. “성전건립으로 인해 누군가 도움을 요청한 적이 있습니까?” 남자는

자신이 다니는 성당이 재건축을 하게 되었고, 본당 신부님께서 자신이 부유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대답했습니다. 이 남자는 본당 신부님에게 자신이 할 수 있는 만큼 돕겠다고 약속을 했지요. 하지만 자신이 했던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본당신부가 약정서 때문에 여러 번 찾아왔음에도 말입니다. 남자는 말했습니다. “본당신부님이 저를 찾아오셨을 때마다, 저는 돈을 나중에 내겠다고 말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저는 약속을 지키지 못했지요. 저는 그 문제를 너무 가벼이 여겼습니다. 결코 중대한 사안으로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지요. 지금은 공사가 끝나서 성전이 완공되었습니다.” 주님께서서는 저에게 다음의 말씀을 계시해주시어 남자에게 읽어주도록 하셨습니다.

만군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가 살아온 길을 돌이켜 보아라. 씨앗을 많이 뿌려도 얼마 거두지 못하고 먹어도 배부르지 않으며 마셔도 만족하지 못하고 입어도 따뜻하지 않으며 품팔이꾼이 품삷을 받아도 구멍 난 주머니에 넣는 꼴이다. 만군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가 살아온 길을 돌이켜 보아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집을 지어라. 그러면 나는 그 집을 기꺼이 여기고 그것으로 영광을 받으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너희는 많이 거두기를 바랐지만 얼마 거두지 못하고 집으로 거두어들인 것조차 내가 날려 버렸다. 무슨 까닭이냐? 만군의 주님의 말씀이다. 내 집이 무너져 있는데도 너희가 저마다 제집 돌보는 데에만 바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늘은 너희에게 이슬을 내리지 않고 땅은 제 소출을 내주지 않았다. 나는 땅에 산과 곡식에 햇포도주와 기름에 밭에서 나는 것에 사람과 짐승에게 그들이 하는 모든 일의 결실에 가뭄을 불러들였다.”

-하까 1,5-11

살렘 임금 멜키체덱도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다.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의 사제였다. 그는 아브람에게 축복하며 이렇게 말하였다. “하늘과 땅을 지으신 분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께 아브람은 복을 받으리라. 적들을 그대 손에 넘겨주신 분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께서 찬미받으소서.” 아브람은 그 모든 것의 십분의 일을 그에게 주었다.

-창세 14,18-20

우리 조상 아브라함, 이사악, 야곱 모두 십일조를 바치며 하느님께 대한 서약

을 지켰고 하느님께서서는 이들에게 풍성한 축복을 내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십일조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독선과 욕망이지요.

이사악은 그 땅에 씨를 뿌려, 그해에 수확을 백 배나 올렸다. 주님께서서 그에게 이렇듯 복을 내리시어, 그는 부자가 되었다. 그는 점점 더 부유해져 마침내 큰 부자가 되었다.

-창세 26,12-13

그런 다음 야곱은 이렇게 서원하였다. “하느님께서 저와 함께 계시면서 제가 가는 이 길에서 저를 지켜 주시고, 저에게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마련해 주시며, 제가 무사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해 주신다면, 주님께서서는 저의 하느님이 되시고, 제가 기념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은 하느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당신께서 주시는 모든 것에서 십분의 일을 당신께 바치겠습니다.”

-창세 28,20-22

십일조는 봉헌과 다릅니다. 주일미사에서 매년 행하게 되는 봉헌은 미사 중에 바치는 것이지요. 십일조는 주기적으로, 매달, 해마다, 6개월이나 3개월마다 등등 그 사람의 수입이나 재정상태 또는 개인적인 약정에 달려있는 것이지요. 수입이 전혀 없는 사람은 십일조의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십일조가 언제나 수입의 일부분으로 바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십일조는 주님의 호주머니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십일조를 내면 주님의 특별한 보호를 받게 됩니다. 십일조는 사제들의 호주머니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업이 풍성해지도록 하는 행위입니다. 월급이 100실링이고 이 중 십분의 일인 10실링을 주님께 드리면, 주님께서서는 10실링으로도 100실링보다 훨씬 위대한 기적을 수행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집회서는 말합니다. “제물을 바칠 때는 언제나 즐거운 얼굴을 하고 십일조를 기쁘게 봉헌하여라.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 네게 주신 대로 바치고 기꺼운 마음으로 능력껏 바쳐라. 주님께서서는 갚아 주시는 분이시기에 일곱 배로 너에게 갚아 주시리라”(집회 35,11-13). 우리가 먼저 지불을 해야 상환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서는 신실하시기에 우리의 따뜻한 마음을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서 말씀하십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행복하다”(사도 20,35).

“십일조는 주님의 호주머니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십일조를 내면 주님의 특별한 보호를 받게 됩니다.”

감사의 힘

윌리엄 콜케이트는 콜케이트 회사를 설립한 미국인입니다. 그는 아주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지요. 콜케이트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동생들이 이 가난의 구렁속에서 빠져나오도록 도와야 해!’라고 말이지요. 어느 날 그가 강독에 누워있는 것을 지나가던 신부님이 보았습니다. 신부님은 콜케이트에게 다른 아이들처럼 학교에 가지 않고 강독에 누워있는 이유를 물었고 콜케이트는 다른 아이들처럼 학교에 가고 싶지만 부모님이 너무나 가난해서 학비를 대줄 수가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신부님은 말했습니다. “내가 사업가 한 명을 소개시켜주마. 나에게 한 가지만 약속해다오. 얼마를 벌든지 간에 그 중 십분의 일은 주님께 바치겠다고 말이지.” 윌리엄은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신부님은 콜케이트를 사업가에게 데려가 소개시켰고, 콜케이트는 이곳저곳에서 작은 일들을 맡게 되었습니다. 일을 하면서도 콜케이트는 신부님께 한 약속을 결코 잊어버리지 않았고 언제나 자신이 벌은 돈에서 십분의 일을 하느님께 바쳤습니다. 시간이 흘러 윌리엄은 콜케이트 회사를 설립하게 되었지요. 오늘날 콜케이트는 전 세계적인 치약 브랜드로서 높은 시장점유율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많은 치약들이 생기고 사라졌지만, 콜케이트는 오랫동안 굳건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점유율을 더 높이고 있지요.

십일조를 내게 되면, 하느님께서서는 우리를 더 특별한 방식으로 보호해주십니다. 저는 오랫동안 일자리를 얻지 못했던 사람을 만났습니다. 하느님께서서는 그에게 복을 내리시어 직업을 얻게 하셨지요. 일을 시작한지 3개월 만에 그는 다시 일자리를 잃게 되었습니다. 일을 시작하고 두 달 동안 흥분과 열정으로 일하며 십일조를 충실히 바쳤습니다. 하지만 세 번째 달에는 돈을 조금 더 쓰고 싶어서 십일조를 미루었습니다. 주님께서 개의치 않으시리라 생각하면서 말이죠. 불행하게도 같은 달에 그는 해고를 당했습니다.

과부의 봉헌

가난한 과부가 와서 봉헌을 했을 때, 이 과부는 아마도 사람들이 자신의 봉헌을 보지 않길 기도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서는 이 과부를 특별한 방식으로 바라

보셨지요. 봉헌금의 액수가 아닌 이 위대한 여인의 마음을 바라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께 너무 적은 것을 바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께 드리십시오. 주님께 봉헌하면, 그분께서는 여러분을 보호해주실 것입니다. 고용불안, 승진실패, 직장 동료들의 시기와 질투 등 직장에서 마주하는 수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 십일조를 바치면, 그분께서 모든 악한 공격에서 보호해주실 것입니다. 십일조를 통해 우리가 하느님께 속하고 또 굳게 의지한다는 사실을 보여드렸기 때문입니다.

8장 순결은 자기희생의 덕입니다

모든 수도자들이 해야 하는 세 가지 서약이 있습니다. 순결, 청빈, 순종이 그것이지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세 가지 서약 중에서 순결이 가장 깨지기 쉬우며 지키는데 가장 큰 어려움이 따른다고 느낍니다. 청빈과 순종의 서약을 지키지 않게 되면 그것이 이르든 늦든 간에 수도회 장상에게 들통 나지만, 순결의 서약을 지키지 않게 되면 이는 그 누구도 아닌 주님께만 발각되지 때문이지요. 이처럼 누군가로부터 질책 받을 일 없이 언제 어디서나 생각과 감정을 통해 부정함 안에 머무를 수 있기에 순결의 서약은 정말 쉽게 부서질 수 있습니다.

순결이란?

순결서약은 그것이 의식적이든 그렇지 않든 모든 종류의 성적인 접촉이나 표현에 대한 포기 선언입니다. 독신의 삶 안에서 순결을 지킨다는 것은 말 그대로 혼인의 삶 또는 배우자를 포기한다는 것을 의미하지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배우자로 선택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시편 86장 11절은 순결의 삶을 가리키는 아주 아름다운 기도입니다:

주님, 제게 당신의 길을 가르치소서. 제가 당신의 진실 안에 걸으오리다. 당신 이름을 경외하도록 제 마음을 모아 주소서.

성별된 종교적인 삶으로 부르심을 받은 이들은 자신들의 몸으로 주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독신의 삶 안에서 마음을 모으도록 초대받습니다. 바오로 사도는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내가 하느님의 자비에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

고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느님 마음에 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바치십시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드려야 하는 합당한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현세에 동화되지 말고 정신을 새롭게 하여 여러분 자신이 변화되게 하십시오. 그리하여 무엇이 하느님의 뜻인지,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하느님 마음에 들며 무엇이 완전한 것인지 분별할 수 있게 하십시오.

-로마 12,1-2

독신생활의 위기?

독신의 삶이 위기에 처했습니까? 가톨릭교회의 독신생활이 위협을 받고 있다는 주장은 명백히 무례한 언사입니다. 세상에는 백만 명이 넘는 수도자와 성직자들이 있고 이들은 오랜 수련기간을 거친 후에 자유의지로 독신의 삶을 선택했습니다. 땅 위에서 살아가는 모든 인간은 한 분이신 스승을 따르라는 부르심을 받고 있으며 또 자신들만의 고유한 방식으로 이 부르심에 응답을 하지요. 독신의 삶은 주님을 더 가까이에서 따를 수 있는 수단 중 하나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동정을 지킨 사람들로써 여자와 더불어 몸을 더럽힌 일이 없습니다. 또한 그들은 어린양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가는 이들입니다. 그들은 하느님과 어린양을 위한 만물로 사람들 가운데에서 속량되었습니다.

-묵시 14,4

주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조언하셨습니다. “너는 이곳에서 아내를 얻지 말고 아들딸도 낳지 마라”(예레 16,2). 여러분은 저마다 하느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 부여받은 임무가 있습니다.

성경이 순결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

나는 여러분이 걱정 없이 살기를 바랍니다. 혼인하지 않은 남자는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해 드릴 수 있을까 하고 주님의 일을 걱정합니다. 그러나 혼인한 남자는 어떻게 하면 아내를 기쁘게 할 수 있을까 하고 세상일을 걱정합니다. 그래서 그는 마음이 갈라집니다. 남

편이 없는 여자와 처녀는 몸으로나 영으로나 거룩해지려고 주님의 일을 걱정합니다. 그러나 혼인한 여자는 어떻게 하면 남편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하고 세상일을 걱정합니다. 나는 여러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 말을 합니다. 여러분에게 굴레를 씌우려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서 품위 있고 충실하게 주님을 섬기게 하려는 것입니다.

-1코린 7,32-35

순결의 삶은 온전한 헌신과 전념으로 주님을 위해 살아가라는 초대입니다. 우리는 바오로 사도가 하느님의 열정으로 독신의 삶을 독려하고 있음을 읽습니다. 하지만 또한 바오로사도는 인간의 나약함을 알기에 솔직한 마음으로 두려움을 드러내지요:

나는 하느님의 열정을 가지고 여러분을 위하여 열정을 다하고 있습니다. 사실 나는 여러분을 순결한 처녀로 한 남자에게, 곧 그리스도께 바치려고 그분과 약혼시켰습니다. 그러나 하와가 뱀의 간계에 속아 넘어간 것처럼, 여러분도 생각이 미혹되어 그리스도를 향한 성실하고 순수한 마음을 저버리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2코린 11,2-3

**“우리는 바오로 사도가 하느님의 열정으로
독신의 삶을 독려하고 있음을 읽습니다.”**

수도생활에서의 순결은 가장 순결하신 예수님을 본받기 위해 혼인이 주는 즐거움의 희생을 요구합니다. 이는 마음을 다해 주님을 따르고 하느님의 크신 자애 속에서 사람들에게 봉사하라는 부르심인 것입니다(시편 86,11-12 참조).

독신생활은 그저 결혼을 하지 않는 삶이 아닌 하느님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성별의 삶입니다. 성별된 독신 또는 순결의 삶은 하느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은총의 삶으로 초대이지요. 성 토마스 아퀴나스는 말합니다. “순결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하느님을 위해 자신을 비운다는 뜻입니다. 하느님께서 언제든지 당신의 일에 쓰실 수 있도록, 자유로이 그분의 현존에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독신의 삶은 그 어떤 배타적인 인관관계 없이 모든 범주의 사람들과의 만남을 가능하게 합니다. 순결은 우리가 가지는 관계의 온전한 투명성

을 필요로 하지요. 독신의 삶을 사는 이에게 있어 비밀이나 사적인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순결 서약의 자기희생적 측면을 가벼이 여기게 되면, 분명 순결의 삶에서 오는 인간적 허무함을 채우기 위해 여러 가지 유형의 왜곡에 빠지게 됩니다. 이러한 왜곡에는 애완동물, 전자기기, TV 등의 사물을 향한 무절제한 집착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술, 컴퓨터 게임, 영화, 인터넷에 대한 중독의 형태로 드러나기도 하지요. 이는 순결의 삶에서 우리가 스스로를 비우기에 끊임 없는 기도생활로 하느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에 의해 충만해져야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루는 제가 순결 서약에 관해서 강론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직 예수님만이 순결한 삶의 유일한 모범이시라고 말했지요. 피정에 참여하고 있던 신부님들 중 한 명이 저의 나이를 물었습니다. 저는 32살이라 대답했고 저의 대답을 들은 신부님은 말했습니다. “순결에 대한 강론은 40살이 넘은 후에 시작하는 것이 더 좋다네. 예수님께서서는 하느님이셨고 고작 33살에 돌아가시지 않았는가. 위기는 33살 이후부터 찾아오는 법이거든.” 우리는 자주 예수님께서 온전히 한 사람의 인간으로 태어나셨지만 “당신 자신을 비우시어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필리 2,7)는 사실을 망각합니다. 분명 신부님이 말한 위기는 언제나 존재하지만 하느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은 이를 분명 극복할 것입니다.

두 수도자가 강을 건너하려고 했습니다. 한 젊고 어여쁜 여인 또한 강가에 서 있었지요. 여인은 강을 건너야 했지만 수심이 깊어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수도자 중 한 명이 여인을 들어 안아서 함께 강을 건넜습니다. 강의 반대편에 도착해서 두 수도자는 자신들이 가야 할 길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30분 쯤 뒤에, 다른 한 명의 수도자가 여인을 안고 강을 건넜던 수도자에게 말했습니다. “수사님, 어찌 그런 일을 하셨습니까? 우리에게도 여인을 바라보고 만지는 것이 허락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여인을 팔에 안고 강을 건너시다니요.” 여인을 안고 강을 건넜던 수도자가 대답했습니다. “음, 저는 강을 건너자마자 여인을 내려놓았는데, 수사님께서도 여인을 마음에서 내려놓지 못하시는군요. 저는 그것이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수도자가 순결 서약을 하는 이유는?

모든 서약은 그리스도를 더 많이 닮아가기 위한 것입니다. 수도자들은 또 한 명의 그리스도가 되라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한 수도자가 순결, 청빈, 순명의 서약을 하게 되면, 그 수도자는 순결하시고 가난하셨으며 아버지께 순종하신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 노력 합니다. 가장 거룩하신 하느님의 외아드님께서서는 완전하고도 절대적으로 당신의 아버지를 섬기는 삶을 세우셨지요.

“모든 서약은 그리스도를 더 많이 닮아가기 위한 것입니다.
수도자들은 또 한 명의 그리스도가 되라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한 수도자가 순결, 청빈, 순명의 서약을 하게 되면,
그 수도자는 순결하시고 가난하셨으며 아버지께 순종하신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 노력 합니다.”

어떻게 하면 순결의 서약을 지킬 수 있습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순결이 자기희생의 덕이며 수도자들이 이 덕을 서약하는 이유가 순결하신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임을 알아보았습니다. 순결 서약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순결함을 지키셨는지를 알아야 하지요. 예수님께서서는 아버지 하느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셨기에 순결을 지키실 수 있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요한 10,30). 순결 서약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우리 역시 하느님의 사랑을 충만해져야 합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지 않거나 충만해질 때 까지, 우리는 순결 서약을 지킬 수 없을 것입니다. 순결의 삶은 인간의 본성을 넘어서는 부르심입니다. 인간적으로 말하자면 불가능한 서약인 것이지요. 순결의 삶을 간절히 원하는 이라면 하느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길 부지런히 기도해야 합니다. 순결의 삶과 관련해서는 그 어떤 공허함도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감각적, 그리고 성적인 기쁨과 즐거움을 희생하는 것만이 순결의 삶을 유지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베드로 사도의 첫째 서간에서 우리는 읽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육으로 고난을 겪으셨으니, 여러분도 같은 각오로 무장하십시오. 육으로 고난을 겪는 이는 이미 죄와 관계가 끊어

진 것입니다.

-1베드 4,1

과거 몇몇 성인들은 순결을 천사의 덕으로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순결이라는 것이 천사의 덕이 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이지요. 천사들은 중성적인 존재들이기에 순결의 삶은 필수불가결한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인간은 성적인 존재이기에, 인간에게 있어 순결은 삶은 자기희생의 덕입니다. 바오로 사도는 가르칩니다. “그리스도 예수님께 속한 이들은 자기 육을 그 욕정과 욕망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갈라 5.24). 이 가르침은 주님을 더 열렬히 따르고자 하는 이들은 자신들의 육체를 그 욕정과 욕망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내가 하느님의 자비에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느님 마음에 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바치십시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드려야 하는 합당한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현세에 동화되지 말고 정신을 새롭게 하여 여러분 자신이 변화되게 하십시오. 그리하여 무엇이 하느님의 뜻인지,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하느님 마음에 들며 무엇이 완전한 것인지 분별할 수 있게 하십시오.

-로마 12,1-2

순결의 삶은 희생적인 측면이 크기 때문에 아무에게나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누군가 서약을 했기 때문에, 공동체가 그것을 요구하니까, 또는 장상이 이를 천명하니까 이라는 이유들로 순결의 삶이 완성되지 않습니다. 더욱이 절제와 금욕에 대한 훈련기간을 넘어서까지 계속해서 이어지는 덕이지요. 그렇기에 순결 서약은 한 사람의 내면에 있는 마음가짐에 관계됩니다. 누구든지 외적으로는 순결한 삶을 살고 있는 듯이 보이면서 생각과 감정과 느낌을 통해 완전히 순결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을 수가 있는 법이지요. 예수님께서서는 음욕을 품고 여인을 바라보는 이 또한 마음으로 간음한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마태 5.28 참조).

바오로 사도는 말합니다. “나는 내 몸을 단련하여 복종시킵니다.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나서, 나 자신이 실격자가 되지 않으려는 것입니다”(1코린 9.27). 바오로 사도는 자기희생 없이는 하느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이 불가능

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과 평화롭게 지내고 거룩하게 살도록 힘쓰십시오. 거룩해지지 않고는 아무도 주님을 뵈지 못할 것입니다”(히브 12,14).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순결 서약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저 위의 것들과 맞닿으려 노력해야 합니다.

위에 있는 것을 생각하고 땅에 있는 것은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죽었고, 여러분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느님 안에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콜로 3,2-3

여러분을 부르신 분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사람이 되십시오.

-1베드 1,15

순결의 삶을 지켜나가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순결의 삶을 지켜나가는데 가장 크게 걸림돌이 되는 것은 욕정의 죄입니다. 이는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이 저질러지는 죄이지요. 욕정은 성에 대한 과도한 갈망입니다. 욕정은 사람의 마음을 흐리고 정신을 약하게 하며 영혼을 노예로 만들어버립니다. 욕정에 빠진 이들은 온갖 종류의 성적인 욕망에 휩싸이게 됩니다.

네 명의 남자친구와 만남을 가졌던 한 여학생이 다섯 번째 남자친구를 사귀고 난 뒤에 저를 찾아왔습니다. 이 여학생은 자신이 남자친구를 사귀기를 원하지 않고 이들에게 상처를 받았음에도 사랑에 빠지게 되는 것 어찌지 못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학생은 벌써 몇 번의 낙태를 행했지만 여전히 남자친구들과 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학생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의 인도에 따라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욕의 욕망을 채우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욕이 욕망하는 것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께서 바라시는 것은 욕을 거스릅니다. 이 둘은 서로 반대되기 때문에 여러분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없게 됩니다.”(갈라 5,16-17) 욕정에서 난 것은 무엇이든 욕정을 품기 마련이기에, 성령으로 다시 태어날 때까지 우리는 욕정의 공격을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구약의 성조 요셉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요셉은 끊임없이 유혹받았지만 죄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 여자는 날마다 요셉에게 즐겼지만, 요셉은 그의 말을 듣지 않고,

그의 곁에 눕지도 그와 함께 있지도 않았다.

-창세 39,10

욥은 자신의 눈과 계약을 맺은 정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내 눈과 계약을 맺었는데 어찌 젊은 여자에게 눈길을 보내리오?

-욥 31,1

이 하느님의 사람들은 자기희생과 포기를 통해 유혹을 참고 견뎌냈습니다.

욕정은 어떻게 우리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까?

욕정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우리 안으로 들어옵니다. 다양한 경로 중에는 외설적인 것을 읽고 바라보며, 부도덕한 음악을 듣고 음란한 대화에 참여하며, 성적 무례함을 초래하는 다양한 형태의 수단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경로를 통해 욕정은 한 인간 안으로 들어옵니다

1. 조상
2. 부모의 욕망
3. 감각
4. 성적학대
5. 사랑의 부족
6. 혼외정사
7. 자위행위와 같이 성과 관련된 나쁜 습관

1. 조상

사람들을 간음, 성매매로 인도하는 무절제한 성적 욕망의 사례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치료와 상담을 받은 후에도 이들은 똑같은 함정에 빠집니다.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의학적 치유가 아니라 해방입니다. 이들의 족보를 유의 깊게 관찰하다보면 조상들 중에서 같은 어려움에 처했던 사람이 있었음이 드러납니다.

인도 정부가 운영하던 재활치료센터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이 여인은 과도한 성적 욕망으로 고통 받고 있었으며 성매매를 하다가 수차례 적발되었지요. 의사들은 호르몬 불균형이 문제라고 지적했지만 기

도들을 통해 여인이 간음의 소생이며 조상들 중에서 성매매를 했던 사람이 있었음이 드러났습니다. 이 같은 경우들에서 필요한 것은 의학적 치료보다 족보 안에서 오래도록 이어져 온 속박을 깨뜨리는 것이지요.

2. 부모의 욕망

어느 홀어머니가 흐느끼며 찾아와서는 자신의 외동딸이 말을 듣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딸은 대학교에 입학한 이후로 어머니의 말을 전혀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말대답을 하며 무례하게 굴었지요. 상처받은 어머니는 말했습니다. “딸은 제 삶의 전부였습니다. 딸을 위해서 재혼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딸은 저를 대학생 때 아이를 낳은 부주의하고 난잡한 여자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제게 반항하듯이 제 과거를 그대로 따라하며 ‘상관하지 마세요’라고 말을 한답니다. 저는 너무나도 크게 상처받았어요.” 주님께서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간음의 소생들은 크지 못하고 부정한 잠자리에서 생긴 자식들은 망하고 만다. 오래 산다 하여도 그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겨지고 결국은 나이가 많음도 그들에게는 영예롭지 못하다.

-지혜 3,16-17

욕정은 또 다른 욕정을 만들고 또한 쉽게 욕정의 먹이감이 됩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어머니와 함께 저를 찾아왔던 과잉행동장애 아동을 기억합니다. 기도 안에서 이 아이가 강제적인 혼외정사로 인해 태어났음이 드러났습니다. 시간이 흘러 아이의 부모는 서로 합쳐 살기 시작했지만 그 결합은 강제적인 것이었지요. 제대로 합의되지 않은 관계로 인해 생겨난 소생은 크지 못합니다(지혜 3,16-18 참조).

**“욕정은 또 다른 욕정을 만들고
또한 쉽게 욕정의 먹이감이 됩니다.”**

3. 감각

한 남학생이 자위에 중독이 되어 있었고 이를 극복할 수 없었습니다. 이 학생은 외설적인 것으로부터 눈을 돌리지 못했습니다. 특히 음란한 영화와, 사진, 잡지, 포르노에 중독되어 있었지요. 학생은 초등학교 2년 때부터 자위의 죄에 따지기 시작하여 성인이 된 지금도 이로 인해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통

해서 학생이 이발소에 걸려있던 벌거벗은 여인의 사진을 보게 된 이후로 죄에 빠지게 되었음이 드러났습니다. 학생의 제일 친한 친구가 학생을 이발소로 데려가서 그 사진을 보여주었던 것이지요. 욕정의 죄는 제일 먼저 눈을 통해 이 학생 안을 들어왔습니다. 학생이 예수님의 성혈로 눈을 씻어내기 전까지는 이를 극복할 수 없었던 것이지요. 학생은 예수님의 성혈 안에서 자신의 눈을 씻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신 안에 커다란 변화가 일어났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음란한 사진을 보게 되었는데도 그 즉시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리는 거룩하신 삼위일체 기도를 시작했던 것이지요. 거룩하신 삼위일체 기도는 성 빈센티안 수도회 소속이자 델리의 피정센터 관장인 마테오 엘라봄칼 수사신부님이 마련한 기도입니다: “아빠 아버지, 예수님의 성혈로 제 눈을 정화해 주시고 두 눈을 성령으로 채워주소서.” 이 기도를 매일 10번씩 바치면 여러분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4. 성적학대

한번은 49세의 여인이 찾아와서 해방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이 여인은 음란한 생각들을 멈출 수가 없었고 심지어 미사 중에도 야한 생각들이 계속 떠올라 여인을 괴롭혔습니다. 여인이 기도모임의 리더였음에도 악의 공격을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인은 제게 말했습니다. “신부님, 저는 이토록 악한 생각에 빠져 있는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럽습니다. 고해성사도 봤고 성체도 영했는데도 음란한 생각들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를 도통 모르겠어요. 너무 슬픉니다.” 성령께서는 저로 하여금 여인에게 어린 시절 성적학대를 당했던 적이 있었는지를 물어보게 하셨습니다. 여인은 13살이던 무렵 작은 아버지에게 성폭행을 당했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작은 아버지는 여인이 가장 신뢰하던 사람이었지만 여인을 여러 차례 성폭행 했던 것이지요. 그 이후로 여인은 작은 아버지를 결코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여인은 계속해서 작은 아버지를 향한 증오심을 가지고 있었고 심지어 작은 아버지의 장례식에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성령께서는 여인에게 미사에 참석할 때마다 작은 아버지를 상대로 품어 온 자신 안의 증오와 복수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 악마에게 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문이 열리게 되면 악마는 수많은 형태의 죄로 우리를 공격하지요. 이 여인의 경우 악마는 욕정을 통해 공격을 했던 것입니다. 여인은 작은 아버지를 용서하고 그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라는 조언을 얻었습니다:

주님, 저들에게 계속 자비와 구원을 베푸시고 저들이 기쁨과 자비를 누리며 일생을 마치게 해 주소서. -토빗 8,17

여인은 마침내 작은 아버지를 용서해주었고 그 순간 기적적으로 음란한 생각들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
악마에게 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문이 열리게 되면
악마는 수많은 형태의 죄로 우리를 공격하지요.”

5. 사랑의 부족

어머니의 사랑은 모유를 통해 아기에게 전달됩니다. 전문가들은 자궁 안에 있는 태아가 양수라 부르는 액체를 통해 영양을 공급받으며 성장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지요. 이 액체는 태아의 모든 생체기능이 성장하도록 돕습니다. 그리고 태아가 온전히 성장하는데 필요한 모든 영양소를 담고 있지요. 또한 양수는 어머니의 사랑을 전달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수에 포함된 성분들 중, 모유에도 같이 포함된 성분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아기가 모유 수유를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되면, 발육이 느려질 뿐만 아니라 사랑이 부족하다고 느끼게 되어 상처받기 쉬운 체질이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무절제한 성적욕망으로 발전해 사랑을 찾아 헤매게 만들 수 있습니다. 아기는 태어나는 순간 큰 소리로 울음을 터뜨립니다. 양수와 분리되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모유수유를 하는 순간 울음을 멈추게 되지요. 사랑과 보호를 느끼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술, 흡연, 약물 또는 다른 나쁜 습관에 중독되는 많은 사람들이 성장기의 특정 시기에 어떤 결핍이 있었으며 어머니로부터 충분한 모유를 받아먹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알코올중독자 재단은 술에 중독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머니의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애가는 이러한 상황에 처한 이들에게 한 가닥 빛줄기를 던져줍니다:

아, 황금은 어이 이리 빛을 잃고 순금은 어이 이리 변하였는가? 거룩한 돌들은 거리 모퉁이마다 흩어져 있구나.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 금으로나 값어치 매길 수 있던 그들. 아, 어찌하여 옹기장이 손이 빚어낸 질그릇처럼 여겨지는가? 승냥이들도 가슴을 헤쳐 제 새끼들에게 젖을 먹이건만 내 딸 백성은 사막의 타조처럼 매정하게 되어 버렸구나. 젖먹이는 목말라 혀가 입천장에 달라붙고 어린것들은 빵을 달라고 애원하건만 그들에게 한 조각 주는 이가 없구나. -애가 4,14

부모로부터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하게 되면 아이들은 버림받음의 감정을 가지게 됩니다. “나도 모르겠다”라는 문화가 형성되면, 버림받음의 감정은 사람을 자기 파괴적인 성향으로 인도합니다.

욕정의 죄 극복하기-실천적이고 헌신적인 조언

이미 언급되었듯이, 욕정의 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하느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져야 합니다. 또한 복되신 동정녀 마리아께 깊고 진실 된 기도를 드려야 하지요. 마리아께서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모든 이의 어머니십니다: “이분이 네 어머니시다”(요한 19,27). 어머니의 사랑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어머니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극히 거룩하신 예수님의 손으로부터 어머니를 건네받았습니다.

실천을 위한 단계

1. 관계, 대화, 여행에 있어 신중함을 기한다.
2. 규칙적으로 고해성사에 임한다.
3. 공동체기도와 나눔을 등한시하지 않는다.
4. 헌신적인 영성지도 사제를 찾아서 조언을 구한다.
5. 신앙이 약해지고 있음에 저항하고 있음을 깨닫는다면 당당하게 전근을 요청한다.
6. 매순간 예수님이 아닌 다른 누군가에게 정신이 팔려 있지는 않는지 살펴보고 모든 불필요한 대화를 중지할 수 있도록 기도한다.

욕정의 죄를 극복하는 처방전

1. 묵주기도
2. 십자가의 길 기도와 묵상
3. 저의 예수님, 죄 중에 저를 잉태한 부모님을 당신의 성혈로 씻어주소서. 오! 주님, 저를 당신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하소서. (매일 50번씩)
4. 저의 예수님, 저의 감각을 통해 들어온 욕정의 죄를 당신의 성혈로 씻어주시고, 제 모든 감각을 성령으로 채워주소서. (매일 50번씩)
5. 저의 예수님, 당신 수난과 죽음과 부활로 오랜 시간 감정과 상상과 기억과 사고와 악습을 통해 저를 지배했던 욕정의 죄를 씻어주소서. 욕정의 악한 영을 당신 발에 묶으시고 저를 당신의 사랑으로 채워주소서. (매일 50번씩)
6. 저의 예수님, 제 이마에 입맞춤 해주시어 당신의 사랑으로 저를 채우소서.

(매일 50번씩)

7. 기록하신 삼위일체기도

9장 기도의 힘

기도는 주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인생을 그분과 함께 한다는 뜻이지요. 그리고 주님의 사업에 참여한다는 것은 그분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든 하겠다는 뜻입니다. 기도를 하더라도 그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사랑으로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불타는 사랑이 곧 가장 위대한 기도입니다. 한번은 주님께 질문을 드렸습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할 때 가장 행복하십니까?” 주님께서는 즉시 응답을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나의 현존 안에 머무를 때란다.”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주님께서는 더한 축복을 내리시어 성경에서 하신 말씀을 계시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몫을 선택 하였다. 그리고 그것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루카 10,42). 나를 사랑해주고 방문해주고 말을 걸어주는 사람이 있을 때 우리는 행복을 느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나기 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셨으며 우리를 위해 당신의 목숨을 내어놓으신 가장 존귀하신 하느님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들 중 대다수가 많은 일에 정신이 팔려 기도를 등한시하면서도 주님께서는 행복해하실 것이라 생각하지만 이는 틀린 생각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당신 앞에 앉아 기도를 할 때 행복해하십니다. 기도야말로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그분의 뜻을 알기 위한 최고의 수단이지요. 바쁜 일상엔 기도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바쁘다는 말은 그저 핑계일 뿐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당신 앞에 앉아
기도를 할 때 행복해하십니다.”**

기도는 주님의 고통에 동참한다는 것을 의미 합니다

기도는 당신의 슬픔에 참여하라는 주님의 초대입니다. 어떤 이들이 기도하면 할수록 삶이 더욱 힘겨워 지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지요. 이들은 피곤함과

고통의 감정이 엄습해 옴을 깨닫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기도를 더 많이 할수록 주님께서는 우리의 충실함에 더 큰 신뢰를 보내시며 당신 고통의 일부를 나누어주십니다. 주님의 고통을 함께 나눈다는 것은 크나큰 영광입니다.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기에 고통이 우리를 과도하게 지배하도록 허락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고통을 받고 있는 순간 언제나 함께 하시며 응답에 늦으시는 법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라자로를 죽음에서 되살리시는 사화는 주님께서 응답하시는 시간에 대한 최고의 예시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라자로가 아프다는 소식을 들으셨지만 그를 찾아가지 않으셨음을 알고 있습니다. 라자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셨지만 그의 장례식에 참석하지 않으셨지요. 더욱이, 예수님께서 라자로가 죽은 지 사흘째 되는 날, 곧 그의 시신에 부패가 진행되기 시작했을 때 오셨습니다. 우리는 이 장면이 모든 일은 하느님의 계획에 따라 일어나며, 그분께는 때가 늦은 일이 있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세상에 증명하는 완벽한 순간임을 알고 있지요. 우리 삶 속에서 기도와 하느님의 계획은 결코 떨어질 수 없는 관계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삶을 보호합니다

우리 모두는 그것이 개인적인 것이든, 가족 또는 공동체의 것이든 간에 기도 문화를 만들어나가야 합니다. 기도 할 때, 우리는 주님의 보호를 받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함으로써 악을 정복하고 주님의 뜻과 우리와 우리 가족들 삶에 주시는 그분의 계획을 깨닫게 됩니다.

기도는 우리에게 인내의 덕을 길러줍니다

인내는 우리네 삶 속에서 가장 빠르게 사라져가는 덕들 중 하나입니다. 아주 작은 고통에도 하느님께 달려가 얼른 고통을 해결해 주십사고 청하는 우리들입니다. 도움이 빨리 오지 않으면, 우리는 자신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하느님께 반항을 하기 시작하지요. 기도를 멈추고 성당으로 달려가서 하느님께서 자신을 무시하신다고, 그분께서는 더 이상 우리를 사랑하지도 보살피지도 않으신다고 말합니다. 복수심에 불타올라 의도적으로 죄를 범하기도 하지요: 술주정뱅이 배우자와 이혼을 하고 고집스러운 자녀들을 방치해버리며 ‘신속히 일을 처리하는 신들’을 찾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행위들은 상황을 악화시킬 뿐이지요.

한 의사가 기도를 요청하며 저를 찾아왔습니다. 이 의사는 이탈리아 사람이었고 수많은 어려움을 안고 있었지요. 저는 그에게 평소에 기도를 하는지 물어보았습니다. 의사는 “신부님, 저는 매일 기도합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재차 물었습니다. “목주기도는 하십니까?” 의사는 대답했습니다. “목주기도를 바치진 않지만 하루에 성모송 한번은 꼭 바칩니다.” 하루에 성모송 한 번 바치는 그 짧은 시간에 주님께서 내려오셔서 우리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살피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다른 수사님은 저에게 매일 5분씩 기도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보다는 긴 시간을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서는 공생활 전에 광야에서 40일을 머무르시면서 당신께서 시작하실 위대한 일을 위해 기도하고 단식하셨습니다.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 예수님께서 자주 기도 안에서 아버지와 대화를 나누시며 밤을 지새우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요. 우리 모두는 주님이시며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성모송 한 번과 5분의 기도시간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중재자들과 함께 피정을 준비할 때마다 피정이 시작되기 오래 전부터 우리는 기도와 간청을 바칩니다. 주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피정으로 이끄시어 당신의 넘치는 사랑을 체험하고 삶에 온전한 회개가 일어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람들이 피정을 찾아오게 되면, 이는 그들 자신이 아닌 주님께서 이끄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들을 데려오시는 것이지요. 피정 첫날이 되어 막이 오르면, 참석자들이 도착을 하는 바로 그 순간에 주님께서서는 일상에서 벗어나서 5일 동안 바쁜 스케줄 속에서 너무 오랜 시간 기도하고 주님과 함께 해야 하기에 그곳을 떠나고 싶어 하는 그들의 생각과 감정을 드러내십니다. 자신들로 하여금 피정에 참석하게 만든 크고 작은 어려움, 버거운 짐들, 그리고 자신들이 주님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깨달음에도 불구하고 참석자들은 피정의 시간을 두려워하지요. 하지만 이들은 떠나지 않습니다. 이들을 데려오신 주님께서 성령의 힘으로 참석자들을 안정시키시고 피정이 끝나는 순간까지 자리를 지키게 해주시지요.

제가 뭄바이에 있는 피정 센터에서 직무를 수행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한 남자가 저에게 다가와서 연민에 찬 눈으로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신부님, 너무 무리하시는 것 같으세요. 일주일만이라도 이곳을 떠나 휴식을 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신부님께는 정말로 휴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2분만 시간을 내어서 제 얘기를 좀 들어주세요.” 그리고 나서 남자는 자신

이 봉착한 어려움들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남자에게 매주 피정센터에서 6개 국어로 진행되는 피정에 참석하라고 조언을 해주어줍니다. 하지만 남자는 일이 너무 바빠서 피정에 참여할 시간을 내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답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5일의 시간을 내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이었지요. 저는 말했습니다. “바쁘다(busy)는 것은 (B)eing:있음, (U)nder:아래에, (S)atan's:사탄의, (Y)oke: 멍에, 곧 사탄의 멍에 아래에 있다는 뜻입니다. 자신에게 닥친 질병과 주님의 도움이 필요한 어려움들을 한 번 보십시오. 그렇지 않습니까?” 그는 고개를 끄덕였고 저는 이어 말했습니다. “형제님은 시간을 내어서 저를 찾아왔지만, 저는 형제님의 어려움들을 결코 해결해줄 수 없습니다. 형제님에게 몇 가지 지침을 줄 터이지만 근본적으로 형제님을 구원하고 어려운 문제들에 답을 해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주님께서 문제를 해결 해주실 것이라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그분께서도 형제님에게 해주셔야 하는 말씀이 있고 형제님도 어려움의 뿌리가 되는 이유를 깨달아야 하지 않습니까? 저를 찾아올 시간을 낼 수 있다면 주님을 위해서도 충분히 시간을 낼 수 있습니다. 형제님은 지금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응답이 조금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말입니다.”

우리 모두 어려움이 닥치면 빨리 해결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어려움들을 해결해주시는 예수님의 ‘느린’ 응답을 기다리며, 대화도 안 되고 핸드폰도 안 되며 텔레비전도 볼 수 없는 곳에서 누가 5일 동안이나 있고 싶어 하겠습니까? 하지만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님의 자비를 인내하며 기다려야 한다는 사실 이 한 가지만은 확실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약속을 성취하시는 것이 ‘느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저도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서는 분명 약속을 지키십니다.

어떤 이들은 미루신다고 생각하지만 주님께서서는 약속을 미루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여러분을 위하여 참고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2베드 3,9

진정한 모범이신 예수님

예수님께서서는 언제나 끊임없이 기도하셨습니다.

그 무렵에 예수님께서서는 기도하시려고 산으로 나가시어, 밤을 새우며 하느님께 기도하셨다.

-루카 6,12

그리스도께서는 기도가 필요치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밤낮으로 기도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40일 동안 기도하고 단식하셨습니다. 세례를 받으실 때도, 모든 기적들에 앞서, 겐세마니 동산에서도, 십자가 위에서도, 그리스도께서는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 또한 다락방에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바오로의 회심과 관련해서 하나니아스도 주님으로부터 “지금 사울이 기도하고 있는데”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느 날 미사 후에 한 자매님이 저를 찾아와서 말했습니다. “신부님 미사는 너무 길어요.” 저는 말했습니다. “자매님의 말은 결국 예수님을 위해서는 시간을 낼 수도 없고 그분을 사랑하지도 않는다는 뜻이군요.” 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신학교 학장신부님이 독신생활의 위기에 대해 강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가로니 추기경님께서 학장신부님에게 말했습니다. “위기에 직면한 것은 독신생활이 아니라 기도생활일세!”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도 자신이 수많은 책에서보다 십자가 발치에 앉아 기도하면서 더 많은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고백했지요. 「그리스도의 모상」이라는 책에서 저자는 말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서 삼위일체 하느님을 슬프게 해드린다면, 삼위일체에 대해 토론하는 것이 아무 소용이 있겠습니까?” 돈 보스코 성인은 말했지요. “우리의 결점을 바로잡아주지 않는 기도는 하느님을 기쁘게 해드리지 못합니다.” 행복한 공동체 생활과 가족 영성을 위해 필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패트릭 페이튼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가족은 한 마음이 됩니다.” 수도원에서 일하는 직원들 중 한 사람이 급하게 수도원 장상과 대화를 나누려 했지만 도저히 그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경당에서 수도회 장상을 발견하자 직원은 놀라서 소리쳤습니다. “아빠스께서 이곳에 계실지 그 누가 상상이라도 할 수 있었을까요!” 평신도들이 자신들의 목자를 발견하는 곳은 사무실이 아닌 성전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결점을 바로잡아주지 않는 기도는
하느님을 기쁘게 해드리지 못합니다.”**

십자가의 요한 성인은 말했습니다. “아주 열정적으로 일하면서 자신들이 세상

을 개혁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일을 멈추는 것이 오히려 이득입니다. 이들이 일하는 시간의 반만이라도 기도를 한다면, 교회에 크나큰 도움이 되며 하느님을 진정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프란시스 모리악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하느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신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하느님의 응답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는 것이지요.” 빌리 그라함의 말은 유명합니다. “천국에는 기도를 귀찮아하는 사람이 없기에 기도들에 대한 응답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기도는 확실합니다. “청하여라 받을 것이다.” 청했던 것이 아니라면, 그보다 더 좋은 것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만조니는 말했습니다: “하느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이보다 위대한 사람은 없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 성인은 이렇게 말했지요: “기도는 영혼의 숨결입니다”, “하느님께서 모든 것을 주신다 할지라도 준비를 하십시오. 그분께서는 오직 청하는 이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받을 수 없는 것을 하느님께서 주시지 않도록, 기도 안에서 필요한 것을 청하십시오.” 수도생활을 접고 떠나려 하고 있던 수사 신부님은 말했습니다. “저는 공동체를 비난할 수 없습니다. 공동체는 저에게 모든 것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장상들도 비난할 수 없습니다. 모든 아빠스께서 저를 이해해주셨기 때문입니다. 비난을 해야 한다면, 그 대상은 바로 제가 되어야 합니다. 제가 기도를 멀리했기 때문입니다.”

무신론자이십니까?

여러분이 하느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기도 안에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그분께 할애하느냐를 통해 드러납니다. 하느님을 위해 전혀 시간을 낼 수 없다면, 어떤 핑계가 있든지 간에 하느님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치의 중요도에 따라 시간을 할애합니다. 우리의 시간 안에 하느님의 자리가 없다면, 이는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아무런 가치도 없는 분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에 시간을 할애합니다. 머리를 하고 옷을 고르며 신문을 읽고 누군가와 가벼운 대화를 나누며 하루에 세끼를 챙겨먹지요. 우리가 할애하는 시간들 속에 하느님의 자리가 없다면, 그분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하지 않는다면, 실질적으로 그대는 무신론자입니다.”

아벨라의 데레사 성녀는 말했습니다: “하느님을 찾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하나 있습니다. 기도가 바로 그것입니다. 기도가 아닌 다른 길을 가르쳐주는 이는 그대를 속이는 것입니다.” 사목을 시작한지 5년이 된 아주 활동적인 젊은 사제가 진이 다 빠져 버린 채 자신이 소속된 교구의 주교님을 찾아와 성직의 삶을 떠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주교님은 이 사제에게 “앞으로 일주일간, 이제껏 해오던 것보다 더 열성적으로 기도하십시오. 일주일 후에 신부님이 떠나는 것을 허락하겠습니다.” 일주일의 기도 후에, 사제는 주교님을 찾아와 사목을 계속 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 주교님은 훗날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이 되신 크라쿠프교구의 카롤 보이티와 대주교님이셨으며, 그 사제는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 재임시절 교황님의 비서 스타니스와프 지비시 몬시놀이었다고 지금은 크라쿠프대교구의 새로운 추기경님입니다.

“진실된 기도를 드리게 되는 순간, 요청을 들어야 하는 이는 하느님이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오히려 기도를 하고 있는 당사자가 들어야 합니다. 이를 깨닫는 이는 하느님께서 말씀해주시는 것을 들을 때까지 기도를 멈추지 않습니다.”(쇠렌 키에르케고르) “하느님께서서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 주시어”(요한 3,16)라는 말씀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무신론, 전쟁, 테러리즘, 거대한 착취, 불공정, 이혼, 살인, 낙태에도 불구하고 하느님께서서는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 간청하는 아브라함에게서 배웠듯(창세 18장) 이 세상이 기도에 의해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멈춤이 없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낙심하지 말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한다는 뜻으로 제자들에게 비유를 말씀하셨다”(루카 18,1). 예수님의 말씀처럼 낙심하지 않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비유에 등장하는 과부는 일상적인 수단-외모, 돈, 권력, 남편-이 부족합니다. 과부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끊임없이 조르는 것이었지요. 불의한 재판관이 귀찮아 할 정도로 말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이 과부처럼 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이 비유는 정말 명확하고 설득력이 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과부들이 사회의 가장 취약한 이들로 여겨졌습니다. 주님의 비유에서 과부는 적대자로부터 부당한 일을 당한 것이 틀림없습니다. 과부의 유일한 수단은 바로 그 지방의 재판관이지요. 하지만 이 재판관은 하느님도, 사람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불의한 사람이었습니다. 뇌물 등 과부가 결코 주지 못하는 것들에 의해 움직이는 부도덕한 인물이었겠지요. 이 재판관은 과부의 청을 들어주지 않고 미적댐으로써 자신의 독선을 자랑하고 행복해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과부의 끊임없는 간청으로 인해 마음이 약해져서 마침내 판결을 내려주게 되지요. 예수님께서 건네시는 가르침은 수정처럼 맑습니다: “하느님께서 당신께 선택된 이들이 밤낮으로 부르짖는데 그들에게 올바른 판결을 내려 주지 않으신 채, 그들을 두고 미적거리시겠느냐?”(루카 18,7)

얼마나 많은 질문을 가지고 있습니까?

직업이 없으십니까? 아기가 들어서지 않습니까? 집이 없으십니까? 희망도 없으시고요? 완전히 꺾여 버리신 것입니까? 자녀의 학비는 있으십니까? 빛이 많지는 않으시고요? 굶주림으로 힘겨워하십니까?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쉽게 포기하십니까? 주님께서 집회서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그분의 이름에 위엄을 드리고 그분을 찬미하며 그분께 감사하여라. 입술에 노래를 담고 수금을 타며 감사드릴 때 이렇게 말하여라. “주님께서 이루신 모든 위엄은 너무나 훌륭하고 그분의 모든 분부는 제때에 이루어지리라.” 아무도 “이게 무어냐? 어찌된 일이나?”고 말해서는 안 된다. 모든 것은 제때에 풀리기 때문이다. 그분의 말씀으로 물이 모여들고 그분의 말씀 한마디로 그 물이 저수지가 된다.

-집회 39,15-17

주님께서서는 지속적으로 기도하라고 가르쳐주십니다. 기도는 하느님과의 대화이자 거룩함과의 친교입니다. 친구들과 나누는 관계와 마찬가지로, 기도로 친교를 나누기 위해서는 시간과 노력과 희생이 필요합니다.

옆집에 사는 정신 나간 노파의 이야기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방식에 대해 알려주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조금은 다르게 말씀해주시길 바라지는 않으십니까? 주님께서 이처럼 이야기를 들려주신다면 같은 요점을 파악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겠지요? 진실로진실로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

립니다. 옛날 옛적에 무신론자의 옆집에 선한 노파가 살고 있었습니다. 노파는 매일매일 기도했고 무신론자인 젊은이는 그 기도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젊은이는 생각했습니다. ‘저 늙은 여자는 정신이 나가버린 것이 분명해. 어떻게 하루 종일 기도를 할 수가 있지? 하느님이 없다는 사실도 모르는 건가?’ 노파가 기도를 하고 있으면, 무신론자 젊은이는 옆집으로 가서 노파를 조롱하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왜 하루 종일 기도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느님이 없다는 사실도 모르시나 봐요?” 젊은이의 조롱에도 불구하고 노파는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루는 노파의 집에 식료품이 다 떨어졌습니다. 항상 그래왔듯이, 노파는 주님께 기도를 드리면서 상황을 설명 드리고 주님께서 앞으로 해주실 일에 대해 감사를 드리고 있었지요. 옆집에 있던 무신론자 젊은이가 이 기도를 듣고는 생각했습니다. ‘음, 내가 해결해줘야겠어.’

젊은이는 슈퍼마켓으로 달려가서 식료품을 한 아름 사들고는 노파의 집 문 앞에 두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덤불 뒤에 숨어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지요. 문을 열고 식료품들을 보자마자 노파는 너무나도 감격해서 사방으로 소리를 지르고 폴짝폴짝 뛰며 노래를 부르면서 주님께 찬양을 드렸습니다. 그때 무신론자 젊은이가 덤불 뒤에서 뛰어나와 노파에게 말했습니다. “이런 정신 나간 할머니 같으니라고! 이 식료품을 산 사람은 하느님이 아니라 바로 나예요!” 노파는 문을 열었을 때보다 더 크게 놀라서 밖으로 나가 길을 따라 뒤며 소리 높여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마침내 무신론자 젊은이가 노파를 따라잡아서 멈춰 세우고는 무엇이 문제인지를 물어보았지요. 노파는 대답했습니다. “주님께서 식료품을 주실지 내 이미 알고 있었다마다. 하지만 주님께서 악마를 시켜 식료품을 사오게 하실 줄은 몰랐단 말이지!”

10장 어머니 마리아

누구보다 신심 깊은 여인

예수님께서 복되신 동정 마리아를 신뢰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주된 이유는 바로 어머니 마리아의 신실함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모님을 위해 그 어떤 기적도 일으키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어머니 마리아께서는 아드님으로부터 그 어떤 특별한 호의를 받아보신 적이 없습니다. 복되신 동정 마리아께서는 예수님의 탄생부터 십자가 죽음까지 그 곁을 지킨 유일한 여인입니다. 또한 예수님께 그 어떤 호의를 받지 않고도 그분을 따랐던 유일한 여성이지요. 예수님으로부터 그 어떤 표징도 얻지 못했습니다(카나의 혼인잔치

에서 일어난 표징은 어머니 마리아가 아닌 신랑신부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성모님은 ‘외면받은’ 어머니였지만 그럼에도 마음이 넓고 믿음이 강한 여인이었습니다. 성모님의 친척 엘리사벳은 성모님을 믿음 때문에 복되다고 말했지요.

행복하십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으신 분!

-루카 1,45

**“성모님은 ‘외면받은’ 어머니였지만
그럼에도 마음이 넓고 믿음이 강한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빵의 기적으로 배불리 먹은 이가 만 명이 넘습니다. 주님께 치유 받은 나환자만 해도 10명이 넘지요. 많은 중풍병자들이 자리를 털고 일어났고 마귀 들린 사람들이 해방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위험에 처하셨을 때 이 수많은 사람들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주님께 도움 받았던 이들 중 주님을 도와드린 사람은 몇몇 여인들과 요한 사도를 제외하고는 그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도운 이들 중에서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죽음에 이르시는 그 순간까지 곁을 지키신 특별한 인물이지요. 성모님께서서는 주님의 여정에 동참하시고 골고타로 향한 길 위에서 십자가의 고통을 내면으로 짊어지시며 아드님이 숨을 거두신 십자가 아래에 서계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모님께서서는 구원의 협조자로 불리시는 이유입니다.

주님께서서는 어머니를 사랑하셨습니다. 어머니께서 세상 그 어떤 사람보다 신실한 여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존 포웰은 자신의 저서들 중 한 권에서 미켈란젤로가 성모님에 대한 헌사로서 만든 조각상에 대해 해석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조각상은 하느님의 뜻에 대한 성모님의 “응답”을 향한 찬사이기도 합니다. 조각상을 자세히 살펴보면, 성모님은 당신의 팔로 예수님을 붙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정이 가득 담긴 연민의 눈빛으로 아드님의 뚫린 몸을 응시하고 있지요. 미켈란젤로는 자신의 조각상을 “피에타”라고 불렀습니다. 피에타는 이탈리아어로 신실함 또는 충실함을 뜻합니다. 마리아께서는 하느님의 뜻에 “예”라고 응답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하느님의 뜻에 신신했지요. 그리스도 정신으로 무장한 사람은 주님께서 결코 성공이라는 단어를 말씀하지 않으셨고, 오직 피에타, 곧 “신실함”에 대해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복음의 시각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바라보게 되면, 하느님의 뜻을 향한 신실함이 성공의 진실 되고 영원한 왕관인 것입니다.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나

제가 가장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인은 복되신 동정 마리아입니다. 성모님께서서는 말이 아닌 삶으로 저에게 참 많은 것을 가르쳐주셨습니다. 저는 성모님이 가장 모범되시는 분이라 생각합니다. 그 어느 것에도 불평 한 번 한 적이 없으신 침묵과 신실함의 여인이시기 때문이지요. 저의 나약함을 알게 되었을 때, 제 자신이 모든 것에서 있어 성모님이 보여주신 모범으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저는 언제나 인정받고자 했고 사랑받으려 했습니다. 저를 사랑하는 사람들만 사랑하려고 했지요(루카 6,32-36). 성모님께서서는 관심이나 사랑에 개의치 않고 당신의 아드님께 신실하셨습니다.

어린 시절, 저는 저에게 아주 소중한 무언가를 잃어버린 적이 있습니다. 너무나 귀중한 것이었기에, 그것을 다시 찾던지 아니면 똑같은 것을 다시 사야했지요. 그 당시 저는 고작 9살이었기에 돈을 벌 수단이 없었습니다. 어머니에게 이 사실을 말씀드렸지만 어머니도 별 다른 수가 없으셨기에 저는 너무나도 슬펐습니다. 부모님은 어린 저에게 한 푼도 주지 않으셨습니다. 저희 가족이 다니던 본당은 바로 집 옆이었고 원죄 없이 잉태하신 성모님께 봉헌된 성당이었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무언가 필요할 때마다, 특히 잃어버린 것을 찾거나 우리가 시험을 치를 때, 그리고 삶의 장애물을 넘어야 하는 순간에 공통된 행동을 한다는 사실을 기억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어머니는 저를 성당으로 보내어 성모님께 초나 봉헌금이나 과일을 봉헌하게 하셨지요. 저는 어머니의 기도가 언제나 응답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요. 슬퍼하고 있던 저는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이 성모님뿐이라 생각하긴 했지만, 성모님께 봉헌드릴 초 값이 없었습니다. 저는 성모상 앞에 꿇어앉아 성모님께 말씀드렸지요. “가장 복되신 어머니 마리아님, 당신께서는 저를 아십니다. 저는 아주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성모님께 봉헌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소중한 것을 다시 찾을 수 있게 해주신다면, 죽을 때까지 매일 성모송을 다섯 번 바칠게요.” 기도를 마치자마자 저는 밖으로 나가서 그 물건을 찾게 되었습니다. 제가 물건을 잃어버렸던 바로 그 장소에서 말입니다. 저는 성모님께서 중재를 해주셨음을 깨달았습니다. 같은 자리에서 하루 종일 이 잡듯이 살펴보았음에도 찾지 못했는데, 성모님께 도움을 청한 그 순간 물건을 찾게 되었으니 말입니다. 저는 “Memorare(메모라레: 생각하소서-성 베르나르도의 성모찬미가)” 기도가 저의 삶 안에서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성모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그분께서는 제가 위험에 처한 순간 결코 저를 저버리지 않으시기 때문

입니다. 성모님께서서는 당신의 아드님을 향해 기울이셨던 그 신실함으로 당신의 죄 많은 아들인 저를 대해주십니다. 성모님께서서는 너무 선하시기에, 저는 공경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선물

당신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주님께서 주신 가장 아름다운 선물은 바로 당신의 사랑하올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우리들 중 그 누구도 100퍼센트 이타적인 어머니를 가지지 못합니다. 하지만 여기, 당신의 자녀들에게 온전히 헌신하시며 결코 시들지 않는 사랑을 주시는 어머니가 한 분 계시지요. 성모님께서서는 십자가에 달리신 당신 아드님의 “여인이시여,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라는 말씀을 받아들이신 그 순간에 전 우주의 어머니가 되셨습니다. 실제로 성모님의 삶은 당신이 전 우주의 어머니가 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깨닫는 오랜 여정이었습니다. 성모님께서서는 당신의 아드님이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는 순간까지 그분께 무조건적인 신실함을 보내주심으로써 이를 이루어내셨지요. 우리의 어머니께서는 당신의 삶을 통해서 아드님의 요구를 채우셨습니다. 주님께서서는 말씀하셨지요. “하느님의 뜻을 실행하는 사람이 바로 내 형제요 누이요 어머니다”(마르 3,35). 성모님께서서는 참된 겸손으로 하느님 뜻에 순종함으로써 당신 아드님의 위엄을 지켜주셨습니다.

**“성모님께서서는 십자가에 달리신 당신 아드님의
‘여인이시여,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라는 말씀을 받아들이신 그
순간에
전 우주의 어머니가 되셨습니다.”**

저는 왜 하느님의 어머니가 될 수 없나요?

어떤 여인이 저를 찾아와서는 성모님에게서 어떤 특별한 것도 찾아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당신네 가톨릭 신자들이 마리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단 한 가지의 이유는 하느님이 그녀를 구세주의 어머니로 부르셨다는 사실 하나예요. 만약 저도 그 부르심을 받았다면, 저 역시 하느님의 어머니가 될 수 있었을걸요. 성모님과 저 사이에 다른 것이 한 가지 있다면 성모님은 부르심을 받았고 저는 아니라는 점이에요.” 저는 여인에게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자매님은 하느님의 어머니가 되라는 부르심은 받지 않았습디다. 하지만 여전히, 그리고 지

금도 하느님께서서는 자매님과 세상 모든 자매님들이 하느님의 어머니가 되라는 부르심을 주고 있으시지요. 성모님께서서는 당신이 하느님의 어머니로 불리 자격이 있다는 사실을 당신의 삶을 통해 증명하셨습니다. 자매님도 하느님의 어머니가 될 수 있습니다. 자매님의 삶을 통해서 말입니다.”

내면의 아름다움이 외모를 결정합니다

증명사진을 찍은 남자가 인화된 사진을 보고는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왜 이렇게 원숭이처럼 나온 거야!” 옆에 있던 남자의 아내가 사랑스러운 눈길로 바라보며 부드러운 어조로 말했습니다. “사진을 찍기 전에 원숭이 같은 생각을 했으니 그렇게 나온 거예요.” 아름답게 보이길 원한다면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네 삶과 행동들 대부분이 외모에 반영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진실 된 얼굴이 곧 우리 자신을 위한 추천장이 될 수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책에서 읽었던 인터뷰 내용이 기억납니다. 60세가 넘은 여성이 인터뷰에 임하며 기자로부터 어떤 화장품을 어디에 사용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여성은 교훈적이며 동시에 감동적인 대답을 했지요. “입에는 진실을, 목소리에는 기도를, 눈에는 연민을, 손에는 자선을, 몸에는 올곧음을, 마음에는 사랑을 칠하지요.”

한 아버지가 십대인 딸이 누군가로부터 예쁘다는 말을 듣자 딸에게 말했습니다. “저 사람들은 그저 너의 젊음만 칭찬할 뿐이란다. 16살이라는 나이에 예쁘다는 말을 듣는다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인거지. 하지만 만약 네가 60살에 아름답다는 말을 듣는다면, 이는 너의 영혼을 칭찬하는 말이란다. 그 순간이 찾아온다면 그 아름다움을 맘껏 자랑하고 사랑받으렴.” 복되신 동정 마리아께서는 당신의 영혼으로부터 발하는 아름다움을 지니셨습니다. 하느님의 뜻에 전적으로 동의를 드리는 신실함으로 일군 내면의 강함과 그 아름다움으로 성모님께서서는 구세주의 어머니가 걸어야 하는 기쁨과 슬픔을 견뎌내실 수 있으셨지요.

**“아름답게 보이길 원한다면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결코 뺨내지 않으신 어머니

예수님께서 당신 공생활 첫 번째 표징을 일으키신 카나의 혼인잔치에서, 성모님께서 손님을 위한 와인이 떨어졌다는 사실을 알아채십니다. 어머니는 재빨리 예수님께 가서 포도주가 바닥났음을 말씀드리지요. 그리고 일꾼들에게 예수님이 시키는 것은 무엇이든 하라고 일러두십니다. 그 후에 성모님께서 뒤로 물러나시고 복음서는 성모님에 대해 그 어떤 언급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너무나도 많은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어머니 마리아께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청을 주님께 곧바로 드리라고 가르치십니다. 주님만이 상황을 변화시키실 힘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고충을 사방팔방으로 떠벌리지 말고 주님께로 바로 달려가면 주님께서 분명 우리에게 최선의 길을 보여주시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표징을 드러내신 후, 그것이 성모님의 중재로 인해 일어났다는 사실을 그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이 상황을 구해내신 것에 대한 그 어떤 기립박수나 열렬한 환호도 없습니다. 누군가에게 영광이 주어졌더라면, 그 영광은 하느님, 곧 예수님께 돌아갔을 것입니다. 어머니 마리아께서는 그 어떤 공로도 얻지 않으십니다. 시의적절하고 현명한 중재에 대해 주어지는 칭찬도 없습니다. 성모님과 반대로, 아주 작은 일 하나라도 온 세상이 알아주기를 바라는 우리입니다. 인정받고 눈에 띄고 싶어 합니다. 성모님께서 당신 예수님의 어머니고 예수님이 하느님의 아드님이라는 이유만으로 아들에게 특별한 호의를 요청하지 않으셨습니다. 당신 자신을 위한 호의가 아닌 이웃을 위한 호의를 요청하셨고, 이로써 성모님께서 최고의 중재자가 되셨습니다.

가톨릭 신자들이 성모님을 천국의 가장 힘 있는 중재자로 인식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모님의 아드님께서 성모님을 극진히 사랑하시기에, 어머니께서 지상의 자녀들을 위한 그 어떤 요청을 드리더라도 예수님께서 이를 거절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와 동시에, 어머니 마리아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이 드리는 청을 결코 못 보신 척 하지 않으실 것이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음이 가까운 것을 아시고는 당신 스스로 어머니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 사도에게 “이분이 네 어머니시다”하고 말씀하셨으며, 어머니께는 “여인이시여,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 사도는 그 당시에,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전 인류를 상징하는 인물이지요.

589년에 유럽 전체가 전염병에 휩싸였고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로마 또한 치명적인 피해를 입었지요. 매장을 할 엄두도 못 낼 만큼 시체

들이 쌓여만 갔습니다. 그 당시 교회의 수장은 대 그레고리오 교황님이었습니다. 교황님은 모든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고 단식하며 참회하도록 명했습니다. 하지만 전염병은 더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교황님은 성모님의 중재로 눈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모든 이를 모아서 그들의 손에 성모님의 성화를 들게 한 채 다 같이 행렬을 시작했지요. 얼마 지나지 않아 전염병은 사라졌고 슬픔과 고통의 울음소리는 기쁨과 감사의 노랫소리로 바뀌었습니다.

침묵 속에서 고통 받는 이

많은 이들이 하느님의 어머니로서의 동정 마리께서 생전에 꽃길만 걸으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주님이시며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하고 이 세상에서 가장 고통 받은 이가 있다면, 그 사람은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이실 것입니다. 우리는 복되신 동정 마리아의 슬픔을 깎아내리고 그분을 그저 복되신 여인으로만 바라보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결코 쉽지 않았던 성모님의 생애를 어머니의 손을 잡고 함께 걸어 가보는 것이 우리에게는 아주 중요합니다. 성모님께서는 일곱 가지 고통(슬픔)의 순간을 살아오셨다고 합니다.

1. 시메온의 예언(루카 2,34-35)
2. 이집트로의 피신(마태 2,13-14)
3. 성전에서 아기 예수님을 잃어버림(루카 2,43-45)
4. 십자가 길 위에서 예수님과의 만남
5. 십자가 죽음
6. 십자가에서 내려진 예수님의 시신을 품에 안으심
7. 예수님의 매장

어머니 마리아께서는 침묵 속에 고통 받는 이였습니다. 자신이 세상을 구원할 이의 어머니가 될 것이라는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을 때, 성모님은 요셉과 약혼한 사이였습니다. 유대인의 전통에 따르면 여인이 결혼 전에 임신을 하는 것은 율법에 어긋나는 일이였습니다. 결혼 전에 임신한 여인은 돌에 맞아 죽는 사형에 처해져야 했지요. 어머니 마리아께서는 성령의 힘에 의해 잉태하게 될 것이란 말씀을 들었습니다. 성모님이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지요 - 임신한 사실이 발각되어 돌에 맞아죽는 상상과 약혼자인 요셉에게 이 모든 일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에 대해서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이 모든 걱정에도 불구하고 성모님께서는 소식을 전하러 온 가브리엘 천사에게 “하느

님께서는 불가능한 일이” 없으시기에 말씀하신 그대로 당신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대답하셨습니다. 어머니 마리아께서는 하느님께서 자신을 통해 이루 시려는 계획을 받아들이셨던 것입니다. 성모님은 이 소식을 그 누구에게도 알 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 모든 것이 무슨 뜻일까 곰곰이 생각하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말씀을 마음속에 잘 간직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하느님의 손에 맡 겨드렸지요. 성모님이 침묵을 지키는 동안 정말로 하느님께서 돌보아주셨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요셉에게 당신의 천사를 보내시어 약혼녀인 마리아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무엇 때문에 성모님을 “여인”이라고 부르셨을까요?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너와 그 여자 사이에, 네 후손과 그 여자의 후손 사이에 적개심을 일으키리니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에 상처를 입히고 너는 그의 발꿈치에 상처를 입히리라.” 이는 복되신 동정 마리아의 생애에 대한 예표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머니를 ‘여인’으로 부르시는 두 가지 사 화를 우리는 찾을 수 있습니다. 바로 공생활 초기와 죽음에 임박하셨을 때이지요. 예수님께서서는 당신 삶의 가장 중요한 순간에 성모님을 ‘여인’으로 부르셨 습니다. 이를 통해 사람들은 예수님의 어머니가 일반적인 여인이 아닌 창세기 에서 예시되어진 여인임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성모님이야말로 악마의 머리를 부서뜨리는 후손을 낳을 유일한 여인이시라는 것을 말입니다. 성모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성모님을 여러분의 어머니로 받아들이십시오. 주님께서서는 첫 여 인이었던 하와의 불순종으로 인해 죽음이 세상에 들어왔고 어머니 마리의 순 종으로 생명이 세상에 들어왔음을 드러내길 원하셨습니다. 모든 어둠을 몰아내 는 참된 빛을 세상에 모신 우리의 어머니를 공경하십시오.

“그러나 전능하신 주님께서서는 그들을 여자의 손으로 물리치셨다”(유딧 16,5). 유딧기는 악한 왕의 계획을 뒤엎어버리는 한 여인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우리 는 이 또한 복되신 동정 마리아의 예표라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어머니께서는 침묵 속의 고통을 통해 악마의 속임수를 뒤엎으셨습니다.

원죄 없으신 잉태

복되신 동정 마리아의 원죄 없으신 잉태 교의는 1854년 12월 8일, 비오 9세 교황님에 의해 장엄하게 선포되었습니다. 이는 루르드에서 성모님께서 발현하

시기 4년 전입니다. 성모님의 무염시태에 대한 신심은 초대 그리스도교 시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 신심은 성모님께서 예수님을 잉태하실 때 죄에 물들지 않으셨음을 그 골자로 하지요. 다르게 표현하자면, 성모님께서서는 원죄의 사슬에 묶이지 않으신 채 태어나셨으며 당신의 전 생애가 죄에서 자유로우셨다는 뜻입니다.

원죄 없으신 잉태 교의와 관계되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루르드에서 살고 있던 베르나데트 수비루라고 하는 14세 소녀에게 성모님께서 발편하신 이야기입니다. 성모님께서 베르나데트에게 나타나셔서 당신을 원죄 없이 잉태한 여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858년에 베르나데트는 예수님의 어머니 성모님의 발현을 목격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이 발현은 프랑스 루르드라는 마을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마사비엘 동굴 근처에서 일어났습니다. 처음에 이 보고를 들은 교회의 지도자들은 이를 비웃었습니다. 베르나데트가 더 많은 발현에 대해 보고를 하자 그녀를 벌하겠다고 위협을 가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발편하신 성모님께서 베르나데트에게 땅을 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르나데트는 그 말씀에 순종했고 땅을 판 곳에서 샘물이 솟아올랐습니다. 곧이어 그 샘물에서 기적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던 한 사람이 그 샘물에서 씻고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한 어머니가 소아마비에 걸린 아들을 데려와 샘물에 씻기자 24시간이 지나지 않아 아이가 정상이 되었죠. 베르나데트가 숨을 거둔 후 일년 뒤에 소아마비에서 치유되었던 그 아기가 77세의 노인이 되어 베르나데트의 시성식에 손님으로 초대를 받았습시다.

오늘날까지 1800건의 놀라운 치유가 루르드 의무국의 차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치유들은 모두 20개 이상 되는 분야와 각기 다른 종교를 가진 전문 의사들로 구성된 국제 의학 팀에 의해 증명이 되었습니다. 가장 최근에 일어났고 또한 가장 놀라운 치유 중의 하나가 1970년대 후반에 일어났습니다. 이탈리아에서 온 23살 청년 비토리오 미첼이 그 주인공이었습니다. 이 청년은 골수암에 걸려있었고 의사도 회복의 가망이 없다고 판단했었습니다. 절망 속에서 친구들과 가족들은 미첼을 루르드로 데려왔습니다. 미첼은 엉덩이부터 발끝까지 깁스를 하고 있었습니다. 친구들과 가족들은 샘물에서 미첼의 몸을 씻겨주었습니다. 일주일이 채 되지 않아 고통은 사라지고 뼈는 회복되었습니다. 지금 비토리오는 아주 건강하게 잘 살아가고 있지요.

복되신 동정녀께서 어떻게 하느님의 어머니이실 수가 있는 것이죠?

복되신 동정녀께서는 하느님의 어머니로 불리십니다. 왜냐하면 참 인간이시며 참 하느님이신 어머니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성모님은 “내 주님의 어머니”라고 불리셨지요(루카 1,43). 가톨릭 교회가 아닌 성경, 곧 하느님의 말씀이 마리아를 하느님의 어머니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가득 찬 엘리사벳은 ‘마리아는 하느님의 어머니’라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앞서 언급했듯, 복되신 동정녀께서는 우리의 어머니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에게 당신의 어머니를 맡기셨기 때문입니다(요한 19,27 참조). 예수님의 형제자매로서 우리는 “나머지 후손들”입니다(목시 12,17;가톨릭 교회 교리서 508, 2687 참조). 가톨릭교회는 성모님께 커다란 신심을 드러냅니다. 예수님께서 성모님께 큰 사랑과 애정을 보이셨기 때문입니다(에페 6,1).

예수님을 부수지 않는 한 성모님의 손끝 하나도 건드릴 수 없습니다!

성상 파괴자들이 모든 성상을 부서뜨리기 위해서 성당으로 몰려갔습니다. 이들은 아기 예수님을 안고 있는 성모님의 조각상을 부수기 위해 한 성당으로 들어갔고 그 곳에서 나이든 여인이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지요. 여인은 이들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예수님을 부수지 않는 한 성모님은 손 하나 댈 수 없다, 이놈들아!” 주님의 어머니를 향한 신심은 가톨릭 신앙의 중추적인 부분입니다. ‘성모님과의 만남 끝에는 언제나 예수님과의 만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바오로 6세 교황). 성모님은 거울이자 프리즘과 같습니다. 먼저, 성모님은 거울이십니다. 예수님의 얼굴을 반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모님께서서는 프리즘이십니다. 예수님의 빛을 다양한 색채로 굴절시켜서 순종, 겸손, 사랑, 희생정신이라는 그분의 덕을 비춰주시기 때문입니다.

가톨릭 신자인 소년이 개신교의 기도모임에 참석했습니다. 모두가 이 소년을 따뜻하게 맞아주었지요. 목사님은 이 귀여운 꼬마 참석자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꼬마 신자의 기도를 드려 보자구나.” 우리의 꼬마 가톨릭 신자는 자신이 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속도로 ‘주님의 기도’를 외웠습니다. 너무 빨리 기도문을 외는 바람에 어느덧 성모송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버리게 되었습니다. 목사는 기도를 끊고는 소년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마리아에 대해서는 듣지 않아도 된단다. 사도신경을 외자구나.” 소년은 다시금 속도를 내어 사도신경을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어..”부분에 이르러서는 기도를 멈추고 목사님을 바라보며 말했지요. “목사님, 성모님이 여기서 또 나오시는데요?” 맞습니다. 성모님께서서는 우리 신앙 안에서 당신의 아드님과 깊이

엷혀 계십니다.

“성모님과 만남 끝에는
언제나 예수님과 만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분의 아드님과 제가 참 많이 다르거든요!

구두담이 소년이 뉴욕의 그랜드 센트럴 역에서 자리를 잡고 일하고 있었습니다. 손님의 구두를 닦으며 팔을 흔들자 소년의 목에 걸린 은색 메달이 춤을 추듯 흔들렸지요. 손님은 호기심에 가득차서 소년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이봐 꼬마친구, 목에 무엇을 그렇게 매달고 있는 것이지?” 소년은 대답했습니다. “예수님 어머니의 메달이에요.” 남자는 말했습니다. “왜 어머니의 메달이지? 그녀는 너의 어머니와 별반 차이가 없는 사람이지 않니?” 소년은 대답했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그분의 아드님과 저는 정말 엄청나게 다르거든요!”

모든 성별된 이들의 여왕

미켈란젤로의 걸작인 피에타를 바라보면, 어머니 마리아께서 죽은 아들의 어머니치고는 상당히 젊은 여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누군가 미켈란젤로에게 이에 대해 불만을 제기했지요. 미켈란젤로는 대답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시는군요. 순결한 여인들이 그렇지 않은 여인보다 더 오래 젊음을 유지하는 법입니다. 성모님께서서는 죄가 없으셨지요. 일말의 부정함도 없으셨습니다. 그러니 언제나 젊으신 것입니다”(F.H.드링크워터). 성녀 마더 데레사는 말했습니다. “어머니 마리아의 마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하십시오.”

아버지의 선택을 받은 마리아

어느 주교님이 강론을 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복되신 동정 마리아께 불만이 있다면, 하늘에 계신 아빠 아버지께 말씀드리십시오. 하느님의 어머니가 될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마리아를 택하신 분은 바로 하느님 아버지이십니다. 가장 거룩하신 아버지께서 마리아에게서 그 어떤 잘못도 발견하지 않으셨는데 누구라고 그분에게 불만을 품는 것입니까?

성모님이 구원사업에서 그 어떤 역할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

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하느님의 계획에 대해서 완전히 무지한 것입니다. 하느님의 아들이 여인에게서 태어나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죄에 물든 인간을 회복시키기 위해 오신 두 번째 아담이셨습니다. 첫 번째 아담이 여인에게서 나지 않았듯이, 두 번째 아담께서도 여인에게서 나지 않고 세상에 오실 수 있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실 준비를 하기까지 성모님께서서는 그분을 받아들이셨고, 사랑하셨으며, 보살피셨고, 젖을 먹이시며 그분을 키우셔야 했습니다. 당신의 아드님이 여인에게서 태어나고 우리의 구원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통해 오는 것이 바로 하느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어머니 마리아가 가지는 역할의 중요성을 폄훼하는 것도 모자라 아예 무시하기까지 합니다. 성직과 수도 성소가 감소하고 가족의 유대가 약화되는 현상은 하느님의 어머니께 대한 신심이 약해지고 있는 것과 정확히 일치하고 있지요.

첫 번째 원자폭탄 투하로 인해 히로시마가 쑥대밭이 되었을 때, 오직 하나의 집만 폐허로 변하지 않았습니다. 폭발이 있었던 지점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에 있던 모든 사람이 죽음을 맞이했지만 그 집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살아남았지요. 휴버트 쉬퍼 신부님도 살아남은 사람들 중 한명이었습니다. 수백 명의 전문가와 조사관들은 폭발 지점으로부터 고작 여덟 구역밖에 떨어지지 않았던 그 집이 형체도 없이 사라진 다른 집들과 어떤 차이가 있었기에 멀쩡했는지 그 이유를 파헤치고자 수년에 걸쳐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쉬퍼 신부님은 다른 점이 오직 한가지라고 확신하듯 말했습니다. 그 집에서 매일 공동체 묵주기도를 바쳤다는 사실이 다른 점이라고 말합니다. 그 집에 살았던 이들은 파티마의 메시지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지요.

에필로그

“나에게 오는 사람을 나는 물리치지 않을 것이다”(요한 6,37). 이는 주님의 약속입니다. 주님께서는 언제나 당신께서 하신 모든 약속에 충실하신 분이시지요. 주님이시야말로 당신 종들의 평화를 진정으로 좋아하는 유일한 분이십니다(시편 35,27 참조). 우리가 슬픔에 빠져있으면 그분께서도 슬퍼하십니다. 우리가 완전한 평화를 누리도록 보살피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의 선함이나 악한 경향에 상관없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분의 사랑은 조건도, 제약도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늘 우리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시지요.(예레 31,20) 이 책을 쓴 목적은 주님께서 선하시고 자비로우시며 연민이 가득하시고, 전능하시며 위대하시고 사랑이 넘치시며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를 보살피신다는 진실을 독자들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시는 분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온전한 사랑이시며 자비 그 자체이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집회서의 가르침대로 언제나 그분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말로 이야기해도 미치지 못하니 ‘그분은 전부이시다.’ 할 수밖에 없다. 무슨 힘으로 그분께 영광을 드릴 수 있을까? 사실 그분께서는 그분의 모든 업적보다 위대하시다. 주님은 두려우시고 매우 위대하신 분이시며 그분의 권능은 놀랍다. 주님께 영광을 드리고 그분을 높이 받들어라. 아무리 높이 받들어도 그분께서는 그보다 더 높으시다. 그분을 높이 받들 때 네 온 힘을 다하고 지치지 마라. 아무리 찬미하여도 결코 다하지 못한다. 누가 그분을 뵈고 정확하게 묘사할 수 있으며 누가 그분께 맞갖은 찬양을 드릴 수 있겠느냐? 이러한 것들보다 큰 일들이 많이 숨겨져 있으니 우리는 그분의 업적 가운데 조금만을 보았을 뿐이다. 정녕 주님께서 만물을 만드셨고 경건한 이들에게 지혜를 주셨다”(집회 43,27-33).

저를 사제의 길로 불러주신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모든 영광과 영예와 찬양과 흠숭을 드립니다. 저를 신뢰하시고 당신의 종으로 만들어 주신 하느님께 감사 드릴 뿐입니다. 저는 이 책을 읽게 될 모든 이들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전능하신 이름으로 복을 받고, 용서 받으며, 치유되고, 해방되기를 부지런히 기도합니다.

안토니 파란키말리 [다른 이름- 쉬부 세바스티안] 박사 신부는 1978년 5월 20일에 태어났으며, 인도에 있는 빈센트회에 속한 사제이다. 그는 2004년 12월 28일에 사제서품을 받았으며, 뭄바이[Mumbai]에 있는 Tabor Divine 피정센터에서 첫 소임을 시작하였다. 그런 다음 그는 케냐[Kenya]로 가서 다양한 직책을 맡게되었다. 첫번째로 빈센트회 신학부 학생들의 학장, 다음으로는 레빙톤[Lavington]에 있는 빈센트회 기도의 집 책임자 그리고 2010년부터 티카[Thika]에 있는 빈센트회 피정센터의 책임을 맡고 있었다.

케냐[Kenya]dptj 8년의 사목후 로마로 가서 성 안젤모[Angelicum University]대학에서 영성신학 석,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그는 뉴저지[New Jersey]에 있는 하느님 자비의 기도의 집에서 부 관리책임자 그리고 영국[UK] 달링톤[Darlington]에 있는 가르멜 디바인[Carmel Divine] 피정센터의 책임자로서 일하였다.

최근에 그는 엔테베[Entebbe] 에 있는 빈센트회 피정집 책임자이며 장상이다. 그리고 우간다[Uganda]에 있는 키수비[Kisubi]대학의 시간강사로서 일하고 있다. 그는 또한 르완다[Rwanda], 키갈리[Kigali]에 있는 새로운 디바인 피정센터를 시작하려고 준비하고 있다.

그는 몇권의 영적서적의 저자이다. "You are not Rejected[그부 당하지 않은 그대]" 영어, 불어, 독어, 스와힐리어, 한국어, 키카암바, 킨야완다. "Why Turn to JESUS[예수님께로 돌아서야 하는 이유]" 영어, 한국어. "Christ is All[그리스도는 모든 것]" 영어, 루간다, 불어에서 베스트 셀러. "All Glory to Jesus[모든 영광을 예수님께]" 영어로 된 찬송가. 그는 3가지 음악 앨범을 출시하였다. 즉 "모든 영광을 아버지 하느님께, 묵상과 함께 드리는 자비의 묵주기도[키외힐리], 묵상과 함께 드리는 묵주기도[영어]. 그는 최근에 새로운 책을 집필하고 있다. "겸손에 관한 모든 것: 성녀 파우스티나 코왈스키[St. Faustina Kowalska]의 생생한 영성."

그는 또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 미국, 호주, 유럽, 중국, 한국, UAE, 바레인, 싱가포르 및 대부분의 아프리카 대륙을 포함한 5개대륙에 광범위하게 여행을 하였다.

ISBN: 978-9966-7491-0-9



9 789966 749109